

## 51. 신회사의 첫 임원회의 개최(10월 9일)

10월 9일 오후 6시부터 가계츠(花月) 본점에서 신회사로는 처음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사 경영의 수뇌부인 상무역의 나카다 세이고 씨는 도쿄에 가 있어 9월 19일 발기인총회에도 결석했기 때문에 사장과 각 임원이 정식으로 만날 필요가 있었다. 또 기계 사정의 대임을 맡은 요코다 다쓰유키 씨도 그 날 밤은 출석하고 총독부의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망하였다.

그날 밤 다나카 사장은 신회사의 고문으로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이와사 시게이치 양 씨를 천거하고 또 회사 창립에 진력한 방대영 씨도 같이 상담역에 취임을 바란다 하여 이사 전체의 찬성을 구하고 이의 없이 결정되었다.

(상설관 업주 초대회) 그리고 12월 7일에는 경성부 내의 상설관 경영자의 초대회가 기라쿠(喜羅久)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부내의 유력한 영화관 업주 거의 전부와 조선영화배급사 관계 간부도 출석하였다. 대체적인 목적은 '조선뉴스'의 상영에 관한 것으로 다나카 사장의 인사가 있었고 흥행연합회의 후의로 성회를 이루었다. 이 무렵부터 '조선뉴스'의 전관 상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 52. 사장의 전 사원 초대회(10월 11일)

정식으로 제1회 채용이 결정된 조선 측 영화인과 회사 수뇌부의 회견은 나카다 세이고 씨가 상경 중 이어서 연기되었다가 10월 8일 나카다 씨가 돌아왔으므로 10월11일(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경성부민관 대식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사장 다나카 사부로 씨, 상무이사 촬영소장 나카다 세이고 씨, 상임감사 곤도 랭이치 씨가 출석하였고 사원은 제1회 채용이 결정된 109명이 희망찬 모습으로 출석하였다. 정각에 국민의례 후 다나카 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장 선임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나카다 세이고 씨는 인후에 병이 나 힘든 가운데에도 정성을 다한 일장 훈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전 사원의 감격을 대표하여 저자가 답사를 하였다.

뒤돌아보면 다수의 조선 영화인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악전고투하여 겨우 금일에야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사원 제군도 이에 크게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긴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또 이번에 출석한 많은 영화인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하고 답사를 하는 저자의 눈에서도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이어서 사장 초대의 회식이 이어져 평화로운 한 때를 보냈다. 끝나고 회사를 위한 만세삼창을 하였다. 이에 당일의 감격에 찬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해 저자가 읽은 답사를 게재 하겠다.

(답사) 이번 본사에 채용된 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염원하는 진정한 일단을 피력하여 사장님 및 나카다 상무님에게 진심으로 경모(敬慕)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원이 라 해도 종래의 영화계와는 관계없이 새롭게 입사한 분도 있고 또 일본의 영화계에서 조선영화의 약진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위해 조선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나는 오늘 이 분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기보다 단지 오늘까지 힘든 환경에서 기복이 많은 10년 동안 오늘을 기다려온 우

리들의 마음의 친구, 업무상의 친구를 대표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 상무님께서 다망한 가운데 저희 일동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과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혼시를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선영화의 통제문제가 거론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다나카 사장님께서 정식으로 본사 창립의 내명을 받으신 것은 정확히 올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이 어려운 사업을 그것도 자본금 200만 엔으로 조선의 재계 실업계의 거물들을 망라하여 실현시킨 다나카 사장의 노력과 절대적인 신망에 대해 깊은 경의와 경모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그 노고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포함합니다. 또 상무이사 겸 촬영소장으로서 실제로 조선영화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며 또 우리 사원의 아버지나 형으로 우러러 모시는 나카다 세이고 씨의 일본영화계에서의 찬연한 족적은 우리 반도 영화인들이 존경하기도 송구스러울 정도이지만, 장래의 스승이나 아버지로 따르며 미력을 다할 결심이므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일본 일류의 영화회사와 같은 조직화된 스튜디오 생활의 경험이 적고 완전히 자유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몇 년이나 보내왔기 때문에 신회사의 조직에서 갑자기 모범적인 집단생활의 미를 발휘하기가 곤란하여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심기일전하여 신체제영화인으로 새로운 발족을 결의하고 있으므로 이 점 배려하시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영예로운 신회사의 제1회 전사원 모임을 갖게 된 벽찬 감동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장님, 상무님의 명을 아버지의 분부와 어머니의 말씀 같이 듣고 행동 하나하나도 저희에게 주어진 영화보국의 크나큰 한 발이라 믿으며 사력을 대해 열심히 사무에 전념할 각오입니다. 이 한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훈육을 쌓아갈 생각입니다.

### 53. 제1회 사원 채용의 전후(10월 11일)

신 회사에서 제1회의 영화인 채용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조선 영화인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는 정식으로 10월 21일 일동에 대해 사령을 건넸으나 그 인원수가 105명 전후였다. 총독부 당국에서 신 회사에 입사하여 협력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혼쾌히 이를 승낙한 저자 중심으로 인선을 하였다. 거의 저자의 책임 범위에서 만든 진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나, 결정 전 나카다 상무에게 하나 하나 대조하며 승인을 구했다. 그 사이의 경과를 상술하면 조선영화인협회에 가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고 영화제작종사자로서 등록을 받은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절충을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80명의 후보자가 결정되어 9월 8일 다나카 사장에게 인선경과를 보고하여 양해를 구해놓고 9월 14일부터 매일 15명씩을 면접하여 급료를 결정하게 되었다. 같은 날에 연기관계자, 촬영기사와 회견하고 이어 연일 각 부서의 후보자를 만나 급료 면에서 간담했으나 입사를 거부한 자는 불과 1, 2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신회사로의 근무를 승낙했다.

그 무렵부터 회사로서는 사업개시 전의 주요 업무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일부사원의 출근을 부탁하여 사내가 드디어 활기차게 돌아갔다. 9월 28일 사장과 면접한 결과 일부사원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9월 중 직접 일에 관계된 자에게 이를 적당히 분배하고 입사가 결정되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급은 실현 곤란하였기 때문에 저자는 9월 30일 국일관에서 이들 약 50 명을 초대하여 만찬을 내고 사정을 보고하며 양해를 구하였다.

상경 중의 나카다 세이고 씨는 10월 8일 아침 다시 경성으로 돌아 왔다. 11일에 사장님이 전 사원을 초대할 것은 따로 썼지만, 이렇게 제1회 채용사원이 최종 결정되고 21일 일동의 출근을 요청하여 사장 대리로서 저자가 사령(辭令), 사표(社票) 등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또 신회사의 간부사원인 과장급의 인사발령은 그 전날인 20일에 이루어졌다. 당시의 면면은 총무 다카시마 긴지, 선전과장 김정혁(金正革), 경리과 주임 후쿠다 히데오(福田秀夫), 제3제작과장 가와사이 이쓰오(河濟逸男), 연출과 주임 안석영(安夕影), 촬영과 주임 양세웅(梁世雄), 기술주임 구보 요시오(久保義雄), 이상이 조선영화인의 천거이었고, 또 제1제작과장 가스우라 센타로(勝浦仙太郎), 제2제작과장 이와이 가네오(岩井金男), 서무과장 핫토리 게이에이(服部惠英)의 세 명은 나카다 상무의 천거로 도쿄 영화계에서 참가하였다.

그 외 나중에 간부로 승진한 사람이나 종래 조선영화계의 각 부문에서 활약한 사람으로 입사한 사람들을 소개하면 주된 인물은 시나리오의 니시가메 겐테이(西亀元貞), 구 조영 제작부장 이재명(李載明)과 도쿠야마 요시타미(徳山義民), 연출 이병일 서광제 박기채(朴基采) (최인규(崔寅奎) 방한준(方漢駿)은 나중에 입사), 촬영과에는 세토 아키라(瀬戸明) 가나이 세이이치(金井成一) 모리타 주(森田樹) 무라카미 겐(村上健) 서월영(徐月影) 김한 독은기(獨銀麒) 이금룡(李錦龍) 김일해(金一海) 남승민(南承民) 이원용(李源鎔), 여배우의 문예봉 김소영 홍청자(洪淸子) 김영(金玲) 등이 참가하였고 제1회 채용인원 발표의 반향은 양호하였다.

#### 54. 영화기획심의회 설립(10월 26일)

신 회사의 제작 기획이 총독부 당국의 문화정책과 동일한 궤도에 적절하게 오른 것은 당연하였고, 영화 통제 일원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당국이 장래의 기획에 대한 최고의 방침을 발언한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또 종전과 같은 영화령에 의한 사전 검열 같은 형식에서가 아니라 한정된 자재로 고도의 영화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기획 내용에 대해 당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하는 것은 시국상 당연하였다. 물론 각종 작품의 테크닉에 대해 운운하는 것 없이 각 방면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여 기획에 만전을 기할 만큼 계획된 것은 상세히 기록할 일도 아니다. 이런 심의회 기구는 10월 26일에 기안되어, 경무국 내의 문화조성단체인 황도문화협회 안에 설치하고 동협회장인 미하시(三橋)경무국장이 초대 심의회장에 취임하고, 상임위원에는 총독부에서 모리 도서과장, 회사측에서 나카다 세이고 씨가 취임하기로 하였다.

##### (영화기획심의회 규약)

제1조 영화기획심의회는 황도문화협회 내에 설치하고 협회장의 자문에 응해 조선에서 영화문화의 기획 및 지도 조성에 관해 조사 심의한다.

제2조 영화기획심의회는 회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황도문화협회장이 맡는다.

제4조 위원 및 임시위원은 관계 관리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회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회장의 사고 시는 위원 가운데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영화기획심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정리한다.

#### (영화기획심의회 위원)

회장, 조선총독부 총무국장

위원, 총독부에서 도서과장, 도서과 사무관, 도서과 통역관, 보안과장, 경무과장, 정보과장, 정보과 조사관, 학무과장, 연성과장, 군부에서 조선군보도부장, 아츠지(厚地) 대좌, 나카가와(中川) 대위, 헌병사령부 고가와(子川) 중위, 문화단체에서 총력연맹 선전부장, 동 문화부장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씨, 미키 히로시(三木弘) 씨,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씨, 동원인섭(東原寅燮)<sup>64</sup> 씨, 방촌향도(芳村香道)<sup>65</sup> 씨, 유치진(柳致眞) 씨, 쓰다 세쓰코(津田節子) 씨, 조선영화배급사 오카다 중이치(岡田順一) 씨, 제작회사 다나카 사장, 나카다 상무, 간사에는 총독부 도서과 이케다 구니오, 히로다 요시오(廣田義雄) 양씨, 영화회사에서 총무 다카시마 긴지, 제1제작과장 가쓰우라 센타로.

이 같은 규약 및 위원의 구성으로 영화기획심의회가 결성되고 12월 15일자로 황도문화협회장 단게 이쿠타로(丹下郁太郎) 씨의 이름으로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발송되었다.

### 55. 신회사 창립피로연의 개최(11월 7일)

신회사 창립을 기념하는 창립피로연이 11월 7일 오후 6시부터 조선히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당일의 출석자는 경성의 군 관 민의 유력자를 망라하고 또 영화업계에서는 영배(映配), 흥행연합회 등의 간부도 전원 출석하여 총수 250명에 이르는 성황을 이루었다. 먼저 여흥장에서는 오후 6시 전부터 신회사 전속 연기자들의 여흥이 있었고 서재현(徐載憲), 문예봉의 독창, 기노시타 후쿠겐(木下福憲)의 3곡, 김소영의 무용, 홍청자(洪淸子)의 일본 무용 등이 있던 후 대식당의 연회로 이어졌다.

연회 중반 쯤 사장 다나카 사부로 씨의 인사, 조선상공회의소 대표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씨가 일동을 대표하여 신 회사 발족을 서로 축하하였다.

#### (도쿄에서의 창립피로연)

또 도쿄에서의 창립피로연은 1월 다나카 사장 및 저자, 당국으로부터 모리 도서과장, 이케다 도서과 직원 등이 도쿄에 가서 개최하였다. 1월 23일 대동아회관에서 일본 영배 간부의 초대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고히키초(木挽町)의 나라의 집(国の家)으로 내무성, 문부성, 정보국 등의 관청관계자를

64) 정인섭(鄭寅燮)의 창씨명.

65)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초대하였다. 또 다음날 24일은 오후 6시부터는 고키키쵸 호류(鳳龍)에서 영화계 수뇌자의 초대연을 개최하였다. 그날 밤은 쇼치쿠에서 오타니 다케지로(大谷竹次郎), 기도 시로(木戸四郎), 시라이 신타로(白井信太郎), 가리야 다로(狩谷太郎)의 네 명, 도호영화에서 모리 이와오(森岩雄), 이케나가 와에이(池永和央)의 두 명, 다이에이에서는 로쿠샤 오사무(六車修), 하타노 게이조(波多野敬三), 스다 소타로(須田鐘太郎)의 세 명, 니치에이의 이토 고유(伊東恭雄),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의 하야시 히로다카(林弘高) 씨 및 마나베 하쓰요(真鍋八千代) 씨 등이 출석하였고 조선총독부에서 모리 도서과장, 이케다 조쿠 및 도쿄 출장소 관계자, 본사에서 사장 다나카 사부로, 다카시마 긴지, 서무과장 핫도리 게이에이(服部恵英), 제1제작과장 가쓰우라 센타로가 출석하였다. 사장의 인사에 대해 오타니 다케지로 사장이 감사의 의사를 표명하고 일본과 조선이 손을 잡고 영화보국에 매진하자고 말한 다음 모리 도서과장도 조선의 영화사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다. 그날 밤은 참가자들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 영화계의 거두들이 모인 회합이어서 실로 의미 깊은 모임이었다.

또 저자는 도쿄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돌아올 때 교토에 들러 영화기재 매수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2월 5일 시모가와라조(下河原町) 사쿠라야(さくら屋)에서 교토의 영화관계 신문인들을 초대하고 조선 영화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 56. 제작자협회 해산식(11월 23일)

신회사의 창립과 함께 구 업자의 단체인 조선영화제작자협회는 실질적으로 해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해산식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하다 11월 23일 가게츠 본점에서 열렸다. 신회사에서 사장 다나카 사부로 씨가 내빈으로 출석하고 총독부에서도 관계관이 출석하여 먼저 제작자협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구 경성영화제작소 야나무라 기치조 씨가 다음과 같이 인사하였다.

구 업자는 현재의 비상시국을 잘 인식하고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의 신회사의 접수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낼 것이다. 신회사는 종래 조선에 존재한 모든 영화제작업이 통제의 강화에 의해 1사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로 각 사 모두 여러 사정이 있었음을 모두 초월하여 혼연히 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신회사의 사장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훌륭한 영화회사를 키워내고 국책을 위해 공헌해 주길 바란다.

이에 대해 다나카 사장은 다음과 같이 겸허하게 답하였다.

이번 뜻밖에도 영화제작회사 창립을 당국으로부터 위촉받아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제 문제에 대해 우려했으나 제작업자 각위의 훌륭한 태도로 순조롭게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영화 사업에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당국의 지도와 사원의 협력에 힘입어 분골쇄신으로 신회사의 경영에 임할 것이나 앞으로 부담 없이 주의나 의견을 들려주기 바란다.

계속해서 성대한 연회가 이어져 실현되기까지 고생이야기 등 서로간에 화제의 꽃이 피었다.

## 57. 제1회 기획심의회 개최(43년 1월 18일)

영화기획심의회 설립 후 제1회의 심의회는 1월 18일 회장대리로서 모리 도서과장 총재 하에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심의회 의제는 신 회사에서 징병제 시행 기념 작품으로 착수하려는 극영화 '젊은 모습'의 기획 및 내용에 관한 심의였다. 당일은 각본을 집필한 야다 나오유키(八田尚之) 씨도 출석하고 군부에서는 바사이(馬衫) 참모 외 여러분이 출석하였으며, 경기중학교 이와무라(岩村)교장도 동 극 중에 학생의 등장이 상당히 주요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초대되어 출석하였다. 각본을 중심으로 군부, 총력연맹 등에서 진지한 의견 발표가 있었고 유치진 씨 등은 조선의 풍속 습관에 관해 정정할 점을 지적하고 쓰다 세쓰코 여사도 등장 여성의 취급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장시간에 걸쳐 효과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 회합의 반향으로 제작회사 측이 통감한 것은 먼저 군사영화의 기획은 군의 기율을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본인의 각본가가 조선영화의 집필에 종사할 경우의 자세 및 '조선의 연구'가 세부까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 야다 씨도 얻은 바가 많았던 셈이다.

다음 제2회 기획심의회는 4월 5일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영화에 관한 재심의였다. 또 제3회는 8월 26일 같은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합에서는 제작회사의 기획 작품 <거경전(巨鯨傳)>, <마(魔)의 산> 등이 심의되었다.

## 58. 영화제작회사 현재의 진용

영화제작통제 편을 끝낼 즈음, 즉 반도 유일의 제작회사이고 환언하면 일본의 제4제작회사인 성격을 갖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진용을 자세히 쓰면 다음과 같다(1943년 10월 10일 현재 경칭을 생략하고 순서는 부동(不同)이다).

중역 : 사장 다나카 사부로, 상무 나카다 세이고, 이사 방대영, 하본준석, 박흥식, 고바야시 겐로쿠, 다카이 다케오, 다카기 데이이치, 김성호, 노자키 신조(野崎真三), 상임감사 곤도 령이치, 감사역 오타니 옹요,

고문 : 야나베 에이자부로, 이와사 시게이치

촉탁 : 다구치 데쓰, 미카미 료지(三上良二), 야기 호타로(八木保太郎), 히로가와 소요, 요코다 다쓰유키  
서무과장 겸 자재과장 : 나베다 마사모토(鍋田正元), 사원 후지야 다쿠조(藤谷拓藏), 아사지마 호즈이(朝島芳堆), 다미야 켄이치(田宮建一), 교야마 헤이유(京山平雄)

업무과장 : 핫토리 게이에이

회계과장 : 후쿠다 히데오, 사원 야마다 에이(山田衛), 기요하라 강이치(清原寛一), 야스하라 가이준(安原海潤),

선전과장 : 나쓰메 세이(夏目正), 사원 강야마(完山康月), 이용선(李龍仙), 다카고 요시노리(田籠敏徳), 안도 히데나리(安東秀成), 촉탁 가나자와 미쓰오(金沢光雄)

제1제작과장 : 가쓰우라 센타로

제2제작과장 : 이와이 가네오

제3제작과장 : 가와사이 이쓰오

제작과 사원 : 오소라 히사호로(大空久幌), 오오노 싱이치(大野真一), 스이젠 중이치(水原純一)

기술과장 겸 촬영과장 : 이재명

기술과 사원 : 금광용칠(金光容七), 모리타 주, 쓰루다 요시오(鶴田義雄), 나카이쓰 에이지(若松栄兒), 야마노 히로시(山野広), 최규순(崔圭淳), 평본재준(平本載俊), 금택완식(金沢完植), 호시무라 토시오(星村俊夫), 양주남(梁柱南), 모리야마 도시히코(森山俊彦), 금경례자(金慶禮子), 마쓰하라 도시코(松原敏子), 마쓰모토 테이코쿠(松本貞玉), 무라카미 겐, 가나자와 이사무(金沢勇), 차욱(車旭), 하라모토 세이완(原本聖完), 니시하라 다케에이(西原武栄), 금해종성(金海鐘星), 마쓰하라 소토쿠(松山相徳), 다카야마 가이신(高山海振), 나가야마 린세이(永山麟成)

촬영과 사원 : 세토 아키라(瀬戸明), 가나이 세이이치(金井成一), 양세웅(梁世雄), 고노 운조(河野雲造), 히로다 가즈아키(廣田一明), 최순흥(崔順興), 마쓰하라 간쇼(松原寛昌), 야나가와 미노루(柳川実), 최영린(崔永麟), 이방녕(李邦寧), 심재흥(沈在興), 미야모토 겐지(宮本元治), 이수근(李秀根), 도쿠야마 도시오(徳山敏雄), 가나자와 세이칸(金沢正換), 임병호(林炳鎬), 기무라 겐지로(木村健次郎), 오야마 쇼고(大山承鎬), 최한조(崔漢兆), 고무라 소준(梧村相俊)(축탁), 가게사와 세이(影沢清)

진행과 주임 겸 연기와 주임 : 도쿠야마 요시타미(徳山義民)

진행과 사원 : 김문기(金間基), 가도카와 야쿠젠(角川躍善)

연기와 사원 : 서월영, 독은기, 김일해(金一海), 김한, 이종룡(李錦龍), 최운봉(崔雲峰), 노부오 에이이치(伸夫英一), 남승민(南承民), 이원용(李源鎔), 박창혁(朴昌赫), 손일포(孫一圃), 이효(異曉), 권영팔(權寧八), 김영두(金永斗), 남홍일(南弘一), 서재현, 서해강평(曙海康平), 이마무라 요시오(今村嘉男), 문예봉, 홍청자, 김소영, 김영, 기노시타 후쿠기(木下福枝, 축탁) 복혜숙, 강정애(姜貞愛), 이치무라 요시코(市村淑子)

미술과장 : 고원승(高垣昇), 사원 윤상열(尹相烈), 문원영석(文元永石), 상원광은(桑原光殷, 축탁) 유여옥(柳如玉), 사쓰키 쓰기코(皇月つぎ子)

관리과장 : 나가히사 요시오(長久義雄), 사원 아라이 가에이(新井嘉英)

기획과장 : 나가다 세이고(中田清康), 사원 쓰쿠다 준(佃順), 니시가메 겐테이(西亀元貞), 이치무라 유로(市村佑郎), 허달(許達, 축탁), 금촌팔봉(金村八峰), 오영진(吳泳鎭)

연출과원 : 야스다 에이(安田榮), 박기채(朴基采), 최연규(崔演奎), 서광제, 이병일, 하루야마 준(春山潤), 도미나가 메이고(富永明豪), 마키야마 시게루(牧山茂), 민정식(閔政植), 조정호(趙晶鎬), 마쓰무라 하쿠주(松村百守), 시라가와 메이젠(白川明鎭), 이기성(李基星), 김기호(金基鎬), 김종훈(金宗訓), 야마모토 도시무쓰(山本時睦), 이도미야 가쇼(伊都宮嘉昭)

인사과원 겸 비서 : 이케우라 낭요(池浦南洋)

도쿄 출장소장 : 와타나베 쇼타로(渡辺庄太郎), 사원 미야우치 기노스케(宮内巳之助)

## 제2편 영화배급 통제 권(卷)

### 배급통제 초기의 제 정세

#### 1. 머리말

영화 사업이 삼각 형태 즉 제작, 배급, 흥행의 삼각형 조직 위에 구성된 이상 통제와 임전적 조치도 그 삼각형태 어디에든 동시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민중과의 접촉점인 일각의 흥행은 배급 부문의 변혁으로 새로운 흥행체제를 정비하였고, 영화배급이라는 일각은 영화제작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배급 기술의 변혁이 이루어졌고, 또 남은 한 각인 제작부문은 국가의 요청으로 임전제작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삼각 형태로 성립하는 영화사업 전체의 통제는 일각의 어느 한 부분의 협력도 무시할 수 없어 이번의 영화계 혁신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것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영화배급의 통제도 또 제작통제와 같은 때에 계획되었고 둘 다 같은 궤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제작 통제의 경우와 다른 점은 이미 1940년부터 일부 유력자 중에 외국영화의 수입정세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 연구한 것이다. 이는 일본 영화계를 풍미한 미국 영화 상영에 따른 영화 이익의 대미유출문제와 일미통상협정 폐기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1940년 121편의 수입이 다음해 1941년에는 71편으로 수입이 제한되었고 외화만능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방화와 친해지게 할 필요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배급계는 이 무렵부터 개혁을 행하였지만 당국 즉 정보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배급 기구의 통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1년 3월 초였다. 아직 이 무렵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배급통제의 주요원인이 외국영화의 수입문제가 아니고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영화 신 체제 확립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나 여기에서는 그보다 이전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얘기 하는 것이다. 우선 배급통제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은 문화영화배급부문의 일원화부터이고, 정보국에서는 이렇게 범위와 영향이 좁 약한 곳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여 점차 극영화와 기타 전반으로 확대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도 일본과 같이 영화령에 의해 영화배급업이 허가제도가 됨에 따라 조선 내 배급업자는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고, 이미 당국에서도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배급체제의 통제를 가하려는 의지가 있어 일본 배급기구정비의 진행상황과 발맞추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했다.

즉 1941년 3월 경부터 현재의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회사가 창립된 42년 5월까지 어언 2년, 정확히 15개월이 조선에서 배급기구 대변혁에 이른 파란만장한 시기였다. 그리고 현 배급사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내외영화배급업조합'이 중심이 되어 당국의 배급기구 통제에 참획하고 그 실현에 진력한 것이다.

조선의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설립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보국에서 당초 상당히 강경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누르고 현재의 조선영화 창립에 이른 이면에는 당국의 엄청난 고심의 흔적이 있었으니 이하 순서대로 그 과거를 돌아보기로 하겠다.



## 2. 배급조합, 통제문제를 연구(1941년 3월)

앞서 얘기한 대로 일본에서도 그러하였으나 조선에서도 배급 부문의 통제문제가 업자 간의 화제가 된 것은 1941년 봄부터였다. 1941년은 배급조합이 존재한 마지막 해였던 셈인데, 이 해는 조합으로서도 아주 다사다난했다. 연초 일찍부터 동화 상사의 <미의 제전>을 메이지야(明治屋)에서 상영하던 중 경성 부민관에서 <민족의 제전> 상영 문제를 야기하여 흥행협회는 '동화상사가 취급하는 일체의 영화를 경성 부내 상설관에서 상영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배급조합은 선후책이나 진상조사로 바빠 움직이고 시바타 동화상사 지사장은 일신의 문제까지 겹쳐 심경이 매우 괴로웠다.

3월에는 조합장 와타나베 쇼타로(渡辺庄太郎) 씨의 사임이 있었고 후임으로 야마모토 기지(山本季嗣) 씨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배급통제문제가 임원회의에서 시작되어 4월 25일에 의제로 올랐다. 당시는 아직 진상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조합장에게 일임하였다.

4월 24일 총독부 검열실에서 조합원 40명이 출석한 상례회(上例會)를 개최하여 오카다(岡田) 검열주임으로부터 배급업 허가신청서 제출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나, 이는 조선영화령에 의거한 법적수순으로 각 업자는 모두 이 규칙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5월 24일의 예회에서도 배급통제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결국 허가사업인 이상 당국의 의지를 충분히 타진하여 조합으로서의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합장에게 일체의 조사연구를 일임하고 폐회하였다.

이 무렵 도쿄에서 배급기구 통제 방침이 점차 확실해지면서 업자들도 상당히 진지하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 3. 배급통제에 나타나 마지막 현상(3월 3일)

배급통제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먼저 정식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문화영화의 배급일원화였다. 적어도 영화통제의 막이 '극영화'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예상되었으나 왜 문화영화라는 영화의 일 부문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당시의 미묘한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무렵 일본뉴스사(日映)가 당국의 영화신체제 조치에 꽤 깊이 관여하고 또 중요한 발언자였던 것은 이하의 사실로도 수긍이 간다. 즉 문화영화배급 일원화의 상대(대상)는 니치에이이고 동사 창립 당시부터 국내의 문화영화는 일원적으로 니치에이에서 배급하는 방침이 확립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국(정보국, 내무성)에서는 영화법에 의한 문화영화의 배급업의 허가를 니치에이 1사에만 부여한다. 민간업자는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고 한다. 물론 실제의 인계 방법로서는 업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식도 고려했으나 이 문제는 당국의 뜻처럼 간단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3월 3일 정보국에서 주요 18사의 참석 아래 협의하고 전술한 것 같은 당국의 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니치에이의 정관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문화영화의 배급일원화가 창립 당초부터의 계획이었다면 그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이다.

한편 민간업자 측에서는 영화배급업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국 300여의 배급업자가 모두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통제를 할 목적으로 먼저 도호, 쇼치쿠, 동화상사 등에서 대일본문화영화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에 우에무라 다이지(植村泰二), 기도 시로(木戸四郎), 가와기다 나

가마사(川喜多長政) 씨 등이 이사로서 참가했는데, 그 후 당국의 수고로 대일본문화영화협회는 일본뉴스로 합류하게 되었다. 민간업자는 좋은 조건이라면 일본뉴스와 합류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근소 문화영화 배급업자의 일원화는 이같이 니치에이의 힘 앞에서는 태풍에 나부끼는 나뭇잎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니치에이를 중심으로 문화영화 부문에 한하여 일원적 배급을 운영하려는 방침은 당국의 양해를 얻어 실현 일보 직전이었다. 그 때문에 니치에이가 조선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배급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것도 당연하였으며, 당시의 실상에서 보면 이는 일본 내외지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하나로 드러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4. 도쿄에서의 조선영화배급 잡론(雜論)

일본에서 영화계 전반에 걸친 통제문제가 겨우 업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배급기구의 재편성이 여러 가지로 화제에 올랐을 무렵 도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영화의 배급통제에 관한 방침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는 소문이 전해져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는 헛소문이자 근거 없는 낭설임에 틀림없지만 조선의 배급관계자가 도쿄의 거래 계통에 대해 전한 이야기가 크게 와전된 것으로 당국에서 어떻게든 일본에 앞서 자본금 200만 엔으로 배급통제를 실시한다는 근거 없는 선전이었다.

“당시 도쿄의 일부 유력자 사이에서는 일본의 배급통제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 쉽게 실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 대만 등에서 한 발 앞서 통제를 실현하여 그 위세로 일본의 문제도 해결이 빠를지도 모른다는 데서 조선의 경우 조선만의 배급통제의 구체화를 기대한다”는 얘기들을 했다고 한다.

한편 영화관계의 신문인이나 평론가 사이에서도 조선은 제작과 배급을 합체한 강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렇게 증가집인 경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는데 도쿄에서 조선의 문제가 상당히 활발히 논의된 것은 진실로 조선의 문화나 조선의 전반적 영화통제에 대한 일견식을 갖고 했다기보다 영화배급 계통과 기타에 대한 통제 실현 이후를 걱정하는 일부 책사들이 동요하고 불안에 떨며 만들어낸 선전으로 조선이야말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니치에이가 조선에서 일원적인 배급을 계획(5월 31일)

니치에이(日映) 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영화 배급 일원화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조선에도 그 바람이 불었다. 니치에이 간부가 와서 경성에 와서 조선 내의 문화영화, 일본 뉴스, 해외 뉴스, 기타의 배급업 허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는 1941년 5월 31일이었다. 배급 방법은 단매(單賣) 혹은 임시대부의 형식으로 종래 경성일보 및 도호영화조선출장소 등에서 취급하던 것을 니치에이에서 배급하게 된 것이다. 당시 상경해 있던 도서과 무라카미 사무관도 이 건에 대해 본부에 정보를 주어 니치에이 조선지사의 배급업 신청은 정보국, 내무, 문부 양성의 지지에 의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의 검열주임은 현 영배(映配) 상무이사 오카다 중이치 씨였으나 당국의 방침으로서는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는 그 성질상 민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배급에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자를 정리 통합하여 견고한 회사를 창립하고 이에 배급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단순히

문화영화, 뉴스영화 뿐 아니라 극영화 기타 영화 전반에 걸친 배급통제를 속히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때문에 이 때 이런 종류의 영화만을 위한 배급회사 설립을 보류하고 니치에이에 대해 조건을 붙여 지사 설치를 허가하자는 것을 근본 방침으로, 조선으로서는 1. 당국이 장래 영화배급의 통제를 실시할 경우는 무조건 이에 응할 것. 1. 일본영화사 조선지사의 명칭을 쓰지 않고 별도로, 예를 들면 조선영화사 등과 같은 명칭을 쓸 것. 그 이유는 니치에이 지사의 명칭을 쓸 경우에는 조선 내의 경영과 운영 일체가 니치에이 및 정보국의 지위 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외 회사의 기구 및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당국이 상당히 간섭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당시 니치에이 당사자로서는 앞의 문화영화 배급일원화를 자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므로 조선에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이미 니치에이가 지금까지 배급을 위탁한 경성일보 및 도호영화출장소 등은 니치에이의 배급 허가 위에 바로 일체의 영화를 이어받겠다는 승낙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그러나 문화영화나 극영화와 별개로 배급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국으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다. 니치에이는 니치에이 창업의 취지에서 보아도 첫 번째라 할 만한 뉴스영화 및 문화영화의 제작으로 국민문화의 진전에 힘쓰고 해외로 우리 국정을 정확히 소개할 목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었다.

## 6. 배급과 제작 양자 합류 문제(8월 25일)

8월 25일의 배급조합예회에서는 제작자협회와 합류하여 당국의 일원화운동에 대응하려는 의견이 대두해 왔다. 이는 제작자협회를 주체로 하는 제작부문이 독자적인 제작회사를 창립하는 것을 결정한 한편 당국도 그 방침에서 선처하였기 때문에 배급기구도 이에 합류하려는 생각이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자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동 28일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영화계 임전체제 문제에 관해 급후 선처해야 할 우리 조합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석상에서 조선영화제작자협회와 합류하여 하나가 되는 것에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는 찬성 14명, 기권 6명, 반대 12명이 되어, 결국 14대12로 합류찬성파가 다수를 점했다. 그리하여 교섭위원을 야마모토 조합장, 시카타 겐(四方健) 씨, 이기세(李基世) 씨, 히로가와 소요 씨, 다카야마 미쓰루(高山貢) 씨 등 다섯 명으로 결정하여 제작업자와 협의하게 되었다. 위 협의가 끝난 뒤 당국으로부터 시미즈 통역관, 히로다 조쿠가 출석하여 총독부로서의 의향은 “조선에서 어떤 배급통제책을 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쿄에 가 있는 사무관이 돌아오면 일본의 정세를 보아 가며 결정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 후 앞의 위원과 제작자협회 측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그 얘기는 진척되지 않아 각각 독자의 입장에서 선처하기로 결정하고 9월 9일 다시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위와 같은 경과보고가 있었다. 결국 배급조합으로서는 조선에도 조합을 주체로 한 별개의 배급통제회사 설립을 계획할 것, 또 만일 성공하지 못할 경우 현재 배급업의 종사자를 일본 측의 조직으로 설립되는 기구에 많이 채용하도록 운동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배급조합의 행동을 주의해 보면 실로 미온적인 행동으로 적극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

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나 이들 각 사는 도쿄 본사의 방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 경영의 배급업자와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

## 7. 배급통제에 관한 당국의 방침 결정(9월 3일)

배급통제에 관한 총독부 당국의 의향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관계관들이 밝힌 바 있다. 일본과 같이 전체 배급업자를 통합 정리하여 1개의 공익법인 조직을 세우는 안에 따라 일본의 정세에 적응하는 체제를 취해 왔으며, 9월 3일 당국에서는 척무성을 통해 일본 관계 방면에 대해 당국의 방침을 대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1. 영화배급기구의 통제 방침

현재 조선 내의 영화상설관 수는 140 여개로 일본의 2,300 여개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있고 또 관람인원도 일본이 1년에 4억 명인데 비해 조선은 불과 2천만 명에도 못 미치는 소수여서, 얼마나 조선대중이 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사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일반 문화의 발달이 늦어서이기도 하지만 영화배급기구의 불비와 결함에 의한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주요 원인은 영화배급요금의 폭등일 것이다. 즉 영화배급요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른바 9·18 가격정지령에 의한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요금이 해마다 폭등 일로를 걷고 특히 지방에서는 흥행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 또 전 조선의 평균은 4할 이상으로 일본 내외지를 통해 가장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다달이 내는 배급요금은 엄청난 숫자가 되고, 이 돈은 거의 전부 일본 배급업자 또는 제작업자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영화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 없이 결국 조선 내 상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영리 본위의 흥행 형태에 빠지게 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선에서 영화에 의한 건전한 오락의 보급과 이에 따른 문화의 향상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한편 조선 내의 내외영화배급업자는 현재 40명으로 감소했으나 외국영화의 호황시대에는 한 때 57명까지 있어 그 결과 불필요한 배급투쟁이 반복되거나 영리의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영화의 공익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이 갖춰지지 않아 상영업자와의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는 등 자유배급제에 의한 각종 폐해가 속출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는 일찍부터 통감했던 바이다. 그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당국이 앞선하여 조선내외영화배급업조합을 조직시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영화의 문화적 사명에 비추어 보면 영화는 그 성질상 민간업자의 영리를 본위로 하는 자유배급에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 업자를 정리 통합하여 이른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견고한 배급기관을 설립하여 그 임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종래의 자유경쟁 무통제의 배급방법을 그만두고 대신 어디까지나 국가적 독자적인 배급방법을 택해 상영업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일반대중에 대해서도 신중한 선택에 기초한 건전하고 우수한 영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영화 자재의 결핍과 함께 정부 당국에서 영화사업 전반에 걸쳐 고도의 통제를 행하고 강력한 국가 지도를 가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자재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침이 섰다. 자칫하면 영화제작도 극도로 제한받게 되어 배급영화의 대부분을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조선에서는 장래 이입영화 수량의 감소도 예상되는 상태였다. 때문에 본부로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일원적 배급기관 설치에 호응하여 차제에 40명이 넘는 배급업자를 정리 통합하고 공익법인에 의한 일원적인 배급기관을 설치하여 조선 독자의 배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記) 조선에서 영화배급은 조선영화령에 의해 허가된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할 것.

## 8. 정보국의 배급통제 결정(9월 19일)

정보국의 영화기구 개혁은 내무, 문부 각 성 관계관 및 영화계 유력자 사이의 의견도 참고하여 논의되어 9월 19일 정보국 영화통제 '최종안'으로 제5부장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최근 여러 정세의 급변에 따라 영화관계 자재가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 극영화에 의한 계발 선전 및 국민에 대한 위안 제공은 이른바 임전체제 하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므로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의 각 부분에 대해 일대 개혁을 가하고 우리나라 영화사업에 대해 최고도의 통제를 하는 강력한 국가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 제작배급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혁한다.

(제작) 영리법인을 인정하여 쇼치쿠(松竹), 코아(興亞)가 1사(社), 도호(東寶), 도하쓰(東発), 남오(南旺), 다이호(大宝), 다카라즈카(寶塚)가 1사, 닛카쓰(日活), 신코(新興), 다이토(大都)가 1사로 3사를 승인한다. 그리고 각 사의 극영화는 매월 2편 씩 계 6편, 프린트는 각 30편 씩

(배급) 공익법인 1사로 하여 외국영화의 배급도 행한다.

배급기구의 공익법인 1사 안은 최종안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예상된 터이지만 그 사이 외국영화의 독자배급을 획책한 회사도 있어 상당한 지하공작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이러한 근본방침의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른 셈이다.

## 9. 조합의 배급기관 창립안(10월 19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급조합원 중 창립위원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선의 독자적 배급기구를 창립하기 위해 10월 중순에 그 안을 작성했으나 최초의 안은, 즉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협회'의 이름으로 그 설립취의서는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협회 설립취의서

#### 1. 이유 및 방침

1) 영화가 갖는 계발 선전력의 중대함을 볼 때 그 기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며 영화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국책협력에 매진하는 것은 지금의 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요무이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일원적이고 강력한 조직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내외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각 사의 힘을 종합하여 독점적인 배급을 시행할 신 기구를 설립하려 한다.

2) 위 신 기구는 농산어촌에서 노무자 위안을 위해 순회영사(映寫)사업을 하고 이동대에 의한 국민총력정신의 선양 및 건전오락 수립의 적극화에 공헌할 것이다. 특히 각 관공서 공익단체

에 이동대를 파견하는 순회영사사업은 이를 오로지 본 법인에 위탁 실행시켜 영화에 의한 국책 선전 교육개발의 강력 종합화를 도모한다.

## 2. 기구 및 사업

위 신기구의 기구 및 사업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 사단법인 조직으로 한다. 임원, 내부 사무 조직은 따로 둔다.
- 2) 사업

가. 배급, 내외 우수영화의 종합적 제공 배급을 첫째로 하고 다음으로 종래의 계통영화관에 대한 배급 관례의 폐를 타파하여 1편의 작품이라도 최저요금으로 일반국민에게 친하게 하고 점차 기구의 정비에 따라 특수 지방에서는 무료로 공개할 것 등을 적극화시킨다.

나. 상영관, 본 법인의 배급영화는 원칙적으로 본 법인 직영, 계약관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급할 필요에 따라 당분간 기존의 배급체계를 이용하기로 한다.

다. 기타, 본 법인의 내용을 충실히 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영화를 통해 국민문화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두 사용한다.

## 3. 설립 준비

본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되는 각 배급사 대표 및 관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민간유력자 등으로 조직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바로 설치한다. 그리고 본 법인이 각 배급사 등에서 매수할 현물 기타의 매수비를 평가하기 위해 매수평가위원회를 위 설립준비회 안에 설치하기로 한다.

또 이미 만들어진 동 협회의 정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협회가 현재 영화배급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당국의 추천에 의한 유력자로 창립되어야 하는 점을 명기한 일로 조직 방법은 회원의 출자금으로 창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적 기구는 이사장 이하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를 둔다. 임기는 만 3년으로 한다.

이 안은 보통 일반적인 공익법인의 조직에 준해 계획된 것으로 현재 성립을 본 조선영배와는 그 조직, 출자 계통 등이 매우 다르나 어쨌든 배급일원화 문제의 초기에 조합원측이 작성한 창립안으로 당국도 이를 수리하여 연구, 정정한 것이었다.

## 10. 일본배급기구 설립 제1회 협의회(10월 21일)

일본의 영화배급기구는 공익법인에 의한 1사 안으로 대체로 결정되고 정보국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단서를 잡아 사태를 이상적으로 해결할지 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보국에서는 10월 21일 신기구 설립의 제1회 협의회를 이같은 업계의 주시 하에 개최하게 되었다. 당일은 출석자가 일본영화협회, 니폰영화사, 쇼치쿠영화, 도호영화, 니카쓰, 싱코, 다이토, 문화영화 부문에서는 아사히(朝日)영화, 리켄영화(理研映画) 등 업자 측 준비위원과 정보국, 문부성, 내무성 등의 관계관 수십 명에 이르는 대 회의가 되었다.

먼저 결정된 배급기구 신설의 대강은 1. 성격은 사단법인 조직으로 할 것. 2. 출자사원은 영화통제에 의해 실현되는 극영화제작사, 문화영화사만으로 하고 다른 것은 인정치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

나 공익법인의 성격 상 가장 관계가 깊은 흥행자 측 및 외국영화수입업자의 출자를 인정할지의 여부는 정관 작성 단계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제2회를 10월 27일에 개최하고 같은 날부터 정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위의 9. 설립 준비 내용과 똑같음.)

이 회합이 일본 영배 탄생의 제 1회 회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셈이지만, 정보국에서는 배급 통제에 관한 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정보국은 제작업자측과 흥행업자측 어느 쪽도 이윤 추구에 대한 비율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분규할 것을 예측하고, 먼저 업자측에 대해 정관 안의 작성 제출을 명하였다. 이를 충분히 검토한 위에 관청안을 작성하여 업자측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수법이었던 것이다.

당시 도쿄에서는 조선의 배급 통제가 과연 어떤 성격을 띠지 알지 못했고, 일부 조선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보국이 국책의 견지에서 영리를 허락하지 않는 공익법인조직의 배급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심이었던 이상, 조선도 당연히 이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단정이 내려졌다. 아직 조선 당국의 진의가 판명되지 않은 이전부터 조선에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리라는 것도 전해졌던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영리법인의 배급 조직을 설립하는 것 같은 설이 일본에 유포된 관계였을지도 모르지만 전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견해이었다.

## 11. 배급조합, 통제의 궤도에 오르다(10월 25일)

이른바 배급조합의 구성분자가 일본 본사의 출장소장이고, 개인 경영으로 일관된 의지표시가 곤란한 사정 아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해도 10월에 들어가면서 조선에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당국의 방침과 함께 유력해졌다. 물론 일부가 생각해 온 것 같은 영리조직은 일본과 같은 것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출발할 것이 틀림없었다. 10월 25일의 조합예회에서는 총독부에서도 시미즈 통역관, 히루다, 이케다 양 직원이 출석하여 꽤 구체적인 문제가 협의되었다.

즉 배급일원화의 조직을 서류에 의해 시급히 작성할 것, 또 현 업자에서 준비위원을 내어 그 사무를 맡게 할 것 등으로, 준비위원은 당국의 지명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사단법인조선영화배급협회'의 명칭으로 협회설립취의서 등 처음으로 문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일본영배와 다른 조직 하에 창립된 조선영배의 출발인 것이다. 그 후 배급조합에서는 12월에 들어와 여러 차례 임원이 회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선후책을 협의하였고 또 이어 42년 1월 10일에는 조선히텔에서 연초모임을 개최하여 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조합 간부의 진용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동 총회에서는 종래 투표로 했던 임원선출을 폐지하고 총독부 당국의 지명에 따르도록 하였다.

같은 날 당국에서 지명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발전적 해체를 한 동 조합의 마지막 임원 멤버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조합장 소노다 지쓰세(園田実生), 부조합장 아사하라 류조(浅原隆三), 다무라 준(田村峻) 평의원 야마

모토 기지(山本季嗣), 히로가와 소요,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다카야마 미쓰루, 시바야마 료지(柴山量二), 회계 시카타 겐, 서기 이키 하쓰요시(壹岐初好) 등 여러 분이였다. 이 총회에는 당국의 모리 도서과장도 출석하여 총 출석자는 36명에 달하는 성회(盛會)였다.

## 조선 독자안의 난항

### 12. 조선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11월 4일)

조선총독부 영화국에서는 일본의 영화배급기관이 일본과 외지를 일원적으로 배급권 안에 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실상에 비추어 조선에서의 영화배급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어디까지나 조선의 독자적인 배급기구 실현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국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 대해 맹렬한 양해운동을 계속했는데 당국에서는 독자배급기구를 필요로 하는 점을 지적하여 11월 4일 자로 일본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취지를 관철하는 데 애쓰고 있다.

조선에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서

#### 1) 조선 영화사업의 특수성

조선에서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기타 영화에 관해서는 영화법 제19조의 규정을 제외한 동 법에 준거하여 1942년 1월의 제령 1호로 조선영화령을 제정 공포하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에 의해 조선에서 모든 영화사업은 동 령의 허가를 필요로 함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현재 조선 내 배급영화의 대부분이 내지에서의 수입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영화령을 감히 시행하기에 이른 이유는 조선에서는 문화의 정도나 기타 사정이 일본과 많이 달라 영화사업 전반에 걸쳐 특수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지금 조선에서 영화는 전시 하 국민오락의 주축을 이룸과 동시에 후방의 국민정신 양양 및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문화재이다. 이에 본부로서는 조선 2,400만 명에 대한 통치 상의 이유로 일본에서 한창 설립 준비 중인 배급까지도 일원적으로 통제하려는 의향이 있지만 이러한 것은 조선 영화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2) 조선에서 영화배급 방법의 특이성

현재 조선의 영화관 수는 140여 관에 지나지 않고 이는 일면 반도대중이 얼마나 문화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조선의 영화사업은 근년 겨우 일어난 것이어서 일본의 포화상태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일본에서는 앞으로 영화사업의 통제강화 방침이 제시되자 영화관에서 큰 충격을 받아 이미 전폐자가 다수에 이른 경향이 있으나 조선에서는 영화사업의 발전이 오히려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고, 게다가 조선에서는 영화관을 제외한 연극 기타 흥행전문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실로 영화관은 조선대중 유일의 위안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영화관의 분포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배급의 원활화를 기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으로 배급 방법에 특별한 공리를 요하는 바이다. 그런데 일본 신 배급통제기관 설립 때 조선에 대한 영화배급 할당은 프린트 각 1편



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조선의 실정을 모르고 단순히 영화관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영화배급을 하려는 탁상론자의 폭설이다. 그래서 현재 국산필름의 사용 한도와 함께, 조선 영화관 전체가 영화국책에 따라 유효하게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조선영화에 대한 지도 조성

조선영화의 제작에 대해서는 본부의 알선으로 곧 주식회사 조선영화제작협회(가칭)를 설립하고 본부의 적극적 지도 아래 장래 당국의 시정방침과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조선 대중을 지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영화를 제작시킬 방침이다. 또한 이들 조선영화의 배급에 관해서도 특히 효과적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우수한 기획에 대해서는 나아가 보상 제도를 고려하는 등 배급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하지 않으면 조선영화의 향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 4) 배급기구 및 상영기구의 불가분성

영화배급기구의 일원화에 의해 현재 상설관에서의 흥행방법 등에 관해 재검토할 필요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영화 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오늘날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각 기구를 항구적 기초 위에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이번의 영화사업의 재편성이 이른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실상 국가관리의 형태를 취한 것은 대개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배급통제의 성패 여부는 바로 영화 신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제작, 상영부문을 통제해도 배급기구에서 공익적 측면을 망각해 버리면 영화신체제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장래 조선에서도 배급기구를 통해 흥행부문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배급기구 정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반해 조선에서 배급기구만을 분리하여 일본 기구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은 장래 조선영화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 13. 정보국, 조선 독자안에 반대(11월 10일)

정보국은 배급통제에 관한 한 일본과 외지를 일관하여 광범위한 배급기관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외지에는 지사 혹은 출장소를 두고 업무를 보게 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물론 대만 등에서도 외지 특유의 각종 사정을 이유로 지사 안을 그대로 무조건 승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만은 조선과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대만총독부의 방침으로 제작(문화영화 만)과 배급, 흥행 일체를 일원화하고 연극부문까지도 이에 합류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되어 이미 조선보다 일찍 선수를 치며 당국에 양해공작을 하고 있었다. 대만이 이와 같고 조선도 그러하여 정보국으로서는 최초의 방침을 강경하게 강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외지영화배급협의회'인 것이었다.

11월 10일 정보국에서 개최된 동 회 석상에서는 척무성 관계자, 조선, 대만 등의 외지 관청 관계관이 집합하여 협의하였으나 척무성의 입장상 외지 지지의 희망을 말한 것은 당연하였다. 또한 정보국이 이른바 대국적 견지에서 일본과 외지에 일관된 하나의 회사안에 대해 설명한 것도 외지 측은 그저 듣기만 한 뒤 각각의 다른 특이성에 대해 크게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정보국의 외지 기구에 대한 의향을 외지측도 더 검토하여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여 조선, 대만, 화태(사할린) 등 개별적으로 정보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석상에서는 현 함남경제경찰과 장인 나카시마 메이문(中島命門) 씨가 도쿄 파견원으로서 조선의 독자안을 위해 크게 분투해 주었고 척무성의 조선부장, 경무과장 등도 분주하게 힘써주었다. 당시의 정보국 센멘(川面) 제5부장, 후하(不破) 제5부 제2과장 등의 의견은 역시 조선의 독자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였다. 그들의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재부족 시에 일본의 배급기구 외의 외지에 별도로 배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영화의 원활한 배급을 저해한다.
2. 조선에는 지사를 두고 지사의 업무 규정에 대해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게 하고 감독하면 배급 상 지장이 없고 오히려 본사에서 많은 영화를 폭넓게 선택하여 많이 배급시키도록 하면 오히려 조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3. 배급 규정을 정해 일본과 외지 모두 불공평함이 없도록 하고 배급요금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하는 방법은 있다.
4. 계발 선전을 위한 순회영사는 별개의 기관을 두고 여기에 따로 필요한 영화를 제공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독자적인 영화령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지사안을 끝까지 저지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설립하려는 배급회사의 기구, 출자자의 면면과 성격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어쨌든 정보국은 꽤 강하게 지사안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외지문제는 분규했지만 일본의 배급회사 창립은 먼저 순조롭게 이루어져 42년 1월에는 공익법인인 배급 1사의 수뇌부가 결정되고 사장에는 도호의 우에무라 사장, 전무이사에 니치에이의 가네유비(金指), 쇼치쿠의 치바(千葉) 씨 등 모두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일체의 개인적 영화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신회사의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 14. 정보국, 지사안을 고집하다(11월 25일)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조선지역 업자 및 당국이 가장 고심한 것은 정보국이 조선의 독자안에 공감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공명이나 혼쾌한 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국의 체면을 세워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미 지역 배급업자에게서 영리 추구를 무시한 공익법인안이 당국에 제출되어 있다.

11월 말 총독부로부터 시미즈 통역관, 히로다 조쿠가 상경하였으며, 업자 측에서 배급조합을 대표하여 고인문 씨, 제작을 대표하여 저자가 앞뒤로 상경한 것은 ‘제작통제의 권(卷)’에서 말했으나 당시가 정보국의 외지문제로는 가장 경화된 시기였다. 즉 먼저 첫 번째의 타진으로는 “11월 24일 경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일본에서는 의연하게도 지사안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아직 외지에 대한 구체안은

없다”는 인사였다. 다음 25일 회의에서는 “조선총독부안을 인정해도 좋으나 실제문제로서 배급의 원활이 어려울 우려가 있어 모든 조건을 붙여도 좋으니 지사안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최종안을 만들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다. 결국 조선 측의 의견도 고려하고 있으니 도쿄측의 지사안이라는 요리도 한번 먹어보라는 이야기였다. 이후 조선에서는 지사 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어떤 조건을 붙여도 좋으니까 최종안을 내라 해도 낼 것이 없다. 역시 외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발목을 잡힌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센멘 정보국 제5부장과 같은 사람도 조선관계에 6년이나 있으며 조선의 특수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결국 지금의 긴박한 자재난과 대동아를 망라한 광의의 영화행정의 입장에서 일본 외지의 일원적인 것이 이상적이므로 잘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말하고 퇴석해 버렸다. 후하 과장이나 이나(伊奈)정보관은 일본에서 설립한 배급회사와 조선 회사의 성격이 동일하면 실제문제로서 지사안도 좋지 않은가 라며 간단히 정리해 버렸다. 이에 시미즈 통역관, 히로다 조쿠는 극력 조선의 독자안의 이유를 말하여 완전히 고군분투를 하였다. 이상은 21일의 회합이지만 그 뒤 25일 정보국의 회합에서는 조선의 독자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계속되었다.

먼저 25일의 회합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된 척무성 경무과장이 중개 역을 맡아 “내지 지사안과 조선 독자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비교 검토할 때, 혹시 배급의 원활을 기한다는 점만을 보면 일본의 지사 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해도, 조선에서 영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수행하려는 견지에서 보면, 조선 독자의 배급기관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보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외지의 일원적 배급통제실시 축진의 한 방법으로서도 먼저 외지에 이러한 통제기관을 우선 설치시킨 뒤 절대로 필요하다면 이들 기관을 더욱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며 조선을 위해 크게 힘을 실어 주었으나 정보국 측은 전 날과 같이 지사안을 고집하여,

정보국이 지사 안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 업자 전부가 지사 안을 지지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조선 독자의 기관 설치 시 배급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 조선 측이 어디까지 원안을 주장하며 강행하는 방침이라면 독자의 기관설치에 대해 정보국으로서는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지사 설치의 경우보다도 배급의 원활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정보국으로서는 조선의 독자적인 배급기관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할 생각이나 자재난이 심각한 지금 조선 독자의 기관에 과연 몇 편의 프린트를 할애할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충분히 연구하여, 온갖 조건을 붙여 일본의 지사안을 허가할 경우와 어느 것이 현재 실상에 맞고 조선측에 유리할지 재검토하고 다시 구체안을 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조선 관계자의 상경으로 직접 정보국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측으로서는 바로 정보국에 대해 정식으로 태도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 15. 조선 독자안 최후의 난관(12월 1일)

11월 중순부터 월말에 걸쳐 조선독자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독부 영화 관계관 시미즈, 히루다 양 씨 및 업자 대표가 도쿄에 간 경과는 이미 언급하였고 일행이 귀임한 후 바로 조선총독부는 정식으로 ‘조선에 지사안을 거절하고 독자 안으로 가겠다’고 통달하였다. 정보국에서는 조선이 어디까지나 독자 안

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더 말을 않겠다. 단 프린트의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상당히 분명한 태도로 나왔다. 그런데 조선 측의 정식 회답을 접수한 뒤에도 여전히 척무성 관계관이나 총독부의 파견 관계관에게 지사안을 승인시켜 뭔가 형세의 역전을 꾀하기도 했다.

이 중간에서 척무성 경무과장 가나이(金井) 씨는 어떻게든 조선측을 도우려 조건을붙여서라도 독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으나 정보국 측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저 앞의 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조금 바뀐 의견으로는 ‘일본 측 배급회사의 수뇌부도 결정한 것이니 그 쪽과도 절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정도의 것이었다. 저자는 물론 정보국 당사자를 비난할 뜻은 전혀 없다. 그것은 정보국도 어떤 형태로든 조선의 배급기구가 실현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호의를 갖고 처리하려는 생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서도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복잡한 통제 사업을 한손에 맡은 입장상 꽤 미묘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척무 당국도, 정보국도 조선 측에 개입하여 가능한 한의 노력은 했으나 이 이상 타개책이 없다고 본 것이리라. 아무래도 조선 측에 대해 ‘조선의 독자적 회사를 세워 이를 일본 영배의 지사로 하고 운영 부분은 총독부에서 장악하고 배급의 실질은 일본 회사에 맡기는’ 안을 제1안으로 하고, 제2안으로 지사 설치안으로 변경하여 지사에 대한 총독부 측의 요구를 제시하고 재교섭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포기하는 듯한 의견을 내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불리한 정세가 된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마지막 선후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도서과 무라카미 사무관이 상경하게 된 것이다.

## 16. 총독부 변함 없는 방침 천명(12월 10일)

도쿄에서 영화 관계관의 진력으로 정보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일행은 바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와 전후하여 통제문제의 초기부터 크게 분투노력해 온 도서과장 혼다 다케오 씨의 학무과장 보임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12월 8일 현 모리 도서과장이 취임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정보국 측의 의견에 대해 바로 조선 측의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후하 과장의 말을 빌린다면 “지사라면 프린트 건은 걱정하지 마시오. 조선 독자의 기구라면 어떤 처지가 될지 알 수 없소.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대국적으로 생각해볼 때 물론 임전 하 자재난인 것은 다 아는 일이고, 조선에서 남아 둘 정도의 프린트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 140관을 순회하는데 국산의 후지필름을 인화한 것 1편으로는 아무래도 곤란하나 2편이면 어떻게든 배급이 돌아간다. 이 정도의 프린트는 대국적으로 보아 당연히 조선에 들어올 만한 공정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내지업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명분도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에서는 12월 10일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어디까지나 조선 독자안으로 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통보하고 동시에 정보국에도 통달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반복하여 조선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조선에 설치하는 기관 안에 일본 영배의 출장 직원을 두고, 조선 또는 일본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연락기관으로

만들고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배급의 원활을 기하기로 부언하면서, 오히려 정보국에 희망 조건 등이 있으면 참작하겠다고 알렸다.

또 이전에 정보국에서의 협의는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사안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한 문서를 만들어 발송하였다.

## 17. 도서과 관계관 상경하다(1942년 1월 19일)

정보국 및 일본의 영배 간부와 총독부 당국의 절충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현상유지로는 전혀 전망이 없어져 버렸다. 정보국, 조선총독부, 그 사이에 있는 척무성 모두가 의견을 내니 셋에게 묶인 꼴이어서 절개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사불명의 중태에 빠질 지경이었다.

1월 19일 상경한 무라카미 도서과 사무관과 히로다 조쿠는 바로 정보국 후하 과장과 면담하였다. 후하 씨의 심경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조선 측이 그렇게까지 바란다면 조선 독자의 배급기구를 만드는 것은 허락합니다. 그러나 정보국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남방 점령지 쪽으로 프린트가 예상 외로 많이 필요하게 되어 조선쪽 영화에 대해서는 책임보증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그래서 무라카미 사무관은 신 기구 설립에 승낙을 받은 이상 나머지 문제는 조선 할당 프린트의 획득이라고 보고, 영배의 새 사장으로 결정된 우에무라 다이지(植村泰二) 씨와 담판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1월 20일 영배의 창립사무소를 방문하여 우에무라사장, 가네유비 이사와 회견하고 조선 독자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 우에무라, 가네유비 양씨는 정보국이 근본 문제인 독자안을 승인한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며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조선 독자의 배급회사의 운영에 관해서는 모두 호의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도쿄 본사의 기구도 정비되지 않았으니 25일경에는 뭔가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회담은 끝이 났다. 그 사이 우에무라 사장과 무라카미 사무관 사이에 여러 절충이 있었으나 그것은 생략하고 동 24일에 같은 일본의 사세이(佐生)이사의 의향으로 조선 출시용 프린트 2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에 이르렀으나 다시 26일 우에무라 사장 등과 회견하기로 하였다.

당시 도호영화조선출장소장이며 현 조선영화 업무부장 아사하라 류조(淺原隆三) 군도 도쿄에 있어 무라카미 사무관을 보좌하여 도와주었다. 아사하라 군은 도호의 간부사원이고 우에무라 영배 사장이 도호 사장 시대의 부하였던 관계상 이런 이야기의 조력자로서는 딱 맞는 인물이었다.

이어 26일 사세이 씨와 무라카미 사무관, 아사하라 씨 등의 회견이 있었지만 아직 일본 측이 정비되지 않았는데 최고 간부가 언질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매우 호의적인 태도로 선처를 약속하였으므로 무라카미 사무관 등도 겨우 마음을 놓게 되었다.

이에 문제는 프린트 획득만이 남겨졌고 조선 독자안은 관철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단계에 이르렀다.

## 18. 당국 창립위원을 촉탁하다(2월 10일)

조선에 독자의 배급통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일본 측과의 파란과 곡절을 거친 교섭 끝에 겨우 결정되었으므로 총독부에서는 구체안에 대한 연구 입안을 서둘러 2월 10일자로 도서과장 모리 히로시 씨의

이름으로 창립위원회를 열기 위해 위원을 촉탁하였다. 당국으로부터 촉탁된 창립위원은 다음과 같다.

(관청 측)

위원장 도서과장	모리 히로시
위원 경무과장	야기 노부오(八木信雄)
조선내외영화배급업 조합장	소노다 지쓰세(園田実生)
도호영화조선출장소 소장	아사하라 류조
경성일보사 사업부장사노	시노 시게사부로(佐野重三郎)
니폰영화사조선지사장	요시타케 데루오(吉武輝芳)
동화상사조선지사장	시바야마 료지(柴山量二)

(흥행사 측)

조선흥행연합회 이사장	간도 우메기치(間島梅吉)
동    부이사장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동    동	후나고시 유지로(堀越友二郎)
동    전무이사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제작업자 측)

제작회사 창립상임위원	다카시마 긴지
동	히로가와 소요

(관청 기타)

경무국 도서과 사무관	무라카미 세이지
동    통역관	시미즈 마사쿠라
경무국 경무과 사무관	호시데 주오(星出寿雄)
배급협회 준비위원	다카야마 미쓰루
조선흥행연합회원	이시바시 유타카(石橋豊)
도호영화조선출장소원	고이데 아게유키(小出舉之)

19. 제1회 창립위원회 개최(2월 28일)

조선은 일본안인 지사 설치안을 어디까지나 거부하고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설립하는데 당국의 방침도 결정되고 배급업자의 총의 또한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일본과의 교섭은 교섭대로 진행하면서 독자안의 완성을 서두른 셈이다.

당시의 배급업자, 흥행연합회, 제작자 측과 총독부의 관계관이 참가한 창립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어 위원장에는 모리 도서과장이 취임하고 각 위원의 인선도 앞과 같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제1회 모임인

창립위원회는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조선히텔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모리 창립위원장이 영화계의 최근 변천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대응방침의 일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는 특수사정이 많으므로 조선 독자의 배급기구를 둘 방침이나, 그 성격은 종래와 같이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불식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하는 방침이라는 인사가 있었다. 이 공익법인 조직 설립안에 대해서는 배급업자 측도 이미 찬성하고 안을 만들어 당국에 벌써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반대의견은 없는 셈이었다.

그러나 정관 심의로 옮겨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흥행단체 즉 조선흥행연합회의 대표에게서 여러 질문과 의견의 개진이 있었고 모리 위원장도 신념을 피로하여 서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당일은 제1회 회합이고 구체적으로 각 위원도 분명한 요구나 의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배급통제기관 설립 준비로서 당국에서는 이것이 공익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참가하려는 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당국에서 소정의 이력서 용지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2월 21일 총독부 검열실에서 간부회를 열고 입사희망자의 감독방침에 대해 협의하였다. 다음 22일 다시 만나 당국이 작성한 이력서를 각 조합원 중 입사 희망자에게 배포하였다. 물론 이 서류는 조합을 경유하여 당국에 제출되어 인사 전형 자료로 된 것이다.

## 20. 일본 영배에서 정식으로 배급 요강 도착(3월 20일)

프린트의 문제를 남기고 일본 측도 조선 독자의 배급기구를 승인하는 데 이른 경과는 이미 언급하였으나 3월 20일자로 조선영화배급사 창립위원 앞으로 일본의 영배 창립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통달과 '배급에 관한 요강'이 왔다.

조선영화배급사 창립위원 전  
사단법인 영화배급사 창립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봄의 싱그러움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 창립 사무도 착착 진행되어 덕분에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사의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번에 도쿄에 오셔서 말씀하신 배급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그 후 관계 관청과 상의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령을 결정하였으니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귀사의 뜻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모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기재의 '배급에 관한 요강')

1. 당사로서는 일본은 물론 외지의 배급까지도 합쳐 일원적으로 취급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이 외지에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일본과 같은 방침 및 방법으로 배급을 신청할 것.
2. 당사의 배급 방침 및 방법은 정관 및 배급 업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읽어보시고 영화 요금 요율, 배급사의 수수료 및 제작회사에 대한 분배금 등에 관한 주된 조건을

적어보면

가) 흥행자에 대해서는 극영화, 문화영화, 시사영화로 편성되는 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나) 위에 대한 요금 산출의 기준은 당 흥행 기간의 총수입 중 5할 7푼 5리를 배급사에, 4할 2푼 5리를 흥행사에 배분하고 배급사는 이 가운데 흥행장의 이 기간 실제경비(건물세 제외)의 반액을 부담 지출하고 잔액은 배급사 및 제작회사의 취득 분으로 한다.

다) 배급사의 수수료는 흥행 총수입의 8푼으로 한다.

라) 흥행장 총수입에서 흥행자의 수익분, 배급사의 수수료를 뺀 잔액을 제작회사에 지불할 영화요금으로 하고 이를 극영화 8할, 문화영화 1할, 시사영화 1할로 분배한다.

3. 배급 수수료의 8%는 현지 배급사 6푼 5리, 당사 1푼 5리의 비율로 분배할 것.

4. 프린트는 현재의 할당 수량으로는 일본 상설관에 대한 배급조차 상당히 곤란할 것이므로 열심히 궁리 중이다. 따라서 현재는 외지로 할당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보국과 상담하기 바람.

5. 당사는 현지배급사의 계산에 맞추기 위해, 또 연락을 취하기 위해 1명 혹은 수명의 파견원을 상시 주재시킨다.

6.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고 장래의 합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힘쓸 것. (배급 수수료의 일본과 조선 취득률은 모리 과장의 도쿄에서의 교섭으로 변경되어 조선 측에 유리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나중에 기술하겠다.)

## 21. 모리 도서과장 상경하여 마지막 교섭 개시(3월 21일)

일본 영배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우에무라 사장을 중심으로 신 기구가 거의 완비되어 외지 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현재 대만의 경우는 3월 28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소식이 상경 중의 아사하라 씨에게서 들려 왔다. 조선의 영화 배급에 대해서도 조선 독자의 회사가 운영되기까지 스톱할 수도 없어 4월부터 회사 성립까지 조선 내 배급은 일본 영배가 대행하는 형식으로 했다.

조선의 남은 문제인 프린트 할당 수에 대한 고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절충이 필요했다.

드디어 마지막 교섭까지 갔기 때문에 모리 도서과장이 도쿄로 상경하였다. 검열계에서 처음부터 배급 통제 관계의 일을 했던 히로다 조쿠는 과장보다 한발 먼저 3월 28일 출발 상경하였고 모리 과장은 3월 1일 경성을 떠나 상경하였다. 아사하라 씨가 일행의 상경을 목 빼고 기다렸음은 물론이다.

모리 도서과장의 도쿄행으로 영배우에무라 사장과의 협의는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한쪽은 일본 영배의 대표자이고 모리 과장은 감독 당국의 책임자인 동시에 조선독자회사의 창립위원장이므로 쌍방 모두 말 한 마디 한 마디 주도면밀하였다. 결국 영배로서는 정보국의 의향을 충분히 들은 뒤에 태도를 결정한 것이나 요컨대 “외지에 대한 독자의 회사 설립은 승인한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외지의 배급사는 일본 배급사에서 배급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회사의 성격으로 이를 인정한다. 또 배급은 일본과 같은 방법 및 요율로 한다. 대행회사로서의 성격을 띠는 이상 프린트의 배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다.”라는 것이 영배의 변함없는 대 외지 방침이었다.



모리 도서과장으로서 이미 이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에 근본방침에는 아무 수정 없이 승인하고 서로 간에 요율 및 기타 세목에 대해 조선 측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당당히 논의를 펼쳤던 것이다. 그 결과로서 조선에서도 대만을 훨씬 능가하는 유리한 계약을 성립시키기는 하였지만 프린트의 획득에는 시국의 정세가 곧바로 반영되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

처음 조선에서는 일본에 30편 정도를 부탁할 생각이었으나 이는 결국 무리한 이야기였고 우에무라 사장은 꽤 호의적이었으나 배급 기술 상 일본의 30편에서 그 7%에 해당하는 2편을 조선에 할애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영배로서는 정보국을 설득하여 조선으로의 필름의 증배를 피하기로 하고 영배와 조선 측은 같은 목적을 위해 각각 정보국에 운동하기로 하였다. 정보국에 대해 모리 도서과장은 두 번 세 번 조선 할당으로 극영화 각종 2편씩의 배급을 요청했으나 즉답은 받지 못하고 모두 필름할당협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독자안이 승인되어 일본 영배의 호의적 협력이 있는 이상 상식적으로 보아도 최소한도 2편씩의 할당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또 일본 배급사의 수수료 문제도 당초의 일본 측의 1푼 5리와 조선 측 6푼 5리가 절충된 결과 일본 측은 겨우 5리로 하고, 조선 측은 7푼 5리라는 유리한 조건이 성립한 것은 모리 도서과장의 공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계약 성립에서 창립 이후

### 22. 모리, 우에무라 양씨 사이에 가계약 조인(4월 10일)

총독부 도서과장 모리 히로시 씨의 도쿄행으로 정보국과 일본 영배에 대한 모든 절충은 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리 과장은 조선 측 신 회사 창립위원장으로 일본 측과 가계약을 조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4월 10일의 일이었다. 정보국과 척무성 관계관 입회 아래 모리와 우에무라 양씨가 배급 사업에 관한 각서 및 가계약서의 조인을 마쳤다.

조선영화배급사가 성립하여 정식적인 양 사의 계약이 맺어진 것은 당연하나 배급통제의 결실은 가계약으로 실현된 것이고 영구히 기록할 만한 자료가 되었다.

(기록)

사단법인 영화배급사(일본)와 조선총독부의 알선 하에 창립되고 있는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사이의 정식계약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의 설립 등기 완료 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나중에 이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영화배급사 사장 우에무라 다이지와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창립위원장 모리 히로시 사이에 별도로 정한 가계약중서 및 각서 각 2통을 작성하여 양자 각 1통을 갖게 하였다.

1942년 4월 10일

도쿄시 교바시구(京橋区) 교바시(京橋) 3-11

사단법인 영화배급사 사장 우에무라 다이지(植村泰二)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창립위원장,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 모리 히로시(森浩)

이상의 서류에 양자 조인하고 별도로 가계약서 및 각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특히 조선 측에 유리한 사항은 일본영배의 배급 규약에 준거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조선의 특수사정을 위해 규정 또는 규약에 준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 협정 위에 결정하고 별도로 각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앞으로 조선에서의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독자적인 견해 하에 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남긴 점 및 배급 수수료 8푼 중 일본 영배 취득분을 0.5로 하고 조선의 취득분을 7.5로 한 점, 조선총독의 요구에 응하여 행하는 무료영사를 인정한 점 등은 조선영배의 장점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 23. 영배와 계약 성립, 모리 과장의 담화(4월 14일)

일본영배와 조선영화의 가계약과 그 외 마지막 용건을 위해 총독부 모리 도서과장은 히로다 조쿠를 대동하고 3월 30일 도쿄에 가서 4월 10일 영배 우에무라 사장 사이에 각서의 교환을 완료하고 함께 상경 중인 조합 측 상임위원인 아사하라 류조 씨 등과 배급 기술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4월 14일 경성으로 돌아왔다. 모리 도서과장은 부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화배급업자의 통제는 일본에서는 3월 말에 실시되었고, 사단법인 영화배급사가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조선에 지사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은 독자적인 입장에서 현재 4, 50이 넘는 배급업자를 통합하여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로 5월 초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배급사의 경비는 조선 전체 영화 입장료 총액에서 8푼을 충당하고(1941년에 총 수입은 1천만 엔) 이를 가지고 순회영사와 기타 영화를 통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종래 일본에서 들어오는 영화필름은 월 7, 8편에 달했으나 일본의 제작회사가 3사로 통제되면서 월 각각 2편씩 6편을 제작하고 그 프린트 2편씩 12개를 조선에 배급한다. 이를 입장료 수입액 순으로 1차 상영관부터 순차로 배급하므로 앞으로는 모든 필름이 전 조선에 빠짐없이 상영되어 지방의 민중들도 우수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게다가 각 영화관은 입장료가 묶여 있는 관계 상 서비스를 강조하여 고객의 흥미를 끌려고 할 것이니 일반 영화 팬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 조선에서 영화제작사는 현재 10여 사에 이르나 개중에는 질이 의심스러운 것도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유력한 제작회사를 설립하여 조선 대중에게 딱 어울리는 영화를 제작시키기 위해 목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 24. 임시 사무소 설치와 업무 개시(4월 14일)

조선영화(사)의 본격적인 사무는 4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임시사무소로 경성부 황금정 3-349의 도호영화조선출장소 건물을 사용하였다.

지상 지하 복도에 이르기까지 쓸 만한 공간은 모두 사용했으나 다수의 사원이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북새통이었다. 5월 1일의 정식 업무 개시를 앞두고 있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부 기구로 창립사무를 진척시키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5월 1일부터 드디어 업무를 개시했으나 오랫동안 관례가 된 낡은 배급형식을 버리고 한꺼번에 신제

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극장 측과의 교섭 등 만반의 준비는 물론 흥백 두 계통에 의한 새 배급선의 편성, 요금의 산정 등 모든 것에 대해 극장 측에서도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불만이나 주문이 쇄도하였다. 한때는 완전히 혼란 상태라 해도 좋을 정도였으나 그 후 점차 배급사의 종업원이나 극장 측도 사무에 익숙해져 풍파는 지나갔다. 경성지역은 물론 지방 상설관까지 신제도에 의한 배급조직이 침투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원만히 이루어진 것은 시국의 풍파로 영화인이 각성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영배 창업 당시 즉 이렇게 복잡하고 가장 곤란한 시기에 다수의 종업원이 자신의 지위나 급료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난관을 돌파한 그 기개는 당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일종의 독특한 것이니, 배급통제사의 큰 미담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 25. 제2회 창립위원회 개최(4월 16일)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조선배급 독자안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리 도서과장, 히로다 조쿠 등의 마지막 도쿄행에서 정보국이나 일본 영배와 협정이 성립됨으로써 우에무라 영배 사장과 모리 조선 측 창립위원장 사이에 가계약이 성립하였다. 4월 14일 모리 과장의 귀임으로 드디어 창립 사무는 본격적으로 되었고 제2회 창립위원회가 4월 16일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창립위원회로서도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이고 모리 과장이 가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온 직후의 보고도 있어 전원 출석하였다. 같은 날 같은 호텔의 다른 방에서는 조선흥행연합회의 임원회의가 열려 상당히 긴박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창립위원회에서는 모리 위원장의 도쿄행 보고가 있었는데, 그는 가 계약서를 위원 일동에게 보이며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흥행연합회에서는 상설관 경비를 총수입의 3할 5푼으로 자르는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이 속출하였고 아사하라 위원은 도표나 통계표를 작성해 흥행 측 간부에게 설명하며 애를 썼으나 신배급율의 산정이 매우 복잡한 계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 문제가 일단락되자 영배에서 선임하는 흥행자 측 사원 및 이사 수의 증원을 강경히 주장하는 쪽도 있었으나 모리 씨는 공평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오임을 강하게 어필하며 간부들의 양해를 얻는데 주력하였다.

이 창립위원회가 이른바 큰 문제였던 셈으로 그 후는 별다른 물의가 없었던 모양이다.

## 26. 마지막 창립위원회 개최(4월 28일)

창립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합이 4월 28일 치요다 그릴에서 개최되었다.

동 석상에서는 드디어 5월 1일부터 대망의 조선 독자의 배급이 개시되어 곧 영화령이 기초한 배급업 허가도 신기관인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로 하부되기로 한 경과를 보고하고 사장에는 조선영화제작 회사의 창립을 맡고 있는 다나카 사부로 씨를 임명한 점에 대해 창립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결국 이 창립위원회가 해산식이 된 셈이다. 최초 영배의 정관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영배 사장인 자는 다른 영화사업에 관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으나 이 항목은 제1회 창립위원회에서 전 출석자의 찬성을 얻어 정관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당시 영화제작회사의 창립을 맡아 분주한 다나카 사부로 씨를 동일 영화사업인 배급회사의 사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정관에 저촉되는 점은 물론 아니었다. 당국의 최고 방침이 이렇게 결정된 이상 창립위원도 이 점에 대해 강하게 얘기할 수 없게 되어 당국의 기정방침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 27. 다나카 사부로 씨 사장에 취임하다(4월 28일)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전선 영화 배급의 총본산이 된 조선영화배급사의 사장에는 꽤 여러 하마평이 있었다. 그 대부분은 역시 회사의 성격으로 보아 관계인의 진출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당시 영화제작회사의 창립을 막 맡은 다나카 사부로 씨를 임명하였다. 다나카 씨가 제작회사의 경우와 달리 즉답으로 허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이의 사정에 대해 항간에는 여러 비평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일본영배사장 우에무라 다이지 씨는 영배가 공익법인이니 도호영화사장은 물론 일체의 회사와 관계를 끊고 자연인 우에무라가 되어 국책 협력의 대승적 견지에서 사장 자리를 이어 받았다. 비영리법인은 말하자면 반 관적 국책조직으로 현역 실업가가 주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나카 씨 개인은 훌륭한 인격자로 생각되나 한편으로 이해관계의 긴밀한 영화제작회사의 사장이고 양 사의 경영을 장악하는 것은 만전의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나카 씨의 영배사장 취임은 솔직히 말해 이상한 인사였으나 잘 음미해 보면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영배는 공익법인이고 사장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사업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배급 사무의 일대 방침은 확고부동한 것이므로 사장이 일일이 회사의 운영기술을 지도하는 번거로운 것을 할 수는 없다. 든든한 간부와 세련된 배급 업무의 담당직원이 있으면 사장은 필요 없을 정도이다. 그보다도 다나카 씨의 사장 취임은 한편으로 난제를 계속 안고 있는 영화제작의 진보에 박차를 가하는 방편으로 보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조선의 영화제작 사업을 출자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재정적으로도 괜찮다고 납득시키려면 조성기관인 영배사장의 명함이 있어야 일하기가 쉬운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일본 영배의 경우와 달리 총독부를 중추로 배급, 제작, 흥행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져야 하는 관계도 있고 또 당국이 지척에서 긴밀히 관여하므로 사장은 다나카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 제작통제라는 중대한 문제도 있고 과도기의 조선으로서는 당국의 방침에 상당한 깊은 고려를 해야 하므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 또 실제문제로서 노골적으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작회사 창립 후의 상태나 또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정세로 보아 당국으로서 선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 28. 배급업 정식으로 허가되다(5월 1일)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창립사무소에서는 4월 28일 사장으로 총독부에서 다나카 사부로 씨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다나카 씨의 명의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설립허가 신청 및 영화령에 의한 영화배급업의 허가신청서를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하였다. 당국에서는 회사 운영의 현상에 비추어 바로 심의한 후 5월 1일 설립허가와 함께 영화 배급 업무의 허가도 내려왔다.

### 설립취의서

지금 영화는 단순한 대중오락으로서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보도, 교화, 선전상 위대한 효과를 내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영화관계의 자재가 극도로 부족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영화사업 전반에 걸쳐 고도의 통제를 가하고 강력한 국가지도를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자재로 최대한도의 효과를 발휘시키려는 방침을 천명한 바이다. 따라서 영화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조선에서는 앞으로의 영화의 배급 관계 등을 참고하여 이후 배급에 관해서는 일원적 통제정책에 적응하며 조선총독부의 적극적 지도하에 현지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배급 기구를 정비하고 종래의 영리 본위의 배급 방법을 시정하여 배급의 합리화를 꾀하며 영화의 문화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 29. 관계의 오카다 중이치 씨가 상무에 취임(5월 23일)

조선영화 사장 결정에 이어 문제가 된 것은 실제로 실무를 총리하는 상무이사의 인선이었으나 이미 일찍이 당국의 방침에 기초한 관계인의 취임이 예상되어 전라북도 경찰부 경제경찰과장 오카다 중이치를 추대하는 소리가 커졌다.

오카다 씨는 총독부 영화검열실에 오래 근무한 검열주임으로 영화의 검열과 영화행정의 확립의 담당자인 도서과장을 여러 대에 걸쳐 보좌하였고 마침내 예의 영화령 시행까지 해내어 1941년 6월 위의 전북경제경찰과장으로 영전하였다. 이른바 관계영화인으로서는 매우 연륜이 있는 인물이었다.

오카다 씨의 하마평은 제작회사의 간부로서도 상당히 선전되었는데 드디어 영배의 상무이사에 취임하기로 했다. 직접 많은 사회인들을 접촉한 점에서 전북 근무 만 1년은 오카다 씨로서는 실로 귀중한 체험 기간이었으며, 관을 떠나 입성한 오카다 씨는 많이 부드러워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태도에도 원숙미를 보이게 돼 많은 사람들이 큰 호감을 갖고 그를 환영하였다.

총독부 영화실에 오래 근무한 관계로 영화계에 지인이 많고 특히 배급, 흥행 양 부문의 유력자와는 기탄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여서 창업 초기부터 조선영배로서는 적절한 인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공익법의 성격에도 오랫동안 관계에 있었던 오카다 씨가 적임이었고 깊이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 이 인사는 무난하고 공평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0. 영배의 창립 피로행사(6월 4일)

조선영화배급사의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는 먼저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부민관에서 창립 피로 초대 시연회 제 1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은 관람자 총수가 1,500명에 달해 다나카 사장의 인사가 있는 후 영화 〈일본 뉴스〉, 〈북해의 철새〉, 〈남해의 꽃다발〉, 〈특별공격대〉라는 다채로운 프로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피로연은 이에 앞서 5월 28일 가게츠 본점에서 개최되어 당국의 수뇌부, 창립 관계자 등이 출석하였으며, 다나카 사장의 인사, 내빈을 대표한 모리 도서과장의 축사가 이어진 연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 6월 4일은 반도호텔에서 군 관 민 문화방면 등에서 수 십 명을 초대하여 피로연을 열고 다나카 사장의 인사말과 구라시게(倉茂)보도부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 또한 성황을 이루었다.

8월에 들어 도쿄에서도 창립피로연이 거행되었다. 즉 8월 14일 고히키초(木挽町) 만안(萬安)에서 개최된 피로연에는 정보국에서 센덴 제4부장, 후하 과장. 이나 정보관, 마쓰우라 정보관, 내무성에서 가토(加藤) 사무관, 이토(伊藤) 사무관, 니시다(西田) 정보관, 척무성에서 아라키(荒木) 경무과장, 이와세(岩瀬) 사무관, 육군의 구로다(黒田) 중위, 일본영배에서 우에무라 사장 이하 각 이사 등이 출석하였다. 다나카 사장의 인사에 이어 센덴 제4부장이 조선영배의 전도를 축하하는 축사를 하는 등 관계 및 영배 수뇌부를 망라한 성대한 축연이었다.

### 31. 확립된 기구와 진용

조선영배의 출자 관계 및 선내의 기구 진용을 소개하면 회사는 설립준비금 15만 엔으로 창립되었으며 출자 계통은 모두 조선 내에서 이루어져 5만 엔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5만 엔 조선흥행연합회, 그리고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가 25,000엔씩 거출하고 있다. 각 사 모두 대표자를 사원으로 파견하고 있다. 간부는 사장에 다나카 사부로 씨, 상무이사에 오카다 중이치 씨(총무부장 겸임), 노자키 신조(野崎眞三)의 두 명, 이사에 간도 우메기치(間島梅吉),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하라다 고도(原田公道), 오노 도시유키(小野利幸), 감사(監事)에 야나베 에이자부로, 이병길(李丙吉) 씨 등이 취임하고 간도 우메기치가 서거하면서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씨가 이사에 취임하였다.

사내의 조직은 대외 부분의 업무부와 내부 조직 관계의 총무부로 나뉘어 업무부장에 창립 당시부터 관계한 전 도호영화의 출장소장 아사하라 류조 씨가 취임하고 총무부장은 오카다 상무의 겸임으로 하였다. 업무부의 조직은 배급, 선정, 사업의 3과로 나누어 배급은 전 조선을 3구로 나누어 담당을 정하고 사업과도 선전, 계획, 보급, 기술 등의 각 담당을 두고 있다. 선정과는 선정과 조정, 수검(受檢)의 3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총무부는 경리 관계를 주무로 총무, 고사(考査)의 3과가 있고 총무과에 서무, 용도, 관리, 후생, 창고의 각 담당을 두고 있다. 이는 대략 살펴 본 진용에 지나지 않으나 사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추가 개선을 더할 것이 많아질 것이다.

### 32. 구 배급 진용과 인적 변화

배급 통제가 실시되어 구 배급업조합의 멤버로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 정도일까. 스스로 들어가길 희망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자, 입사를 종용받았으나 제1선에서 물러난 사람 등 여러 가지로 사람들 입에 화제가 되었지만 오늘날 결과를 보면 실로 숙연한 마음이 든다. 그 일은 영화 제작 통합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배급업조합의 간부 8명 중 현재 영배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은 아사하라 류조, 아마모토 기지(山本季嗣), 시카타 겐 세 명에 불과하고 또 조합원 45명 중 현역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가모이 요시카즈(鴨井吉一, 배급과장), 이키 하쓰요시(壺岐初好), 해외담당 주임) 정도이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조용히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현 영배과장 급 이하는 상당히 오래 있던 사람도 있으나 모두 조합원이나 일본영화회사의 출장소에서 일한 사람이 많다. 조선인 측 업자 중 그럴싸한 직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히로가와 소

요, 고인문(高仁文) 씨 등은 이 방면에서는 상당한 유력자이나 그 이름도 잊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다. 또 한때 창립위원회 준비에 거구로 분주하던 니카쓰 출장소장 다무라 준(田村峻) 씨 등도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변화가는 긴 인생의 한 컷 중 1, 2년간에도 그 서막과 종막 사이에 꽤 극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보였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든 조직이 달라지든 사회는 순전히 1초 24번의 회전으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정신없이 계속 돌면서 영배여 영원하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 33. 이동영사반의 결성(12월 6일)

조선대중의 계발기관으로 농산어촌의 이동영사반 파견은 신 조선영배 창립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다. 당국이 조선에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둔 이유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 이동영사반은 창립 당초부터 준비되고 있었으나 조선에는 종래 여러 사에 이동영사 전문 회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는 마찰도 가능한 한 피하고 영화사업 일원화의 입장에서 이들의 설비를 이용하여 쌍방이 서로 도와가며 이상적인 이동영사반을 결성하기 위해 당국 및 업자와 협의를 거듭하여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12월8일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실행에 옮겨졌다.

현재의 순회영사반의 수는 1도 1반, 즉 13반과 별도로 조선영배 직속반이 예비반과 함께 8반이지만 앞의 13반은 종래의 순회영사업자 중 우수한 업자를 뽑고 영사기도 엄정한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영배의 업무 위촉의 형태로 실무를 맡고 있다. 이후 조선의 벽지는 영화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므로 각지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또 전등 설비가 없는 농산어촌 등이야말로 실제로 이용가치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홈라이트 영화반의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개설 이래 4개월 간의 성적을 보면 영사회수 1,109회, 관람인원 807,657명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9월 한 달에 상영회수 263회 관람인원 278,500명에 이른다. 이에 가산되지 않은 군대 관계를 넣으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다. 영사 요금은 1회 30엔으로 정하고 있으나 2회 이상 연속하여 영사하는 경우에는 5할을 증액한다. 단 공익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금의 감액 또는 무료로 할 수 있어 주최 지역의 영사 목적에 따라 다르고 요금 징수의 경우에도 1인 10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선영배에서는 이런 업무 촉탁의 형식에 따른 이동반에 대하여 1반 1개월 200엔씩의 조성금을 교부하고, 별도로 반의 경비로 일부 부담을 행하게 함으로써 대개 이동영사반에 대한 배급사의 조성금은 연 7만 엔 전후로 계산되지만, 장래 홈 라이트반을 비롯한 조선 전체에 이상적인 이동영사반을 송출하게 되면 역시 상당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회사가 조성해야 할 한 부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34. 영화와 연극의 관계

연극 전문관이 전 조선을 통틀어 불과 5, 6관에 지나지 않은 현상에서는 연극의 공개 장소로 영화상설관이 이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영화와 연극사이에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조선연극협회에 속해 있는 단체는 극단 13, 악극 11, 창극 3, 서커스 6의 33단체이나 이들 중 서커스를 제외한 27 단체는 항상 전 조선을 순회하고 있다. 공개에 관한 상설관 측과의 계약은 장소

임대 또는 순회 흥행을 하는데 단매관(單賣館)은 그렇다 치고 보합관(步合館)의 경우, 영배로서는 건물 임대에 의해 상영하지 않는 영화의 요금을 추정하여 보통의 배분율로 계산하고 있다. 영배로서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연극 부문의 발전 준비에 따라 좀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연극 단체의 중추기관인 조선연극협회와 영배 사이에 긴밀한 연락과 의지의 소통이 필요하다.

조선에 현재 있는 13개 극단은 지금은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목적 하에 연극보국을 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오늘에도 여전히 기획이나 성격 상 구태를 고집해서는 곧 연극문화의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연극협회의 지도성을 진작시키고 성격과 내용의 충실을 피하는 것이 필연적인 급무이다. 또 영배로서는 전 조선의 상설관에 대해 영화배급의 실권을 한손에 쥐고 있으므로 이들 상설관의 연극 공개에 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그리고 영화 요금의 추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영배 본연의 사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선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연극이 발전해 갈 방향을 고려하는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겠다.

영화든 연극이든 표현 방법은 달라도 모두 함께 비상시의 문화부문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또 지도 당국은 영화의 경우는 경무국 도서과이고 연극은 경무국 경무과에서 맡고 있으나 바라건대 뭔가 일원적인 지도하에 통제 감독하여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영배와 연극협회 측과의 연락, 또 이에 따른 흥행연합회의 협조 등도 앞으로 크게 연구할 여지가 있다.

### 35. 영배 통제 이후

영화배급 통제의 원고를 끝내면서 이 문제가 대두한 후 종막까지를 돌아보면 상당히 긴 발자취가 보인다. 또 고심한 기억도 생각한다. 모체를 일본에 둔 배급 문제의 중심은 언제나 도쿄에 있고 일본의 정세에 울고 웃다가 드디어 조선의 독자안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 사이 감독 당국 관계관의 고심은 상상 이상이었고 덕분에 조선의 특수성을 일본에 인식시켜 문화조성이나 그 외의 부분에서도 조선을 위한 특별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였다. 그것도 당초 일본 측에서 문제가 된 배급의 원활화도 현재로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 있다. 개업 한 달 후에 실제 배급관 수는 보합관 60관, 황보관(荒步館) 75관으로 135관, 거기에 뉴스관이나 가설관을 합쳐 147관에 이르고 있다. 또 수입 면에서도 새로운 흥행순서가 바로 변경되어 한 달 안에 명치(明治), 성보(城寶), 평양의 대중(大衆), 약극(若劇)의 순으로 3만 엔 이상을 올려 이하 각 관 모두 양호한 숫자로 달을 넘기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고개에 선 조선영배는 앞으로 행운이 많을 것이고 동시에 약진 조선에 부여된 문화적 사명은 실로 중대하고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화순보(映畫旬報) 조선특집호에 게재된 조선영배의 「배급통제 이후」 논문을 전재함으로써 일본 영화 평론가의 관찰을 기록하고 원고를 끝낸다.

(전략) 일본 영배와의 사이에 당시 사장이 미정이었기 때문에 총독부 모리 도서과장 이름으로 가계약이 맺어진 후 8월에 이르러 사장 다나카 사부로 씨의 이름으로 본 계약이 맺어졌다.

일본영배의 사장은 다른 영배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경성의 실업가이며 조선영배사장인 다나카 씨가 주식회사 조선영배제작회사의 사장을 겸하기 위해 이 항목은 조선



영배의 정관에서 삭제되었다. 또 구 영화배급자가 소유한 영화를 조선영배에 위탁하면서 영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예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바이다.

전 총독부 검열관이고 영화배급업조합의 상담역이었던 오카다 중이치 씨가 들어와 상무이사에 취임하였다. 직원은 주로 실적 있는 배급경험자가 모여 도호조선출장소 아사하라 류조 씨가 업무부장이 되어 실제의 산파역을 맡았고 이어 조선영배를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조선영화와 일본에서 조선으로 팔린 영화는 직접 위탁받고, 일본회사의 영화로 조선에 재고되어 있는 것은 일본영배를 통한 형식으로 거의 전부 조선영배에 위탁되었다.

일본영배와 계약의 요점은 8% 수수료의 일본과 조선영배의 배분율과 영화관의 경비를 35%로 자른 점이다. 즉 일본 제작사는 일류관의 배분금은 반드시 총 흥행수입의 40%를 보증 받지만 조선의 (상영)관 측은 경비 35% 이상 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 때문에 1류관의 경비가 35% 이상으로 드는 곳은 후하고, 지방의 소극장으로 경비가 35% 이상 드는 관에는 박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35%제(制)는 일본과 조선 양 영배나 제작사의 희망으로 계약 중에 각서로 붙여진 것이 아니고 조선의 흥행자 측의 일류관 주변의 희망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35% 이내로 그친 장내의 반환 경비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25%로 된다면 10%의 잉여가 생긴다. 이 반의 5%는 제작 취득분으로 계상되고 다른 5%는 제작사 본인 1류관의 배분금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된다. 그리고 조선의 영화문화 제반 사업을 위한 조성금으로 총독부의 지령을 기다려 유효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35%제가 있다고는 하나 5할 7부 5리와 4할 2부 5리의 새로운 비율이 실시된 이상 경비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며 조선영배에 고사과(考査課)가 있어 사정, 통계 등을 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흥행연합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도중에 경비 35% 이내의 경우는 지불전표에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관람권은 직원의 부족이나 자재 관계 등으로 일본과 같이 매권제도를 취하게 되었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곧 전 조선의 관람요금의 조정 통일과 동시에 실시되기 바란다. 조사와 대표권은 서로 관계가 있어 정확한 숫자의 근거가 되어 공정한 통계에 의한 공정한 배분을 바라는 바이다.

고사(考査)의 확립과 대표권의 발행은 조선영화계의 건전 명량한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본의 보급 개발에 대해 조선은 이동영사반의 조직을 갖고 있다. 지방에 영화관이 적고 일반적으로 교육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시대의식의 강조를 필요로 하는 조선에서 이동영사반의 문화적 사명은 일본의 그것 이상으로 중대함을 통감한다. 조선영배의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열의를 바라는 바이다.

영배의 이동영사반보다 1년 반이나 이전부터 총독부 관방 정보과에서 조선영화 개발협회라는 조직을 갖고 표준형 영화순회 대부(貸付) 4반, 16밀리 영화순회 대부 4반의 편성을 매월 작성하여 영화에 의한 지방문화의 향상, 위안을 행하고 있다. 이 방법은 총독부 소유의 단편, 시사영화만으로 극영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사영화가 영배 이동반의 그것보다 몇 편 새로운 것이 일찍 편성되거나 같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양 사가 순회하는 것과 같은 횡적인 연락은 결여되어 있다. 정보국과 도서과, 영배의 삼자 협의로 필름과 기계와 인력의 중점적 이용과 적절한 절약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영배는 잉여금을 남방 공작에 쓸 필요는 없다. 조선 내에서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유효하

게 쓰면 될 것이다. 35%제로 생긴 조성금은 약 10만 엔 정도가 될 것이고 이 외에 배급 수수료가 매월 평균 약 6만 4, 5천 엔으로 보아 회사의 경비 약 3만 4, 5천을 빼면 확실히 3만 엔이 남아 배급통제 1년 만에 약 40만 엔이 된다. 조성금 10만 엔을 더해 약 50만 엔의 금액이 조선의 영화 문화를 위해 산출된다고 생각한다.

### 36. 조선영화배급사 현재의 진용

조선영화배급사의 기구는 현재 일단락되고 정비된 진용으로 업무가 개시되었는데 10월 10일 현재의 동 사 임원 및 간부사원은 다음과 같다.(경칭 생략)

임원 사장 : 다나카 사부로, 상무이사 오카다 중이치, 노자키 신조(野崎真三), 이사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하라다 고도(原田公道), 오노 도시유키(小野利幸), 감사 야나베 에이자부로, 이병길(李丙吉)

사원 : 다나카 사부로,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다카미야 다이헤이(高宮太平 경성일보 사장), 금천성(金川聖 매일신보 사장)<sup>66)</sup>

부장 : 총무부장 오카다 중이치, 업무부장 아사하라 류조

이사실 비서 인사주임 : 오바라 쇼분(小原昌文)

총무부 총무과장 : 야마모토 기지(山本季嗣), 서무주임 아리가와 이사무(蟻川勇), 후생주임 아이다 호료(藍田保亮), 창고계장 사토 곤조가즈(佐藤今朝一)

총무부 경리과장 : 고이데 아게유키(小出舉之), 회계주임 대우 다나하시 상유(棚橋三雄)

총무부 고사과장 : 나카야마 도세기치(中山東世吉), 통계주임 데라다 미쓰하루(寺田光春), 감사 2구계(區係) 주임대우 사토 도라유(佐藤虎雄), 매표계 주임 구로키 유타카(黒木豊)

업무부 배급과장 : 가모이 요시카즈(鴨井吉一), 제1구 주임, 오토 산지(大音三二), 제2구 주임, 이토 겐지(伊藤元治), 제3구 주임 야마모토 긴고로(山本金五郎)

업무부 선정과장 : 노노무라 고헤이(野々村康平), 수검계(受検係) 주임 마쓰다 요시오(松田義雄), 선정주임 무라다 하루오(村田清治), 조정주임 무라세 이데나오(村瀬秀治)

업무부 사업과장 : 시카타 겐, 계획주임 스지다 마사오(須志田正夫), 선재계(宣材係) 주임 대우 이타이 고이치(板井幸一), 기술주임 미우라 이사무(三浦勇), 보급 및 주임 대우 이케사와 쇼이(池沢勝意)

업무부 섭외 겸 영재(映材)주임 : 이키 하쓰요시(壹岐初好)

주재원 : 도쿄 일일신문 다카히로(高博), 경기도 이바야시 시게루(井林茂), 아카야 쓰루(丹山鶴), 나리이 사부로(成井三朗), 평안북도 야기 아키조(八木秋三), 평안남도 모리야마 사부로(森山三朗), 황해도 고노 요시타케(河野義武), 경상남도 이데 도시이치로(井手年一郎), 하시모토 중이치로(橋本順一郎), 경상북도 곤도 히로시(近藤弘), 충청남도 아나미 미치헤이(阿南道

66)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평), 충청북도 가네다 겐지(金田健次, 전라남도 시마다 미노루(島田実), 전라북도 고조 토요시게(五条豊茂), 함경남도 구리오카 주유(栗岡忠雄), 후지가와 긴조(藤川欽三), 함경북도 데라다 마사요시(寺口正義), 마쓰시마 히로타케(松島弘武), 강원도 고노 아키오(河野秋夫)

## 제3편 영화홍행 통제 권(卷)

### 1. 머리말

영화제작계와 배급 부문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으나 홍행면의 이른바 신체제는 아직 남겨진 문제가 많고 제작, 배급과 같이 일도양단식의 변혁이 매우 어렵다. 홍행부문의 신체제는 배급 조직의 전면적 변혁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국에 즉각 대응하는 경영체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년간 일본제작회사의 작품 개봉관으로서 또 자유 홍행관으로서 경영을 자유의지로 해 온 극장 측 으로서는 실로 복잡한 배급 요금의 산정을 받아 제 경비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홍행 신체제라는 일은 표면에 나타난 문제로서는 이러한 홍행자 대(對) 배급사의 요율 계산이었지만 그 외로 정신적인 방면에서 홍행자의 결전 체제가 없으면 이상적인 홍행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홍행에 관한 한 홍행인의 마음가짐, 각오에 따라 임전자세의 성패가 갈리는 셈이다.

그리고 이 일이 제작 배급 통제보다도 더 중대한 이유는 홍행 즉 사회에서 제작 배급 면이 병참부라면 홍행은 실로 제1선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갖는 사명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방법도, 영화를 어떻게 민중에게 소화시킬 것인가도 모두 홍행 면에 책임이 있다. 초비상시국에 옛 자유주의 홍행의 꿈을 좇는 자는 물론 한명도 없겠지만 홍행이 갖는 중대한 국가적 의의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홍행계가 영화통제의 기운에 따라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초반부터였다. 즉 전 조선을 통틀어 하나로 된 조선홍행연합회의 결성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조직에 의한 영화기구의 실현까지 창립위원을 보내거나 독자적인 입장에서 위원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정세를 조사하거나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홍행면의 신체제는 앞으로 매표권 제도, 요금 문제 등의 난관을 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우나 요는 앞에서 말한 홍행인의 마음가짐 여하에 달렸음은 말할 것도 없다.

### 2. 조선홍행연합회의 결성(1942년 1월 7일)

영화계 전반에 걸친 혁신의 파도가 반도에 격렬히 휘몰아쳐 온 1942년 1월 7일 전 조선 홍행인으로 조직된 조선홍행연합회가 결성되어 홍행부문을 대표하는 유력한 발언기관이 되었다.

1월 4일 연합회 결성의 주장자가 모였는데, 간도 우메기치 씨를 위원장으로 오이시(大石) 이시바시(石橋) 오카모토(岡本) 소노다(園田) 도미이(富井) 사노(佐野) 이시바시 유타카(石橋豊) 씨 7명을 위원으로 회의 진행과 기타를 협의하고 1월 7일 정오에 조선호텔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전 조선의 홍행자는 연말 12월 30일자로 연합회 결성 목적을 기술한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당일에 출석한 관주(館主)는

경기도의 20명을 필두로 전 조선에서 69명이 참가하였고 협회 결성의 취의서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배급 업무 규정이나 요금 요율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흥행연합회 결성 취의서)

이번 정부에서 영화제작 부문을 통제하고 영화계의 신체제를 수립하여 종래 난립한 많은 영화제작회사를 3사로 통합, 국가 관리의 형태로 하고 종래의 불통제를 교정하여 전시에 대응한 체제 하에서 영화의 증대성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재출발하려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종래의 영화회사도 역시 시국을 인식하여 영리 만능의 이념에서 벗어난 즉 공익 우선, 멸사봉공, 고도국방국가의 확립에 매진하기 위해 과거의 감정은 모두 씻고 하나가 되어 혼연 일체로 정부가 의도하는 극영화, 계발선전영화, 시사뉴스영화 등의 제작에 전력을 기울이며 영화국책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정진할 의지를 보임은 실로 기뻐할 현상입니다.

한편 배급기구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꾀하고 공익법인의 사단을 조직, 영화배급사를 설립하여 각 도시에 지사를 두고 일반흥행 방면에는 보험제도의 비영리적이고도 공평 타당한 배급을 기할 것을 성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급업무규정요강안'을 보면 전문 15항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항 모두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 흥행지도원을 강요하여 관주의 독립영업권을 빼앗는 감도 있어 실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험계산에서는 "7항 중 1. 전 편에 대해 흥행 기간 관람료 매출고의 5할 7푼 5리를 본사의 취득분으로 할 것. 2. 상설영화 흥행장에 대해서는 관람료 총수입 중 4할 2푼 5리를 배분할 것"으로 이는 실로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에서 고찰하면 우리 조선은 일본의 각 도시와 같은 모양의 배급지사를 설립하려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 심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래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 문화의 양양을 깊이 인정하고 조선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40년 조선영화령을 발표하고 이 세계에 획기적인 진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받들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규정 제4의 단서, 즉 국책상 필요하고 기타 이유 있는 경우는 예외도 둘 수 있다"를 이유로 본부 당국에 간청하고 조선은 독자의 입장에서 특별 취급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간청할 각오입니다. 다행히 본부 당국은 목적 완수를 위해 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조선은 예부터 조선 특유의 문화가 있어 지금 당장 일본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좀 고려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본의 농산어촌과 조선의 농산어촌과는 유감스럽게도 그 문화의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음은 누구나 쉽사리 인식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동아전의 전황에 비추어 조용히 조선의 정세를 직시하면 그 생활양상에서 일대 향상을 꾀하고 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락 방면의 욕구도 점차 왕성하고 활발해져 지금이 야말로 적극적으로 건전오락 방면에서 일본문화의 정수를 주입하고 지도 편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조선의 독자성을 절규하면서 조선의 130 여 사가 하나로 강력한 대동단결을 기획하고 조선흥행연합회의 결성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각 위원들은 분발하여 본 취지에 찬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합회 결성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선언)

12월 8일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대해 선전의 대 조칙을 내리셨다. 이 순간 역사는 바로 전환의 곡선을 그렸고 지나사면 4년 반 만의 전과는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게 되고 국민의 긴장 또한 새로워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신주불멸(神主不滅)의 전통적 신념으로 필승불패를 기원하고 대동아의 공영권을 확립하여 세계 신질서 건설의 대사업에 참가하는 광영을 얻었다. 더구나 전쟁 초반부터 이미 태평양 상의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함은 천황폐하 이하 우리의 충용하고도 의열한 황군장병이 혁혁한 전과를 올려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130여 동업자는 실전 하 영화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하나가 되어 조선흥행연합회를 결성하고 오로지 업계의 강화를 도모하고 장래에 더욱 적극적인 영화보국에 힘쓰고자 한다.

1942년 1월 7일  
조선흥행연합회

### 3. 바로 배급 통제 문제 연구(1월 7일)

조선흥행연합회는 예정 프로그램대로 결성되어, 먼저 개회 벽두 간도 우메기치 씨가 연합회 설립의 원인과 동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임전체제 하에서 우리들은 멸사봉공의 신념으로 영화보국의 열매를 거두려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 설립된 영화배급사의 배급규정은 실로 불합리한 점이 많게 여겨진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 일등은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연구하자"고 인사하였다. 계속해서 결성 주창자의 한 사람으로 나루세이 다케마쓰(成清竹松) 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고 배급규정 중 비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의 경우 바로 응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울러 흥행자의 대동단결로 공평한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지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 출석자 측인 진남포의 아베(安部), 전주의 마쓰나가(松永) 씨 등이 연합회 설립 찬성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다. 전 회의 분위기가 이의 없이 결성 쪽으로 진행되어 본 회의의 의장에 간도 우메기치 씨가 추대되었다. 정식으로 연합회 결성을 일동에게 묻고 만장의 박수로 성립, 동 회의 앞으로 추진력이 될 임원의 선임이 이어졌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1명은 지방 대표), 이사 20명 이내에서 경기도 이외는 1도 1명씩을 내겠다는 의장의 의견에 대해 지방 측에서 임원 전형에 앞서 각도 단위로 전형위원을 내어 전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분규하였기 때문에 5분 간 휴식을 취했다. 휴식 중에 각 도에서 2명씩의 전형위원이 나와 그들 손으로 자못 원만하게 전 임원의 진용이 결정되었다.

먼저 이사장에 간도 우메기치 씨, 부이사장에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경북의 호리코시 유지로(堀越友二郎), 전무이사에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이사로는 경기도의 소노다 지쓰세(園田実生) 오카모토 세지로(岡本清次郎) 도미이 지쓰타로(富井実太郎), 충남의 마쓰바라 시게이치(松原繁一), 충북의 소노다 지쓰세(園田実生), 전북의 마쓰나가 시게루(松永茂), 전남의 기무라(木村巴茂), 경북 호리코시 유지로(堀越友二郎), 경남의 사쿠라테이 후지오(桜庭藤夫), 강원도의 나카시마 다로(中島太郎), 함남의

고바야시 호조(小林豊三), 함북의 다케무라 에이사쿠(竹村英作), 황해도 오병규(吳炳圭), 평남의 모리구와 이치(森鐵市), 평북의 와타나베 나오타로(渡辺治太郎) 등 여러분이 취임하여 전 조선의 통일 진용을 정비한 것이다.

이어서 간도 신 이사장의 취임사가 있었고 다음으로 배급통제 문제로 분주하던 준비위원 다카야마 미쓰루 씨의 배급통제에 관한 제반 정세보고가 있었으며 결론은 조선흥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조선영화배급회사의 신설을 요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연합회는 앞으로의 형세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하고 일체의 업무는 이사장의 선처에 맡기고 선언을 낭독 가결함으로써 결성을 위한 회합은 무사히 끝났다. 다음 8일은 같은 조선호텔에서 제1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간도 이사장 이하 18명이 출석하여 회계 선임, 회비의 산정, 사무이사의 임명 등을 협의하고 회비는 연액 600엔에서 50엔까지 등급별로 결정하여 연액 대략 2만 엔의 회비 수입을 예상하기에 이르렀다. 또 연합회의 이사에는 나루세이 다케마쓰 씨가 전임으로 결정되었다.

#### 4. 이시바시 위원 등의 내지 정세 조사(4월 5일)

별고의 배급 통제 편에서 상술했듯이 일본영배 및 정보국과의 최종 교섭을 위해 도서과장 모리씨 등이 상경했던 것이 4월 1일이었고 조선흥행연합회에서도 마지막 고비에 섰으므로 관계자가 도쿄에 가 일본의 정세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선영배 창립위원으로 촉탁된 이시바시 연합회 전무이사, 나루세이 이사 등이 차례로 상경하였다. 일본에서 모리 창립위원장의 행동은 별고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나 결국 4월 10일로 우에무라 영배사장과의 사이에 배급에 관한 가계약이 성립하였다.

상경 중의 이시바시, 나루세이 씨 등은 연일 각 관계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조선의 각 이사들에게 연락하고 마지막 분투를 한 셈인데 도쿄에서 흥행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정보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4월 5일 도쿄 발신) 일본의 배급 정보에 의하면 실제문제로 현재 조선으로의 할당은 프린트 한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를 접하고 급히 모리 도서과장이 상경하게 되고 도쿄에 도착 즉시 모리 과장 이하 영화배급사 우에무라 사장과 회견하여 조선배급회사의 독자성을 내세워 격의 없이 간담하듯 교섭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은 일본 및 대만은 이미 결정된 대로 이번 달 1일부터 신기구의 업무규정에 의해 배급을 실시하는데 당장 조선을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정이 있고 업무규정에도 저촉된다. 결국 다행히 생필품의 특배를 받아 특별히 조선에 배급하는 공작에 성공한다 해도 이 때 일본의 일원적 기구가 허가한 대만의 배급요율과 같은 과도기의 잠정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1년 간 실행하기로 하는 요망을 받았다. 이에 제1회의 회견을 끝내고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배급요율의 상세한 계산이 숫자로 나와 있다. 예를 들면 1만 엔의 총매출에 대한 정산이 설명되어 있다. 즉 5할 7푼 5리와 4할 2푼 5리라는 처분 숫자이다. 다음으로 4월 8일 도쿄 발신에서는 “영배와의 교섭은 일단락되었다. 지금 모리 도서과장은 영배 측과 세목에 대해 절충 중이다. 곧 11일 귀성

예정으로 우선 이에 각 지부와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지부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선영화배급사 설립을 독려하고 순번 등에 대해서도 크게 협의 간담하기 바라니 전선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바로 성으로 가겠다"며 전선 각도 이사들을 고무하고 있다.

## 5. 배급 문제 제1회 이사회(4월 16일)

배급 신체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흥행 면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흥행연합회 이사회는 이시바시 씨 등 도쿄에 간 위원이 귀성하자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로 5일간에 걸쳐 소집되었다. 첫 날인 16일은 오후 1시에 반도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배급사의 창립위원회도 당일 같은 곳 별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재 경성 이사와 각 도 이사가 전원 출석하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 간도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돌아온 이시바시 위원이 배급통제 문제의 시작부터 조선 독자의 회사 설립 및 상경 중에 얻은 여러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인쇄한 자료를 각 이사에게 배포, 협의하였다. 먼저 순번 관계에 대해서,

1. 현재 조선 내의 상설관과 상영 일수를 계산해 보면 1주일간 상연 16관, 5일 상영 42관, 4일 상영 11관, 3일 상영 92관, 합계 161관이고 전 상영 일수는 642일이다. 프린트의 사용한도는 35주 내지 40주이므로 각종 프린트 2편으로 앞의 관수에 대한 배급은 곤란하다. 하물며 농산어촌, 공공단체 등의 임시대여는 절대로 불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2편 반이나 3편은 필요하다.

2. 이에 대해 영배에서는 프린트 2편을 배급하여 각 관의 4주째는 룡, 또는 특수프로그램을 돌려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3. 전조선 상설영화관의 1년간 총매출액을 연구하면 전선 162관에서 1천 57만 8천 엔이 된다. 주된 것은 경기도의 300만 엔, 경남의 145만 7천 엔, 평남의 161만 엔, 함남의 130만 엔 등이다.

다음으로 배급사 대 흥행자 간의 실 경비 3할 5푼의 평등 부담을 협의했으나 여전히 논의가 백출하여 의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전면적으로 이 방법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게 되자 결의의 형식으로 당국에 진정하기로 했다.

(결의) 배급사 대 흥행자의 계산으로 실 경비 기준 3할 5푼 평등 부담 건은 그 3할 5푼의 한도에서 각 흥행자의 자유에 일임하고 경비 건은 배급사의 간섭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독자 경영의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배급사와 교섭하여 이의 목적을 관철시킬 것.

이 결의에 의해 조선영배 창립위원인 간도 이사장, 이시바시, 호리코시, 소노다 등 각 이사가 연합회를 대표하여 모리 도서과장과 절충을 개시하였다. 당일 같은 호텔의 별실에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영배의 창립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모리 과장도 참석했으므로 바로 직접 담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리 과장은 창립위원장으로서는 일본 측과 가계약하고 돌아온 직후이고 일본과 대만과 같은 방법을 조선만이 정정할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선 시험적 방법으로 해 보고 도중에 우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본과의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 해도 조선에는 반년 정도 경과한 후에 개선해도 좋을 것이라고 정성껏 일동의 협력을 구했으므로 결국 과장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장래의 선처를

요망하여 결의는 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일의 이사회 종료 후 개최된 영배 창립위원회에서도 보류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논의가 백출하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배급 편에서도 기술한 대로 모리 도서과장은 일본영배와의 가계약을 끝내고 14일 아침 부산에 상륙하여 영화계 정비 등에 대해 열차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날 오후 경성역에 귀임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연합회 측에서는 '조선독자안 실현의 공로자'로서 역전에는 많은 흥행자들이 마중 나와 감사와 감격을 연발하였다. 그러나 조선 독자안이 우리 흥행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단순히 즐거워하던 그룹도 그 내용이 별 실속이 없음을 알고는 기대를 저버렸으며,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변한 것은 지금 돌아볼 때 잊지 못할 추억거리인 것이다.

## 6. 배급 문제 제2회 이사회(4월 17일)

16일의 이사회에 이어 17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연합회사무소에서 계속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평안북도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출석하여 전 날은 모리 과장과의 협의에 의해 결의 제출을 보류했으나 3할 5푼의 실 경비문제는 어디까지나 흥행자측의 입장에서 주로 처리되도록 신청하기로 하였다. 우선 재경성 이사 외에 사쿠라테이(桜庭), 모리, 고바야시(小林), 구와하라(祥原) 등 각 이사가 신청서를 당국에 송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회사 창립위원장 모리 히로시 전  
조선흥행연합회 이사장 간도 우메기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설립 건에 대해 공무 다망하신 중에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입니다. 생각건대 배급사와 우리 흥행자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공동 경영의 실체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실 경비 지출 방법 등도 양자 모두 기준 3할 5푼의 평등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실 경비 계산의 승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에 힘써온 각 도 지부장의 의견에 중점을 두어 승인되길 바랍니다. 또 배급 업무 규정이 만들어지면 재경성 동업자 가운데 창립위원의 의견은 모두 전 조선업자의 총의로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 외 연합회 내부의 제반 문제, 회비의 징수 방법, 영배 출자금 5만 엔의 거출 방법 등에 대해 협의 결정하고 이사회를 종료하였다.

## 7. 이어서 제3회 이사회 개최(4월 18일)

이어 18일 아침 오이시 부이사장 이하 전날 결정한 재 경성, 지방 이사 일동이 총독부 모리 도서과장을 방문하여 오이시 씨로부터 모리 과장에 대해 실 경비 계산의 중점을 연합회 측에 두도록 한 신청서



를 수교하고 각 이사 들은 구두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모리 과장은

“연합회 측의 주장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잘 연구해 보겠다. 쌍방 모두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해 가면 원만히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실 경비 계산 문제도 기술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 배급사측과 연합회 간부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상담해보면 좋을 것이다. 물론 당국도 관계관을 출석시켜 가능한 한 알선을 하겠다.”라고 자못 호의적인 의견을 말하고 오이시 씨 이하 일동이 반드시 간담회의 형식으로 배급사측과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말해 19일에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바로 사무소로 돌아와 대기 중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과를 보고하고 일동 간담회 개최에 찬성한 것이었다.

연합회는 간담회에서 할 협의 항목과 기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간담할 요강의 중점)

1. 실 경비 3할 5푼 양자 평등 부담 건은 흥행자의 2할 5푼 내지 3할 한도의 용도에 대해서는 배급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흥행자에 일임할 것.  
단 흥행자는 정확한 실 경비 예산서를 1개월 이전에 배급사에 제출해 둘 것.
2. 실 경비로 지출한 것은 이미 제출하고 있는 예산으로 배급사에 보금(步金)지불 때마다 보금에서 이를 빼고 지불할 것.
3. 연합회에서 대표이사 3명을 추천할 것.

## 8. 흥행, 배급 양자의 간담회(4월 19일)

실 경비 문제의 난국 타개를 지향하는 연합회와 영화배급 측의 간담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경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독부에서 도서과 무라카미 사무관, 시미즈 통역관, 히루다, 이케다 양 씨가 출석하였고 연합회 측에서는 지방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하였다. 배급사에서는 아사하라, 시마타, 가모이, 노노무라, 이토 씨 등, 그밖에 니치에이에서도 출석하였다.

무라카미 사무관이 진행상의 인사를 하고 연합회 측에서 오늘의 질의응답은 매우 간절한 뜻으로 하였다. 그 중 배급사 측은 지도적 입장에서 특히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만한 성과를 기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처음에 영배 아사하라 씨가 경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하자 연합회 측에서는 그 문제는 어제 모리 도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 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개회 시작부터 긴박감이 충만하기 시작했다. 또 무라카미 사무관의 영화 신체제론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우리가 설명을 들을 일도 없이 충분히 알고 각오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논의보다 실제 문제를 들어 간담하지는 등 각자 의견이 달라 매우 활발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연합회 측은 결론적으로 실 경비 문제 협의 자체가 신체제에 위반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간다면 간담의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3할 5푼으로 자르는 계산은 조선영배 측에서도 불만해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합회의 이시바시 위원 등이 도쿄에 가 3할 5푼이 유리하다는 설을 모리 과장에게 진언하여 겨우 동의를 얻었고 모리 과장 또한 진지하게 분투한 결과 얻은 것이 귀중한 실 경비 3할 5푼이다. 그리고 이는 또 조선 문화시설 조성금 염

출에 하나의 힌트를 얻은 것이었다. 이 사이 여러 문제는 있었으나 결국 이 실 경비 가운데 상당한 문화조성금을 낸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흥행자에게 일정한 한도를 정해 무간섭 조치를 취하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리 도서과장이 간담회를 열자고 한 이유도 이 점을 간담하자고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합회 측의 강경한 의견에 대해 아사하라 씨 이하 영배 측이 바로 즉답하기는 물론 어려웠다. 본부, 연합회, 영배 삼자 사이에 장시간에 걸친 간담이 이어져 6시 30분에 겨우 의견이 다 나온 상태였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마지막 정리로 다음의 4항목을 현안으로 제공하고 20일에 회답을 얻는 것에 협정한 후 폐회하였다.

1. 실비의 무간섭 한도를 2할 5푼 내지 3할 한도로 한다.
2. 실 경비는 보금 지불 때마다 빼고 계산할 것.
3. 강화를 위해 극영화의 특배를 받는 영화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액션을 병행 공연할 경우에도 실 경비는 원천징수할 것.
4. 지방상설관의 대관 경우 영화보울로 8·11령에 저축할 경우의 조치

#### 9. 5일간의 이사회 종막(4월 25일)

16일 이래 앞에서 말한 이사회를 연일 속행하며 본부, 영배 등과 배급의 기본계산에서부터 실 경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협의를 계속했으나 19일 경성호텔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4항목에 이르는 조건을 제출하여 당국에서 연구한 뒤 즉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일 오후 1시부터 간도 이사장 이하 오이시, 모리, 사쿠라테이, 마쓰나가, 나루세이 씨 등이 총독부의 모리 도서과장을 방문하여 4항목에 관해 여러 설명을 했다. 간담 결과 실 경비 문제는 지출액이 흥행 총액의 2할 5푼 이내의 경우에는 지출방법에 대해 우선 흥행자의 임의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의라 해도 불합리한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내고 실 경비 계산 방법은 하나의 흥행 단위로서 경비의 대략적인 계산을 배급사에서 흥행자에게 반환할 것. 다음 원천징수 문제는 현안으로 보류하고 쌍방이 연구한 뒤 적당한 방법을 고려하지만 영배측이 승인한 실연의 비용은 배급사에서 산정한 영화만의 추정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하고, 매출액에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배급사의 소득분을 3할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모리 과장과 연합회 측 사이에 협정이 성립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으로서는 흥행자의 의견에 대해 일단락된 형태가 된 것이므로 5일 간에 걸친 이사회를 마치기로 하고, 일행은 각 이사를 소집하여 결과 보고를 했으며 대국적 견지에서 보아 흥행자 측의 희망은 당국의 앞선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달성되어 겨우 소강상태로 들어간 셈이다.

#### 10. 흥행연합총회의 분규(4월 23일)

조선영배 개업을 열흘 앞둔 4월 23일 흥행연합회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여 오늘까지의 경과를 보고하

고 영배 측과의 협정요강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즉 총회는 우여곡절을 거친 영배문제에 대해 결말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출석자는 전 조선 95명이란 거의 주요 영화관주 전원이 당일 오전 11시 명치좌 앞에 모여 일동이 대오를 이루어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오후 2시부터 혼마치 마즈가네(松金) 회장에서 개최되었다. 간부 측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대립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시 결과는 상상 이상의 분규를 거듭하였다. 이 총회의 경과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의사록을 보는 것이 그 날의 분위기를 전하는 데 적당할 것이다. 즉 순서는 1. 국민의례 2. 이사장 인사 3. 경과보고 4. 모리 도서과장 담화 5. 각도 유지의 의견 발표 6. 폐회로 진행되었다. (이하 의사록에 의해 기술함)

위의 식순에 따라 엄숙하게 국민의례를 마치고 간도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대략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하였다.

개회에 앞서 한마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본 연합회 제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멀리서도 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보고나 회계보고를 할 만한 것이 없어 생략합니다. 작년 12월 8일 황공하게도 대동아전쟁의 조칙을 발표하신 뒤 반년이 지나 천황폐하의 영광 아래 우리 황군장병이 분투하여 여러 전투마다 혁혁한 승리를 거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다로 육지로 하늘에서 실로 무인지경을 만들며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전 세계 인류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8일 미군기가 도쿄를 공습했습니다. 적이긴 하지만 대단했습니다. 물론 종래 영미는 18세기경부터 세계 정복의 황제로 자타 공히 인정받아 온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황군의 연전연승 소식에 우쭐하지 말고 이기면 이길수록 더욱 은인자중하고 투구의 끈을 조이면서 필승불패의 정신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장래 각종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인고의 단련된 후방의 전사로서 직업 영역에서 봉공을 다해야 합니다.

원래 신체제의 진수는 멸사봉공으로 신민의 의무를 실천하며 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1억 국민은 말로만 감사 감격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입으로만 직역봉공(職域奉公) 하면 너무 간단해 진정한 봉공이 아닙니다. 실로 신명을 받친 봉공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종래 비교적 무풍상태에 있었던 우리 영화상설관의 사업도 작년 이래 갑자기 선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작 배급의 부분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자들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게 되어 본부 당국에서도 조선의 독자적 입장에서 올해 1월 이래 영화배급사 창립 준비에 착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이시바시 씨가 몇 번이나 도쿄에 가 조선영화계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엔 나루세이 이사가 동반 상경, 본부 모리 과장과 함께 열심히 분투하여 점차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귀성하신 뒤 바로 상당한 결과 지난 16일부터 전선이사회를 개최하여 각도 이사가 오늘까지 거의 침식을 잊고 분투한 것입니다.

이어 이사회회의 경과는 나루세이 이사가 설명하기로 했으나 이 기회에 단 한말씀 정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충분히 만족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총체적으로 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슨 일이나 절충 협력하여 반도영화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기에 건전한 발달을 위해 선처하고 직역의 영화보국에 만전을 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나루세이 이사가 말하였다. “지금 이사장의 말씀처럼 이번의 배급 통제 문제에 당면하여 실로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거쳐 겨우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의 절충현안도 산적한 상태로 전도가 어렵습니다. 이는 신체제 하의 통제이므로 자유경제 시대의 자유영업 때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화 상설관 경영자에 대한 이번의 배급통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걱정인 것은 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구가 완전해도 운영자를 잘 얻지 못하면 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는 대동아전쟁을 보아도 적국인 미영의 병기 및 기타 모든 전비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면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직 뒤떨어져 있는 것은 양자 사이의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도서과에서 사쿠라테이(櫻庭) 경남, 마쓰나가(松永) 전북 지사장이 열심히 모리 과장과 간담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면에서 어제까지의 빨갱이가 오늘 갑자기 황국신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지도적 진영의 인재가 필요하고 상당히 시간적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 반대 입장에서 지도를 받는 것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등 자주 진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전제하였다.

이하 수차에 걸쳐 배포한 이사회 의사록을 기초로 설명을 끝냈을 때 임석한 도서과 시미즈 통역관, 히루다, 이케다 양 씨 등은 별실로 퇴장하였다. 나루세이 이사의 설명 중 실제 경비 2할 5푼의 지출 방법은 흥행자의 절대자유가 아니라는 논의가 나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자, 의장은 잠시 휴회를 선언하였다.

한편 도서과 관계관은 과장의 임석을 기다려 협의하였고 흥행자는 긴급이사회를 별실에서 개최하여 종래 이사회 방침 즉 나루세이 이사의 설명대로 그 찬반을 듣겠다는 의장의 요구에 (상당한 분규의 결과) 대해,

1. 조건부 즉 실제 경비 2할 5푼 지출 건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 평남, 평북, 전남
2. 종래의 교섭에서 모리 도서과장의 성의 및 입법 취지를 납득하여 무조건 찬성한 경기, 충남, 충북, 함남, 함북, 경남, 경북, 황해, 전북

이상 10대 3으로 무조건 찬성안으로 결정, 모리 과장의 임석을 기다려 간도 이사장, 오이시 부이사장, 이시바시 전무이사 및 소노다 이사가 진두에 서서 각도 이사가 교대로 배급사와 절충하였다. 그 결과 드디어 모리창립위원장이 총회 석상에서 “실경비 2할 5푼의 지출 방법은 흥행자의 임의로 하여 증거서류가 필요 없으며, 배급사는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승낙을 얻었다. (이 사이 실로 두 시간 반이나 걸렸다) 그리고 모리 과장이 이야기 중에 이를 설명하였다.

끝날 무렵 구와하라 함북, 사쿠라테이 경남 이사가 각 도 대표로서 각각 일어나 배급사에 대한 요망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배급사가 상설관에 대해 교섭, 시달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른바 신체제 하에서 상의하달, 하의상달의 취지에 따라 모두 연합회 본부를 통하고 각 지부를 경유하여 각 상설관과 교섭 시달을 해 줄 것.

## 11. 영배에 대한 요청서(7월 1일)

조선영배의 사업 개시일 즉 5월 1일 전후에 흥행연합회 측의 활발한 행동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흥행연합회에서는 영배 창업 이래 경영 실태 즉 상영순번 관계, 보울의 실제 숫자, 그 외 창업 이후 대두된 현실문제에 대해 연합회로서 영배 당국에 제 항목에 걸친 요청을 시도하게 되었고 7월 1일 이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항목으로 이것은 연합회 측이 영배에 대한 주문의 전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1) 순번 배급의 조합은 과거의 실적을 존중해 줄 것.

영화 통제 상 배급의 일원화가 실시되어 조선은 5월 1일부터 일본과 같이 조선영화배급사에서 일원적인 배급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호와 쇼치쿠는 여전히 조선에 출장소를 존속시켜 자사 작품의 선전에 애쓰고 있음은 좀 기이한 감이 있고 일시 폐쇄한 대일본영화사도 다시 각지에 출장소를 개설 준비 중이라 한다. 이것은 대체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각 상설관은 오랜 체제로 각 영화회사의 특색을 갖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해 선전 기타의 활동에 노력해 온 결과 종래 각 관에서는 이른바 단골고객을 상당히 확보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현재의 통제로 순번 배급이 구구해지고 이른바 단골의 육성도 안 되고 종래의 수입실적을 바랄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한 흥백의 순번 및 배급의 조합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적을 존중하고 쇼치쿠 계열에는 쇼치쿠 영화, 도호계열에는 도호 영화를 배급하고 니치에이 영화는 각각 교대로 배급하여 상설관 경영의 생명인 선전방법의 간이화를 도모해 주기 바란다. 시험 삼아 지금을 5월 이후의 실제에 비취보면 전 달엔 백팀이었던 것이 이번 달은 흥팀이 되고, 다시 다음 달의 조합은 또 달라진다, 만약 이와 같은 배급 방법으로 곤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일본과 같은 흥백 그 순으로 배급해 주기 바란다.

### 2) 실 경비 문제에 대해

실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논의한 것이어서 오늘은 과감히 필요 없는 말을 생략하고 무조건 3할 5푼을 승인하고 황보(荒歩) 4할을 폐지하는 제도로 개선하게 된 것,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이 점에 대해 제작자 대 흥행자가 승인한 뒤 실 경비 3할 5푼을 총매출액에서 빼고 황보 4할 폐지를 실시하는 지방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또 당초의 구두약속도 있어 배급사에서 앞으로 문화시설 기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양자의 신중한 협의 아래 선처할 것.

### 3) 한 편 상영 흥행을 인정하고 '기간제'로 개선하게 할 것

영화가 부족한 오늘날의 연예, 연극도 한 편 흥행에 대해서는 추정 요금은 단매제도와 같이 이를 면제하고 '기간제'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각 상설관이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배급사의 성적은 별기한 대로 예상 이상의 성적이다. 그것은 여하튼 영화의 부족은 연예, 연극으로 이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하지 못하는 각 지방에서는 영화추정요금을 징수한 결과 경제상 이를 직영할 수도 대관할 수 없어 연예든 연극이든 안 올리게 되고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특히 주의할 것.

### 4) 어트랙션 흥행의 원천징수를 인정할 것

지방에서 상영일수가 길어 해당 흥행이 계속 곤란할 때 관객유치의 필요상 어트랙션 상연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실비는 교화용 영화의 특별배급과 같이 원천징수 제도로 개선하기 바란다.

5) 일반영화의 자유관람에 진력해 줄 것.

일반영화, 비일반영화를 구분하고 일반영화는 대중이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선영화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연맹의 감독이 너무나 엄해 문부성 혹은 조선총독부의 추천영화라 해도 중등학교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영화가 갖는 중대사명은 몰각되고 추천영화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되니 이 점을 특히 고려한 뒤 본부 당국에 대해 이의 완화책에 진력해 주기 바람.

6) 관람요금 조정 부문 설치의 필요

각지에서 공정한 입장요금을 정하기 위해 배급사 및 연합회 공동으로 입장요금 조정위원회를 두어 각 지방에서 적절한 특별요금, 보통요금 등을 사정하여 본부 당국에 신청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입장료의 결정방법을 쉽게 하도록 진력할 것.

7) 배급사 대 연합회의 연락을 긴밀히 할 것.

배급사 대 연합회는 한편으로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존공영이 실로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배급사에서 각 상설관에 통달하고 기타 중요사항의 교섭이 있을 시는 우선 본부를 경유하든가 아니면 본부에 대한 참고를 위해 같은 요건의 통달 혹은 보고를 해주기 바람.

앞의 3항에서 “영배배급사의 경영성적은 예상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쓰여 있는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영배 창업 한 달의 계산과 매출액 분배의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즉

조선영화배급사의 5월 분 계산에서 첫 총수입은 87만 엔으로 여기서 황보 4할을 빼지한(뺀) 계산을 가정하면 348,000이 되고 (그중 총매출액의 8푼 즉 69,600엔을 빼면 잔금은 278,400엔이 된다) 이를 통제 배급사 설립 전 각 제작회사 및 배급업자에 지불한 것은 대개 한달 평균 도호 82,000엔, 쇼치쿠 62,000엔, 니카쓰 4만 엔, 싱코 26,000엔(대략 계산), 다이토 7천 엔, 합계 217,000엔이다. 그런데 배급사 설립 전 즉 1941년도에 영화요금(제작 및 배급수수료를 포함) 지불총액은 양화요금 205,000엔을 제외한 약 2,600,500엔으로 한 달 평균이 217,000엔이 된다.

그런데 조선영화배급사 5월분의 지불액은 348,000엔(수수료 포함)으로 전년도보다 1개월 평균 131,000엔이 많고 게다가 1941년도의 총매출액은 1,026,000엔인데 올해(5월)는 87만 엔이다. 그렇다면 총매출액에서 156,000엔이 감소하고 그 지불에서는 116,000엔이 증가하여 흥행자의 희생은 272,000엔에 상당한다.

생각건대 통제회사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근래 영화제작회사 및 배급업자의 폭리 즉 쇼치쿠, 도호는 말할 것도 없고 니카쓰 등이 이전에 300만 엔 정도의 채무가 있어 장차 파산선고를 받을 지경이었는데 겨우 화의법으로 정리 구제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불과 1, 2년 만에 그 부채를 정리하고 백만 엔 가까운 사내보유를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유경제적 무통제의 폭리는 현 시국과 같은 적어도 통제경제 시대에는 지극히 불합리적이라며 군부 측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그런데 통제배급사가 설립된 오늘의 실정은 일본은 몰라도 조선에서는 오히려 자유무통제의 시대 이상으로 영화료를 더 내는 계산이 된다. 현 제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 어이가 없는 바이다. 그

리고 또 흥행자는 이번 통제 후에는 대개 2, 3할의 수입 감소는 보통이고 오히려 공과금 방면은 흥행세로 바뀌어 신이득세에서 약 2할이 증가된 외에 일반 증세도 전시 중 당연하므로 손실액이 상당하고 영화의 부족으로 오는 수입 감소도 겹쳐 실로 이중삼중의 고통이 있음은 누구나 아닌 사실이다.

요컨대 조선영화배급사는 이전 영화가 풍부하고 당시의 실수입보다 현재의 통제시대 영화부족에 허덕이는 시기에 가장 소수의 영화로 종전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여 일본의 제작회사에 분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는 어찌되었든 최근 전 조선의 흥행자는 경영곤란에 빠져 장차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상 불합리한 점에 대해 특히 음미하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12. 영화 개업 이후의 동정(7월 19일)

5월 1일부터 드디어 독자적인 배급제도를 채용하였다. 배급통제 편에서도 썼듯이 개업 직후여서 배급사 측도 상설관 측도 사무에 대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지 않아 여러 가지로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영배사 측은 여하튼 흥행 면에서는 살아있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 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어 한때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이 잡히지 않은 임시열차나 급행열차에 갑자기 화물열차가 뛰어들어 왔다면, 역장도 어쩔 줄 모르고 검표원도 곤란하고 신호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하물며 승객은 더 우왕좌왕 할 것이다. 그러나 5월 1일을 기해 정규의 순번으로 진행하게 되어, 먼저 이 기념할만한 개막 흥행은 흥팀의 명치좌, 와카쿠사(若草)극장은 도호의 <기다리던 남자>로, 백팀의 다카라즈카(寶塚)극장, 경성극장은 니카쓰의 <다섯 줄의 공포>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명치좌 14,000엔, 와카쿠사 1만 엔, 다카라즈카극장 13,000엔, 경성극장 5,500엔으로 우선 순조로운 숫자를 올렸고 다음으로 흥팀은 쇼치쿠의 <아버지 계심>, 도호의 <남쪽에서 돌아온 사람>, 백팀은 다이에이의 <어머니 울지 마세요>, 쇼치쿠의 <간첩은 아직 죽지 않았다>가 순차적으로 공개되었는데 <어머니>가 저조했던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예상대로의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흥행성적과는 별도로 아직 배급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다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실 경비 3할 5푼 승인문제가 감정 상 크게 남아 있고 대체로 연합회 측이 무조건 4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7월 18일 간도, 오이시, 이시바시, 나루세이 씨 등이 영배의 오카다 상무를 방문하여 제반 현안에 대한 회견을 가졌다. 이때도 물론 실 경비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연합회 측은 여러 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카다 상무로서도 자신의 사업이라면 마음먹기 하나로 어떻게든 되지만 공익법인 조직이 업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이는 꽤 힘든 일이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상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질 수는 물론 없다. 결론은 오카다 씨도 실 경비의 계산을 3개월씩 묶어 하는 제도로 해보려는 데서 타협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시바시 전무이사의 세금 관계의 희망에 대해서도 일본에는 규정이 있으나 조선의 경우는 별도로 생각하여 희망에 부응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과 사회성에 입각한 흥행자와 배급사’이지만 실제 문제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현안이 미 해결 상태이다. 병에 걸리면 여러 병이 같이 발생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난다. 이것도 통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어찌 할 수 없는 어려움일 것이다.

### 13. 연합회 간부, 영배와 간담(7월 28일)

7월 28일 흥행연합회의 간부 일동은 영화배급사에서 오카다 상무이사와 회견하고 양자 간의 가장 큰 현안인 무조건 4할 폐지 제도의 개정에 관한 최후 교섭을 벌였다.

연합회의 주장은 실경비 3할 5푼은 흥행자 측에 이를 맡기고 필요한 문화조성금은 별도로 연구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만들기로 하고 무조건(황보) 4할 폐지제로 하고 싶고, 배급사의 현행제도 및 그 기구는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현재의 흐름인 사무 간소화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영배 측 오카다 상무는 사무를 간소화하는 데는 동감이나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감독하에 있는 배급사로서 현재 연합회칙의 사견대로는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역설하여 양자 간에 상당히 뜨거운 논의가 오고 갔지만 오카다 상무의 독단으로 해결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이시바시 씨가 공과금의 문제를 선처해주시기를 요망한 데 대해 오카다 상무는 영업세, 차량세, 소비세, 광고세, 경방단(警防團)비, 기부금 등은 일본과 같이 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은 상업회의소세, 정회비(町會費), 호구세도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니 이 건은 금후의 완화책으로 좀 참아주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보울문제는 업무규정의 중요한 점이므로 이 개정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연합회 측에서는 마지막 목표를 여기에 두고 분투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 14. 실경비 문제로 이사회 소집(8월 1일)

흥행연합회의 그 후 대 영배 관계 보고를 위한 전선이사회(全鮮理事會)가 8월 1일 조선히otel에서 개최되었다. 전복을 뺀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 회의 소집 이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각 도 이사로부터도 영화배급 문제와 상설관 경영의 근본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의안은 1. 조선영화배급사 기부금(출자금을 말함) 거출방법 결정 건 2. 기간제 실시 후 흥행자의 부담액 사정 건 3. 실경비제를 4할 폐지제로 개정하는 건 등 3항목이었는데, 협의 결과 1은 현행 연합회 회비 부담의 3배씩을 각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단 순전히 극장으로 하고 연극, 연예 전문관은 이를 면제한다. 징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반드시 완납하도록 독려할 것. 2는 기간제에 대해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경우에 실경비(종래의 영화추정요금)를 해당 상설관이 부담하는 액수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배급사에 대한 교섭 일체의 건을 이사장 및 본부 간부에게 일임할 것. 3의 실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4할 폐지(빼기)의 무조건(황보)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본회 간부의 알선과 노력이 크다면, 모리 도서관장은 현 제도는 업무 규정이나 기타 일본과의 관계도 있어서, 연합회 측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바로 승인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한 사정도 있다 하였다. 일본 관계 방면과도 특히 협조를 도모하여 희망에 부응하도록 고려하겠다는 간절한 설명도 하여 당분간은 별지의 각서대로 이를 승인한다. 위와 같이 결정하고 폐회하였는데 '별지 각서'는 영배 사장 다나카 사부로, 연합회 이사장 간도 씨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내용은 보금액의 흥행 상 경비가 그 달의 흥행수입의 3할 이내일 때는 보금액은 월 경비 보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 단 영배 측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정하거나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각서는 42년 8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 15. 부민관 상영문제로 대립하다(12월 5일)

강력한 영화계 신체제의 해 1942년이 바야흐로 저물어 가던 12월 영배의 독자적 입장으로 계획된 경성부민관 상영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또 연합회 측의 활발한 행동이 전개되었다. 영화 상영은 영배의 정관에 없는 사업인 동시에 이것이 흥행 면에 미치는 영향은 꽤 심각하다. 이전에 동화상사가 부민관에서 외화를 상영하여 대 문제를 야기하고 또 학우(學友)영화회의 공개사업도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영배의 상영 계획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 경기도흥행협회의 임시총회에서 간도, 이시바시 양 씨는 영배의 간부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일 거냐며 일동이 전부 들고 일어났다. 양 씨는 입장상 영배 간부를 사직하게 되었고 12월 5일 영배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18조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중요한 사무에 대해 협의한다.”는 규정을 방패로 다나카 사장, 오카다 상무의 책임을 추구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당시의 정세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후 영배의 부민관 흥행은 프린트 난에 허덕이며 두 편의 주야상영 흥행을 계획한 점에서도 꽤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경기도흥행협회의 임시총회에서는 양 씨 사직의 경과 설명으로 시작하여 영배 관계의 제반문제에 대한 논의가 백출하였는데, 여러 예기치 못한 폭탄 동의까지 나와 전선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간도, 이시바시 양 씨의 사직 문제는 당국으로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바로 진상조사로 선처하게 되었으며, 영배는 부민관에서의 영화 흥행을 중지하고 앞으로도 같은 기획을 하지 않을 것을 오카다 상무가 선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한 후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부언하였다. 결국 모리 도서과장의 알선과 다나카 사장의 성의 있는 피력으로 사표는 겨우 철회되었다.

## 16. 연합회의 요망안 해결(12월 13일)

부민관 상영문제도 냉정히 생각하면 영배가 흥행을 방해하거나 경쟁심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영배 사업과 측이 사업의 하나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같은 결과로 끝난 것은 유감이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또 전 조선의 2번관 이하의 요망에 대해서도 항상 영화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던 차에 부민관의 2편 주야 흥행은 지방 흥행자들을 상당히 자극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문제로 일일이 감독관청으로 불러간 모리 도서과장이야말로 실로 가없는 노릇이지만 출범 직후의 배라고 보면 이 또한 문화면 일부의 원활화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선달 12일 반도호텔에서 배급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리 도서과장 이하 관계관이 출석하였으며, 연합회에서는 간도, 이시바시 양 씨가 출석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나카 영배사장, 오카다 상무의 전후 사정에 대한 해명이 있고 다나카 사장의 간청으로 사표는 철회되었다. 그리고 영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가하여 연합회 제안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결국 이사회에서 실 경비 문제를 제외한 여러 현안이 해결되고 양 당사자가 조인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양자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배는 영배 정관의 정신에 맞추고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를 준수할 것.
2. 사업의 융성, 사내 사무의 운영 및 이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매월 한 번씩 간담적 이사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흥행협회 및 조선흥행연합회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설흥행업자가 아닌 것은 제외함) 영배는 바로 영화의 배급을 정지할 것.

가설 상실관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본부 도서과에서 해당 도청에 조회하여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배급을 정지한다고 모리 도서과장이 설명하였음.

4.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회칙 내지 합의를 위반하며 협회원의 체면을 훼손하여 조선흥행연합회의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배는 영화의 배급을 정지할 것.

5. 특수영화의 관람 또는 군, 관, 기타 영화보국을 기획하는 경우에 영배는 조선흥행연합회 또는 해당 지역 흥행연합회와 반드시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공동임무 달성에 노력할 것.

6. 경성부민관 및 각 지 공회당에서 영배의 유료 흥행을 기획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배는 영화관을 대여하지 않을 것. 단 지방에서 공익적인 흥행의 경우(특수흥행)는 예외로 한다.

7. 실 경비 문제는 영배 현행의 업무 규정에 따라 종래 대로 실행함은 물론 만약 잉여금이 생긴 경우 영배는 우선 전액을 조선흥행연합회에 환부하고 처분방법은 조선흥행연합회에 일임할 것. 단 본 합의는 1943년 4월 말일까지로 하고 그 후는 더욱 양자 협의 위에 이를 결정할 것.

(각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를 갑으로 하고 조선흥행연합회를 을로 하여 다음의 각서를 교환한다.

제1. 갑은 배급 업무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 내 보금관에서 갑에 송부해 온 금액(극장 경비 35퍼센트 이내의 흥행관에서 납부하는 갑의 소득분 이른바 문화조성금)은 1942년 12월부터 1943년 3월의 4개월간에 한해 흥행조성비로서 이를 을에 교부할 것.

제2. 갑은 제1에 든 경비 수납 때, 계산 완료에 따라 그 총액을 을에게 통지하고 이를 송금할 것.

제3. 을은 제1에 든 경비를 흥행장 개선, 종업원의 후생시설 등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

제4. 갑이 정한 배급 업무 규정은 이상으로 틀림없으니 두루두루 원만한 수행을 꾀하고 을은 그것이 소속하는 전 흥행을 통틀어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아 영화 신체제의 확립을 약속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본 문건 두 통을 작성하여 서로 한 통씩 보관한다.

1942년 12월 12일  
갑 다나카 사부로  
을 간도 우메기치

## 17. 1942년 정리된 전선(全鮮)이사회(12월 15일)

파란을 거듭한 조선흥행연합회의 영배 대책도 12월 13일 반도호텔에서 영배이사회 석상의 양자 협상 조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므로 연합회에서는 경과보고를 거친 전선이사회를 15일 정오부터 ‘명치’에서 개최하였다.

황해, 강원, 충북의 3 지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하여 연말소집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간도 이사장의 인사가 있는 다음 오ishi 부이사장이 간도 이사장, 이시바시 전무이사의 앞의 사직문제로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집하였다는 발언과 함께 부민관 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다음으로 이시바시 전무이사가 간도 이사장과 같이 사직을 결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발언을 하였고, 그 후 당국에

서 알선의 수고를 하고 영배 측에서도 정식으로 양해 요청을 하면서 반도영화계를 위해 한층 더 협력해 달라는 간청이 있어 사의를 철회하고 대 영배 관계의 제반 현안도 더욱 해결되어 갔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쿠라테이 케이난, 마쓰나가 전복지부장 등으로부터 격려의 인사가 있고 나루세이 이사가 '영배에 대한 요망 현안 해결'에 관한 제 항목을 낭독하고 일동의 승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출석한 각 지방 이사에게서 여러 질문이 나왔고 마지막에 실 경비 3할 5푼의 잉여금 처분에 관해서는 영배와의 합의대로 실행하기로 하고 일체를 연합회의 자유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회계 담당의 새 인선은 당분간 이시바시 전무이사가 일체를 감독하여 시행할 것, 기타 기간제 및 추정 요금에 관한 문제, 영사기 및 기타 부속품의 보급 정비에 관한 문제, 영사기사의 최저급료제 실시, 그 외 두 세 가지 사항에 관한 협의 결정에 따라 1942년의 전선이사회는 무사히 끝났다.

## 18. 제2차 간담회를 열다(12월 17일)

영화홍행계의 통제에 나타난 움직임은 망라하여 다 썼으나 원고를 마치면서 12월17일 경성에서 개최된 각 도 이사와 영배 측의 배급 업무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지방별로 기술해 보겠다. 이는 영배 창업 7개월 이후의 지방 유력 관주의 소리이고 영배 측으로서도 상당히 연구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남 모리 이사) 평양은 경제적으로 각 관이 서로 특수 계약 하에 있어 대립적인 경쟁을 의식하지는 않으나 이는 전 조선 2번 상영관 이하의 공통적인 바람이라 생각하고 신춘 흥행 만은 제1주(첫째 주) 상영 영화로 그 지역의 개봉영화를 각 관 모두 상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함남 고바야시 이사) 정월 흥행을 앞두고 영배는 배급 상의 사고 방지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현재 각 역의 하물 취급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나 필름에 한해 각 역 모두 이 시간의 제한을 철폐하도록 철도당국과 교섭해 주기 바란다.

(함북 구와하라 이사) 프린트 미착 등의 문의에 왕왕 답전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있으니 주의해 주기 바란다. 또 영배 앞으로 보낸 소개 전보의 수취인 이름도 특수한 방법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한가. 또 흥백 계통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시의 보강책도 좀 더 연구해 주기 바란다.

(이시바시 이사) 2차 상영관 이하의 두 편 편성의 요망에 대해서는 필름 부족의 이유로 모두 거부되었으나, 미 정리의 필름이 창고 안에는 산적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처를 해 줄 수 없는가. 또 검열 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재 검열을 신청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을 강구하면 좀 더 흥행자 측에 만족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경남 사쿠라테이 이사) 개봉관과 2번관에 상관없이 흥백 영화의 가치균등은 배급 상의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시 문화영화로 보강책을 생각한다면 극영화 계통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가. 1편 편성이 영배 불변의 철칙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 프린트 발송 시는 열차 적재가 완료되기 까지 확인할 것. 열차사고로 첫날 상영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바로 적재 일시나 열차 번호, 하물 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최악의 사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해 주기 바란다.

(전북 마쓰나가 이사) 순회영사반이 지방 상설관에서 미개봉의 영화를 입장료 10전으로 공개하는 일이 있다. 또 순회반이 영사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여러 폐해가 들리는데 영배에서는 잘 감독해 주기 바란다. 또 순회반의 영사장소나 필름 선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를 부탁한다.

## 19. 조선흥행연합회의 진용

조선흥행연합회가 장차 조선의 모든 흥행관을 대표하여 흥행 신체제의 지도기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10월 10일 현재 동 회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오이시 데이시치, 부이사장 이시바시 료스케, 호리코시 유지로(堀越友二郎), 상무이사 나루세 이 다케마쓰, 본부서기 가네다 도요미쓰(金田豊実), 에치치 겐조(越智源三)

이사, 경기도지부장 오이시 데이시치, 경상남도지부장 사쿠라테이 후지오, 경상북도지부장 호리코시 유지로(堀越友二郎), 강원도지부장 나카시마 다로(中島太郎), 전라남도지부장 구로세 도요구라(黒瀬豊藏), 전라북도지부장 마쓰나가 시게루, 충청남도지부장 도즈카 쇼조(戸塚壮三), 충청북도지부장 소노다 지쓰세, 황해도지부장 히구치 고조(樋口甲子藏), 평안남도지부장 구보 헤이지로(久保兵二郎), 평안북도지부장 다무라 나오타로(田村直太郎), 함경남도지부장 고바야시 쓰보조, 함경북도지부장 구와하라 히켄.

## 제4편 반도영화 부감록(俯瞰錄)

- |                  |          |
|------------------|----------|
| 1. 조선의 영화통제에 대하여 | 시미즈 마사쿠라 |
| 2. 돌이켜 보며        | 나카다 세이고  |
| 3. 영화배급사의 사명     | 오카다 중이치  |
| 4. 영화와 정열        | 서광제      |
| 5. 조선영화기사 각서     | 니시가메 겐테이 |

### 반도영화 부감록

#### 1. 조선의 영화통제에 대하여

시미즈 마사쿠라

대동아 결전 아래 영화도 싸우고 있다. 말 그대로이다. 조선에서도 영화는 보도, 계발과 교화 등에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체제 하 모든 힘이 1푼의 낭비도 없이 승리를 위해 모이지 않으면 안 될 때이기도 하고 또 건전한 오락은 내일への 활력을 주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조선에서는 오락기관이 적은

관계로 영화가 불러 모으는 관객은 연간 2천만 명을 넘어 반도 2,400만의 민중은 1년에 한번은 영화를 보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영화가 갖는 영향력, 지도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의 중요성은 일본에서의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몇 배나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영사반이 벽지의 촌락을 방문하면 이삼십 리 떨어진 마을에서 많은 조선부인들이 아이들을 업고 도시락을 들고 걸어오고, 추운 겨울에도 추운 회장에서 끝날 때까지 뚫어져라 열심히 보고 있다. 영화가 끝나면 또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간다. 그런 광경을 보면 '영화에 한함'이란 의미를 깊이 느끼는 바이다. 이런 힘을 가진 영화가 과거에 과연 그것이 가진 중대한 사명을 다해 왔는지 반문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조선의 영화는 제작, 배급, 상영의 각 방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은 조선의 영화계에도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이루어 작년 이후 시국에 맞는 신체제를 착착 세우고 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조선영화의 제작에 관하여,

조선에서의 영화제작은 20년의 역사를 갖고 통제 전에는 크고 작은 10개의 제작업자만이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무통제의 개인적이고도 영리적인 영화제작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대동아전쟁 발발은 그러한 제작을 용납지 않아 조선영화령에 기초하여 이들 대소 영화제작업자를 일원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1942년 10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창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필요성이나 장래성에 대해 여러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총독부로서는 조선에서 영화제작을 필요로 하는 방침은 털끝만치도 변함이 없다.

조선 동포는 약 2,400만 명으로 일본이나 만주에도 각각 5백만 명 이상이 이주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조선동포를 몸속 깊이 일본인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일본에 부여된 사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에서는 1944년부터 징병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조선동포도 역시 천황폐하의 군대로서 대동아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 만약 진정한 일본정신을 체득하지 않은 조선동포가 황군의 일원으로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조선동포의 황국신민화 여하가 그대로 황군의 기강에 관계됨을 생각하면 우리 책임의 중대함을 새삼 통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한발이라도 먼저 이 반도의 대중에 건군의 의의를 이해시켜 일본정신에 투철한 군대로서 영광스러운 의무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해 가는 일이 성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거기에는 영화에 힘입는 바가 큼은 말할 것도 없다. 제작회사에서도 문화영화나 계발영화, 극영화로 이미 완성된 것 혹은 지금 착수 중인 것 등등, 적절한 기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의 각의에서 조선동포에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반도에 부과된 사명은 더욱 중대해져 왔다. 육지에서나 바다에서 조선동포가 물에 빠져 또는 풀에 찌 죽으며 군국(君國)에 순국할 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기쁨이다.

이 끊어오르는 감격을 더욱 올리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기획하고 조선에서 제작한 영화를 조선동포에게 보임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 조선영화제작회사의 필요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 현재 회사의 인적 구성은 아직 충분치 않아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고 그것 때문에 그 존재 이유까지 의문을 갖는 것은 본말전도의 논의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화배급에 대하여,

조선의 영화배급은 42년 4월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가 창립되어 같은 해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일본의 영화배급사의 업무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에 일본과는 별개의 배급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첫째, 영화의 배급으로 얻어진 순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영화문화의 향상에 돌리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우수영화의 제작에, 순회영사반의 편성으로 영화 관계 기술자의 육성에, 그리고 기타 영화에 관계된 각 방면에서 문화 조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이들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경비의 문제가 얽히게 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영배가 영화문화조성금의 명목으로 매년 상당액의 금액을 지출하는 일은 이 회사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며, 영화문화 상 영배가 갖는 힘은 크다.

다음으로 영화 상영 부분에 대해,

조선 13도를 통해 영화 흥행장은 약 160관이 있으나 인구 약 2,400만의 조선으로서는 일본에 비해 1관 당 인구가 매우 많다. 앞으로 남겨진 미개척의 분야가 상당히 있는 셈이다. 이들 상설관은 각 도마다 흥행협회를 조직하고 또 각 도 흥행협회로서 조선흥행연합회를 결성하고 있으나 각 상설관의 경영방침, 경영내용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의 여지가 많고 전 조선을 총괄하는 연합회의 통제력도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의 공익법인인 조선영화배급사는 작년 12월부터 조선 각 도에 1반 씩 도합 13반의 이동영사반을 조직하고 매월 프로그램을 갱신하여 원칙적으로 영화상설관을 갖지 않은 지방에서 이동영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물론 이동영사반은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무료영사를 하고 배급사에서 조성금을 받게 되어 있다. 종래 도시에 편재된 영화 상설관 외에 농산어촌, 광산, 공장 등의 노동자들에게 후방의 건전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영사반을 더욱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재조선 일본인은 약 7만 명으로 상설관에서 입장자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일본인이 3,4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은 조선의 영화 개관이고 관건이다. 요컨대 조선 영화계의 신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여서 충분한 활약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운운할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전시하 조선이 갖는 중대 사명으로 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화를 활용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거듭 역설하고 싶다.

## 2. 돌이켜 보며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상무이사 나카다 세이고

조선의 영화제작이 통제되어 1사로 통합되면서 제작의 착수를 총괄하는 대임을 맡아 내가 조선해협을 건넌 것은 1942년 6월 4일이다.

그 날은 말 그대로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날씨로 거울 같은 해면이 초여름의 투명한 공기를 깊이

비추어 끝없는 청명함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혼자 갑판의 의자에 앉아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각오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괜찮다, 이 청명한 마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내 사건을 일체 자르고 잡념 없이 또 흐리지 않은 맑게 개인 거울 같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비춰져 좋은 것은 좋게 반영되고 나쁜 것은 나쁘게 비춰질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눈앞의 끝없이 조용한 바다가 천체의 흑백을 비춰주는 거울같이 생각되어 더욱 대자연의 무언의 교시에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었다.

이렇게 나는 미지의 조선에 와서 조선영화 제작의 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 도쿄에서 만난 적이 있는 4, 5명의 기술자 외에는 아는 얼굴도 없었다. 오직 매일 이 통제와 직접 관계있는 관청을 중심으로 군, 관, 민의 지식인들을 만나고 조선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마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디어 웬지 모르게 신체가 점차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공부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바르게 도움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었다. 이 해까지 상당히 헤매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후회막심이었다. 제작에 관한 기능 면의 사람들과도 매일 가능한 한 많이 만났다. 어제까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뭔가 안에 있는 예술적 끈이 서로 생생하게 만나 실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해졌다.

‘일은 사람이다’는 말이 새삼 크게 느껴져 앞으로는 조선영화의 사활이 우리의 마음과 기능의 연마에 있음에 변치 않는 방침을 세워 함부로 공을 탐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먼저 땅을 일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굳게 손을 맞잡았다.

사무적인 일의 진행에서부터 사람과 만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책의 저자인 다카시마 긴지 씨와 히로가와 소요 씨가 구 업자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봐주셨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완전히 아기와 같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세를 졌다. 무슨 일이나 창업 당시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심이 있게 마련인데 양 씨의 노력이 실로 컸고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신세만 지게 된 점을 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신체제 하에 조선영화사가 새롭게 풍부하고 아름답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조선영화통제사’에 편집된 과거 조선영화의 고투의 산물이다. 만약 또 새로운 영화사가 한심한 페이지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졸렬하고 재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열의와 지성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인(因), 연(緣), 과(果)라는 불멸의 천리에 따라 오늘부터 미래를 향한 조선영화는 과거의 조선영화 자체의 연결이다. 하나의 몸이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자신의 거울에 만약 흐림이 있어 부지불식간에 이 중요한 인연의 움직임에 혼란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그런 의미도 담아 저자인 다카시마 씨의 저서가 항상 우리의 반성의 지침이 되고 앞으로의 모범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실로 감사한 일로 생각한다.

### 3. 영화배급사의 사명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상무이사 오카다 중이치

조선영화계의 변화 중 영화 통제 전후의 제반 상황을 기록으로 묶어 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찬동을 보내며 기대에 부풀어 완성을 고대하는 바이다.

종래 조선 영화의 여러 사업은 모두 일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기관이 없었으므로 영화 관계 자료 등은 관청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이 책을 간행하는 편집자의 고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선의 영화계는 사단법인인 조선영화배급사와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전시 국책에 즉응하는 훌륭한 태세가 정비되어 종래의 면목을 일신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고심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영화 국책 수립의 소리는 1925년, 1926년경부터 높아져 있었으나 만주사변 이후부터 강조되게 되었다.

명치 초년 이래 큰 강의 독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온 물질문명은 영화의 세계까지도 당연히 지배하여 영화기업을 순수한 영리사업으로, 영화를 고도로 상품화하였다. 때문에 영화 본래의 사명 등은 완전히 망각됐으나,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 뒤 수입된 마르크스적 사상은 영화의 내용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거니와 혹은 이에 추종하면서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회상은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일본문화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였다.

영화국책이 강하게 주장된 것은 그 즈음 1930, 1931년경부터이다. 여러 문화의 감수성이 가장 약한 조선에서는 특히 그 필요를 통감하여 34년에 이미 일본에 앞서 외화의 상영을 제한하고 방화의 검열 방침을 강화하여 그 기틀을 만들었고 이어 영화령의 공포로 오늘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 사이 업계에서도 영화가 지닌 중대한 사명에 대해 몇 번이나 검토를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구 관념을 일소하는데 애쓰고 이의 통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리사욕을 개입시키지 않고 협력하여 오늘의 성과를 거두기에 이른 것은 조선영화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경위를 거쳐 영화 신체제는 수립되었으나 제작, 배급, 상영의 세 부분 중 제작과 상영의 두 부문은 여전히 이전의 형태이고 배급 부문만은 공익법인으로서 신체제 추진의 중추 기관으로 하였다.

이를 보아도 영화배급사에 부과된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배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명은 물론 영화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배급하는 일이다. 종래의 관념으로 말하면 어떻게 영화를 교묘하게 배급하여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상행위가 전부였으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공익목적에 맞는 영화의 배급이 가능할까에 대해 궁리하고 연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영화흥행장에 대한 배급 방법을 쇠신하거나 다액의 조성비를 내어 농산 어촌에 대해 이동영사를 실시하거나 적은 필름을 궁리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무료 대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작, 상영의 두 부문은 언급한 대로 영리사업이다. 따라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항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흥행수입과 영화제작 배분료에 관해서는 부단한 결의를 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더 일층 활발한 활동을 촉구하고 그 성격을 한층 공기기업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경리 면에 대해서도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화 신체제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남겨진 문제도 적지 않다. 영화로 하여금 진정한 공재로 만들어 고도의 정치성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서는 영화제작업을 공익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상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으로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배급사는 오늘의 조직 아래 그 이상에 한발 다가가도록 자유기업의 장점을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각 부문이 서로 마음으로 협력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메우고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구현에 힘쓰고 있다. 만약 어떤 면에서 경영 쪽으로만 흘러 공적인 성격을 망각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이를 교정하는 것이 배급사의 성격 상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배급일원화에 의해 이의 종사자가 관료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시국이 요청하는 시책의 수행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호하게 소신껏 매진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 전선은 더욱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후방에서는 생산의 증강에 화염을 뿜으며 싸우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영화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체의 낡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 완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4. 영화와 정열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연출과 서광제

조선 내의 크고 작은 잡다한 영화사를 정리 통제하여 새롭게 탄생한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이다.

지금까지의 조선영화는 프랑스영화의 경향이 다분히 많았으나 이 자유주의적 영화제작도 신회사의 탄생과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종래의 조선영화는 기구 설비나 기술적 문제는 두 번째이고 작품에 들이는 정열을 나는 지금도 높이 사고 있다. 조선영화에 이 정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기 힘든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재래의 조선영화에 취할 게 있다면 그것은 정열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 정열이 신회사의 탄생과 함께 보다 고아한 정열이 되어 작품을 통해 국가 목적에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예술이다. 그것이 사상적 무기가 되고 탄환이 되는 그 영화가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한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사상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열이 작품에 녹아 있어야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부분이든 통제한다는 것은 보다 좋은 국가 목적의 완수를 위해서이고 그 자체나 조직을 위축시키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영화회사도 국가 의사를 기업 면에 침투시켜 자유주의적 경향 혹은 이윤 본위의 작품 제작을 국가 본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종래의 영화제작자들 영화인들이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구 업자도 큰 희생을 참고 신회사의 탄생에 협력을 한 것이다. 물론 구 업자 전부가 신 회사에 큰 희생을 무릅쓰고 협력을 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선의로 희생을 참고

협력해 준 사람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의 희생도 큰 국가의 목적 완수를 위한 희생이라면 신회사의 활동 여하는 국가적 국민적 견지에서 실로 중대성을 띠고 있다. 신회사가 조직되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업적 운운하는 것은 물론 빠르지만, 어제가 옛날인 것같이 빠른 속도로 국가최고기구까지도 개혁하는 오늘날에 우리 조선영화의 현재 조직기구가 이 시국에 과연 적당한지의 여부를 규명할 때가 왔음은 누구도 시인하는 바이다.

만약 현재의 조직기구에 결함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개혁하여 훌륭한 조선영화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신회사의 사명이 아닐까.

영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영화인이다. 영화인은 누구라도 정열을 갖고 있다. 영화는 정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정열을 한층 고매한 정열로 끌어 올리는 것도 결국은 더 훌륭한 국민영화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고매한 정열은 훌륭한 조직기구에서만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신문사를 예를 들어 보아도 중역이나 고급사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 신문을 만드는 것은 편집부원이다. 이 편집부원이 정열이 없으면 좋은 신문이 나올 턱이 없다. 그날그날 '지면만 채우는' 기사로는 절대로 훌륭한 신문이 나오지 않는다. 단지 상층부의 사람은 편집부로 하여금 정열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결국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이 된다.

영화인으로 하여금 새롭고 고아한 정열에 불타게 하는 것이 결국 조선영화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조선영화 미래의 사명이 아닐까 한다.

조선영화계의 통제 후 내가 간절히 생각하는 것은 영화와 정열이다. 신회사가 만들어져 1년이 지난 오늘날 기술적 설비가 종래의 구영화계와 대동소이한 오늘에서는 조선영화의 생명이 오직 영화인의 새로운 정열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 5. 조선영화 기사 각서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니시가메 켄테이

일본의 영화잡지에 게재된 조선영화에 관한 주요한 기사의 각서

### 1. 좌담회 형식에 의한 것

1) 「조선영화의 현상을 말함」(『일본영화』 1939년 8월호) 도쿄. 출판자 야기 호타로(八木保太郎),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이이지마 타다시(飯島正), 이와사키 아키라(岩崎稔), 우치다 기사오(内田崎三雄), 시타미 다다오(笹見恒夫), 다니야마 반(谷山蕃), 히로가와 소요, 오오타 고지(太田恒彌), 니시가메 켄테이. 이는 이런 종류의 회합에 대한 최초의 시도이고, 쓰여진 내용도 거의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그 요강을 쓰면 일본의 조선영화, <여로(旅路)>와 <한강(漢江)>, 조선의 시장, 일본과의 제휴 실패, 영화령의 발령, 조선영화의 투자액, 기획의 근본, 조선의 여러 회사, 조선 영화인의 기질, 문화협동체로서의 조선영화, 내선일체의 협동 제작, 하나의 지방 언어 영화로서의 조선영화, 조선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선영화의 장점과 단점 등.

- 2) 「조선영화의 전모를 말하다(朝鮮映画の全貌を語る)」(『영화평론』 1941년 7월호) 경성
- 3) 「당신과 나(君と僕)」좌담회(『영화순보』 1941년 10월 21일호) 경성
- 4) 「조선영화 신체제 수립을 위해!(朝鮮映画新体制樹立のために)」(『영화순보』 1941년 11월 1일호) 도쿄, 출석자 이이지마 타다시, 시타미 다다오, 히로가와 소요
- 5) 「조선영화의 특수성(朝鮮映画の特殊性)」(『영화순보』 1943년 7월 11일호) 경성

## 2. 평론 및 감상

- 「조선영화계의 전망(朝鮮映画界の展望)」 오오타 고지(『키네마 순보』 1938년 5월 1일호)
- 「만주 및 조선의 영화계(滿州及び朝鮮の映画界)」 시타미 다다오(『키네마순보』 1939년 11월 21일호)
- 「경성의 5일간(京城の五日間)」 우치다 기사오(内田岐三雄)(『키네마 순보』 1939년 12월 1일호)
- 「조선영화」 단바 후미오(丹羽文雄)(『영화지우(映画之友)』 1940년 10월호)
- 「조선영화의 현상(朝鮮映画の現状)」 노구치 히사미쓰(野口久光)(『스타(スター)』 1940년 11월 15일호)
- 「반도 영화계에 보내는 말」 장혁주(『영화지우』 1940년 12월호)
- 「반도영화에 대해」 우치다 기사오(『영화평론』 1941년 7월호)
- 「조선영화잡감」 구로다 쇼조(黒田省三)(위와 같음)
- 「내선영화계의 교류에 대하여(内鮮映画界の交流について)」 히카 에이타로(日夏英太郎)(위와 같음)
- 「조선영화의 제재에 대하여(朝鮮映画の題材について)」 니시가메 겐테이(위와 같음)
- 「반도영화를 둘러싼 두개의 문제(半島映画をめぐる二つの問題)」 지지로쿠온코(時事録音子)(『영화순보』 1941년 10월 21일호)
- 「조선영화수상(朝鮮映画随想)」 미즈이 레이코(水井れい子)(『신영화(新映画)』 1942년 11월호)

## 3. 작품 비평

- 「주인없는 돛단 배(主なき小舟)」 이이다 히데요(飯田秀世)(『영화평론』 1932년 12월호)
- 「여로」 라이지마 유키오(来島雪夫)(『영화평론』 1937년 6월호) 이시다 기소쿠(石田義則), 스기모토 에이조(杉本英三)(『일본영화』 1937년 7월호)
- 「한강」 이이다 신비(飯田心美)(『키네마순보』 1938년 5월 21일호)
- 「군용열차」 무라카미 추구(村上忠久)(『키네마순보』 1938년 5월 21일호)
- 「사랑을 묻다(愛を尋ねて)」 무라카미 추구(『키네마순보』 1939년 12월 1일호)
- 「국경」 라이지마 유키오(来島雪夫)(『영화평론』 1939년 11월호)
- 「수업료」 시게노 다쓰히코(茲野辰彦)(『키네마순보』 1940년 4월 21일호) 도요타 마사코(豊田正子)(『영화지우』 1940년 10월호)
- 「지연병」 시미즈 쇼(清水晶)(『영화평론』 1940년 8월호)
- 「집 없는 천사(家なき天使)」 이이다 신비(『영화평론』 1941년 3월호) 스즈키 유기치(鈴木勇吉)(『영화순보』) 나가노 고세이(中岡孝正)(『일본영화』 1941년 12월호)

「성황당」 시게노 다쓰히코(『영화순보』 1941년 11월 11일호)

「당신과 나」 우치다 기사오(内田崎三雄)(『영화순보』 1941년 12월 11일호)

#### 4. 자료

『영화순보』 1943년 7월 11일 호, '조선영화특집'이 유일하게 총괄한 것이다. 내용은 「조선 영화에 대하여」(모리 히로시), 「조선영화의 신동향」(다나카 사부로), 「영화정책과 영화제작」(나카다 세이고), 「조선영화의 희망」(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조선과 영화」(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등의 논설 외에 여러 자료가 수집돼 있다.

그중 조선영화문화연구소 편 의 『조선영화 30년사』와 『조선영화작품연표』는 잘 정리되어 있다.

부기, 이상은 표제대로 '일본영화잡지에 게재된 조선영화에 관한 주요 기사'를 주변의 각서 가운데에서 급하게 찾아낸 것이다. 누락된 것이 많을 것이나 이번의 다카시마 긴지 씨 저 『조선영화통제사』 출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 제5편 영화통제의 흔적

1. 거짓 없는 기록
2. 임진 영화 이야기
3. 조선영화의 신 발족
4. 대동아 문학자 대회 일행을 맞아

### 영화 통제의 흔적

#### 1. 거짓 없는 기록

다카시마 긴지

영화와 결별하는 것은 조강지처와 헤어지는 것처럼 애통했다. 이는 영화인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영화라는 일 없이 살 수 있을까. 영화를 자신과는 무관한 세계라고 달관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고민했다. 게다가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고민이었지, 누가 강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치 바로 전 일로 생각되지만 반년 이상이나 영화의 세상에서 떨어져 있다. 2월 29일에 휴직원을 내고 3월 3일에 청향원(淸香園)에서 회사 사람들 30명 정도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사직 이야기를 하는 결별의 연회를 열었다. 8일에 총독부의 모리 도서과장을 만나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곧 상공회의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나카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9일에는 본사 관계, 10일에는 촬영소 관계 양쪽에서 사무의 인수인계를 한 후 조선생활 12년에 비로소 낭인생활의

일보를 내디디게 되었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났다. 참으로 세월은 빠르다. 그 사이 2개월 반 정도 일본과 만주를 여행한 것 외에는 거의 매일 집에 틀어박혀 외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화인들과도 만날 기회가 없었고 때때로 찾아오는 두세 명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자신이 낭인임을 잊은 듯한 말투를 하고 있는 것에 쓴웃음 지은 적도 종종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게 되어 그 때는 남모르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나를 영화인으로서 여러 감동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역시 내 자신이 웬지 초월한 경지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자신의 이런 마음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예를 들어 성급한 이야기지만, 이 책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쓰지 못했을 것이고, 또 쓴다 해도 그것이 바른 기록이 되지 못할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쓰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영화를 산에 비유하여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은 내가 그 산이 울창해지기를 어찌 바라마지 않으리오. 적당하게 비가 오고 아이들이 산을 망치지 않도록, 또 해충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인정일 터이다.

조선에서 영화제작회사의 경영은 상당히 곤란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곤란을 헤쳐 나가는 책임은 결코 사장이나 상무만의 책무는 아니라고 본다. 그 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모두의 책임이다. 조선 측 영화인도 과거의 체험을 통해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영화를 만들게 하는 회사의 경영자도,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도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영화제작에 대해 의견 같은 것을 쓰거나 이야기 하는 기회도 앞으로는 적어질 것 같아 두 세 가지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사람 사이의 화(和)라는 단어는 제작회사 수뇌부에서 항상 입에 올리는 이야기로 실로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일수록 어렵다. 인간의 화 중에서도 일본과 조선 사람 사이의 화가 가장 중요하다. 조선인 기술자를 모욕하는 일은 크게 삼가야 한다. 영화계의 사정이나 영화인의 기질을 모르는 아마추어가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경우 등 측근이나 관계자는 매우 주의하여 사원이나 사내 모든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인간의 화는 생각지도 않게 무너져 버린다. 적어도 영화라는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 가운데에 내선간의 구별이 있거나 강하게 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조선영화인은 대개 자존심이 강한 반면 공부나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경우 특별한 자존심이 필요하지만 공부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란다. 야규우 세키슈우사이(柳生石舟齋)가 칩거한 뒤의 일이지만, 야규우타니(柳生谷) 가까운 츠키노세(月の瀬)의 오쿠 아라키손(奥荒木村)에서 석탄이나 산나물 등을 팔러 오는 추노스케(丑之助)라는 13, 14세의 소년이 있었다. 개는 무사가 되고 싶었다.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여 하루는 야규우 효고(柳生兵庫)가 도장에서 그 소년에게 목검을 잡게 하였더니 꽤 감각이 있었으며, 효고의 공격을 받자 소년은 효고 그의 어깨를 순식간에 뛰어 넘었다. 그 소년이 나중의 아라키우에몬(荒木又右衛門)<sup>67)</sup>인데, 그는 무사가 되고 싶다는 일념에서 이가 코가(伊賀甲賀)의 닌자(忍者)가 수행하는 것을 흉내 내어 뿌린 삼베 씨가 2척 3척 커가는 데 따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계속 뛰어넘는 힘겨운 연습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2년이나 계속했다 한다. 그러한 노력과 그 같은 연구심이 지금의 조선영화인들에게 필요하다.

나카다 상무가 오랫동안 와병 중이어서 창립 직후의 회사로서는 기획 면에서 여러 착오가 있거나 작품 제작 스케줄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신작품의 착수가 발표되고 나카다 상무도 완쾌, 출근함으로써 활발한 제작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작 '젊은 모습'도 대략 완성을 보았는데, 이 작품은 물질적으로는 조선영화이나 정신적으로는 조선영화라고는 할 수 없는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다. 또 제작비 면에서 말하면 조영으로서는 장차 운명적 작품이 될 것이고 숫자적 측면에서 보면 조영의 복덩어리가 될지 또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만 훌륭한 작품의 완성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촬영소의 신축이 이런 시국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촬영소가 없다는 것도 실로 난처한 일이다. 신축허가는 어려워도 기존 건물을 매수 개조하여 하루라도 빨리 촬영소의 간판을 올리고 싶다. 일본의 제작회사와 같은 제작편수도 없으니 소규모로 시작해도 지장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작의 본거지는 역시 조선에 두지 않으면 경비 면에서나 영화의 색채 면에서나 조선영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3백 평의 건물이 있다면 나중에 목조건물을 증축할 때 막대한 경비 없이도 될 것이니 꼭 실현해 주기 바란다. 일본 측과의 협력 작품도 1년에 2편 정도는 이곳에서 될 것이고 일본 배우도 월별로 계약하여 부르면 일본에서와 같은 복잡함이나 착오, 수고 등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각본난도 많이 고민해 볼 문제이다. 자유주의 시대와 같은 내용으로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재미없는 것도 곤란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화 뿐 아니라 조선의 연극 방면에서도 현상타개책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좋은 기획을 잘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양성도 필요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나가 사장의 수고도 보통이 아니라 생각된다. 장사하듯이 5에 5를 더하면 10이 되거나 3곱하기 3이 9가 되지 않는 게 영화이니 회사경영에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좋은 부인역을 맡은 듯 나카다 상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부인은 절대로 신뢰하여야 한다. 남편의 권위를 보이는 것은 좋으나 부엌살림이나 세탁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 남편이 쌀 뒤주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오사카에 있을 때 자신이 외출할 때 쌀 뒤주에 손을 넣어 쌀미(米)자를 써놓거나 눈금을 그어 놓기도 했던 노인이 있어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부인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부는 일심동체이기도 하다. 남편의 수치는 아내의 수치이고, 아내의 불신행위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다 노부나가(小田信長)는 역신 미쓰히데(光秀) 때문에 혼노지(本能寺)에서 죽음을 당하나 미쓰히데 입장에서는 훌륭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은 모시는 장군을 위해 어떤 전투에서나 공을 세우며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은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모욕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투를 잘라 흔드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피를 주곤 하였다. 그 때마다 두고 보자는 반감이 쌓여 그랬던 것이다. 노부나가는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바보 같은 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미쓰히데 때문에 영웅의 일생을 마친 것이다. 노부나가는 워낙

67) 일본 에도시대 초기의 검객으로 시대극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렸을 적 이름이 추노스케(丑之助).

성격이 급하고 단순하여 히데요시(秀吉)나 모리 란큐(森蘭九)에 대한 편애의 정도와 미쓰히데를 대하는 태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누구나 일국일성(一國一城)의 주인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려는 자는 큰 아량과 사랑이 필요하다.

조선영화의 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150명에 가까운 조선영화인 제군이여, 여러분은 결코 영화에 마비되어서는 안 되오. 생활력에 대한 강한 자신과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소. 생활을 위해, 영화를 위해라는 자기 위안의 구실을 찾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서 일보의 전진도 없을 것이다. 싸우는 병사는 먼저 냉정히 자신의 발밑과 적군의 진형(陣形)을 통찰한 뒤 용감히 돌파하여 이기기도 하고 무운이 약해 전투에 저서 죽기도 한다. 영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물며 생활에 빠져서도 안 된다. 준엄한 마음으로 자기비판을 하면서 영화인으로서 후회 없기를 기약하여야 한다.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가 일대 성전을 하기까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은 단지 검술만의 고난이 아니고 실로 사람이 가는 길의 다함을 얻으려 한 것이고 그 때문에 그의 검은 악검이 아닌 이른바 정검(正劍)이었던 것이다.

요즘 시간이 나 옛날 책들을 읽고 있어 이야기가 옆으로 켜는데, 쇼와(昭和)의 현재나 덴초(天正), 분로쿠(文祿)의 옛날이나 사물의 도리나 인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옛 영웅의 일과 지금의 일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여러 인물을 끼워 보면 실로 재미있다.

지난 신문은 관부연락선 곤린마루(崑崙丸)가 적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관부 사이도 적의 잠수함 출몰 위협에 노출되는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정말 가깝게 전쟁의 화염을 느꼈다. 그 다음날 바로 오늘 신문에는 조영의 차기 작품 〈거경전(巨鯨傳)〉 촬영대가 경상남도의 바다로 용감히 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화도 역시 싸우고 있다는 감개를 한층 더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촬영 일행이 무사히 해상 로케를 끝내고 돌아오길 바란다.

‘영화통제사’의 집필을 마치고 편한 마음으로 지금의 심정을 거짓 없이 쓰려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사적 견해 같을 것은 지나치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만필조(漫筆調)가 되어 버렸다. 나는 여기서 조선영화의 눈부신 발전과 조선 영화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는 사람 중의 하나임을 거듭 부언하며 펜을 놓는다. (10월 9일 씀)

## 2. 임전영화 이야기(1941년 10월 9일 경성일보 게재)

다카시마 긴지

일본의 영화제작, 배급 양 부문은 실로 핍박해졌다.

임전통제의 큰 물결에 떠밀려 구체제의 이른바 자유주의적 영화제작회사는 이미 궤멸 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인이 없는 곳에 결과는 없다. 영화의 무서운 감독관청이 내무성이라 했던 것은 옛말로 지금은 군과 정보국을 중심으로 문화의 첨단을 가는 영화사업의 임전적 총동원 계획이 구체화되려 하고 있다. 요로의 모씨는 “모든 영화회사를 한번 두드려 가루로 만든 후 두개나 세 개의 경단을 만드

는 것이다.”라고 극언하고 있다. 구체제 영화인도 웃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일본영화 제작의 대전환과 조선영화의 관계는 논할 것도 없고 그 전도가 장차 위급 존망의 감을 더해 갔다. 일본 의존의 조선영화계에서 고군분투하여 조선인이 만드는 이른바 조선영화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 온 재 경성 영화인은 물론 일본인 제작자도 일본 영화계의 급변에 다들 당황하고 있다.

조선에 문화입법인 영화령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그 실질적 시행을 한발 앞두고 영화의 임전체제라는 태풍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영화는 어떠한가. 일본 영화의 이른바 “두드려 가루를 내어 새로운 두개의 경단을 만드는” 식으로 정리 통합해야 하는가. 또는 항간에 전해지는 것처럼 일본의 모 유력 제작회사와 같이 완전히 해산의 운명을 걷는 일이 발생할 것인가. 나는 일본의 너무 익어버린 영화제작회사와는 달리 형국의 길을 계속 걸어 점차 여 명을 보려 하는 조선영화제작계는 완전히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구별하고 느낀다.

여기까지 썼을 때 일본의 영화통제에 관한 마지막 당국 안이 마련되었다. 즉 현재 극영화 제작회사를 통합하여 3사로 하고 각각 이데올로기를 발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드디어 낙착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문화영화의 통합정리, 일원적 통합기관의 설치 등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보국의 모 간부(과장)가 “나한테 맡겼다면 15분 만에 해치웠을 텐데”라고 장담했던 극영화 문제가 마침내 뚜껑을 열어 보니 업자 측의 복잡한 사정 등 관리들이 너무나도 영화계의 실정을 몰랐던 점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독선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셈이다.

조선에서 영화제작의 임전체제화도 일본의 추세를 보아 가며 시행된 것은 당연하다. 당국이 우리 업자를 초치하여 보여준 당국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역설 강화한 것을 한 발 더 내디딘 임전적 통합으로 꽤 적극성이 강한 것이며, 과거의 영화인들이 꿈꾸었던 미지근한 방책이 아니고 소외 각종 조건을 초월한 국책적 통합이다. 이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여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조선영화계의 역사적 대전환기가 우리 눈앞에 전개한 셈이다.

나는 장차 태어나려 하는 조선 유일의 영화제작회사에 대해 많은 기대와 열의를 갖고 또 신회사의 성립 방법, 수단 및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당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질지 중대한 관심을 갖는다. 나는 당국에 대해 솔직히 모든 각도에서 바람을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나는 당국에 대해 영화제작에 대한 전면적인 적극성을 희망한다. 즉 당국이 독자적인 영화정책을 확립해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자주 업계와 절충이 있었으나 대국적 견지에서 영화계를 지도하고 영화제작의 향상에 힘을 쏟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의 영화정책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흥만주국에서조차 일찍이 1937년 칙령 만주영화협회법을 공포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의 만영(滿映)이 탄생하였다. 나는 만영을 전면적으로 찬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결함도 있지만 만영의 탄생 자체에 대해서는 만주국 당국 및 관동군 당국의 ‘영화 국책 확립’이라는 문화적 정책을 왕도낙토의 건설과 병행하여 실시한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만영은 차치하고라도 조선의 현재는 당국의 적극적 지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임전적 견지에서 조선에 1제작회사가 실현되는 경우 자재, 주로 생필품의 획득이 장래 이 회사를 운영해 가는 데 중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여 조선의 특수성, 조선통치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한 당국의 노력으로 자재의 확보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전망이 생길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화제작 통제의 방편으로 생필품의 중지라는 비상수단을 썼다. 이에 대해 모든 회사가 손을 들었다. 조선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르나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었다. 생필품의 기본이 셀룰로이드이고 비상시 중요 자재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영화통제의 방편에 생필품을 갖고 나와 “필름보다도 폭탄이다”라며 급전직하 80, 90%의 배급정지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적(敵)은 혼노지(本能寺)에 있다는<sup>68)</sup> 느낌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전시 하 자재의 제한도 물론 필요하고 또 시국 하에 긴급 조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정보국과 군부는 이렇게 영화의 통제와 자재 제한의 제 1보를 내디딘 셈이다.

따라서 조선의 장래 생필품 확보의 문제는 제작회사가 1사로 통합됨으로써 작품도 당국안과 같이 제한된다면 할당수량은 어떻게든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국의 적극적 영화정책의 수행을 크게 요망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신 제작기관의 성격과 진용에 대해 바란다. 성격은 물론 임전체제이지만 조선이 독자적 입장에서 총독 시정의 일익을 맡아 때로는 조선 대중을 계발하고 때로는 약동하는 조선 대중에게 비상시 국임을 인식시키는 한편 건전한 오락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가 갖는 사명은 활자에 의한 출판물에 비할 바 아니게 매우 광범위하다. 이들 중요한 사명을 갖는 영화의 제작은 온갖 인지와 기계의 종합예술이다. 명량한 제작진의 노력과 기술자들이 애지중지하는 기계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예술품이다.

신기구의 인적 요소는 여전히 조선영화계의 노력을 기다리는 바가 크다. 조선의 정서와 습성과 색채는 하루아침에 일본영화인이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인재가 부족한 업계에서 이렇게 잘라 말하면 좀 적막한 감도 있지만 나는 그렇다 하여 일본의 신인 등용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극적으로 신 기구에는 일본의 전문가나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이 당연하나 제작의 근본정신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이번에 탄생하는 영화제작 기구는 당국의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고 또 당연하다. 그러나 경영주체와 제작부문의 제작태도, 제작의욕은 양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 영화계의 거인이 어제까지의 오랜 보금자리를 오늘 떠나거나 또는 삼삼오오씩 뭉쳐 이합 집산하는 사실을 보면 경영자와 제작자의 이념만으로 도려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조선에서의 신체제영화기구 아래 사리사욕이나 한 개인의 명예나 자기만족을 위해 영화인의 신념에 등을 돌리는 동지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서로 자신을 돌아보아 후회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이에 내가 신 기구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그 운영과 제작계획을 심의 검토하는 ‘기획심의서’ 또는 ‘기

68) 일본의 전국시대 무장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가장 믿었던 심복인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에게 혼노지라는 사찰에서 암살당한 사건에서 적은 가까운데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

획연구회(가칭)를 세우는 것이다. 이 기관은 총독부 당국, 예를 들면 도서과장, 문서과장, 사회정책과장, 국민총력 연맹의 선전부장, 문화부장, 또는 헌병사령부 당국, 그 외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인과 경영자 층의 간부로 조직한다. 이 기관은 신회사의 제작계획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나 한편으로는 또 신회사 운영에 관해서도 발언하고 군 관 민이 일체가 되어 영화에 의한 임전사상의 철저를 기하는 명분에 충실한 곳이어야 한다.

조선의 영화제작회사는 가령 그것이 주식 조직이어도 혼자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자재 관계, 작품의 배급, 그 외에 대해 검토하면 할수록 이른바 관민이 일치하는 존재이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는 반관(半官) 회사와 같은 색채를 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많다. 당국의 적극적인 영화정책이 지금에 이르러 그 제작방침이 기획심의회와 같은 기관으로 결정되고 완비된 설비와 조선 독자의 진용으로 제작될 경우 그 작품은 과거와 같은 좁은 시장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닌 전 일본의 시장의 진출이 약속되어 있다.

이에 관청 영화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일본에서도 영화의 임전체제 실시와 동시에 관청 영화의 전폐를 단행하게 되었다. 관청영화는 원래 자기만족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착수에서 완성까지, 또 완성 이후 영화의 효과에 관해 제작자는 불안이 없고 또 영화가 노리는 바 초점은 언제나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腹がふくれると睡気を催す)〉, 〈배고프게 찍은 영화가 볼 만하다(すき腹程度でつくったものが見ごたえがある)〉 등 조선에서도 관청영화의 완성도는 질책을 받을지 모르나 많이 떨어진다. 이는 역시 제작 의도와 기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경우 중점주의에서 보아도 당연히 관청영화는 폐지되어야 하며 관청영화라는 명칭마저 동의할 수 없다. 관이 민을 지도하는 이상 현재 우리가 제작하려는 임전 영화야말로 환연하면 관청영화의 대중화이고 영화를 통해 상의하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뜻에 따라 신 제작기구의 창립에 관한 계획안은 이미 제출되었다. 곧 구체적 방책에 대한 명확한 당국안이 발표될 것이다. 나는 경무국 훈다 도서과장의 정중하면서도 간절한 임전영화의 장래에 대한 투철한 의견이나 노부하라(信原)문서과장의 명확한 찬조의 뜻과 약진하는 조선의 경제력을 잘 꿰어 맞춰 장래의 조선영화에 불타는 정열을 쏟고 있다. 또 이 신 기구의 경제적 중심이 되는 인재도 모두 곧 클로즈업 될 것이고 인선 또한 당국의 방침에 의할 것이지만 나는 일본영화를 오늘날의 수준까지 끌어 올린 영화경영자들을 생각한다. 우리의 중심인물은 “경제인이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절대 조건으로 섬세한 두뇌보다도 담대하여 청탁을 함께 아우르는 아량 있는 걸출한 인물을 요망하는 바이다. 백만 이백만 엔의 회사라고 무시하지 말라. 게다가 조선 유일의 영화사업은 향간의 천만 이천만의 이윤추구를 업으로 하는 회사와는 그 정신과 가는 길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임전영화 체제에 관한 당국의 정식안을 학수고대하며 펜을 마감한다.

### 3. 조선영화의 신 발족(『문화조선』 1942년 9월호 게재)

다카시마 긴지

조선 유일의 영화 회사. 다시 말해 일본의 쇼치쿠, 도호, 다이에이에 이어 유일한 조선영화사가 만들어졌다. 영화기업이라는 자본가와 다른 사업, 그것도 자본금 200만 엔의 회사를 성립시키기까지 자본가의 고심은 상상이 가나 영화인으로서 어언 3년, 오늘이 있기까지 고투해 온 필자 자신으로서도 매우 감개무량하다.

조선영화에 대한 개념론이나 이상론은 이미 여러 선배나 지인들이 다 말한 바이다. 요컨대 그러한 이상을 어떻게 살려 어떤 방법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이다. 조선영화는 재출발하였다. 아니 새롭게 발족하였다. 그리고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돈만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 제작비를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여 보다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인간과 설비의 문제이다. 그러나 기계도 인간이 사용하는 이상 사람에 의해 B의 기계로 A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A의 기계로 B의 효과를 올리는 데 그치는 기술자도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힘인 것이다. 조선영화의 경우 대회사, 대자본이 실현되었다 해서 바로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 만족스러운 영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결국 현재의 조선영화 기술진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일류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급한 문제로서 기계를 정비할 서둘러야 한다. 이 점에서는 도쿄에 있는 나카다 촬영소장에게서 꽤 고무적인 소식이 와 있다.

이 사이 다나카 정무총감 하의 동시녹음으로 <후방의 책무(銃後の責務)>라는 짧은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인화해 보니 끝 부분이 전혀 소리와 입이 맞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10 피트에 4나 5 콤마씩이었다. 모터의 고장으로 판명 났다. 간단한 이유이지만 이래서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촬영에서 현상까지 일관 작업으로 설비가 있는 데나 싱크로<sup>69)</sup>나 프린트가 없어 고생하며 찍고 있다. 소리를 시청(試聽)하는 무비올라도 없다. 이 들 종래의 조선영화의 빈약함을 직접 체험한 나는 이런 악조건에서 오늘까지 잘도 찍었다고 감탄한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비도 곧 일소되어 완전한 설비 하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영화인 전체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배우에 대해 느낀 것은 종래 자칫하면 이단자 취급을 받아 온 그들이었으나 주연급 남녀 배우 대부분을 만나 보니 그들의 영화에 대한 정열은 실로 뜨거웠다. 그들은 진지한 자세로 큰 조직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원 없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면을 일소하여 명량한 연기자로 일어서는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나는 남몰래 쾌재를 부르고 싶은 정도이다. 후속부대로서 계속 올라오는 신인의 양성도 물론 필요하나, 이들 현역배우의 분발은 신회사의 가장 바라는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조선영화의 연출진 즉 영화감독은 정말 척박한 수준이다. 펼칠 힘을 갖고서도 문혀 있는 그들도 드디어 자기의 야심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에 심사숙고해야 할 부문은 눈앞의 공명을

69) 싱크로스코프의 준말로 시간에 따른 입력 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쫓지 말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야심을 품다 실패로 끝나는 일은 개인의 자멸뿐 아니라 조선영화의 패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상무이며 촬영소장인 나카다 세이고 씨는 일본 영화계 최고의 공로자로 예민한 신경과 제작 의욕의 권화와 같은 선배이다. 이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조선영화의 행복이다. 실적을 서두르지 말고 한 발 한 발 건실히 나아가 조선에서 일본 감독진을 육박하는 일을 준비할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으나 우리들은 현실 문제로 광명의 출발선(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 행복, 이 환희와 감격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가슴에 새기고 싶다.

고이소 총독은 이 무렵 국장회의에서 “항상 윗 사람과 아랫사람이 하나가 될 마음가짐이란 윗 사람의 명령이 정당하고 무리가 없으며 감독이 치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양과 큰 감화력을 가져야 하며, 아랫사람은 숭고한 덕의심과 충실한 복종심이 필요하다.” 이 말은 영화계의 경우 절실히 들어맞는다. 신 회사의 자본가들이나 우리의 사용인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가 되어 영화보국의 염원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4. 대동아문학자대회 일행을 맞아[1942년 11월 14일 명월관(明月館)]

다카시마 긴지

대동아공영권의 유력한 문화(학)인 여러분이 모여 장차 도래할 찬란한 아시아 문화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한 뒤 적절한 성전 완수 협력의 선언을 내외에 발표한 일은 실로 시의적절한 쾌거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회 출석자 중 만주, 중화민국, 몽고의 대표자들은 귀국 길에 들러 조선의 문화인들과 이같이 무릎을 맞대고 교류한 점은 조선영화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기쁨이고 그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은 것이 일신에 차고 넘치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회합을 통해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전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 문화인의 불타는 애국의 정열을 외지 문화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휴와 협력으로 대동아 문화인 각자가 품고 있는 대아시아 문화의 여 명을 향해 일약 매진해 가고 싶습니다.

조선영화계의 한 사람으로 초대해 주신 오늘 조선 영화계의 현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22년 전 1921년입니다. 그 후 1934년까지 무성영화의 중심작 95편, 이후 토키영화시대가 된 지금까지 약 40 편 전후의 극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조선영화의 과거는 실로 빈약 그 자체입니다만 여기에는 설비 면에서나 용어 관계, 또는 조선의 부의 정도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조선 영화인이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오랜 동안 영화를 위해 악전고투해 온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계와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선 영화계도 만주사변 직후부터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에 이르러 지나사변, 대동아전쟁과 시국의 중대화에 따라 조선 영화인의 제작 의욕은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조직적인 영화제작으로 약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내 외지를 일관한 내각정보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의 임전체제 확립안이 발표된

이래 조선영화가 나아갈 길이 완전히 확립되어 일본의 3대 영화제작 회사에 이는 일대 제작회사를 창립하였습니다. 즉 조선총독부 당국의 절대적인 지원 하에 지난 9월 30일 자본금 200만 엔을 갖고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창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의 목적은 영화가 가진 힘을 국책 선에 덧붙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는 한 기관임을 당연한 책무로 하고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조선 영화인의 대다수를 수용하여 화려한 스타트를 끊은 바입니다.

영화에 국경 없고 문화에 국경이 없음을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바이고 교만한 미국영화가 세계를 더럽히고 경박한 구미문화가 얼마나 아시아를 멍들게 했는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화인의 손으로 모든 문화재를 총동원하고 전 아시아인을 진정한 아시아인으로 만들어 대동아 번영을 위해 백년, 천년의 대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은 대륙병참기지로써 대동아에 클로즈업 했습니다.

조선영화는 조선만의 영화가 아니라 일본 영화이고 또 만주, 중화민국, 몽고 등 친구들의 마음에도 반드시 깊이 파고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에 유력한 외지 문화인 여러분 앞에서 이상 조선영화계 현황의 일단을 보고하고 앞으로 조선영화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출석해 주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 인사를 마칩니다.

1943년 12월 25일 인쇄, 1943년 12월 28일 발행

조선영화통제사 비매품

발행자 경성부 종로구 서대문정 2-7-3

히로가와 소요

인쇄자 경성부 중구 태평통 1-31

텐잔 마스미(天山益進)

인쇄소 매일신보사 인쇄부

저작자 경성부 서대문구 봉래정 4-290

다카시마 긴지

발행소 경성부 중구 장곡천(長谷川)정 동양상공 빌딩 1층

조선영화문화연구소 (전화 본국 6234 번)

〈출전 : 高島金次 『朝鮮映畫統制史』, 朝鮮映畫文化研究所, 1943년〉

## 2) 나카타 하루야스(中田晴康), 영화정책과 영화제작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상무이사·촬영소장 나카타 하루야스

일본영화계는 자기 자신을 변혁하도록 요망되는 한편, 날로 커져 바닥을 모르는 큰 규모가 충실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엄청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속된 말로 하자면 주판을 쓰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화가 갖는 사명 중에는 정치성을 갖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의 기초가 단순히 주판에 맞다 안 맞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 가지 커다란 사명 중에서도 영화의 힘으로 동아에 침윤(浸潤)하고 있는 미, 영 사상을 때려잡고 참다운 일본정신을 심는다는 일은 매우 중대하며,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유식한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의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아무리 영화의 내용을 바꾸어도, 그 방법이 그 전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중앙에서 만든 필름테이프를 그냥 빙빙 돌리는 것만으로 다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경제적인 것만으로 경영의 기초를 삼아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방편이며 목적인 미, 영국식 방법이라면 대중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약점을 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일은 없을 것으로 이런 방법이라면 물론 필름테이프를 돌리기만 하면 충분하지만, 새로운 일본영화계가 갖는 사명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 영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계발하고, 교화하고, 지도하며, 민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중을 끌어올리는 일이며, 그리고 대상은 오랫동안 본능적인 것에 자극 받으며, 감성적인 것에 길들여 진 상대임으로 그것의 전환이 쉬울 리 없다.

따라서 대중의 흥미를 끌면서 부지불식간에 교화와 계발을 하는 영화가 좋고 그것이 영화의 강점임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괜찮은 말이지는 하다. 그러나 영화 제작 썸이야 라고 말하는 쉬워드 행하기는 어려워, 실제 그러한 영화가 지금까지 몇 개나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대동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후풍토도 다르며 민정도 제 각각으로, 그렇게 손쉽게 즉흥적인 예술적 발상만으로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영화가 갖는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어 무엇이든지 영화의 힘에 기대어, 하나의 의지가 필름의 흐름을 타고, 가는 곳마다 같은 모양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하면 크나 큰 오산이다. 장소와 때와 그곳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결과도 초래하는 일마저 있다. 풍속과 습관의 차이에서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하는 것이 생기거나, 민도 차이에서 완전히 반대의 관점으로 포착되는 예는 만영(滿映)에서 제작에 제휴한 친구들에게서 종종 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복지'<sup>70)</sup> 방면의 선무반이 민중에게 화려한 뉴스영화를 보여 주었을 때, 일본군은 강할 텐데 도망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조금도 감명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즉 돌격하는 모습은 뒤에서 찍는 것이 진짜로, 교양도 나오고, 상식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화가 갖는 진실성은 실제의 현실성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채울 만한 영화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한편에는 별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

70) 북중국.

기술적인 방면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도 주변 사정을 여간 연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잘못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전과 같이 국민의 교양정도가 거의 일치하고 또 영화관객 층의 지식정도에서나, 자연과 극한적인 환경만이 제작의 기획에 대조를 이뤘던 경우와는 달리 이제 그 주변이 크게 달라진 것에 자주 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영화는 그 만큼 광대한 지역에서 발전하며, 교양이나 상식의 차이가 심한 사회에서나, 민도의 차이가 심한 여러 나라에서도 먹혀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지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점이다. 미국영화는 전 인류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약점을 자극해 마지않음으로, 전적으로 망가지기 쉬운 인간 공통의 약함이란 점에서 민도, 교양을 초월한 공명성(共鳴性)이 있기 때문이다. 오욕(五慾)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본능의 취약 면에서, 겸손이나 인사도 없이 무책임해도 상관없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영화에 대중성이라거나 보편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일본영화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영화의 대상은 대중이라고 말하며, 대중을 파악하는 방향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를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영화의 사명과 어려움이다.

거기에는 지역, 풍토, 교양, 민도 등의 차이에 따라 각각 알맞은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 자체가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지적, 정신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청받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실행해가는 방법도 대상의 차이에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 때문에 시대의 추이와 함께 일본영화의 취급방식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한 예로서 최근 만주에서 두개의 커다란 작품의 상영 불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재료 부족,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굳이 한 곳에 제작을 집중하고, 그것을 각 방면으로 유통하는 방법에 기울기 쉬운 때이지만, 이러한 일은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관점이나 독선적인 나쁜 결과를 낳을 우려가 다분히 있다.

지나사변의 전반(前半)에서 가장 화려했던 서주(徐州)회전 때 함락의 실황방송이 실시되어, 국민의 피를 끓게 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방송을 뜻밖에도 당시 태국 삼의 북쪽 도시인 첸마이에서 들었다. 그날은 또 각별히 더운 날로 내가 묵고 있던 사진관 식당에서 식사하다 우연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짐통에 들어 간 것 같은 더위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감격의 눈물이 볼을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이었다. 타관에서 그러한 기쁜 소식을, 그것도 국어로 듣는다는 기쁨은 도저히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나, 그때 같은 식탁에는 그 집의 가족 일동 외에 중국인 사진직공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나의 묘한 행동에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나는 조금은 상대의 기분도 짐작하며 겸손하게 일본 방송으로 서주가 함락된 실황을 들었노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들 세 사람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웃기 시작했다. 가가대소(哈哈大笑)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만큼 명랑한 폭소를 해 제켰다. 그러고는 일본의 선전(테마) 방송의 정교함에 대해, 그런 바보스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어젯밤에도 이 귀로 중국 대승리의 상황을 호텔에서 들었다, 당신은 딱하다며 모두 몸을 떨 정도로 계속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온 몸의 피가 한꺼번에 역류할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무례한 놈”이라고 크게 꾸짖고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 나갔으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언제까지나 귀에 남아서 그 밤은 잠들지 못했다.

나 자신이 여기 올 때까지 같은 기차에는 장제스의 군사(軍使)라고 말하는 남자일행이 타고 있었으며 아무리 한 밤중이라고 해도 이 급행이 서는 역에는 반드시 많은 중국인이 산터미 같은 현금을 쟁반에 얹어서 헌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 쪽 침대에는 알몸에도 단총을 허리에 찬 기분 나쁜 놈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 도착하니 도시의 유일한 호텔에는 지붕에서 땅에 닿을 만큼의 현수막에 대대(大代)라고 불유쾌한 글자가 걸려 있다. 환영군중에 둘러싸인 그들은 당당하게 호텔에 들어가서 그곳을 독점했다. 덕분에 나는 잘 곳도 없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일본 동포는 지금 피를 흘리면서 참다운 그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리 허구일지라도 현실에 나타난 눈앞의 달콤한 말에는 대중은 무엇 하나 의심치 않고 네, 네 하며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이 사실은 어쨌든 - 나는 그 때 이후로 정치공작, 문화공작에 대한 영화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 뿌리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문화를 높인다, 교도한다, 계발을 한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결심한 것은 그때부터다. 이와 같이 거짓과 속임수마저 현실이 힘을 갖는데 하물며 '일본의 진실'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모양을 드러내면 절대로 그 이상의 힘을 가질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그때부터 갖게 된 것이다. 문화는 생활이다. 빨아들이는 숨결, 뱉어내는 숨 속에서 태어난다. 그 향상은 멀리에서 오는 통신교육처럼, 혼이 없는 방법으로 충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곳의 물을 마시고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그 땅에서 잠자며, 그곳의 진실을 자신의 피부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남쪽 방향의 영화제작에 여러 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현지 시찰, 연구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참으로 업계의 앞길에서 뿐만 아니라 대국적으로 말해서 경하 해 마지않을 일이다.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잃지 않을 것과 자재 관계나 기타 이유를 빌미로 단순히 판로를 넓히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진 필름을 유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 것을 바란다.

대동아의 영원한 문화향상을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물자가 빈곤하고 기재가 부족한 때 일지라도, 이제부터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를 나누어 가지며, 유능한 지도자를 계속해서 현지에 심고, 뿌리를 살리며, 아무리 빈약할지라도 그곳에서 제작하는 고통에 부딪히는 기백과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민도를 높이는 것은 옆에서 문화재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 기세가 높은 것을 보육하고 교도해 나가지 않으면 참다운 것이 안 된다. 모양은 갖추었다 해도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골수로부터 피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선도하고, 생활 바닥에 있는 것을 잡아내어 함께 연구하고 연마해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조선에 와서 아직 1년, 아무것도 알 리가 없으나, 다행히 조선의 좋은 친구들이나 문인, 학자들의 열심어린 가르침과 실지의 공부 덕택에 조금은 조선을 알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전에도 친구나 선배에게서 조선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듣고 있었으며, 다소 일하는데 협력한 일도 있었으나 이쪽에 와서 실재를 보게 되니, 이렇게 자신들의 인식이 박약했던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동시에 친구나 선배들의 남모르는 고심과 조선영화인의 헌신적인 고투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조선의 영화인은 완전히 자신들의 손만으로 20년 이상 계속 고심하면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솟아



오르는 것을 영화에 잘 맞춰 넣는데 노력해 왔다. 그리고 조선 전체의 민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고 많은 신고(辛苦) 30년이란 오랜 기간 내선협동의 일익을 자신들 손으로 이루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영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고, 점점 스스로의 몸 안에 육성된 일본정신을 실제 모양으로 드러낼 기회가 온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쁜 일이 아닌가. 이것은 참으로 한때의 땀질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가져와 급하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니며, 조선의 생활 속에서 솟아올라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 덧칠한 것이 아니다.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이며 존귀한 것이다.

미국영화가 예전에 일본을 휩쓴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습을 감춘다 해도 조선에는 조선 자체의 생활, 즉 황국신민으로서의 생활에서부터 싹튼 영화가 있었다. 조선의 일본영화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경하할 것이며, 조선영화인의 공적으로서 칭찬해야 할 것인가. 때는 왔다, 조선영화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예술지상주의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일본의 의지를 짚어지고, 조선 대중에게 호소하는 사명을 띤다. 따라서 조선영화인은 심각한 자성 아래 자기를 청산하고, 연성하며, 씩씩한 출발을 시작했으며, 곧바로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것도 스스로의 몸 안에서 만들어 올린 실제 고투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도,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청년이 황군의 일원으로 천황의 방패가 되는 영광을 짚어지기에는 과거 30여 년 남짓한 연마의 역사가 있다. 이 귀한 사실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영화의 발생과 성장에는 확고한 것이 있는 것이다.

동아를 유린한 미, 영문화가 하룻밤 사이에 그 정체를 폭로하고 이후 쇠퇴일로로 더듬기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민중의 바깥 피부를 물들인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름이 그 물감과 같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저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야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주의가 정말 중요하다. 안팎으로 다단(多端)한 이때, 일본영화가 나아가야 할 곳이 점점 더 중대한 뜻을 갖는 오늘날, 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반성과 용기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전 : 中田晴康, 「映畫政策と映畫製作」, 『映畫旬報』, 1943년 7월 11일〉

### 3) 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조선영화에의 희망

조선군 보도부장·육군소장 구라시게 슈조

1

영화순보에서 “조선영화에 대한 희망”을 말하라는 주문이다. 편집자 생각으로는 “조선영화의 본연의 모습”이라거나 “조선영화가 가야할 길”이라거나 하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타진하고자 하는 의향인 것 같다.

그런데 조선영화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일까. 〈당신과 나(조선군 보도부 제작)〉, 〈멋들

어진 금광(도호(東寶) 작품), 〈망루의 결사대(앞과 같음)〉나 현재 제작 진행 중인 〈젊은 모습(조선영화 제작주식회사)〉 같은 것은 과연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조선영화도 일본영화와 동등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삼스럽게 ‘조선영화’라고 멋진 이름을 붙이는 이상, 조선영화로서의 특별한 색깔이며 성격 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양해 받을 것은 “조선옷을 입고 아리랑을 노래한다.”는 것이 조선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한 색깔이나, 성격이라는 것도 억지로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아니, 오히려 색깔이나 성격 같은 것이 모양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배척되어야 하며, 그러한 것은 어떤 ‘냄새’로서, 혹은 ‘맛’으로서 오로지 내용적으로 넘쳐나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영화는 대중의 것으로 제작자나 일부 인텔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또한 대중을 지도와 계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영화가 조선대중을 첫번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결조건으로서 조선대중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그 영화가 어떻게 훌륭한 의도를 가질 것이며, 아무리 멋지게 완성한다 해도,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에게 황국신민이 된 이상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타쿠양(단무지)’에 친숙해야 된다고 하는 유치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인이 ‘타쿠양’을 좋아하고, ‘타쿠양’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요즘은 우선 ‘김치’도 괜찮다. ‘김치’에 맞들인 혀로서도 굳이 국어를 상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에 철저히 못할 이치는 없을 것이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김치’ 냄새와 맛을 가진 것이 곧 ‘조선영화’이다.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코를 찌르는 것일지라도, 조선 대중에게는 ‘치즈’나 ‘버터’보다도 혹은 ‘타쿠양’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 앞에 든 4개 작품 중에서 〈멋들어진 금광〉은 조선영화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그 영화가 조선에서 로케이션 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이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도 따져보면 조선 산 ‘타쿠양’에 지나지 않고 ‘김치’와는 아마도 거리가 먼 물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3편은,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김치’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영화에도 흔히 있는 것과 동시에 조선영화에도 있을 수 있는 작품이며, 조선영화가 가야 할 길을 여러 각도로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당신과 나〉는 일본의 기재를 이용하였으며 배우도 일본에 많이 의존했다. 〈망루의 결사대〉는 도호의 출장 촬영이었다. 〈젊은 모습〉은 자본이야 조선 것이지만 이것 또한 일본의 의존이 농후한 것이다—그런 이유에서 조선에는 독자적인 영화회사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일본 영화회사의 지점이 라든가 출장소가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설을 논하는 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는 자의 설로, 인식부족도 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나 대만에 총독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쪽이나 이런 특수사정에 의한 것으로, 독자적인 영화회사의 존재가 필요한 것도 이 특수사정에 불과하다.

“사람을 보고 법을 말하라”인 것이다. ‘김치’를 주어라 하는 곳에 총독정치의 어버이 마음이 있는 것이며, 어버이마음이 있음으로써 정치의 원활한 처리와 운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일본 영화회사에서도 조선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참다운 조선영화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조선제 ‘타쿠양’이라는 ‘김치’와는 닮았으나 진짜가 아닌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영화는 그 전제로 조선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되고, 조선사정에 정통한 작가(조선인 작가는 말할 것도 없이)의 각본, 조선인의 심리에 통달한 연출가의 연출에 의하여 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작자의 의향으로는 재산 상 일본, 만주와 중국, 남방공영권도 대상으로 하고 싶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第二義)의 일이며, 근본적으로는 총독정치의 익찬(翼贊)문화재인 동시에 조선 민중생활의 문화적인 배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에 독자적인 영화회사의 존재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 당국이 합부로 재산을 추구하거나 일본 영화에 도전하는 것 같은 무모한 태도는 삼가야 할 것이다.

### 3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경영방침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당 필름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의 연간 할당량은 회사 창립 당시의 예정보다 크게 삭감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적은 할당량을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영화와 연극의 분리” 즉 영화와 연극의 분야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영화가 한정된 적은 필름으로 연극 영역에 침입하는 것은 바보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연극에 연극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동시에 영화에는 영화만이 군림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상으로 극적인 성질은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존중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겠지만, 영화의 “극적인 것”이 당연히 연극의 그것과는 스스로 다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연극성에 있어서는 외면적으로 유사한 것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무대(영화의 경우에는 스크린)를 가지며, 극장과 많은 관객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는 외부적인 제약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필연적인 제약에 대한 방법적 분화 면에서는 정당한 연극과 영화는 눈물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영화문화의 연구」, 이이지마 타다시(飯島正)

이것은 참으로 귀를 기우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논설로서, 조영(朝映)이 나아갈 길에 커다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한다. 영화와 연극의 분리에 의하여, 당면한 필름난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은 할당이라는 제약 하에서는 도저히 기획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문화영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절대로 공포는 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에는 문화영화의 제재(題材)는 많이 굴러다니므로, 엄선에 엄선을 거듭하여 주옥편(珠玉篇)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뉴스는 『조선시보』라고 제목을 바꾸어 1개월간의 조선 내 주요 시사문제를 하나로 묶고 있으나, 평판은 좋지 않다. 그것은 뉴스로서는 이미 시기가 늦으며, 기록영화로서는 너무나 조잡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개의 제작으로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록영화로, 두 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 역사적인 가치와 정치적인 선전력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마지막으로 영화기획심의회회의 문제이다. 영화회사가 일본과 같이 몇 개사가 병립할 경우, 기획을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기획심의회회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미 영화회사가 1개사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무도 자동적으로 일본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심의회회의 의사(議事)를 거칠 때마다 모처럼의 각본이 맞이고 무어고 없어질 것 같으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위원이 각본 중 하나하나의 글귀에 구애받거나 혹시 미스프린트를 발견하여 의기양양해져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

기획심의회회는 이름 그대로 어디까지나 기획 심의에 중점을 두고 각본, 연출, 연기 같은 것은 전적으로 프로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관제 냄새가 짙은 영화가 성적이 탐탁지 않은 것은 정평이 나 있다. 지난 4월 첫째 주 전국에서 일제히 개봉된 〈헤이로쿠(兵六) 꿈 이야기〉가 6십 6만 엔을 올린데 대하여 〈적기공습〉은 겨우 4십 2만 엔에 그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선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조선에서는 기획심의회회의 손을 거칠 때마다 기획에 광채가 나고, 각본에 매력이 더해 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전 : 倉茂周藏, 「朝鮮映畫への希望」, 『映畫旬報』, 1943년 7월 11일〉

#### 4) 가라시마 다케시, 조선과 영화

경성제대 교수, 조선문인보국회 이사장, 연극문화협회 명예회장 가라시마 다케시

조선에서 영화가 갖는 임무는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매우 다각적이다. 오늘날 말레이나 수마트라의 보도를 손쉽게 머리에 떠올리는 우리들이 조선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안채의 현관에 서 있는 정도일 것이다. 결단코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국땅에 온 것일까”와 같은 감회를 가질 것이 아니고, 또 여기는 결코 이국이 아닌 것이라고 하나, 도시 중심에 미쓰코시(三越)의 지점이 당당하게 솟아 있고, 학교 거리에는 제대(帝大)가 많은 사각모를 토해 내고 있는 경성에서마저, 풍물의 차이는 일본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망향의 심정을 품게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풍색(風色)을 화면에 수록한 영화는, 그리고 가끔 우연히도 고향 사투리마저 귀에 들려 준 영화는 일본사람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사모와 위안을 주는 것이다. 카부키(歌舞伎)에서, 요세(寄席 : 연예장)에서, 마을 축제의 북소리에서 멀리 떨

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일본에서 오는 영화는 확실히 커다란 위문이다. 그리고 이 위문품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실제로 이미 이 땅에서 대학을 나와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는 나이의 이른바 2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고 또 커다란 하나의 임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열 살이 되고 스무 살이 되어서도 아직도 부모의 고향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일본의 전원풍경을 보여주는 영화는 오락 이외에도 깊은 영혼의 교육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일본영화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에게 주는 오락이나 교육 같은 것은 2천 4백만이라고 하는 일본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 주는 교화에 비한다면 숫적으로 거의 아무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풍속과 습관을 달리 해 온 조선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같은 피와 감정으로까지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역사를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역사로 자각시키고, 두들기면 울리듯 같은 일본인으로서 기성(氣性)을 단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영화의 한 토막 한 토막이 라돗선처럼 이 사람들의 혼에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이미 조선 중소년층의 일부가 “추신구라(忠臣藏)”를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 “하와이·말레 오키나와(沖) 해전”은 조선에서 최고의 영화 흥행 성적을 올렸는데, 7할 이상이 조선동포가 본 것이다. “싱가포르 총공격”에서는 영국군을 때려부수는 장면에 대해서, 내가 앉은 주변의 조선관중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일어났다. 이때에 일본 영화계는 조선동포에게 언제라고 할 것 없이 일본적인 성격을, 일본인의 생활감정을, 고이소(小磯)총독의 말을 빌리면, 일본인의 도의정신을 침투시켜서 위대한 “역사와 민족을 창조하는” 사업의 의의를 깊이깊이 자각하고 더 한층의 긴장과 성의를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속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낭비 많고, 또 예술로서 감화력이 없는” 일본의 일부 영화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싶다.

우리는 대동아전쟁의 목적이 다만 거저 이기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 천황에 귀일(歸一)하는 세계최고의 문화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한 지방인 우리 조선도 문화수준을 하루빨리 세계 최고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조선의 오늘날 문화수준은 일부분 높은 층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매우 낮다. 여기에 일본영화만으로 이 땅의 문화공작을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독자적인 제작회사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조선의 영화인은 이제 이곳의 문화에 일본의 정신을 철근처럼 확고하게 집어넣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급속하게 “높이기 위하여” 제작의 모든 곤란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중앙정부도 또 일본영화 관계자도 충분한 이해를 가져주기 바란다.

나아가서 조선에서 제작된 영화나 혹은 조선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는 조선의 대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널리 일본, 만주, 중국에 사는 조선동포를 관중 대상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 말한다면, 대동아의 각지에 조선이 지금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인가를 영화로써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제작자가 근시안적으로, 반도 내부만을 목표로 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특별히 희망하고 싶다. 총독부 정보과는 최근에 “진진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을 부친 조선의 새로운 모습과 마음을 그린 영화를 만들어 남방에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구체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참으로 시의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조선영화계는 시야가 좁고 향토에 지나치게 구애받고 있었다. 허나, 이제는 제작 회사의 통합도 이루어졌고, 내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커다란 비약의 계절이다. 차제에 총독부 당국의 원조도 적절하며, 참으로 “영화의 새로운 정치적 의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련된 조선 관료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해 본다. 만약 이후 조선총독부와 조선민중이 일체가 되어 진정한 기획과 제작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조선은 영화에 의하여 먼저 자기를 늠름하게 단련해 나감과 동시에 훌륭한 대동아의 지도문화인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영화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연성의 도장인 것이다.

〈출전 : 辛島驍, 「朝鮮と映畫」, 『映畫旬報』, 1943년 7월 11일〉

## 5) 야마베 민타로(山部珉太郎), 벽지에서 싸우는 연극 - 조선이동연극 제1대를 살펴보다

승리는 전쟁 중인 나라에 있어서 지상명령이다. 예술도 이기기 위해 동원돼야 한다. 예술을 전시하의 불급(不急)사업으로 보고 유희(遊休)시설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능한 최대한까지 예술의 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조선에서는, 예술에 있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육성으로 직접대중에게 호소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다른 부분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부문인 연극의 면에서 엿보인다. 면(面)에서도 연극이 갖는 본질적인 힘에 대해서 일종의 마비증상을 보이고 있는 도회민을 상대하지 않고, 오로지 공장·광산, 벽원(僻遠)의 농산어촌(農山漁村) 등 모든 문화적인 것에 대해 백지 같은 청순함을 가진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배우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국민연극의 싹을 키우고 있는 이동연극에, 나는 ‘싸우는 예술의 최전선’을 그린다. 거기에서 나는 현지보고의 조준(照準)을 잡았다.

조선연극문화협회 소속 이동연극대 제1대. 기억력이 좋은 독자는, 올해 3월 신태양사(구 모던 일본사)에서 ‘대장 야나가와 초안(柳川長安) 씨 이하 남녀 22명의 대원이 조선 내 팔도의 벽지를 순회공연, 210개소에서 연인원 42만 9천명에 이르는 지방민중의 위안계몽(慰安啓蒙)에 노력했다’라는 공로로 제4회 조선예술상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조선에서 연극문화의 정신대(挺身隊)로서 도회 일류극장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배낭을 맨 채 흔들리는 트럭을 타고 광산에 들어가고, 공장의 문을 나서서 산간벽지의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오로지 연극이 가진 전력의 발휘에 그 젊은 힘을 쏟아 붓는 이 이동극단은 본토의 그것과 비교해서 더욱 가치 있는 사명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신태양사 측에서 표창하고픈 존재이다.

그 이동연극 제1대가 지금 평북도내 순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고, 마침 만포선 연선(沿線)에서 오지로, 멀리 북쪽의 후창(厚昌)을 지나서 국경 마을인 중강진(中江鎭)으로의 길을 서둘렀다고 하는데 때마침 이 벽지에서, 싸우는 연극을 문자 그대로 조선의 가장 벽지에서 파악하고자, 우리는 만포선 연선에

서 자성(慈城)을 경유해서 중강진(中江鎭)으로의 경로를 택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사직고개(辭職峯)의 다른 이름인 구현령 길을 넘어가는 만포선에는 야행열차가 없다. 평양에서 아침에 만포행 버스를 타고 저녁 6시 즈음 강계(江界)에 도착, 1박을 한다. 다음 날 자성행 버스에 올라타면 그날은 강계, 자성 간 155킬로미터를 이동하고, 해가 저물면, 이제 중강진으로 가는 버스 편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경로 선정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전날 만포까지 가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성행 버스를 탔다면, 자성에서 중강진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또 매집(梅輯)선, 임강(臨江)선의 만철(滿鐵)선에서 그날 안에 중강의 건너편 연안 임강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다.

동행한 연극문화협회원 아사쿠라(朝倉) 씨가 전화로, 중강에서 만나게 되면, 비가 내리지만 오늘밤 중강공연을 강행한다는 것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토성동(土城洞)공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성을 출발하던 때부터 아직 가보지 못한 북경(北境)의 마을 중강진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었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버렸다.

자성군청의 소재지로 소도읍(小都邑)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전기도 없이 램프를 쓰는 자성에서 또 하룻밤을 숙박하게 되었다. 내일은 간신히 우리가 찾는 적(敵)이 아닌, 이동극단과 상봉할 것이다. 평양에서 출발한 것에서부터 계산해 보아도 2박3일의 여정이다. 이동연극대가 어떻게 벽지까지 가서 몸을 불사르며, 문화의 침병이 되는지 눈여겨보지 않겠는가.

## 벽지의 상황

다음날 아침 자성의 숙소에, 극단의 선발대로서 다녀 온 사카이(坂井)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중강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얻어서, 전날 공연을 중지했던 중덕(中德)의 사람들까지 더해지자, 마침내 관중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재공연을 했다고 한다. 이동연극의 결전(決戰)적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만주국과 맞닿은 변경의 마을에서는 그 이전의 역할, 즉 단순한 오락위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갈망되었던 것이다. 탄광 등의 경우는, 이동연극이 어느 정도의 증산을 가져올 것인지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순연에서 용등(龍登)의 탄광 등은, 이동연극이 내연하는 1주일 전부터 현상을 내걸어서 하루를 쉬면 입장료 얼마, 이틀을 쉬면 얼마, 개근하면 무료라는 결정을 내린 곳으로,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증산 몇 백 톤이라는 숫자가 보란 듯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일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은, 건전오락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 덕분이다. 그러나 이 근방의 주민들은 사정이 달라서, 신문도 3,4일분이 쌓여서 한꺼번에 오고, 전기도 없어서 라디오도 못 듣는다. 몇 년에 한 번인가 오는 시골순회 서커스 이상의 볼거리는 본 적이 없는 변경지역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인내이며 고투인 그 곳에서, 그저 일상의 단조로움을 깰 연극대의 내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대미문의 일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단순 소박한 희열과 위안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연극의 국책적 역할은 일단 완수했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국의식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또 옥수수가 몇 섬 증산되었다는 효과를 계량하기 전에, 무엇이 어찌되었든 건전오락으로 그들의 생활을 단장하고, 그 심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 비 내리는 토성동

자성에서 중강진으로 1일 1회 있는 버스 편은 오후 2시 반, 승객과 우편 행낭을 실은 압록강의 나룻배를 쉬지 않고 노를 저어 출발했다. 법동(法洞)이라는 곳에서 작은 지류가 압록강으로 합류하는데 거기서부터 길은 압록강을 따라서 이어져 있다. 강가를 점철(點綴)해서, 여기저기에 한 무리의 취락이 망루가 있는 주재소를 에워싸듯이, 아무리 봐도 국경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모여서 긴 한줄기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만주방면도 조선방면도 모두 산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가늘고 긴 틈으로, 압록강과 한 줄기 길만이 생명의 줄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부락, 그것이 장토면(長土面)의 중심인, 토성동이다. 자성에서 10리, 중강까지는 9리.

비가 내린 탓에 산 근처는 이미 해질 무렵인 4시 45분경, 우리들은 토성동에 도착했다.

연극대 일행은 벌써 버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다. 야나가와 대장은 압록강 풍경이 보이는 여관에 연극대의 간부급 사람들과 여배우 일등과 함께 했다. 스타가 없는 것이 이동극단의 특색이라고는 하지만, 숙소가 나뉘어지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런 식이 된다. 일행은 이번 순회연극의 행정(行程)이 너무나도 난코스인 것, 그러나 후창에서 중강까지 오는데 낙엽송과 전나무의 대밀림이 굉장했던 것, 7리 사이에 테이블 장고대(狀高臺)를 달린 중강부근의 대밀림은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길은 가까운 마을에서 모여든 관중들로 혼잡하고, 경방단원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보인다. 이동연극과 경방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저 어디라도 청원은 경찰 아니면 경방단(警防團)에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숙소나 트럭, 가설극장의 재료조달 및 작업의 일손 등 하나에서 열까지 도움을 받는다. 물론, 도내순연의 주선은 도 경찰부가 하기 때문에 이동연극대의 행동 일체가 경찰, 경방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숙소에서는 젊은 대원들이 대본을 읽기도 하고, 음악부원은 악보를 쓰거나 기타를 친다. 모두 성실한 청년으로 체격도 다부지고 강인해서, 시골순회에서 자주 보이는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허약한 청년배우의 모습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모두 뭔가 확고한 목표를 응시하는 듯한 눈동자를 하고 있다. 일만 했다 하면 그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한눈팔지 않는 순진형이다. 한결같은 청년들이다, 라고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감이 갔다.

우리의 숙소로 정한 집에 가자, 대여섯 명의 국민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이유를 물으니, “서커스를 보러 왔어요.”라고 대답한다. 불만한 것이라고는 시골순회 전문의 서커스밖에 없는 이 지방에서는 이동연극도 서커스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3리 떨어진 부락까지 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 와서, 오늘 밤은 이 여관에서 머물 거라고 한다. 그들뿐만 아니다. 오늘 이 토성동에는 이런 아이들과 남녀노소 누구나가 북적이며 물려들고 있다.

이런 농촌에서는 일몰 후가 아니면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연극은 8시 반 경에 시작된다. 적당한 때에 극장이 있는 국민학교에 간다. 땡 둘러친 장막 밖에선 때마침 후드득 내리는 비에 촉촉이 젖어가며 군집해 있는 관객을 헤치고 천막식 무대로 들어가자, 스태프들과 대장, 회계인 이토(伊東) 씨 등이 쿵쾅거리며 대도구, 게시문 등의 준비에 바쁘다. 무대 뒤에서는, 학교의 학생용 책상을 이어붙인 위에 촛불을 켜고, 남녀배우가 한데 섞여서 일렬로 죽 앉아서 각자 얼굴 분장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차게 내린다. 노천에 자리 잡은 관람석은 이래서는 견딜 수 없었다. 8시 반, 결국 중지하고 연기하기로 결정, 단원들은 모처럼 한 분장을 지우고 숙소로 철수하고 말았다.

3리, 5리의 먼 곳에서 걸어 온 관중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때 지어 주재소로 몰려가서 시비를 따지며 젖어도 좋다며 탄원했다. 주최측인 경방단에서도 배급미의 관계도 있고, 토성동의 중대 문제이어서 연극 강행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뇌성을 울리며 즐기치게 내리는 비가 처음 결정 그대로 연기를 결정지어, 다소 맥이 빠지는 몸으로 우리도 숙소로 돌아왔다.

## 강가의 하루

아침 6시. 압록강의 물안개가 주변 산들의 끝에 걸리고, 닭이 여기저기서 울며, 국경의 부락은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한다. 야나가와 대장 혼자서 벌써 일어나서 강가 자갈밭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로 막 세수를 했다. 배우들도 차례로 일어나서 세수를 한다. 재빨리 대본을 손에 들고 대사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대충 인원이 모이면 모두 '이동극단'이라고 자수를 새겨 넣은 의상을 단정히 갖춰 입고 압록강가에 모여 아침 조회를 시작한다.

반장이 "집합!"이라고 구령하면 6명의 여배우를 전열(前列)로 하여 횡대로 정렬하고, 신사요배와 묵념, 국기에 대해 경례, 그리고 음악담당인 창원문평(槍原文平)<sup>71)</sup>의 지휘로 단가를 합창한다.

동아의 하늘에 새벽이 오면  
아침 해 아래에 서서  
보아라 우리들의 모습을  
문화의 깃발 나부끼며  
농산어촌을 돌아다니는  
우리들은 이동연극대 ...

잘 훈련된 혼성2부 합창이다. 노래가 끝나면 야나가와 대장에게서 오늘의 일정에 대한 전달과 주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조를 하면 조회가 끝난다. 점점 열여져가는 물안개와 함께 밝아오는 강가에서 열린 이 조회는 몹시도 상쾌하고 건전한 것이다.

대원은 모두 젊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동연극대 결성과 함께 배우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다. 그런 그들이 일 년 내내 국제적인 사명과 신문화창조의 열의만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 키사쿠(伊藤喜朔) 씨의 <이동연극10강>에 따를 것도 없이 이동연극배우에게는 단체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동연극대원의 매일의 행동은 모두 이 단체적 근로와 연성(鍊成)인 것이다.

---

71) 황문평(黃文平)의 창씨명.

이 극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의 도구담당자가 대원으로 팔려 있지만, 무대가설, 철거, 무대효과, 조명, 이외에 연극에 필요한 어떤 일이든지 배우 자신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의 사도로서 지방민중의 계발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각은 자연스럽게, 제멋대로인 행동을 억제한다. 그런 그들의 일상이, 배우로서의 자질과 유형을 모르는 사이에 기성극단의 이른바 배우라는 틀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

반장의 활기찬 구령에 맞춘 전원의 기민한 동작과 단가의 합창 -오늘 아침 내가 압록강 가에서 목격한 그들의 모습-은 단체적인 훈련을 통해 봉공정신의 기백으로 양성된 자의 모습이었고, 낯은 방식의 배우양성을 해 온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제 도착과 함께 무대가설 및 일체의 작업은 끝내놓았기 때문에, 조회가 끝난 뒤에는 따로 할 일이 없었다. 대원들은 장기를 두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압록강에서 헤엄치거나 그물로 고기를 잡거나 하며 제 나름대로 하루를 보냈다.

극단 스스로 후생비를 가지고 있어서 하망(霞網 새잡는 그물), 어망, 야구 도구, 서적, 잡지, 구급약 등등, 대원들의 순연 중에 여가를 건전오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제법 갖추어져 있는 듯하다.

## ‘국민개창’ 지도

오후 8시, 국경의 산에 해는 지고 자줏빛 저녁놀이 토성동의 부락을 물들일 무렵, 장토(長土)국민학교의 교정 한 구석에 둘러친 장막의, 1개소에만 3척정도 어긋나게 설치해 둔 입장 문으로 지금까지 운동장에 모여 있던 관중, 아이들, 청소년, 여자들, 계 중에는 어제부터 여기에서 머물며 오늘 하루를 기다린 사람들도 상당수 섞여서 잇달아 들어온다.

1층 무대 정면의 관람석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아서, 손에 손에 앉기에 필요한 돛자리, 의자, 굴상자, 널빤지 등을 가지고 들어온다. 임관(臨官)은 경찰의 초롱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다. 음악단원 히와라(檜原) 군이 국민개창의 가창 지도 효과를 생각해서 국민학생을 전부 앞에 모아 놓았다. 선생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서 출석을 확인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라고 말한다.

떠들썩한 분위기가 노천의 달빛을 받은 장내를 가득 채우자, 어느 샌가 만원이 된다. 뻑뻑이 들어차면 2천명을 넘게 수용하는 장막인데, 벌써 그 정도의 관객이 이런 한적한 국경지방 어디에서라고 할 것도 없이 나타나서 밀려온 것이다.

팔랑 팔랑 팔랑, 채금(チエ—グム)이 울리면 드디어 개막이다. 원래는 동라(銅羅, 징)를 쳤지만, 헌납했기 때문에 조선색이 농후한 채금이 대신하게 되었다.

막이 열리면 분장을 한 전원이 나란히 서서 야나가와 대장의 사회로 장내 모두의 국민의례, 이어서 회원 군의 지휘로 아코디언의 반주에 맞춘 대원의 단가 합창. 그것이 끝나면 주최자 측 대표로 이곳의 경방단인 가네모토(金本) 씨가 인사를 한다. 미숙한 국어로 말이 채 안 되는 논지조차 횡설수설하면서, 결전 하 국민의 총력을 결집하는데 건전오락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열변은, 어찌되었든 호감을 얻어서 그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국민개창지도. 야나가와 씨가 조선어로 국민개창운동에 대해 해설을 덧붙인 인사를 한 뒤, 여배우 전원의 창가대와 악극대에서 왔다는 야스다 미노루(安田實) 군의 아코디언을 사용해서 창원문평 군이 ‘아시아의 힘’ 제 1절의 가창지도를 시작했다. 진솔한 국어로, 때때로 해학을 섞어서 하는 지도 동작은, 그 젊음과는 달리 노련해서 감쪽같이 관중을 창가 부르는 학생으로 만들고 만다.

“앗, 거기 아저씨, 안 부르네요.”

“어쩐지 여자석 쪽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남자석에 지지 않도록 크게 불러 주세요.”라는 식으로 어쩔든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아시아의 힘’ 등의 가곡을 그 과반수에게 부르게 하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 선율을 다음에 어디선가 들으면 ‘아, 그건가’라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감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총력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개창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것은, 분명 이 이동극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한 조창씨는 말했지만, 어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벽지에서도 노래하라!

지도가 끝난 뒤에는 노래의 버라이어티로,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바뀌가며 노래를 들려준다. 〈아침이다, 힘차게(朝だ 元氣で)〉, 〈애국의 꽃(愛國の花)〉, 〈구단의 어머니(九段の母)〉, 〈군국의 어머니(軍國の母)〉, 〈태평양 행진곡(太平洋 行進曲)〉 등을 여러 번 부르고, 조선민요도 가끔 넣어서 결국 상대를 재치 있게, 때로는 춤도 춰가며 구경하게 끌어들인다. 회원 군이 담당할 이 부분은, 시간 유통이 매우 편리한 것이어서, 개연(開演)시간이 늦어지면 조금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정으로 빨리 막을 올려야 할 때에는 얼마든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 조절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열연 〈대추나무〉

장막 밖에 나타난 야나가와 씨의 이동극단에 대한 계몽적 설명, 오늘의 상연작 〈대추나무〉에 대한 해설, 조선어여서 의미는 모르겠으나, 매우 열렬한 기백이 담긴 그 열변이 끝나면, 짱가짱가 하고 채금은 울려 퍼지고, 마침내 유치진(柳致眞) 작 〈대추나무〉의 무대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대추나무〉는 작년 가을 연극경연대회에서 희곡상을 획득했던 조선어 작품으로 만주개척을 목표로 반도농촌의 분촌(分村)운동을 다룬 4막의 작품이다. 이동극단은 이 연극 한 편으로 이 순연을 강행하고 있다. 왜 이런 여러 막의 대작으로 공연을 하나면, 배우들의 각본 연구가 완벽하고, 연극 안에 가만히 녹아들어서 자연스러운 연기수준도 한층 높아졌고, 관객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쉬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1막짜리를 세 편, 네 편으로 나누어 레파토리를 떠들썩하게 하면, 배우들이 얼굴을 바꾸는 것만도 큰일이고, 또 연극이 짧아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연극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 기량이 높지 않으면 연극도 할 수 없다. 관객들도 연극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심한 것은 세 편의 1막짜리를 여러 막의 연극으로 오해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 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식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으로 행할지 여떨지는 문제이다.

대원들은 “이동극단에 국어극은 아직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3편의 상연 종목 안에, 1편정도의 국

어극을 넣는 방법은, 국어 보급이란 점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대추나무〉 1편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때는 현대, 여름. 장소는 도화동이라는 남조선의 어느 농촌. 소작농 경주세영(慶州世榮)과 정촌태근(鄭村泰根)이 담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 경계에 자라난 한 그루의 대추나무가 두 사람간 싸움의 씨앗이었다. 결국 순경의 판결로 경주가 이겼지만, 오히려 틀어진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괴로운 것은 어린애 같이 연애중인 경주의 아들 동욱(東旭)과 정촌의 딸 유희(由喜), 두 젊은이다.

마을에서는 만주로의 분촌문제가 있어서 동욱은 가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 세영은 완강하게 허락하지 않는다. 정촌 일가는 대추나무 한 그루로 마음이 상해서 차라리 만주로 갈 결심을 하지만, 싸움의 상대였던 세영의 아들이 몰래 만주행을 신청한 것을 알고는 마음을 바꿔 포기해버리고, 딸은 마을의 부자 지주인 마록(馬鹿)의 아들 박천기손(朴川基孫)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정한다. 가련한 동욱과 유희가 금색야차(金色夜叉)<sup>72)</sup>처럼 이별을 하게 되자, 동욱의 결심은 더욱 굳어진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부재중임을 틈타 마침내 만주로 출발한다. 홀아비인 경주는, 아들의 도망에 화가 나고 슬펐지만, 마침 그때 만주개척으로 재출발한 고아 길수(吉守)에게 만주산 쌀과 콩을 받게 되자, 만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도 개척에 뜻을 두게 된다. 그리고는 —

경주 : (대추나무를 쓸쓸히 올려다보며)이 나무 때문에 어리석은 싸움을 했구나.(갑자기 대추나무를 정촌의 마당에 들여 놓는다)

정촌 : 누구지

경주 : (손을 멈춘다)

정촌 : (마당에 서서 대추나무를 보고 신기해하며) 이게 무슨 일이람……

경주 : (웃으며 나타난다)

정촌 : (그 웃음 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자 그의 완고한 표정도 자연히 풀어지며) 고맙네, 세영.

경주 : 태근, 내가 나뉘네, 젊은 시절엔 함께 손을 잡고 소를 몰던 사이이지 않았던가.

정촌 : ……하나, 부탁이 있네만, 우리 딸을 동욱의 아내로 맞아주지 않겠는가.

경주 : 고맙네, 실은 나도 그것을 부탁하려 했다네, 우리는 싸움만 해왔지만, 동욱과 유희는 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라난 두 그루의 은행나무이잖나…….

유희의 어머니 : (나와 있던 딸에게) 유희야 (두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경주 : 동욱도 만주에서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네.

—막이 내림—

무대는 긴 순연으로 빛이 바래고 손상되어 전혀 좋게 보이지 않고, 조명은 각광(脚光) 2개, 정면 위쪽으로 2개의 아세틸렌 램프, 단지 그것뿐이다. 관중을 떠맡고 있는 것은 오직 연기뿐으로, 그 점에서 이 극단 사람들의 전신을 쏘아 붓는 연기는 연극을 모르는 관중들조차 한껏 끌어당기는 열정과 힘이 넘치고 있었다.

막간에 악실에 들어가서, 경주세영으로 분장한 금광영일(金光英一)군과 만나서 “열연이네요, 감동했

72) 일본의 소설가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장편소설. 『장한몽』이 이 소설의 변안 작품이다.

습니다.”라고 하자, “가설무대에서 할 때에는 전체의 가락을 한 옥타브 올려서 차분한 맛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 한다. “그러나 연기는 모두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대충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세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마니까요.”

아무튼 전 대원이 총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이동연극이다. 한사람이라도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일종의 동지적 결합이라고 말하는 단결력이 이 극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본다.

사실 이 연극은 국경지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만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는 등의 대사가 나오는 연극. 남조선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멋대로 만주라는 곳에 대해 상상해서 불안해하며 ‘간다, 안 간다’라고 혈안이 되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연극은 매일 강 저편으로 별다른 것도 없는 만주의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무대의 비극적인 장면을 웃어넘기기라도 하는 듯 떠들썩한 큰 웃음이 관중 사이에서 터져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천여의 관중은 연극에 빠져들어 있다. 무대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 순박함 가운데로라면, 어떤 호소라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연극을 선정하는데도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박함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그리 위험한 대상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야유를 퍼붓는 것은 고사하고 대개는 막이 내려도 박수를 치는 것조차 모른다.

연극은, 전원이 땀투성이로 시종일관 열연해서 막이 내린 것은 12시가 가까워서였다.

모두가 막이 빠져서 장막과 도구를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트럭에 실어 올릴 수 있도록 한 뒤, 얼굴을 씻고 집합한다. 반장인 금광영일군이 무대에서와는 싹 달라진 젊디젊은 모습으로 호명한다.

“차렷, 오른쪽으로 돌아, 바로, 번호, 대장님께 경례! 바로!” 활기차다. 거기에 대해 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위로한 후, 내일의 예정을 알리고 해산, 그대로 숙소로 간다. 옛날 형식의 지방순회극단 배우라면 꿈에도 보지 못했을 정경이다.

## 문화사적 족적

다음 날 7시 자성을 향해 출발. 주재소의 광사(樞舍 : 영화 <망루의 결사대>에 나온 그 망루이다) 앞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트럭에 전원이 올라타고 서로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배웅 받는다. 하룻밤에 맺어진 친애의 정은 그렇게 여운을 남기고, 극단은 토성동을 떠나갔다.

트럭으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한 대원들은 다시 트럭 위에서 즐거운 클럽이 되어, 해학과 노래가 터져 나오고, 초여름의 청량한 아침바람에 미래를 짚어준 배우들의 젊음은 향내가 풍겨났다.

자성에서는 전원이 힘을 합쳐서 순식간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막이 둘러쳐지는 것을 보았다. 대장도 비늘을 가지고 막이 터진 곳을 꿰뚫는다. 무대의 명배우도 여기서는 땀을 흘리며 막을 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2천여 명이 넘는 관객이 ‘아시아의 힘’을 노래하는 <대추나무>의 4막을 통해 호소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밤이 밝으면 여기에서 7리 정도 거리의 압록강 수력전기 댐 공사현장, 운봉(雲峰)에서의 주간 공

연과 곧 이어서 밤 공연이 이동극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리나 명성을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연극보국이라는 자각으로 매진하는 순정만이, 이 편하지 않은 노동을 지극히 명랑 쾌활하게 하는 힘인 것이다.

삼봉이라는 부락에서 운봉으로 가는 길이 갈라져 있어서, 우리들은 여기서 트럭을 내려 극단 사람들과 헤어졌다. 여행을 함께 했던 3일간 완전히 친해진 이 사람들과의 이별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슬픔으로 가슴을 저며서, 우리는 몹시 강하게 모자를 흔들었다. 이러한 벽지에서 벽지로의 그들의 일상이 후세 조선의 연극문화사에 빛나는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웅하는 그들이야말로 그 역사적인 일을 트럭의 바퀴자국으로 남기고 있다. 나는 명랑하게 손을 흔들며 길모퉁이로 사라진, 그러나 망막에 선명하게 남은 그들의 모습에 잠시 감개를 느꼈다.

〈출전 : 山部珉太郎, 「現地報告 : 僻地に 싸우는 演劇-朝鮮移動演劇 第一隊를 살펴보다」, 『文化朝鮮』, 1943년 8월, 52~59쪽〉

## 6) 농촌문화를 위하여 - 이동극단 · 이동영사대의 활동을 중심으로(좌담)

이동극단 제2대 이가영죽(李家英竹)  
조선영화배급사 오카다 중이치(岡田順一)  
극작가 유치진(柳致眞)  
조선영화배급사 스시다 마사오(須志田正夫)  
본지 주간 최재서(崔載瑞)  
(발언 순서)

최 : 근로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문화—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 등이 말하자면 소비자의 여가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근로대중을 위한 문화로 바꾸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자체도 건전해진다는 생각으로 문학 등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연극과 영화 일을 하시면서 더 직접적으로 지방 근로대중을 접해 오신 분들께 그동안 경험한 체험이나 의견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동연극이 시작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이가 : 일본 내지 쪽은 잘 모릅니다만, 조선의 이동극단은 현재 제1대와 제2대가 있는데, 제1대는 1941년 6월, 현재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전신인 조선연극협회의 직속으로 탄생해 9월부터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태양사의 조선예술상의 단체상을 받았는데, 대장은 유천장안(柳川長安, 야나가와)<sup>73)</sup> 씨입니다. 저희 쪽 제2대는 작년 6월 탄생해서 9월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이 일은 농촌이나 산촌, 어촌, 광산 등 이를테면 거의 문화가 낮은 곳, 오히려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곳에 건전

73) 유장안(柳長安)의 창씨명.

오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도의 황민화(皇民化)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용을 가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일본 내지의 이동극단과 조선의 이동극단 사이에는 그 목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내지의 이동극단은 단지 건전오락—내일의 근로를 위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일이지만 조선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른바 시국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작가와 연출, 연기자로서의 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원의 생활 자체가 그대로 문화 지도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상 제각각의 행동이 아니라 단체적인 규율 잡힌 생활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 대원들 행동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는 20~30가구의 작은 부락에 가니까요. 언어의 사용, 걸음걸이, 아무튼 우리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지방민의 생활방식으로 만드려고 하니……. 마음가짐에서 보자면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역할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연극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4리나 되는 먼 곳에서 저녁 도시락을 들고 보러 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연극을 보는 거죠. 아마 다른 볼거리로 착각했는지, 원숭이가 몇 마리 있냐는 등, 다시 말해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모르고 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볼거리에 매우 굶주려 있는 거죠. 군이나 면 소재지의 경우에는 포스터를 붙이는데, 그게 또 참으로 묘한데, 문화극단, 문화극단 실연대나, 심한 경우에는 소녀가극단 등, 역시나 우리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3시간 공연을 하고 끝나면 전원 총동원해서 짐을 정리하고 내일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 뒤 겨우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에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최 : 공연물은 어떤 거죠?

이가 : 제1대는 연극이고 우리 쪽 제2대는 가극이라고 할까요, 우리 쪽은 대개 노래—가수를 중심으로 조직해서……, 그동안 한 것은 ① 〈푸른 언덕〉, ② 〈마을의 영광〉, ③ 버라이어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①의 〈푸른 언덕〉은 이농 문제를 다룬 것으로, 작년 3월 어느 한 지방에 갔을 때 좌담회—지방에 가면 면(面) 사람이나 경방단(警防團), 감시소 사람들과 모여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나온 말인데, 즉 여기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수한 농촌 청년들이 계속 도시로 나간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힌트로 나온 작품입니다.—어느 농가의 가난한 청년이 경성에 가서 어느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전문학교를 나온다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 독지가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자 마을 건설에 뜻을 품고 마을로 돌아오죠. 그리고 야학을 세워 ‘국어<sup>74)</sup>를 가르치고 가뭄을 막기 위해 저수지를 건설하고 국민개창(國民皆唱)운동으로 국민가요를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그런 일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독지가의 딸이 옵니다. 그리고 경성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청년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여자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청년의 말을 따르게 되죠. 몇부리는 것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함께 농촌을 위해 일하는, 그리고 독지가도 자신의 전 재산을 농촌에 가져와 돕는다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②의 〈마을의 영광〉은 서항석(徐恒錫) 선생 작품으로 지원병을 테마로 한 것입니다. 그런 테마는 그동안 딱딱하고 너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웃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지원병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날부터 연극이 시

74) 일본어.

작됩니다. 돌아온 지원병 환영을 둘러싸고 마을 구장과 어느 할아버지가 서로 다툽니다. 유쾌한 다름으로 좋은 의미에서의 싸움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것을 구장이 이런저런 말로 비꼬면서 연극은 즐겁게 진행되는, 그러나 그 지원병은 자신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고향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일할 생각으로 남방으로 갈 작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부를 맞이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낙담하게 되고 그 중간에서 싸움 상대였던 구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거죠. 실은 할아버지는 그에게 딸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들떠 있었다는 말을 지원병에게 하고, 그는 자신이 남방에 가더라도 딸을 주시겠다고 고맙게 딸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딸 나름대로 그동안 마을에서 '국어'를 가르치든가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으로 연극은 끝납니다. 버라이어티는 거의 애국가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전쟁으로 대동아공영권의 모든 민족이 일장기 아래 일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가극단 공연물과는 그 형식에서 매우 다릅니다. 이른바 스타라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가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아래 움직임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와 춤도 있지만 합창이나 군무도 있죠. 그것을 30분이나 40분간 하고 그날 저녁 공연을 마칩니다. — 뭐 그런 것인데, 모두 시국성이 있으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서 기존의 작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지방의 각각의 실생활을 파악하는 연극을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 그래서 이동연극대는 앞으로 몇 개의 반으로 늘어납니까?

이가 : 그런 경리에 관한 측면은 잘 모르겠지만……. 다만 현재로서는 이 일은 경영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카다 : 그런 일에 경영난을 겪다니 문제로군요.

유 : 말씀에 따르면 제1대가 20여 명, 2대도 그 정도인데, 너무 인원이 많은 건 아닌가요. 그 경비 문제도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적은 인원으로 가볍게 떠나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요.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아무래도 본격적인 연극을 그대로 갖고 가서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텐트를 쳐서 공연하는데, 시골의 가설건물보다 오히려 더 크죠.

이가 : 보통 무대가 10미터 정도입니다.

유 : 도시에서 하는 것 같은 본격적인 연극을 한다는 것은…….

오카다 : 그렇게까지 된다면야 바람직하겠지만,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유 : 설비 문제도 빠르지만, 농민·근로계급은 아직 본격적인 연극의 미(美)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연극을 보고 익숙해져야 하죠. 다시 말해 향유하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은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나 연극의 표현 테크닉이나 기술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그 미를 알지 못해요.

최 : 그런 점에서는 가극이 더 좋겠죠.



유 :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서도 연극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가 : 일전에 진주, 밀양, 동래 등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2주일 정도 경남을 돌았는데, 진주의 평이 이를테면 순연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는 촌스럽다고 하지만, 인사말로 하는 소릴지 몰라도 전원이 어쨌거나 열심히고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서장도 인사로 수고했다고 하고 사실 자신은 연극을 간혹 보곤 한다며 곡예나 만담, 춤, 노래 등은 한 달에 10회 정도 오지만 전혀 재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재미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와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용은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최 : 서장님의 칭찬도 좋지만, 관중 쪽은 어떻습니까?

이가 : 일반인들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노래하거나 어떤 말을 조금 하면 기뻐하죠. 그만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은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험이기도 하니깐.

최 : 여자들도 옵니까?

이가 : 여자들이 절반입니다. 대개 1회 2,500명에서 4,000명 동원되는데, 아이들이 500명 정도고 나머지는 남자와 여자 반반입니다. 여자들이 더 환영합니다.

최 : 시골 부인들은 연극을 보는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가 : 옷을 잘 차려 입고 몰려들죠.

스시다 : 전부 조선어로 합니까?

이가 : 연극은 조선어, 노래는 ‘국어’입니다. 처음에 이동극단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스토리를 말하고, 예를 들어 “행진 운운” 하면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 기술을 도입해 빈번히 컷백도 있고.

스시다 : 영화의 내러타주 같은 겁니까?

이가 :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작자의 시도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농촌, 어촌에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스시다 : 노래는 그동안 한 것을 부릅니까?

이가 : 새로운 작곡도 조금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국민가요를 합니다. 산업전사의 노래나 전쟁터의 노래, 군가 등.

스시다 : 그런 새로운 가요는 처음 연극을 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단지 신기한 것을 본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더라, 조선가창단이었던가, 오래된 조선의 가극…….

유 : 창극 말입니까? 옛날 노래, 그것도 좋죠.

오카다 : 일본 내지에서도 뭐라 할까요, 시골에서는 시대극이나 옛날 인정 등을 다룬 것에는 그 내용이 나 의리나 인정 등을 잘 알고 감동하지만, 새로운 것에는 전혀 감격하지 않죠.

최 : 재래의 것을 되살려 오늘날의 시국에 부합하는 것은 만들 수 없을까요?

스시다 : 일본 내지에서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사마와리,<sup>75)</sup> 그것도 이동극단입니다만.

오카다 : 일본 내지에서 시골을 도는 것은 대개 시대극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이해할 수 있고, 내용도 알고 있죠. 그것을 시국에 맞추어 개작해서 하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스시다 : 다만 앞서 나온 말처럼, 황민화운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만큼, 낡은 것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카다 : 가령 춘향전 같은 것도 현재에 맞게 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 : 제가 관련하고 있는 현대극장에서는 총력연맹의 의뢰로 조선 남쪽 지방을 돈 적이 있습니다. 당시 테마는 일하지 않는 자는 황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강조주간이었던가, 뭐 그런 것을 위한 공연이었는데, 그래서 방금 나온 말처럼 옛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퍼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조선의 일반 민중들이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놀보·홍보〉(홍보전)—형은 게으른데다가 심성도 나쁘고, 동생 홍보는 선량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권선징악으로 결국 최후의 승리는 동생 쪽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창극에 넣어서 시도해 봤는데 정말 좋아하더군요.

오카다 : 그런 것이 이동극단에서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동영사대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모르는 것을 아무리 한들 감동하기는 어렵죠. 낡은 것을 개작해서 하는 거죠.

최 : 일본 내지에서는 『동해도슬울모(東海道膝栗毛)』<sup>76)</sup>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스시다 : 그렇죠. 결국 문제는 야지키타(彌次喜多)<sup>77)</sup>이니깐. 그게 나온 뒤 어떤 것이라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최 : 노래도 국민가요뿐만 아니라 조선 노래를, 그것도 그냥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고친다면 훌륭하게 현대에 맞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시다 : 그렇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유 : 정말 무대와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카다 : 도시적인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큰 감동이 없어요.

이가 : 어촌이나 광산에 그런 재래의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대본이 없어요. 다시 말해 각 지방, 또는 각 산업부분에 걸친 그런 것이 없어요.

스시다 : 여기에도 각본 기근인가(웃음).

이가 : 일본 내지 쪽은 각 방면에서 극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죠. 지방 어디 어디에서 왔으니 어떤 것을 하면 된다는, 가령 광산 방면에서 신청이 오면 그에 맞는 것을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대본 스톱이 있죠. 우리 쪽은 설령 신청이 있어도 어려워요. 정해진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카다 : 일본 내지에서는 그런 지방을 위한 극대본을 정리해서 출판하는 모양입니다. 시골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저 국민가요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원래부터 있던 풍부한 정서를 살렸으면 합니다.

75) どき回り. 상설공연장이 없는 극단 등의 지방 순회. 또는 그 극단이나 서커스단.

76) 여기서는 중(中)이 빠져 있는데, 원 제목은 『동해도중슬울모(東海道中膝栗毛)』으로, 1802~1814년에 걸쳐 인쇄되었다. 작가는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라는 사람이다.

77) 『동해도중슬울모(東海道中膝栗毛)』의 주인공인 彌次郎兵衛(야지로 베에)와 기타하치(喜多八)를 일컫는다.

이가 : 우리가 작가를 현지에 파견해서 생생한 재료를 들고 오면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본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만…….

최 : 작가는 그동안 실제로 근로라든가 농촌에 대해 한두 명의 작가를 빼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른바 문화라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과 매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 : 이동극단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시골에 가 보면 도시보다 이를테면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면회(面會)나 농회(農會) 등의 증산이나 근로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씨뿌리기라든가 경작 방식이나 비료를 어떻게 하고, 가마니를 만들라거나 새끼를 만들라는 등, 일일이 그런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온통 이론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연한 근로계급에게 보일 연극은 이론을 뺀, 그렇다고 해서 도시의 경박한 것을 시골에 가져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반동적인 것이 아닌 한 이론을 무시한 즐거운 연극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 : 이런 테마는 어떨까요? 다시 말해 자신이 일하는 의미—그것도 논리적으로 어떻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하면 현재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산업전사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일하는 큰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소중함을 알고 일하는 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것과 결부시켜도 좋겠죠. 그런 웅대한 테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니 통속적인 것이어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웅대한 테마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유 : 너무 이론이나 교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암거래 등 국민의 경제생활 문제도 도입 방식에 따라서는 연극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도입하면 망치게 되죠.

오카다 : 건설적이고 명랑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신체제의 것이니 논리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시다 : 영화의 경우 일본 내지의 필름을 그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끼워 넣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정도의 기교뿐입니다.

오카다 : 연극은 내용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최 : 저는 일전에 진남포의 알루미늄 공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여러 직공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공장 측에 대한 요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지만 뉴스영화만은 꼭 자주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농촌의 경우도 서장이나 면장의 훈시보다는 뉴스영화를 보여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카다 : 저는 연극에 대해서는 이동극단도 매우 좋지만, 더 나아가 아마추어 연극을 일본 내지처럼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한기에 좋은 지도자를 구해 지방인이 자신들의 손으로 연극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극을 연기함으로써 그 자체가 신체제의 지방문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여 자신들이 하는 연극이 그 지방인 입장에서는 가장 감명 깊죠. 각 도에 한두 개 정도의 반을 만들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 : 경상북도에는 도에 극단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최 : 조선 서쪽 지방의 가면극…….

유 : 네, 당신네 쪽이죠. 봉산, 사리원이 본고장이니깐.

최 :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박한 민속적인 행사이지만, 모두가 자신을 잊고 즐기고 있어요. 빼곡히 들어차서 보고 있어요. 하는 쪽도 보는 쪽도 그야말로 일체가 됩니다.

이가 : 그렇죠, 일체가 됩니다.

최 : 그걸 그대로 지금 하는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도 결국 권선징악이 테마인데, 결국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만들고 있어요. 훌륭하게 아마추어 연극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카다 : 제가 전북에 있을 때, 방공훈련을 주제로 시도한 적이 있는데, 자신들의 마을에서 아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니 흥미도 있고 감명도 깊어요. 그래서 방공훈련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모두 참가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생산확충 문제도, 사상 선도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에 그런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 : 그동안 시골에서는 시골 청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아마추어 연극을 하고 싶다는가, 아니면 지도를 부탁하거나 각본을 제공해 달라는 등 우리 쪽에 상담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라고 해도 그것을 민간인 입장에서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도 연극운동이 종종 있었는데, 아무튼 어려워요. 지금은 여론이 통일되었고 이는 우선 연맹이나 그런 쪽에서 각 지방과 연락을 취해 지방에 연극을 장려하고 아마추어 극단 같은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각본도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배포하는 등, 아무튼 거기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카다 : 앞서 말한 전북의 경우 각본을 모집했지만, 30편 가량 순진하고 재미있는 것이었어요.

이가 : 일본 내지에서는 아마추어 극단에 각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동극단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모든 지방이나 부분에 신경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경을 써도 그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은 하나의 쇼크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평남에 갔을 때, 그곳 농무과장이 말했는데, 자신들도 매년 두 번 하고 있으니 대본 알선과 전문적으로 하는 여배우를 한 명 소개해 달라고 해서 대본은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제1대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1대가 황해도로 순회한 뒤 곧장 그곳 도에서 극단을 꾸려서 현재 돌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동극단을 탄생시킨 이데(井手) 씨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오카다 : 이동극단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스시다 : <농민극장>이라는 문화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락 청년이 연극을 하고 모두 보고 울거나 웃는 장면이 있는데,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최 : 일전에 도쿄에 가서 좌담회를 했을 때, 기쿠치 간(菊池寛) 씨가 말했는데, 즉 지금의 조선에서 좋은 연극을 할 수 있으면 조선의 새로운 국민문학운동도 본격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인 만큼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실은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기 못했기 때문에, 좋은

연극이 나오면 비로소 새로운 문학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문학을 해도 민중에게 침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수 사람들이 쓰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혹은 그것이 연극이 되어 계속해서 시골로 가고 그 연극의 인물과 일체가 되어 울고 웃음으로써 비로소 그 문학의 내용이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죠.

오카다 : 시가(詩歌)든 연극이든 전문가가 그저 자신들을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가 : 그동안의 문학은 전부 그랬죠. 앞으로는 전달하는 —대중에게 침투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문학자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성에서 하고 있으면 도리어 답답해요. 연극이 서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골에 가면 더 웃고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생생하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죠.

최 : 지금 시골에서 좋은 호응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 : 내용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역시 연애이야기죠. 옛날부터 역시……. (웃음)

최 : 책도 그렇죠.

유 : 아이들과 노인들도 그러니…….

최 : 연애이야기가 좋은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다만 연애소설이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거기에 뭔가 좀 더 끼워 넣어야 합니다. 가령 지방어나 산업전사의 진지한 생활 속에 있는 연애죠. 예전과 똑같은 단순한 연애는 아무래도…….

오카다 : 영화에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 : 그 점은 조선 독자나 관중이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10년 전의 것을 완전히 낱아웃 시키는 데까지 가면 좋을 텐데.

이가 : 다른 의미에서의 영웅화 ……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카다 : 심청전, 그것도 모두 나쁘다고 하는데, 조금만 바꾸면 아주 좋은 것이 될 텐데…….

최 : 현재까지 이동영사대를 본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카다 : 35만 정도는 될 겁니다. 15반이 하고 있고 월 26,7회는 하니까.

스시다 : 최고 31회죠. 그리고 대개 하루에 두 번입니다. 매일 거리 행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정도입니다.

이가 : 한 번에 몇 명 정도입니까?

스시다 : 평균 옥외가 500~600명, 실내가 300~400명입니다. 무엇보다 이동영사를 영화배급사에서 하게 된 것은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작년 12월 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가장 추울 때라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최 : 이동연극 쪽은 어떻습니까?

이가 : 제1대는 공연이 210곳, 횟수는 259회로 42만 9천 명, 제2대는 99곳, 118회로 29만 5천 명으로 계산됩니다.

오카다 : 우리 쪽은 극영화 하나, 뉴스 두 개로 하고 있는데, 무료관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시다 : 1회 30원으로 빌리는데, 단 기계를 들고 걷는 두 명의 차비 등은 실비로 받고 있지만.

최 : 아무래도 선전성이 가장 강한 것은 영화죠. 직접 호소하는 점에서 보자면.

스시다 : 다만 그건 아무래도 일본 내지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필름이 없어요. 이동영사에 사용할 필름이 없어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최 : 여기서서는 만들지 않습니까?

오카다 : 아직입니다.

스시다 : 시보(時報) 등은 경성과 동시개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정도는 남으니깐. <지금 우리는 간다(今ぞ我等征く)>, <쇼와 19년(昭和十九年)> 등의 문화영화는 동시개봉입니다. 조선의 필름이 많이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 제작회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조선영화를 돌리면 되겠지만 쓸 만한 게 없어요.

오카다 : 저도 영화대(映畫隊)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 화면은 보지 않고 기계 쪽을 보더군요. 어째서 기계 사진이 되고 목소리를 내는지 이상한 거죠(웃음). 화면 쪽을 보라고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아직 그런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동극단은 생기고 이동영사대도 생겼어요. 조선도 앞으로 1, 2년 동안에 획기적인 진보를 할 것이라 봅니다.

이가 :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연극의 '연'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 사변 이후 진보한 것은 연극·영화 부분이겠죠. 연극은 분명히 향상했어요. 당국이 힘을 기울이는 방식도 달랐지만 말입니다.

이가 : 이걸 여담인데, 다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연극이 끝나고 다음 지역까지 걸어갑니다. 제1대의 최고기록은 이를 걸려 12리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6리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연극을 하죠. 충북에 홍수가 났을 때 경찰들은 친절하게 도와주고, 버스도 있었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들었어요. 저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럴 경우 여자들이 안타깝죠.

스시다 :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연극을 한다면.

이가 : 모두 지칠 대로 지쳐서 여자들은 대장에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울상이죠. 그러나 우리 극단은 대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연기는 연기, 무대 뒤의 일을 하는 쪽은 또 그 나름대로 각각 반장이 있는데,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따라서 연극이 성황을 이루고 피곤해도 내일의 준비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도 들었지만, 한 달, 두 달 하면서 동료들끼리 애정도 생기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신념도 생기죠. 아무튼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이 느슨해지면 어찌나 하고 걱정도 있는데, 묘하게도 그날 저녁 연극은 정말 좋았어요. 단체로서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도리어 몸이 편할 때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점심 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대를 가설하는 일이 있긴 해도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죠.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이것은 묵인하고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날 저녁에는 도리어 연극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대원들의 생활은 충노동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기 배급도 있죠. 술도 나옵니다. 대원들이 후생회를 만들어 협회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는 게죠. 웬지 몸 상태가 나쁘고 나른할 때도 관중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신념이랄까요. 어쨌거나 이런 일은 직접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자신은

무대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객석에서 관객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기도 하죠. 자신들은 4,5리나 되는 길을 도시락을 들고 오면서도 도시락 대신 가져온 옥수수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제가 사양하면 지저분해서 먹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며 저도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연극을 봅니다.

오카다 : 극단의 여배우가 되겠다며 따라오는 아가씨들은 없나요?

이가 : 없습니다.

최 : 그만큼 자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분위기가 다르군요.

이가 : 다만 당국자의 생각 여하에 따라 극단의 평가가 제각각입니다.

오카다 : 영사대 쪽도 힘을 기울이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골치 아픈 말을 들었을 때는 엉망이 되죠.

최 : 잡지 쪽도 그렇습니다.

오카다 : 지도하는 쪽에 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가 : 이쪽을 보면 결식하는 것처럼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주로 아래쪽이죠. 저희 쪽은 보안, 고등 쪽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오카다 : 뉴스도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의 절반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최 : 실제로 하와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 보여주는 거죠.

오카다 : 뉴스를 30만 명에게 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결국 ..... 이는 나를 선전하는 셈인가(웃음).

최 : 일반적으로 연극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에서 국민적 정열이 불타고 있는 때입니다. 3, 4년 전에 연극이 왕성했다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 : 일본 내지의 어떤 사람이 연극을 좋아하는 국민은 전쟁에도 강하다는 말을 했는데, 국민사상이 매우 고양된 때에는 연극이 활발해집니다. 뭔가 집단적으로 즐길 것을 요구하는 거죠.

최 :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탄생한 시대도 역시 당시 세계를 뒤덮을 기세였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이 정복하고 비로소 국민적 자신감이 생긴 시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류국가였던 거죠. 국민적인 기분을 셰익스피어가 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그것을 선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른바 국민연극이 되었고 또 그만큼 세계적인 것이 되었어요. 작품에는 천박한 것도 있고 고급스러운 것도 있지만, 결국 국민적 정열—그것입니다.

이가 :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렇죠.

최 : 결국 고급스러운 것만 좋은 것은 아니죠. 문제는 국민적인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카다 : 끊임없이 큰 정열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가 : 지금은 단순한 정열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정열이죠.

오카다 : 그런 일에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 : 선전계몽의 연극이나 영화도 중요하지만, 아직 대중을 위한 연극이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했어요. 단순히 시국적인 것을 하고는 있지만, 유치진 씨, 어쩡습니까, 큰 작품을 하나 쓰는 것은. 영화나 연극이나 가극이나 버라이어티가 될 만한 것으로.

오카다 : 그리고 조선 작가들 중에는 아직 하나의 극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제를 향한 것을 따로 조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체제 한 건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대로 신체제의 것이니…….

유 : 그게 조선의 극작가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신체제의 이념을 어떤 식으로 작품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도 그렇지만 오직 거기에만 머리를 쓰고 있었죠. 그것은 근래 1, 2년 동안 작가들의 정열이나 당국의 지시나 매우 큰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극 그 자체의 내용이랄까, 기술이랄까, 그것이 아직 민중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도이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끼워 넣는 방식에, 다시 말해 예술적으로 역시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 : 그것은 작가가 너무 굳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棗の木)>는 작품으로서 총독상을 받았고 그래서 당국의 의사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유독 시국색은 가장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작자 쪽에서 좀 더 어깨를 편, 굉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웃음). 잡지 쪽에 보내는 원고도 그렇습니다만.

오카다 : 역시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이어야 하죠.

최 : 내선일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선결혼(內鮮結婚) 이야기…… (웃음).

오카다 :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곳에 국기를 내세우거나, 말도 안 되는 곳에 병사가 나오거나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존엄함도 없어질 테니…….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예산 등의 면에서도 지도하는 쪽에서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 : 그렇습니다. 이동연극이나 이동영사 같은 일이 경영난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깐 말입니다.

스시다 : 이동영사도 곧 16미리로 이행합니다. 필름의 절약이나 수송관계로, 그리고 더 손쉽게 지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카다 : 어쨌거나 이러한 문화적인 일에는 건설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더 돈을 들여야 합니다.

최 : 그럼 이쯤 해서.

〈출전 : 「農村文化のために一移動劇團・移動映寫隊の活動を中心に(座談)」, 『國民文學』 제3권 제5호, 1943년 5월, 86~96쪽〉

## 4. 음악·무용

### 1) 가라시마 다케시, 연예와 대중(2) - 중국 신극운동의 경험

저들은 모든 책임을 “기다려 달라. 내가 고려중이니깐”이라며 다른 이에게 돌렸다.

(주7) 1929년 봄 '예술극사(藝術劇社)'가 결성된 이후 다른 연극단체도 그 동향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전한(田漢)은 어느 석상에서 '남국사(南國社)'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고 한다. 분명하게 좌익연극운동에 나서지 않는 그의 태도를 이 문장은 비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자의 고투 속에서 진정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정백기(鄭伯奇)의 말을 상기하고 난징(南京)의 지식계급이 오랫동안 연극에 굶주려 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남국사(南國社)’가 경험한 동일한 상연 목록에 대한 갑을 두 지역의 반향의 차이는 토지의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가 공연 전에 미리 충분히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남국사’가 난징에서 제2회째 공연을 한 뒤 돌아오는 도중에 우시(無錫)에 하차해서 공연했을 때, 당시 점차 좌익연극운동의 길로 들어서고 있던 전한(田漢)은 우시 도착 전에 차 안에서 갑자기 「일치」라는 제목의 즉흥적인 희극 각본을 써서 이를 추가 상연하여 성공했다. 이 각본의 줄거리는 난폭한 왕이 있었는데, 연애만은 아무래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 지도자라 칭하는 남자가 나타나 왕을 해치운다는 줄거리로, 표현주의적 수법으로 무산대중이 일치 연합해서 쫓기할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었다. 농민 지도자로 분한 진응추(陳凝秋)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一切被抑壓的人們集合起來……一致建設的光明, 新的光明是從地底下來的”이라고 외치자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계급적 색채가 많은 작품과 함께 상하이(上海)의 무대에서 연기하자, 등익(鄧翼)이라고 하는 한 관객은 다음과 같은 서신을 전한에게 보내 반성을 촉구했다.

“밝게 켜 전등 아래 시원한 음료수, 과자, 아름다운 의상, 하이힐 구두, 부드러운 머릿결, 그러한 신사 숙녀분 등의 지식적 귀족적 공기와 색채가 충만한 가운데 무산자를 위해 대성질호(大聲疾呼)하는 ‘남국’의 공연을 보는 것은 정말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상징적인 불타는 듯한 열기를 가진 저 「일치」가 개막과 동시에 박수를 받았을 때, 나는 관중이 진보하고 혁명의 세례를 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했지만, 노동복을 입은 관중이 없었음은 ‘남국’의 무산자에 대한 운동이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읽으면 우이에서의 흥분도 웬지 조금 의심스러워지는데, 상하이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어쨌거나 무대와 관중이 그야말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각본이 공중에 떠 있고, 관객의 다리가 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소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등익의 솔직한 비판과 함께 여기서도 진경생(陳勁生)과 정백기의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 ‘남국사’가 제1회 난징 공연을 하는 김에 난징 교외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샹오장(曉莊)이라는 농촌 부락에서(여기에 유명한 샹오장사범학교가 있고 이 학교의 초청으로 갔는데) 공연을 했을 때의 보고를 빠트릴 수는 없다. 즉 난징 공연의 마지막 밤이 끝나자 그들은 자동차를 줄지어 타고 샹오장으로 향했다.

(주8) 이 난징 출발에는 반짝반짝 검게 빛나는 신형 자동차를 준비했을 것이고, 남자배우는 맥주와 위스키에 취했고 여배우는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면서 외투를 걸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내가 우리 마을에서 본 1933년 봄의 난민구제의연 공연 무대 뒤도 호화롭고 요란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일찍이 “민간으로 가라”를 표어로 삼고 있던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크게 기뻐하고 많이 긴장하면서 샹오장에 도착한 아침에 새롭게,

일문전(一文錢) 일막 아(啞) 극, 좌명(左明) 작

(주9) 좌명은 베이징의 예술전문학교 희극계 출신으로 전한 만큼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촌지야(新村之夜) 일막 전한 작

이라는 두 개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작품까지 써서 열심히 공연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어땠을까? 동행한 남국사의 염갈오(閻拈梧)의 보고문에는 “상하이의 모던한 사람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농부의 눈길만 발견되었다”라는 한 마디가 있다.

여기에 이르러 농촌 공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본의 내용, 연기 외에 관계자 각자의 무대 이외에서의 복장이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각본의 이데올로기가 연극인의 일상생활 위까지 분명하게 구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연극운동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대 이외의 언행은 자칫 무관심하게 방임되기 쉽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상의 경험을 종합하면 결국 연극은 항상 대중으로부터 결코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셈이 된다. 한 걸음이라도 대상이 되는 대중의 현실적 희망 혹은 생활에서 유리된다면, 그 연극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되는 대중과 것처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도 건설적인 연극운동은 언제나 그 대중의 현실보다 한 걸음 전진해서 그 현실의 결함을 자연스레 응시하도록 하고, 이를 새로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태만하고 유탕적(遊蕩的)인 현실 관중들과 손을 잡으면 그 연극은 더 이상 신시대로의 건설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기교와 표현이 아무리 교묘할지라도 결국 그 자신도 역시 유탕적 존재밖에 되지 않으며, 회고 영탄적(詠歎的)인 소극 비관적 허무적인 현실에 안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한 걸음 전진을 뛰어넘은 도약적 전진도 결코 칭송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머리만 너무 앞으로 나아가고 발이 대지에서 떨어져 있는 유령 같은 각본을 장소와 상대를 불문하고 함부로 상연하는 짓은 광기어린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신극운동의 과거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이러한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인사글로 하고자 한다. ‘협예(協藝)’의 동인 인사들 중에는 일찍이 좌익연극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드는 예는 여러 인사들 자신이 속한 극단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어서 새삼 내가 말할 만한 것은 못되고, 또 중국과 조선은 여러 가지 사정도 달라서 직접 참고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타산지석, 또 무용지물도 아니고 과거의 반성에 기회를 주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인사들의 극단의 결성 선언을 읽으면 그 인사들은 “일본정신의 실천적 파악에 따른 국민예술가로서의 굳은 각오”를 지닌 사람들의 집합이다. 또한 그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이므로 조선 대중의 현실은 도시든 농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빈자든, 토지의 남북을 불문하고 모두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 대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에 있어서 그릇됨이 없고, 현실에 입각한 일본정신의 고양을 시사하는 흥아(興亞)의 열정을 그린 각본을 제공하고, 나아가 함부로 시류를 거슬러 부화비등(浮華飛騰)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대중과 함께 있으며, 또 일보 전진을 영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정신을 살리면서 혼신의 노력을 무대에 경주한다면, 그 성공은 반드시 따라 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0년 조선의 연극을 사랑하고 그 고뇌를 살피면서 건전한 발전을 기원해 온 나이긴 하지만, 연극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외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언, 과언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용서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辛島驍 「演藝と大衆(二)—中國新劇運動の經驗—」, 『東洋之光』, 1939년 11월호 88~90쪽〉

## 2)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문화에의 입찰(立札) - 특히 음악가에게 바라는 말

지금으로부터 30년,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는데, 도쿄(東京) 시내의 강이나 제방 가까이 가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이 제방에 올라가지 말 것”이라든가, 또 공원에 발걸음을 옮기면 “이 가지를 꺾지 말 것” 등의 팻말을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천연의 아치(雅致)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고 시민 생활에 대한 굴욕처럼 여겨져 보는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마침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더욱 증가하여 국제도시 가운데 굴지의 대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면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기이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팻말 국욕론(國辱論)까지 등장해, 마침내 이 진기한 풍물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팻말도 지금은 완전히 옛날이야기가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국욕(國辱)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사회 전반에 아직 남아 있어서 미증유의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대동 이전의 총후(銃後)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가령 결성된 지 벌써 2년이 되는 조선음악협회를 보더라도 반도의 음악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집단이고, 음악가에게는 참으로 적당한 전야(戰野)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통제력도 음악가 각자가 진정 그 사명에 충실하고 예능보국(藝能報國)의 지성에 불타며 왕성하면서도 자각적인 예술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입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봉공해야만 한다.

물론 직접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관청도 순정한 음악문화 신장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원조를 아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국가가 고도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음감(音感)의 조장·육성을 명령한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외부의 작용을 기다릴 것도 없이 악계(樂界)의 운명은 악인(樂人) 스스로 타개하겠다는 기백과 행동 없이 누가 그 발전적인 경작을 행하겠는가. 악인은 지금이야말로 몰아적(沒我的)인 음악에 대한 사랑에 철저히 해야 한다. 무릇 “노 페이, 노 워크”라는 타산적인 것만 따지는 영미류의 사상은 배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각적인 각성 없이 그저 타동적(他動的)인 힘에 의존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팻말을 필요로 한 □□□□ 시민의 선까지 자신을 저하시키는 자일뿐이다. 또한 만약 그러한 팻말을 기꺼이 자신의 머리 위에 두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출전 : 平間文壽 「文化への立札—特に音樂家に懇ふる言葉—」, 『京城日報』, 1942년 9월 19일〉

### 3) 히라마 분주, 문화 - 악단진어(樂壇驢語)(1)

벌써 조선음악협회도 창립 이후 지난 1월로 만 2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마침 임원을 개혁하는 해이기도 해서 일단 과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결전의 해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신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음악인으로서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설에 착수한 후 2년 동안의 주된 음악활동을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 (1) 음악 경연회
- (2) 음악 감상회
- (3) 음악 강습회
- (4) 합창제
- (5) 작곡제
- (6) 신인 소개 음악회
- (7) 국민개창(國民皆唱)운동
- (8) 학생음악운동
- (9) 국가적 행사와의 연계 음악회
- (10) 사회공공사업과의 협력 음악회
- (11) 음악계 공로자에 대한 사은 음악회
- (12) 음악보국주간(협회 각부 종합대연주회) 등.

이 중에는 매우 강화된 면도 있지만 음악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면도 적지 않은 것은, 아직 2살에 지나지 않은 악단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총후(銃後)도 모든 활동의 면에서 결전하는 국가의 의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대 비약을 요망 받고 있다. 때문에 가령 국민운동으로서 큰 역할을 지닌 국민개창운동—국민총력조선연맹 당국의 큰 노력으로 올 봄 이후부터 드디어 궤도에 올랐고, 각지에 이 운동이 파급되어 애국적이고 건전한 일본가곡이 보급 침투되고 있는 현 상황이긴 하지만—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에게 산업보국정신을 함양시켜 생산 확충과 능률 증진에 경이적인 효과를 보이는 후생음악운동의 두 가지를, 더욱 적극성을 띤 정책을 세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국과 음악인의 전력적인 정신(挺身)이 회구되고 있다.

〈출전 : 平間文壽, 「文化-樂壇驢語(1)」, 『京城日報』, 1943년 7월 13일〉

#### 4) 히라마 분주, 악계근시(樂界近時)

##### 1. 개창운동(皆唱運動)

봄의 악계(樂季)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했던 것은 “총후(銃後)를 강하고 밝은 노랫소리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자”라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가 제창한 ‘국민개창운동’에 호응해서 반도도 뒤쳐질 수는 없다며 일어나 총력연맹의 도움을 받아 음악협회원이 일찌감치 동원되어 조선 내의 각지에서 이 운동을 위해 선정된 애국가를 올바르게 강하고 뜨겁게 함께 부르는(皆唱) 기운을 만들기 위해 정신(挺身)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반도가 마치 일본 내지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본디 음악협회가 창립되었을 무렵, 당시 협회장이자 전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씨는, 그 어떠한 장기전에도 견디기 위해, 또 사회를 좋은 음악 문화 맹아의 온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조의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순정 국민적인 가곡을 보급하고 침투시키는 것이 절대 불가결한 일임을 통감하고 개창운동 실천의 과정에 필요한 가곡집의 출판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반 준비는 진행되었지만 실행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오바라 씨가 떠난 지 3년, 드디어 일본 내지에서도 중요한 국민운동의 하나로 개창운동이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작년 가을 국민가로 지정된 〈바다에 가면(海行かば)〉을 보더라도 반도에서는 이보다 몇 년 앞서 시오바라 씨의 혜안으로 나온 지령은 이 국민적인 기백에 가득 찬 명곡 〈바다에 가면〉을 실로 국민가 이상으로 다루도록 했고 온갖 기회에 불러졌다.

바야흐로 사태는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실천의 시기이다. 이런 때를 맞이해 가장 강력한 지도성과 감동성과 침투성을 지닌 음악 예술이 국민들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한 시오바라 씨의 문화행정에 대한 높은 식견에 대해서는 반도에 살고 있는 자들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인은 원래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이다. 특히 ‘반도인’에게 그런 경향이 현저하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국책적인 견지에서 확실하게 주어졌다면 이제 와서 급하게 “미·영 가곡을 없애야 한다” 따위는 외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게다가 개창운동의 보편은 국민의 사기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인에 대해서는 산업보국정신을 함양하고 전시하의 시급한 능률증진을 얼마나 크게 높일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일시적인 불꽃놀이 같은 행위로 끝내지 말고 튼튼하게 육성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 교향악운동

다음으로 알아 둘 것은 바로 이 운동이다. 무엇보다 대경성에 상설된 국영, 혹은 재단조직에 의한 교향악단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따라서 문화적인 대도시로서의 풍격이 이런 상태로는 너무나 허전하다. 도쿄(東京)는 여기저기 각 거리에 서너 개나 있고, 이웃나라 만주국에서도 하얼빈과 신징(新京)에 각각 국고의 보조를 받는 교향악단을 갖고 있다. 하얼빈의 그것은 군의 절대적인 지

지를 받는 것으로, 작년까지 1년 예산 19만 엔으로 우리가 선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올해는 더욱 비약해서 28만 엔을 계상하고 있다. 신징의 교향악단은 재정적으로 더욱 강력하다. “그건 신흥국이라서 그런 거지. 만주는 역시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음악문화에 대한 지도층의 이해와 열정의 유무일 뿐이다. 생각해 보더라도 신흥 만주국에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을 것이다. 당연하다면 음악에 쓸 돈 따위가 있겠는가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실제로는 교향악운동이 따뜻하게 배양되고 있다. 교향악운동은 음악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음악이 지닌 건전성은 백론불여일문(百論不如一聞)으로, 한 번 이를 접한다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만주의 지도층은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조선은 정말이지 부진하다.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스러워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내지와 만주 사이에 간혀 깊은 계곡 밑바닥으로의 전략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경성제대 교향악단, 경성교향악단, 후생실내악단 등 역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각각 발표회에 헌신한 점은 기억해둘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운동은 반도 지도층의 이해 없이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해만 한다면 재정적, 인적인 불리한 조건은 어떻게든 된다. 반도 문화의 수준을 위해서도 대경성의 위용을 위해서도 교향악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빈곤한지를 알았으면 한다.

이상 봄의 악계를 장식하는 두 가지의 큰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창작진이 부진한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이런 상태로는 연주는 하릴 없이 하품을 할 수밖에 없다. 연주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적인 눈부신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서 음악인이 총후(銃後)에서 짊어지고 있는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국민음악 수립은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방악(邦樂) 또한 마찬가지다. 완전히 창작 활동이 죽어 있다. 음악을 진정 국민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창작진이며, 분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이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출전 : 平間文壽, 「樂界近時」, 『文化朝鮮』, 1943년 8월호, 38쪽〉

## 5) 나카조노 겐조(中園源藏), 반도교육 혁신론(4) - 과학·음악교육을 진흥시켜라

###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과학적 태도를 훈련하라

#### 1. 장래의 조선과 과학

독일의 전격전을 계기로 팽배하게 들끓어 오른 여론, 과학의 진흥이야말로 작금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요 과제의 하나이다. 지금 조선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이 시대의 진운과 지리적인 좋은 조건, 아울러 국책의 강력한 약진은 조선이 언제까지나 구태의연하게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산업의 대중(大宗)이었던 농업에 대한 과학적 연구, 거기에 입각한 합리적 영농이 요

구되기 시작했다. 수산, 지하자원 개발, 내일의 조선에 과학적 기술, 과학적 경영이 필요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공업 조선의 건설과 추진에 과학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 2. 조선에서의 과학교육 진흥의 필요

### 1) 유교주의 교육을 청산하기 위하여

유교가 동양의 명교(名敎)로 과거 동양인의 사상을 기르고 도덕적 부분에 공헌한 힘은 크다. 그러나 유교는 요컨대 도덕적 가르침이고 근대과학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것을 제일신조(第一信條)로 삼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동양에서 과학의 발전이 구미에 뒤쳐진 것은 당연했다. 오늘날에도 시골에 가면 서당에 다니는 자가 있다. 여전히 독서 중심이고, 암송만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곳까지 있다. 아니 당당한 근대 교사(敎舍)에 다니는 공립학교 아동에게도 그 잔재는 남아 있다. 모든 것을 교사에게서만 배우려는 수동적인 태도, 기술을 비하하고 법제나 경제 사상론에만 탐닉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다분히 있다. 이러한 폐풍 구제를 위해 교육 법규 중에 근로애호의 목표가 나왔고 응용 연습에 힘쓰라고 하는 규정까지 두었다. 과학교육의 진흥은 이러한 입각점에서 역설되어야 한다.

### 2) 국책순응, 선만일여(鮮滿一如)를 위하여

농공 병진(竝進)은 현 총독의 5대 정강(政綱) 가운데 하나로, 반도 민중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대 목표이다. 그리고 농업 진보를 위해 과학적 연구가 필요함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공업 조선에 과학교육이 필요함은 자명한 일이므로 생각한다. 이를 접경하고 있는 만주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만주국은 바야흐로 대약진을 이루어 각종 공업의 장래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인적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조선이 지리적 위치에서 여기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국가로서도 바라는 바이다. 과학적 소양이 있고 과학적 훈련을 거친 산업전사를 계속해서 만주에 보내는 일은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 3)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완성하고 동아시아의 지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는 반도에서의 20여년의 초등교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단정할 수 있다. '반도인'(半島人)<sup>78)</sup>은 수리적 사색에 떨어지고 사고의 과정에 비약이 있다는 점이다.

뇌동성(雷同性)이 있고 시의심이 있다는 것도 결국 이런 원인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사물을 보는 시각이 좁고 감정적으로 비판하며 전체를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저 민족주의자와 같이 우리 황도(皇道)가 어떠한 것인지, 세계의 현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재 민중의 생활적 향상 또는 문화 정도와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과의 그것을 냉정하게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을 진흥하고 과학적 태도를 민중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선일체의 근본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대전제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 증거로는 그동안 가르쳤던 반도 아동들 중에 수리적 방면에 뛰어난 자는 비교적 졸업 후 사상이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울러 '반도인'의

78) 조선인.

앞으로의 역할을 생각할 때, 과학적 태도의 양성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중화민국 4억의 민중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반도 민중은 어떠한 자질을 갖고 이에 임할 것인가? 노동력에서는 그들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한다. 전통의 유교는 어떨까? 본가는 자신들이라며 역습을 당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오랜 역사 시대 때부터의 관계로 중국인은 ‘반도인’을 멸시하고 있다. 이상의 관계에서 나는 신속히 내선일체를 완성하고 유창한 일본어와 우수한 과학적 지식과 기능으로 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믿는다.

### 3. 과학교육 진흥의 방법

#### 1) 천재주의인가 국민총훈련주의인가

오늘날의 문화가 위대한 천재의 공헌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교육 진흥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향상에 두어야 한다. 특히 기초교육인 초등학교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기초 도야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는다.

#### 2) 현대 초등교사는 좀 더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라

도쿄 여자고등사범학교의 호리(堀) 선생은 현대 초등교사가 이과적 지식이 빈약한 점을 문검(文檢)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서 귀결시키고 있는데, 참으로 경청할 만한 충언이라고 믿는다. 문검의 일반 이과 문제에 “지상과 평행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가 지상에 도달하기까지의 운동 경로를 묻는다”는 의미의 문제를 냈는데, 만족스러운 답이 너무 적었다. 일반 초등교사의 실력은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과학교육의 진흥 따위는 바랄 수도 없다. 오늘날의 초등교사는 문학이나 교육서는 비교적 읽는다. 그러나 이과나 수학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과목은 이과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의 재교육과 설비의 완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비도 별로 들이지 않고 게다가 순식간에 효과를 올리는 좋은 방법은 각 학교의 초등교사가 물리 책을 한 권 제대로 읽고 터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화학, 또는 기타 과목으로 나아가 현대 기계의 기초지식 정도는 모든 선생이 알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인 대수나 삼각도 소설을 읽는 시간을 줄여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3) 학습법을 훈련하라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획득 연구의 방법도 가르쳐 아동 스스로 사고하고 궁리해서 노작하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리과, 작업과 등에서는 특히 연구 방법을 수업시간 중에 알게끔 하고 그 방법을 일정 시간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과정을 훈련해야 한다.

#### 4) 아동의 질문을 환영하고 작은 창작에도 상을 주라

어린이의 의문 및 요구가 종종 큰 발명을 낳고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초등교육자는 아동의 질문을 환영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처음에는 우문이나 쓸데없는 물음도 참아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적절한 질문이 나타난다.

또 천재도 발현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창작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칭찬



하고 격려해야 한다. 꾸짖어서 이끄는 것보다 칭찬해서 이끄는 교사가 현명한 교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 5) 적당한 장려법을 강구하라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람회, 연구회 등도 필요하다. 조선에서도 아동 창작품 전람회가 경성에서 열리고 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매년 계속해야 할 행사이다. 그러나 작게 1개교를 단위로 생각하면 학예회에서 발표시키는 것도 좋고 메달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하 생략)

## 실행적 인물의 양성을 기하라

### 1. 현대 교육계의 통폐(通弊)

단지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작금의 일대 통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에 실제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일지도 모르겠다. 선전은 무척이나 잘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교육계의 실상을 바라보자. 시정해야 할, 또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 과연 애국일의 행사는 보고대로 꾸밈없이 실시되고 있을까? 각 도마다 매년 1회씩 교장회가 있고 자문 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듣고 있으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실행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항목이라도 빠트리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듣는 사람들은 “표현이기가 막히다”라며 감탄하고 있다. 다시 눈을 아동에게 돌려보자.

부모에게는 효도, 임금에게는 충성, 벗에게는 신의라며 거의 모든 덕목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중국인 야채가게의 오이를 훔치고 친구 고무신을 고의로 바꿔 신고 가는 나쁜 사람은 없을까. 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말은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개월의 라디오체조에 계속 출석하는 자는 결코 출석 가능한 아동의 전부가 아니다. 아동은 수신(修身) 이야기는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의 자신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선생님도 담배나 술은 해롭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피우거나 마시고 있지 않은가 하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사와 아동 모두 실행의 박력을 결여하고 있다. 우리 충용한 장병들이 대륙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고 잡초가 무성한 주검이 되고 있는 비상시에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목표는 정해져 있다. 요는 실행이다.

### 2. 국민적 예절을 훈련하라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에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 두 민족의 풍속 습관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아동에게 국민적 예절을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단순한 착상으로 지도하는 식의 임기응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상(理想)을 말하자면 당국에서 예절 교과서를 편찬해 그 방침이나 방식을 제시하고 조선 전체가 일제히 통제해서 진행해

야 한다고 본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절 요목을 만들어 매주 배당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일상 예절을 습관이 되도록 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우 다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현재의 실상에 비추어 경례, 방문, 통행, 식사, 관극, 승차, 하차, 차내의 공중질서에서의 청결, 정돈 등의 제반에 걸쳐 지도하고, 특히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풍, 여행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일정 시간 교사와 침식을 함께 하는 이른바 행적(行的) 훈련으로 일본적 예절을 습득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이라 믿는다.

아울러 학교의 시설을 충실히 하고 변소, 물 마시는 곳, 숙직실 등에서의 예절은 가정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특히 조선인 소학교에서는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봉실 등이 없는 관계도 있고 해서 앉았을 때의 예절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修身)과 목 시간의 절반은 예절 훈련이나 기타 실천 방면에 할애하는 정도의 영단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 3. 국가봉사를 제일의로 하라

원래 우리 황도정신은 나를 비우고 오로지 대군(大君)<sup>79)</sup>의 방패가 되는 것이 그 중핵이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실행되어 전쟁터나 총후(銃後) 후원에서 수많은 미담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 행위와 경제 행위에 나타나는, 저 암거래는 어떤가.

사치품의 금지령이 나오지 않으면 생활의 근검절약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본래의 모습이 서양 전래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3기 증상으로 진행된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국체의 본의로 되돌아가 자아공리의 사상을 배격하고 국가봉사를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국민도덕을 건설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수신교육을 개선하여 그 선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 구체적으로 지도하라

국가봉사, 이타적 행위는 인생 최상의 도덕이다. 그것을 아동에게 잘 이해시켜 내일부터 곧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인식 부족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아가 강해서 이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기적인 측면은 더욱 강하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심하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을 지도하려면 순서에 따라 단계를 밟아 계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일상적이고 비근한 공공에 대한 봉사, 학교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일 등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종래에도 결코 등한시되었던 것은 아니고 실천 지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수신 교과서의 취급이 자칫 주가 되고 실행 독립의 부분이 부차적인 것이 된 경향이 있었다. 개선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다행히 수신과는 각 학년에서 모두 주 2시간을 배당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취급은 1시간으로 끝내도록 배당하고 절반의 시간은 예절이나 실천 지도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 수신의 점수는 각 학교에 따라 여러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단지 지적인 요소만으로 검사한 경향은 없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아동들의

---

79) 천황.

실행적 관심을 잃게 된다. 나는 그 폐해를 다소나마 구제하고자 수신의 지적 부분을 5점, 실행 부분을 5점으로 채점하는 방침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 그 실행 부분의 검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이는 합리적인 좋은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종래대로 담당 교사가 평소 품행을 관찰한 결과로 판정하고 있다.

위선자를 만들지 않고 진정 순진한 아동을 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평범한 옛날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3월의 종업식 때에는 조행상(操行賞)을 모든 상의 최고에 두고 그리고 그 수상자 전형에는 담임뿐만 아니라 직원 전원의 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신사참배 및 위인의 존경 장려

신사참배는 반도에서의 실천운동 가운데 가장 성적이 양호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북중국에 종군하는 반도 청년이 개인적인 일로 고향인 조선에 돌아와 다시 현지로 귀환할 때, 혼자서 그 누구의 권유를 받지 않고도 신 앞에 열심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숭고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경지에까지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고 느꼈다.

비교적 종교적 정조가 부족한 '반도인'에 대해서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신념으로까지 투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국민은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간에 신사와 천황폐하에 대해서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품고 있다.

반도인들도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신사에 친숙해짐으로써 그런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영웅과 위인의 숭배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아무래도 '반도인' 아이들에게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위인이나 영웅이 적은 것 같다. 이는 다분히 역사적인 원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평등심의 발로로 보이기도 한다. 중국인은 원래 왕후장상이 대체 뭐란 말인가 하는 철저한 평등관념에 서 있다. 순(舜)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것이 중국인의 민족 신념이다. 이런 생각이 다분히 '반도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항상 진보는 어렵다. 또한 우리 국체에도 반하는 일이다. 영웅과 위인을 숭배하는 감정의 작용은 앞으로 '반도인'이 길러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위인의 초상사진을 걸어 두는 것도 좋고, 또 가정에 대마봉재(大麻奉齋)와 함께 위인의 액자도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그 감화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사상의 충신과 걸사 또는 외국인이라도 예부터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나 수신과목 등과 연계해서 위대한 국가봉사의 행위나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 존경하는 시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인들의 위대한 성격을 접하고 감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와카(和歌)나 명구 등을 때때로 낭독케 해서 사기를 고무하는 동시에 위인의 고풍(高風)을 동경하도록 해야 한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이 몸은 설령 무사시노(武藏野) 들판에서 썩더라도 내 야마토다마시(大和魂)<sup>80)</sup>는 영원히 일본을 위해 바칠 것이다” 등도 쇼인의 초상화 밑에 이 와카를 붙여 두고 자신의 서재에 걸어 두면 감격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분

80) 일본혼.

기케 할 것이다. 이런 기분을 반도 청년들에게 꼭 작흥시키고 싶다.

### 3) 행사 및 실행요목은 숫자를 적게 하고 철저하게 실행케 하라

현재 실행이 자칫 소홀해지는 것은 너무 행사가 많고 실행요목이 복잡하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 다른 사항은 임의 사항으로 하고 필행 사항이라고 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토지의 정황,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별칙을 두거나 감시원을 임명해서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 전원이 실행에 힘써야 한다. 가령 신사참배, '국어' 상용, 근로봉사, 출정 장병의 송영, 위문문 발송 등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선두에서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연회의 출석이나 창안품의 출품, 수학여행 참가 등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명료하게 구별해서 아동들에게 충분히 예고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 4. 음악, 체육, 운동 등을 통해 국제적 정신을 계배(啓培)하라

### 1) 통제복종의 습관 양성

정치 기구, 경제 행위의 발동에서도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경향은 청산되어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은 세계적 추세이다. 공익이 있어야 사익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다. 그런 견지에서 장래는 모두 통제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복종적 인물의 양성이 급선무이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과거와 같은 자유 교육은 사변 하의 오늘날 1개교도 있을 리 없겠지만, 여전히 교사의 머리에는 옛날 찌꺼기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먼저 교사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이다. 반도에서는 교학연수소가 작년에 설치되어 교사의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기구를 확대하여 각 도마다 하나씩의 연수소를 설치하여 하루 빨리 현직 교원 모두 재교육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도 적절히 시대상을 이해시키고 이른바 권위 수순(隨順), 통제 복종의 교육을 실시해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 2) 전교합창의 기회를 많이 가져라

이는 행사나 기념일에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다만 나는 좀 더 횟수를 늘려 성적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따라서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전교 아동들이 모두 모여 애국행진곡을 부르고 연맹가를 하나의 지휘봉 아래 정연하게 합창하기를 바란다. 1년에 1, 2회는 몇 개의 학교가 연합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합창한다면 통제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감, 국민감정의 함양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만약 가능하다면 당국에서 안을 정해 대강 불러야 할 곡명, 1주일에 최소한도의 횟수까지 규정해서 연초에 지시하고 조선 전체가 일제히 실행하도록 한다면 재미있을 것이다. 음악, 특히 전체합창이 인생에 미치는 감화력은 위대하다. 저 지나사변이 시작되어 황군 장병등이 각 역을 통과할 때 일장기를 흔들며 노래한 용장(勇壯)한 군가가 얼마나 병사들을, 또 일반 대중들을 감격케 했던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 높여 군가를 부른 감격은 내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또한 여기에 교가에 대한 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각 학교에서 교가를 선정하려는 희망이 있는 곳에서는 가사, 가곡을 총독부에 보내 검토를 받고 있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감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理想)을 말하자면 창가와 같이 일생토록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을 각 학교별로 가사를 달리고 가곡을 달리하여 지방색이 풍부하게 하는 일은, 서로 친애협력하고 굳게 단결하는 선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소학교 시절에도 중학교 시절에도 교가는 없었다. 기미가요(君が代<sup>81)</sup>)를 부르고 일본 육군을 노래하고 반딧불을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애향심이 부족하다든가 옛 벗에 대한 친근감이 희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는 차별적 방면에 착목하는 교가보다는 대동을 목표로 하는 전 국민이 애창해야 할 가곡을 부르게 하는 것이 국민적 의식을 기르고 대동단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일억의 국민들이 사할린의 절벽에서도 대만의 끝자락에서 불려도 감격할 만한 훌륭한 가곡을 부름으로써 진정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현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가 전폐(全廢)를 주장하는 바이다.

### 3) 국제적 체육 운동의 중시

이유는 전적으로 앞의 가창 항목과 마찬가지로다. 다만 가창과는 달리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따라서 2주일에 1회나 1개월에 2회 정도의 특정일을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 실시한다면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창과 달리 1개교 전부가 완전히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회의 라디오체조를 철저히 하고, 평소 같은 학년 또는 근접 학년의 연합체조 등으로 그 기초를 확실하게 양성해 둔다면 비교적 통제적인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학교 전체의 통제적 분위기를 만들어 일종의 교풍이 되어 교육상으로도 위대한 감화를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시간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수차례는 몇 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체육일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쇄신

### 1. 초등학교 쇄신 정책의 준용

이상으로 나는 주로 초등학교의 교육을 대상으로 논했는데, 그 쇄신 정책은 일부 수정해야 할 점을 제외하고 그대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에도 준용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만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고 교육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정신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덕화(德化)의 중요성은 중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국어'의 상용, 단체 훈련의 중요성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오늘날 부진의 대상은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두어야 한다. 다음 구절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씨의 저서 『황도일본의 세계화(皇道日本の世界化)』에 있는 문장이다.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중학 이하는 다소 형식적으로나마 교육의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중학 이상에 이르러서는 지식을 조금씩 끄집어내 전달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오늘

81) 일본 국가.

날 우리 일본정신이 가장 희박한 장소는 어딘가 하면 아마도 관립, 공립 고등학부일 것이다. 또 우리 일본정신이 가장 희박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러한 고등학부 출신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실이 없는 염주알 같이 개별적이어서 거의 염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학문은 국적을 망각하기 위한 학문이고 국가에 진체(盡瘁)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기타 고려할 점

### 1) 공민과 교과서의 개선과 교사 문제

중등학교에서 공민과가 담당하는 역할은 크다. 생도는 수신과목 이상으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공민과 교과서로는 부족하다. 법제·경제의 기초 지식과 사회기구의 일부를 공부함으로써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것들은 다분히 서양에서 수입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공민과의 내용은 역사, 지리, 법제, 경제, 종교 등 전반에 걸친 자료에서 선택하여 진정 하시다(橋田) 문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자아공리의 사상을 배척하고 국가봉사를 제일의로 하는 국민도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공민 교과서 어디에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폭격할 만한 자료가 담겨져 있던 말인가. 어디에 동아에서 국가생존권을 내세우고 맹진(猛進)해야 할 박력 있는 부분이 있던 말인가. 어디에 건국정신이 진정 만국에 비견할 바가 없는 훌륭한 이념이라는 설명이 있던 말인가. 반드시 이상적인 교과서를 편찬해서 애국의 정열에 불타는 이른바 국사형(國士型) 교유(教諭)로 하여금 담당케 해야 할 것이다. 즉 수신교사와 공민교사는 한 학교의 도덕적 부분의 지도 중심이 되어 배속장교 등 기타 일반 교유와 연락하고 발자(潑刺)한 교풍의 수립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이나 교두(教頭)<sup>82)</sup> 등 비교적 상석의 교사가 수신 공민에 흥미를 갖고 연구해서 몸소 통솔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정말 득직할 것이다.

### 2) 음악과는 상급생에게도 가르쳐라

음악은 인생에 소중한, 또 공동훈련의 내부적 결합요소라는 점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 이 중요한 과목을 중등학교 3학년까지만 하고 4, 5학년 …… 물론 사범학교나 여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 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그 정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야영노래가 장병들을 고무하고 <바다에 가면(우미유키바)>이 장엄하게 연주되고 있는 때에 감격하는 것은 비단 필자 혼자만의 주관이 아니다. 이런 위대한 힘을 지닌 과목에 1주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 전교생이 함께 합창해야 할 가곡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3학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가정에 피아노나 오르간을 갖고 있는 서양인의 가정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 특히 반도에서는 실업학교든 중학교든 최종학년까지 반드시 이 과목을 두길 바라는 바이다.

### 3) 외국어 시간의 단축

종래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실시된 영어라면 일부 천재적 우등생은 다르겠지만, 대다수 생도들은

82) 일제 강점기에, 소학교나 중학교의 수석(首席) 교사를 이르던 말.

사회생활의 실제에서도 영국인·미국인과의 대화에서도 원서 연구 등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귀중한 시간을 1주일에 10시간, 12시간이나 들여 공부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귀중한 시간을 이과나 수학 같은 과목에 돌린다면, 혹은 체육 운동 등으로 충당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리라 본다. 물론 어학을 폐지한다고 해도 지장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 불편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간 존치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이나 번역에 종사하려는 특수 희망자에게는 정과 외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해서 배우는 간접법에 의거하는 한 그 효과는 뻔하다. 또한 모든 중등학생이 서양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필요는 절대 없다. 장래에는 일본어를 세계어로까지 적어도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내에서는 국제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반도인'의 중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습득해야 할 중대 임무가 있다. 일국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몇 년이면 가능하다. 웅변이 되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어렵다고 한다. 반도 청년이 '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음성 언어 쪽은 아직도 더 수련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일본 내지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또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어까지 익혀야 한다면 생도들이 불쌍하다. 단어를 끼워 맞춰 외국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해도 문화 흡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만큼의 시간으로 상사(相似)이론이라도 생각하고 역학의 초보라도 연구해서 반도의 과학연구의 바탕이 되는 편이 더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문교 당국의 선처를 희망하는 바이다.

## 사립학교, 기타 각종학교의 교육쇄진

### 1. 황국신민의 육성에 협력하지 않는 학교의 기구 개혁 또는 폐지

외국인이 경영하는 학교나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사립학교 중에는 진정 황국신민의 육성에 협력하지 않는 학교가 있지는 않을까. 요즘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나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황국신민의 육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어' 상용을 통해 학교를 통일하고, 내선일체를 향한 태도를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 학교는 있을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민심을 자극하고 청소년의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장제스(蔣介石) 정권의 항일교육과 나치스 독일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아직 지나사변이 종말을 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중의 마음속에 스며든 항일교육의 힘을 뽑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이 전후의 피해를 극복하고 왕성한 기력으로 유럽의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용기도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서 생겨난 것이다. 반도의 사립학교 중에서는 아직 편협한 감정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학교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비상시에, 그리고 장래에 신속히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긴급한 시대에 직면해서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곧바로 교과목의 내용, 교사의 사상 등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개선해야 할 곳에는 기구의 개혁을 명령하고 인적 구성을 쇠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곳은 미련 없이 폐지해서 교육을 정지시켜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교육은 백해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지한 자는 그래도 낫다. 나쁜 방면을 교육받은 자는 처치 곤란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사립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걸쳐 너무 관대했다. 때문에 이익 보다는 도리어 폐해가 많았다. 좀 더 안팎으로 모두 우리는 강력한 정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 2. 서당 폐지를 단행하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다. 산간벽지에서 교육기관이 없는 시골 민중들에게는 동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곳에서는 과도기의 방편으로서 서당을 일정 기간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으므로 교사의 임명만큼은 군수나 지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서당은 물론 폐지해야 한다. 교육은 중대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당국이 의도하는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 교육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물론 조선 전체의 서당이 불건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전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낙관하지도 않는다. 현재는 공립소학교장이 시찰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1, 2회 시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건국정신의 현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로 교육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만큼은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든 구석구석까지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

나카조노 씨— 희천읍(熙川邑) 상(上)공립소학교장

(출전 : 中園源藏, 「半島教育革新論(四)—科學・音樂教育を振興せよ」, 『綠旗』 1941년 4월호, 85~96쪽)

## 6)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기원 2600년 축전음악을 말한다

오늘날의 일본은 한편으로 전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귀로 포성과 음악을 동시에 듣고, 눈으로 전차와 회화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국민이란 말인가. 황국(皇國)에서 태어난 자 모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특히 작년, 이번 성전(聖戰)이 한창일 때 맞이한 기원 이천육백년의 환희와 감격이 여전히 우리 국민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소 객관성을 띠고 보다 분명하게 과거의 사건들이 마치 두루마기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인식되고 있다.

이 광고(曠古)의 대업을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문화적 행사들이 거행되었는데, 물론 국내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음악 문화면에서 대단히 국제적인 교섭을 갖게 된 것은 이천육백년 봉축사업 중에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독자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맹방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4개국에서 당대의 거장들이 축전 관현악곡 4곡을 기진(寄進)한 일이다. 물론 전 세계의 열국으로부터 축사와 축전이 산더미처럼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례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큰 문화적 의의는 없다. 그러나 축전 음악의 기진은 단순한 의례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이러한 악곡을 고맙게 받고 그저 이를 사장시키는 데 그친다면 문제외겠지만, 오늘날의 일본 악단은 이러한 악곡을 사장할 정도로 빈약하지 않았다.

이천육백년 봉축회가 결연히 일어나 동부악단의 정예, 실로 160여 명의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작년



12월 도쿄, 오사카(大阪) 2대 도시에서 발표 연주회를 가진 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다. 도쿄 가부키자(歌舞伎座)의 발표회에는 황송하게도 각 미야(宮) 전하들께서 참석하셨고, 맹방의 외교단을 초청해 조야의 명사들 수천 명의 면전에서 연주했다. 그 성관(盛觀)은 아마 일본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또 하나의 사실은 동 봉축회의 앞선 아래 이 4곡을 훌륭하게 레코딩을 완성한 일이다. 이와 같은 대곡을 일본인의 손으로 레코드에 수록한 것도 공전의 일이며, 어쩌면 앞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행사야말로 우리나라 음악 문화사상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며, 강대한 의의를 부여할 만한 사안이다. 게다가 기진된 작곡자는 모두 당대의 일류 명장들이고, 이른바 근대음악의 정수에 도달한 음악 도인들이다. 따라서 그 기교와 해석이라는 점에서 모두 지난할 뿐만 아니라 관현악의 조직에 있어서도 매우 방대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모두 정복하고 모두 일본인의 손으로 연주하고 레코딩한 것은 우리 악단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널리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자랑이 되어 마땅하다. 또한 이로써 우리나라 음악 문화의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이 연주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라디오와 레코드로 들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인상의 대강을 말하는 것도 그리 무익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 축전 음악(독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작)

슈트라우스는 독일의 지보(至寶)로서 세계에 칭송을 받고 있는 명가이다. 1864년 뮌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올해 77세의 연령이다. 현재는 일체의 음악적 활동을 중지하고 고향 뮌헨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 노대가가 일본의 천황폐하를 위한 일이라며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일어나 펜을 든 것이 바로 이 곡이다. 원래 슈트라우스 옹은 가장 급진적인 작가로, 정말 의표를 찌르는 작곡을 해서 세인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축전 음악도 어김없이 곡의 모두(冒頭)에 14개의 종을 사용함으로써 축의를 표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이 종을 구하는 데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 궁하면 통한다더니, 신 교향악단의 타악기의 명수 고모리 소타로(小森宗太郎) 씨가 착안한 것이 절에 있는 종이다. 그래서 그는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주변의 유명한 사찰을 돌아다니며 쓰루미(鶴見)의 총지사(總持寺), 이케가미(池上)의 본문사(本門寺), 오토와(音羽)의 호국사(護國寺), 아사쿠사(淺草)의 묘음사(妙音寺), 시바(芝)의 증상사(増上寺) 등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교섭을 한 끝에 마침내 문외불출(門外不出)의 종, 그것도 슈트라우스 옹이 기도한 음률의 종 14개를 모아 연주에 사용했다는 눈물겨운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슈트라우스 옹도 독일 그라마폰 회사의 간청으로 직접 일어나 지휘봉을 잡고 레코딩을 하기로 했지만, 뮌헨에서도 역시 종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트라우토니움이라는 전자악기를 종 대신 사용했는데, 지금 그 두 개의 레코딩을 들으며 비교해 보면, 일본 쪽이 훨씬 훌륭한 효과를 올리고 있음은 정겨운 아이러니이다. 슈트라우스 옹도 지금쯤 일본의 레코드를 듣고 뮌헨에서 쓴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다.

곡의 내용은 하나의 교향시이다. 먼저 축전의 종이 울려 퍼지고 그 종의 주제가 다양한 악기로 이행

되어 점차 변화하고 발전해서 이천육백년을 맞이한 기쁨이 일본국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하다. 그리고 무언선율(無焉旋律)을 넣어 이천육백년에 걸쳐 무궁함을 우의(寓意)하고 나아가 팡파레를 부가하여 한층 힘을 싣고 가장 근대적인 수법으로 숨 실 틈도 주지 않는 행진 속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힘과 열을 느끼게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축전 악곡 중의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교향곡(헝가리, 베레슈 산도르 작)

이 악곡은 3악장으로 이루어진 교향곡이다. 이는 축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곡상(曲想)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보낼 경우 반드시 그 축사와 직접적인 교섭이 있는 것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축의를 표하는 정신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도 크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산도르 씨는 다른 세 명과 비교해서 가장 젊은 만큼 그 곡상도 청신하고 발랄하고, 게다가 정열적이며, 헝가리의 무곡 풍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 교향곡(이탈리아, 일데브란도 피체티 작)

피체티는 현대 이탈리아의 거장으로 1880년 밀라노에서 태어나 현재 밀라노의 음악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이 곡은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으로, 레코드 7장 13면이라는 축전 음악곡 중에서 가장 긴 것이다. 이와 같은 대작을 우리 일본을 위한 노력에 대해 특별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탈리아는 노래의 나라이다. 시의 나라이다. …… 과연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일본의 기미가요(君が代)<sup>83)</sup>의 선율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테마가 각 악장을 통해 나타나 있고, 그것을 기초로 다양한 악기로 이주(移奏) 발전하는 수법이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 그 테마가 우리에게 매우 그리움과 애착을 느끼게 하고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필자는 이 테마를 기미가요 선율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가 그런 의도에서 작곡했다고 한다면 일본국의 발전성을 이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상된다. 거의 1시간이나 걸리는 대곡이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이 곡이 끝을 알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축전 서곡(프랑스, 자크 이베르 작)

서곡은 원래 가극의 개장악인데, 현재는 가극을 떠나 독립된 악곡에 서곡이라는 이름을 붙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우 자유로운 형식 아래 아무런 장애 없이 만들 수 있다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본 곡은 이런 형식을 따른 것으로, 슈트라우스처럼 축곡을 표징(表徵)하는 특수한 악기의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출발이 그야말로 축전다운 느낌을 갖고 있다. 또 화려한 선율이 잇따라 전개되는

---

83) 일본 국가.

데, 역시 프랑스의 찬란한 문화를 느끼게 한다. 특히 이베르는 순수 파리 출신으로 1890년에 태어나 현재 프랑스의 아카데미음악원의 원장직에 있는 사람인데, 홀로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듯하다.

(1941.5.4)

(오바 씨—경성 제1고등여학교 교유)

〈출전 : 大場勇之助, 『紀元二千六百年 祝典音樂を語る』, 『綠旗』, 1941년 6월호, 108~111쪽〉

## 7) 데라모토 유타카(寺本寛), 시국수상 - 음악추방

교만과 광조(狂燥)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재즈'가 태평양의 파도를 넘어 저 요란한 소음은 뒤엉킨 혼란과 어지러운 현혹을 청소년 남녀의 생활에 주었을 뿐이다. 마치 고귀한 일본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 젊은이들의 부박경조(浮薄輕佻)한 날들이 색전등에 비치는 찻집 풍경을 그리고, 비정조적인 탭댄스의 공허한 구두소리가 저 나약한 신경쇠약적 증상을 고양시켰다.

그것은 마술과도 같다. 새로운 세기의 음률이라고 자랑하는 저 수많은 불협화음의 연속과 폭발은 모하게도 의미도 없고 젊은 마음을 현혹하고 취하게 했다. 그들은 몽유병자 같이 저 찬란함 속에 방황하고 일체의 숭고한 전통을 망각하고 심취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은가—게다가 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두려운 전율은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마술과도 같은 이 화려한 매력이야말로 미·영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파괴 침략의 비겁한 상투적인 수단이다.

외관적으로 비치는 찬란한 화려함을 지닌 것이 이른바 미·영이 자랑하는 '문화'이다. 그들은 이 문화의 미과(美果)로 국민의 젊은 마음을 취하게 하고 그 건전함을 빼앗아 국가를 쇠망의 저편으로 내몰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민지적 국가 건설을 노리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비력(非力)한 저들의 무기는 이 비열한 기만과 모략이라는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

오랫동안 메이지(明治) 이래의 늪튼한 일본의 눈부시고 급격한 국가적인 신장 속에서 뿌리 깊게 배양된 미·영 문화의 불결한 해독이 얼마나 많은 건전한 일본정신을 파먹고 상처를 주었는지는 그 급격한 신장 발달 도상에서 종종 현저한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문화는 미·영 의존의 문화로 변한 느낌마저 있었다. 다음 세대를 젊어지고 새로운 사회의 중견이 되어야 할 청소년은 그 사상과 생활의 모든 것을 시종일관 부박과 경조와 화미(華美)의 피상적인 미·영의 모방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축시킨 두발을 끝을 예리하게 삼각형으로 자르고 핑크색으로 물들인 손톱의 손으로 쓸어 올리고, 거무죽죽한 눈두덩이 속의 속눈썹을 유독 과장해서 펼치고, 새빨간 립스틱의 짙은 입술을 움직여 부르는 아르헨티나의 퇴폐적인 가사에 망아적(忘我的)인 향락을 즐기는 천박한 모습은 그것이 그대로 일본의 모습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형식적인 생활양식상에서도 나아가서는 정신문화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미·영 문화의 나쁜 영향 감화를 받아 전통적인 일본 문화가 상당히 침식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상적인 침략—저 무서운 마수에 놀아나면서 과거 일본은 그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던가. 게다가 미·영의 사상적인 침략은 공산주의적인 급격한 것이 아니기에, 표면적으로 붙잡을 수도 없는 악마적인 존재였다. 오랜 ‘시간’의 경과로 서서히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들고 마음을 마비시키고 마침내 그 무서운 모략의 효과와 실적을 드러내며 침략의 목적을 수행하려 한다. 종교에, 문학에, 미술에, 연예에, 그리고 음악에 그 침략에 사용되는 무기는 모든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미·영 문화의 배격은 대동아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일어난 늪음하고 용감한 외침이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라고 있던 미·영 문화의 ‘악(惡)’과 ‘추(醜)’를 뿌리째 뽑아내고 건전한 일본 문화 본연의 올바른 모습으로 되돌아갈 날이 온 것이다.

미·영 음악의 연주와 그 레코드의 사용금지가 선언되어 그것이 실현되기에 이른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의미있게 분명하다.

국민생활에 미친 미·영 음악의 해독과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미·영 음악 그 자체는 매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의 가치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뛰어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숫자에서 보더라도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추방당해 모습을 감추었다고 해서 아무런 지장도 느끼지 않는다. 특히 순음악 부분에서는 거의 완전히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영국의 작곡가로서 다소나마 우리나라에 그 작품이 소개되고 그 이름이 전해진 것을 보더라도 퍼셀, 샬리번, 엘가, 그렌차, 텔리우스, 윌리엄스, 포스터, 쿠센 등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지만, 정작 일반 음악 애호가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터이고, 겨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버트, 맥도웰, 카펜터, 스폴딩 등의 미국 작곡가 이름은 극히 일부 사람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지만, 그 작품은 연주된 적도 없을 정도로 순음악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미·영의 전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 ‘음악의 빈곤’은 따라서 이번 음악추방에 의해서도 우리 악단이나 일반 애호가들에게 약간의 쓸쓸함도 주지 않는다.

미·영 음악이라 하면 거의 경음악 영역에만 한정된, 작품적 가치에서 보더라도 매우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음악의 성질상 그것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강대한 보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생활 문화에 대한 파급력은 경시할 수 없다.

행진곡의 왕이라 불리는 수자<sup>84)</sup>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넓고 또 깊다. 일상의 여가 시간에 휘파람으로 부는 것에도 〈미 중의 미〉가 있고,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나 〈사관후보생〉의 선율은 너무나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곡들이 학교의 창문에서 흘러나오고 거리의 찻집 스피커에서 들리고, 연주회의 곡목 속에 선택되어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전하고 일종의 감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전력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시국에 적개심의 환기와 고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반성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적국의 행진곡으로 사기를 고양시킨다는 것도 큰 모순이다. 가령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해도 사용될 리도 없고, 사실 오히려 그보다 뛰어난 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곡 그 자체에 가 조금 익숙하

84) John Philip Sousa, 1854~1932. 미국의 작곡가.

다고 해도 미련 없이 펼쳐버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흙 송으로서 오랫동안 친숙한 포스터<sup>85)</sup>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오, 스잔나〉, 〈애니 로리〉, 〈그리운 센터키〉, 〈올드 블랙 조〉, 〈스와니 강〉, 〈양키 두들〉, 〈테이킹 로드〉 등은 너무나 많이 애창된 목가적 서정가곡으로서 깊은 친근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감미로운 감상에 지금은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행진곡의 수자, 서정적인 포스터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미국 음악으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음악적으로 아무런 재능도 갖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의 목가적인 음률을 보더라도 마치 그것은 그들 자신들 속에서 솟아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음률 자체는 그들이 비하고 또 그 국토와 자유를 빼앗은 미 본토 원주민인 흑인 입에서 옛날부터 전해진 민속적인 선율을 노골적으로 훔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음악은 그들이 “세기의 음악”이라고 자랑하는 유일한 ‘재즈 음악’이 있을 뿐이다.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음감의 혼란과 불쾌한 불협화음의 연속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음과 음의 중복으로 음악에 깊은 맛과 중후한 맛을 주고, 당돌한 화음의 구성(叫聲)과 조발(燥發)로 불협화의 협화를 찾고자 하는 마비된 말초신경의 공허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음악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음악적인 음악이다.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퇴폐의 표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것이 표면적으로 화려하고 찬란해도 그저 싸움과 광조로 시종일관하는 재즈에 음악으로서의 올바른 의미에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교만에 대해 강한 반감과 저조(低調)에 대한 모멸을 느낄 뿐이다. 엄정한 의미에서의 음악으로서는 물론 생각할 수 없는데, ‘음의 나열’인 재즈는 요컨대 즉흥적인 제레음악과 다를 바 없는 저속한 존재이고, 이러한 선정적인 것에 대해 정열을 느끼는 일조차 고귀하고 건전한 일본정신에 대한 큰 모독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그런 저속한 것을 찬미하고 고귀한 우리 생활문화 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순수한 독자적인 음악을 갖고 있다. 신장하는 신일본 음악의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미·영 음악의 추방이야말로 미·영 문화가 초래하는 갖가지 악덕의 배경이며 건전한 일본정신으로의 환원이고 내일을 향한 늠름한 발족이다. 불건전한 선정음악의 소실로 우리는 다시 건전한 생활문화의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자.

음악 애호가들이여, 함부로 한탄하는 것을 그치도록 하라.

순정한 음악은 그로 인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 여전히 많은 뛰어난 것이 많이 남아 있다.

게르만의 피로 불타는 바그너의 정열, 불세출이라고까지 불린 베토벤, 모짜르트의 단려(端麗), 견실한 하이든, 헨델의 향기로운 고전—그러한 순정 독일 음악이, 쇼팽, 리스트의 뛰어난 재능이,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의 아름다운 가요곡이, 혹은 로시니, 도니제티, 베르디 등 기타 수많은 천재를 낳은 19세기 이래의 전통에 빛나는 이탈리아의 가곡이, 그리고 또 세자르 프랑크를 시조로 하는 생상스와 비제의

85) Stephen Collins Foster, 1826~1864. 미국의 작곡가. 미국의 전원 풍경과 남부 흑인을 소재로 한 많은 가곡을 작곡하였다.

프랑스 음악이 눈부실 정도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또한 이로써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늘날의 일본 음악의 신장에 더욱 강한 박차를 가하게 되고 빛나는 미래를 약속받았음을 도리어 기뻐하는 바이다.

교활한 지혜와 거짓이 전부인 미·영 문화의 잔재를 모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정화이며, 생활을 정화함으로써 국력은 충실해지고 전력은 강화된다.

〈출전 : 寺本寬, 「時局隨想 - 音樂追放」, 『朝鮮行政』, 1943년 3월호, 34~36쪽〉

## 8) 아메미야 후미(雨宮史), 승리하기 위한 후생음악

지난번 본지에 「반도에서의 후생음악의 문제」를 내걸고 전시생활에서의 후생음악의 절대성을 규명했다. 청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생려(金生麗) 씨와 뜻을 같이하는 음악가들의 활동은 근년의 국민음악운동의 효시로서 이 지면을 빌려 한마디 하고자 한다.

그들이 작년에 행한 활동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건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들이 모토로 삼는 “국민의 사기 고무와 근로자의 위안을 위한 음악”의 수립을 위해 모든 개인적인 감정 등을 포기하고 정신(挺身)한 공적은 크다.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곡목의 선정, 연예의 좋고 나쁨에 대해 운운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승리하기 위한 생활소’로서의 음악, 전시국민의 사기를 고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운율이면 충분하다.

예술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고답적인 것보다 더 생활적인 것, 국민적인 것이면 충분하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서양음악의 예술성이라든가 순수함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선 이겨야 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마음의 양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양식으로서 아름다운 한 곡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들음으로써 전력증강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신념에 살고 신념을 결집해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바야흐로 시인은 서재를 벗어나 시중에 나가서 애국의 지정(至情)을 명랑하게 국민과 더불어 노래하고 연극인은 산간벽지에 정신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세기의 여 명을 연기하고 있다.

이 얼마나 풍만한 민족의 가성(歌聲)인가. 음악의 경우도 그러하다. 화려한 스테이지에서 고답적인 곡목을 한정된 관객을 상대로 부르기보다 순진한 근로전사 앞에 서서 유치해도 좋으니 국민적 애정을 담아 노래하면 된다.

아무리 예술적으로 고상한 것이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여하는 의의는 희박하다.

어떤 장소라도 좋다.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음악인으로서 국가 이념에 눈뜨고 승리하기 위한 근로자 위안의 음악이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후생실내악단이 작년에 남긴 공적은 크다.

바라건대 올해도 싸울 것을 잊지 말고 이루어내기를 기원한다. 음악가여, 골방에서 벗어나라.

〈출전 : 雨宮史, 「勝ち抜く爲の厚生音楽」, 『文化朝鮮』, 1944년 2월호, 44~46쪽〉

## 9) 다케하라 생(たけにら生), 음악도 군수품

“음악은 군수품이다”라는 말이 최근 일본 내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가성(歌聲)뿐만 아니라 현재 내지 악단을 전망할 때 내용, 의욕을 비롯한 기타 모든 점에서 이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는 그야말로 악단인의 시국에 대한 자각 및 그들의 노력의 결정에 다름 아니다. 음악을 들은 직후의 산업전사의 일의 능률이 듣지 않을 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은 단적으로 음악(건전하고 명량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적절한 이용법의 연구에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새삼 여기서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결전 단계에 들어선 이때, 국가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음악에서도 그러하다. 음악을 위한 음악, 향락을 위한 음악, 예술이라는 탐 안에 간혀 독선적인 그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음악 또한 그 좋은 의미에서의 사회성, 정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가총력전의 일단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반도 악단의 과거를 되돌아 보건대, 걸어온 길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邪道)이다. 과거의 악단인에게 한 조각의 음악적 양심이 있었던가. 허무적이고 퇴폐적인 곡을 만드는 일에 전신했고, 대중들과 영합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과연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까. 다시 말해 이런 종류의 유행가는 사회에 범람하고 청소년의 자포자기를 조장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음악의 사명은 정조의 도야와 민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종래는 이런 사명과 역행하는 느낌을 주었다. 새삼 과거의 잘못을 따져도 소용없다. 다만 앞으로 악단인의 반성 및 분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서 산업전사의 예를 인용할 것도 없이 진정 건전한 음악은 모든 방면에서 요망 받고 있다. 그날 노동의 피로를 음악으로 푸는 것은 한 모금의 청량제와도 같고, 이는 또 내일의 직장에서 소모해야 할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음악이 지닌 사회성, 정치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시국하에서의 음악인의 책무의 중대성을 통감하는 동시에, 그 올바른 방향으로의 매진을 간절히 바란다. 부디 현재의 악단의 사명을 자각하여 일에 대한 정열을 국가가 요구하는 데 집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필자는 모 잡지 기자)

〈출전 : たけにら生, 「音樂も軍需品」, 『朝鮮公論』, 1944년 6월호, 86쪽〉

## 5. 미술

### 1) 결전미술의 동향(좌담)

(서양화) 아마구치 나가오(山口長男) · 미키 히로시(三木弘)

도오다 가즈오(遠田運雄) · 히요시 마모루(日吉守)

(일본화) 가타야마 히로시(片山坦)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조 각) 도바리 유키오(戸張幸男)

(사 회)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 미술계의 새로운 동향

데라모토 : 작년 총후미술전(銃後美術展), 올해 결전미술전(決戰美術展)의 개최 등 조선의 미술계도 여러 의미에서 전시적(戰時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미술계의 장래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전시하 국민운동에 대한 미술계의 역할 등을 여쭙고 싶군요.

아마구치 : 현재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가 표면에서 내용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라모토 : 총후미술전과 이번 결전미술전에서 장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없습니까? 대개 총후를 그리거나 병사들을 그린 것이 많고 소재적으로는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서양화 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도오다 : 대체로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라는 것은 물론 일본 내지에서도 아직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조선의 화가들에게 바라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조선 화가들의 화가적 지위는 일본 내지 중심이고 항상 그 중심의 부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데라모토 : 일본화 쪽은 어떻습니까?

가타야마 : 일본화는 대체로 오랜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고, 또 사적인 개인의 감정이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현실을 직접 파악해야 할 때 변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예술가로서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회화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제일선에 나서서 체험한다면 또 다른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국 그리고는 있어도 제대로 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포스터 같은 선전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해석으로 다루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전람회에서 본다면 상당히 소재적으로도 효과를 다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다는 점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변화는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에구치 : 전망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이번 결전미술은 작가 입장에서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생각해 볼만한 것이라고 할까요, 일단 하나의 단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작가도 현재의 전쟁이라는 것을 대체로 상당히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적당한가 하는 점보다도 작가가 얼마나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히 그런 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표현 방법에도 자연히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지에서도 성전미술전(聖戰美術展)의 초기에는 매우 음침하고 비장한 장면을 그리고자 열심히 노력한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 경향은 다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전쟁관은 그렇게 음침하고



비장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전쟁을 보더라도 매우 명량하고 용장(勇壯)했지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최근 애투 섬을 보더라도 대장 이하 피범벅이 되어서 용장하게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결코 야수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벚꽃이 지는 것 같은 청결함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일본인의 강인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박한 싸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본인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그런 일본인의 전쟁관에 입각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데라모토 : 조각 쪽은 어떻습니까?

도바리 : 조선전(鮮展)에서 본다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모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점은 대화성(大和聖)이라는 연구단체를 갖고 있으니까.

## 수법에 대하여

데라모토 : 소재는 일단 변했지만, 수법에 대해서도 한 마디.

도오다 : 과거의 미술가를 생각하면 전쟁이 한창일 때는 훌륭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어요. 전쟁화 걸작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뒤 나오죠. 고안(弘安)전쟁<sup>86)</sup>을 다룬 그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증은 제각각이지만 제법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붉은 비단 갑옷을 입고 초진(初陳)의 젊은 무사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현대 젊은 장교들이 얼굴을 붉히고 처음 보는 적에 대해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것을 느끼는 모습과 대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전에 개최된 성전미술전에는 병사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매우 목이 말라 물이 고여 있는 곳의 물을 마시고 있고 그 얼굴이 물에 비치는 그림이었죠.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곳 의전(醫專)의 교련 선생으로 있던 이마무라(今村) 씨는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화가였는데, 일·러전쟁 때의 그림으로 눈에 부상을 입은 병사가 눈에 붕대를 감고 등에 부상병을 업고 후퇴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훌륭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에구치 : 화가에게 한 번 □□교련을 시켜서 거기서 파악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정지된 □물이 되고 말았어요.

데라모토 : 문학 쪽에서도 특히 조선의 작가는 이런 때에 문학의 방향전환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쓸 것인지, 전쟁에 대해 쓰려고 해도 한 번도 전쟁터에 간 적이 없고 또 당분간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부디 전쟁의 제일선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데라모토 : 조각에 대한 장래의 방향에 대해서는…….

도바리 : 석고가 사라지면 시멘트, 목재 등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칠식(漆喰)조각을 하면 됩니다.

도오다 : 도바리 군은 화석암에 조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바리 : 역시 목포석 같은 사석(砂石)이 있는데, 그런 게 좋아요. 그것이라면 □□도 걸리니까 말입니다.

86) 1281년(弘安 4) 몽고군의 침략에 따른 전쟁.

데라모토 : 일본 내지에서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에서 크게 조각을 거론해서 건민운동(健民運動) 때에 한편으로 시인을 동원해서 알몸의 늪흔한 조각에 시를 첨부해서 전람회 등에 내놓은 모양입니다. 전시하에 몸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도바리 : 우리도 6명 정도 있으니 합작해서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라모토 :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것이어야 할 겁니다.

도바리 : 그렇죠. 그러나 칠식이나 시멘트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 전시하의 미술 자재

데라모토 : 방금 새로운 자재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사용한다거나 특수한 캔버스나 판을 사용하고 틀도 금색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고안을 한다는 등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도오다 : 제 동료 중에 아는 사람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도구의 거의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 쪽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판자에 그리는 것은 있었어요. 또 벽에도 그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저는 건축물에 잇따라 그린 적도 있어요.

데라모토 : 기름이 없어서 수채화를 그리는 경우는…….

히요시 : 저는 제 취미로 젊었을 때부터 하고 있는데, 띠 같은 데 그리고 있죠. 자재라는 측면에서는 도리어 유화보다는 수채화 쪽이 어렵지 않을까요.

야마구치 : 중요한 것은 자재나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본래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 본래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사물의 부자유도 해결합니다. 자재 등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궁리할 수 있죠.

### 전람회의 형식

데라모토 : 전람회 형식은 시국이 점차 절박해지면 이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 내지에서는 전시하의 전람회는 중지하지는, 문전(文展)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람회를 해도 공습을 받게 되면 보러 갈 수 없어요. 지금 산업전사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쪽에서 음악 등을 들고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술도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손쉽게 어디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도오다 : 최근 제가 알고 있는 판화가가 인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내지에서는 □□가가 하나로 뭉쳐 잠수함에 기부한다고 해서 왕성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도저히 여유가 없으며 결전미술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잠수함이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국에서도 순회전람회라는 것을 하면서 각 공장과 직장을 도는 것은 좋은 일이라 봅니다.

데라모토 : 그런 특수한 방법을 취하면 수송도 하기 쉽겠지만, 보통 전람회에서는 운반이 어렵지 않을까요.

## 지도적인 것과 감상적인 것

데라모토 : 만주국에서는 영화가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는 계민영화(啓民映畫)로 이것은 선전영화이자 시국영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민영화(娛民映畫)라는 것으로 즐기는 쪽의 영화입니다. 이 두 가지로 실행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심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적어도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까지 전쟁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시각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히요시 : 험한 현 시국하에서는 미술 부문도 전력증강의 국가 대방침에 협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전의, 적개심의 고양이나 근로, 증산의 격려 등의 방면에 여러 가지로 미술이 이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술도 결전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작가가 나아가야 할 본도(本道)는 정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종래의 미술, 가령 이를 평화미술이라고 해 둡시다. 이 방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중지 상태로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논의할 만한 문제입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부상병들을 위문하는 데도 전쟁미술적인 것보다는 꽃이나 풍경 등을 소재로 그린 것이 도리어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는 총후 대중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인심에 윤기를 주는 일이 미술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전력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를 공리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데라모토 : 열심히 일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혹은 음악을 들으러 가면 어디를 가든 전쟁, 전쟁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내일의 전력을 기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친절운동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기저기 뼈라를 붙이고, 개중에 친절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왜 친절하지 않느냐며 주먹이라도 한 방 먹이는 일이 생긴다면 도리어 불친절해집니다. 우체국 창구에 가면 '친절'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죠. 그렇지만 담당자가 불친절하면 이런 종이가 붙여두고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보다도 스님이나 목사의 말을 듣는 편이 훨씬 친절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 문제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타야마 : 이전에 저는 군의 부탁을 받고 군대우편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그림도 있고 총후의 여러 활동을 그린 그림도 있는데, 단순히 발달한 젊은 아가씨만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들고 가서 보여주었더니 결국 병사들은 젊은 아가씨를 그린 그림이 좋다며, 총후 부인들의 활동을 그린 것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습시다. 전쟁터의 병사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곧장 주머니에 넣어 항상 갖고 다니지만, 전쟁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어서 별로 그런 그림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산업전사의 위문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키 : 그건 평시와 전시가 다릅니다. 어째서 노몬한 벚꽃이나 애투 벚꽃을 병사들이 발견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러전쟁 무렵의 지요다함(千代田艦) 승조원이 발견한 꽃이 오늘날에도 재배되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직관이 작동하는 것이고, 지금 친절운동 같은 것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 모두 친절해진다면 친절운동의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충의라는 것도 모두 충의를 다하게 된다면 굳이 충의를 다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군대에 관련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현재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미술의 문제는 자재에 관한 것이죠. 자재에 기초를 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이는 절대로 타락입니다. 자재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물자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리 전쟁의 그림을 그려도 전쟁과 관련이 없죠. 도리어 꽃을 그려 병사들을 위로하는 편이 훨씬 충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술의 범위는 이동만화 같이 저속하고 들어가기 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고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쉽고 저속한 것은 주로 격려하는 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만화 같은 것은 사람을 웃게 하고 위로하는 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유화나 일본화 같은 것으로 기록화 이외에 그런 것을 무리해서 반복해서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의 치열한, 가령 도쿄처럼 오늘 내일 폭격을 받는 것을 각오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그림의 감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좋다고 보지만, 대체로 감상자의 범위라는 것이 높아질 테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윤기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찾고 있죠. 그것을 종전 같은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인간성이라든가 문화라는 것을 차분한 곳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왼손으로는 용맹한 유화를 그려도 오른손으로는 저속한 것을 그려 자재 획득의 원조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국가가 나아가는 길을 보고 자재는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는 나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갖가지 명목을 내세우는 것은 그저 편승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전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방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수송에도 가장 편리하고 또 아마추어라도 다룰 수 있는, 굳이 여기서 먼저 나설 필요도 없이 공장의 담당자나 학교 선생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이동전 같은 것을 연구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미술가의 임무

데라모토 :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미술가나 소설가나 음악가나 개인으로서의 창작활동을 국가 목적을 위해 연성(鍊成)해야 한다는 측면, 다른 하나는 대중에 대한 문화운동, 대중에 대한 문화의 침투, 다시 말해 사회교육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운동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미술이나 총후미술전 등이 열려 화가들의 창작 방면의 연성이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전시하의 미술을 통한 문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미술계 분들이 정신(挺身)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키 : 미술가협회 내의 만화나 포스터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지도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순수 미술가가 아니면 무리라고 봅니다. 만화가 중에서 만화는 잘 그려도 글에는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 그림이 전황과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것의 기획 기관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에구치 :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가령 꽃 그림이라든가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제공해서 위안을

준다는 견해도 있지만, 예컨대 여기에 매우 훌륭한 전쟁회화가 있다고 합시다. 아마추어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게 병사들의 그림을 그려도 그것을 민중이 이해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 그림의 역할이 끝난다고 한다면 미술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쟁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거기서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화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론을 말하자면 병사들에게 매우 □□한 전쟁 그림을 보여주어도 병사들이 거기서 위안을 받는 회화가 된다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가타야마 : 민중이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에구치 : 레벨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키 : 그것이 본질적으로 전쟁화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내용이 된다는 의미죠. 그럴 경우 꽃 그림 이상의 것이 됩니다.

에구치 : 지금 문화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지나치게 이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키 :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초를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을 하지 않으면 □□□□ 가장 큰 원흉입니다.

에구치 : 지금 꽃 그림이나 풍경을 그린 것은 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민중이 느끼게 된 것도 지도자 계급의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키 : 얼굴을 그리는 것만 해도 전쟁을 위해 신경쇠약적인 표정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전쟁을 두려워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에구치 : 독일 잡지 시그날에는 두 가지의 구별을 정말 선명하게 하고 있죠. 중간부터 나머지 절반은 나체 사진이나 나체화를 가득 게재하고 있어요.

미키 : 작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창에 꽃을 놓으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드디어 독일이 장기전에 돌입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죠. 아무래도 신경쇠약 계통에 빠지기 쉬울 테니, 그런 점을 대비하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구치 : 좀 더 꾸준하고 당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키 : 아무래도 당초의 전과(戰果)로 국민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전계몽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에구치 : 또 여러 가지 일에 빈번히 최대급의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났어요. 여러 방면에서 그런 점에서 불행을 겪고 있죠.

미키 : 지도자 계급이 바라고 있는 것에 부응하는 것은 도리어 미술단체 쪽이 깊고 강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요.

야마구치 : 종래 미술인이라고 해도 단지 습관적으로 굽적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죠. 더 진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더 부딪쳐야 합니다. 거기에 본통(本統)의 힘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도 미치죠. 예술가는 항상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예술가의 심경은 항상 결전생활이죠. 늘 전쟁을 해야 하고, □을 내던져야 합니다. 단지 소재나 자재 등의 손

목만 전환한다는 단순한 편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더욱 예술의 본도(本道)에 파고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결전미술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데라모토 :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전 : 「決戰美術の動向」, 『國民文學』 제4권 제5호, 1944년 5월, 58~63쪽〉

## Ⅱ. 문예계의 친일협력 조직들





## 1.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 1) 총력전의 문화부대(기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최초의 문화부회는 지난 29일 오후 두 시부터 부내 남미창정(南米倉町) 사무실에서 가와기시(川岸) 총장, 미하시(三橋), 야나베(矢鍋), 오테아라이(御手洗) 각 부장과 부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바 문화위원을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문화위원은 금후 문화부 사업의 발전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다시 추가할 방침이며 각 부문의 연락위원회는 이 문화위원 가운데서 선정할 터라고 한다.

그리고 1941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심의가 진행된 바 시국에 적응토록 중점주의로서 편성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동 4시 40분쯤 회의를 끝마쳤다. (하략)

〈출전 : 「總力戰의 文化部隊-昨日 各方面을 網羅하여 季員 六十八名選定」, 『매일신보』, 1941년 1월 30일〉

### 2) 문화익찬의 반도체제 - 금후 문화부 활동을 중심으로 1~9(좌담)

출석자

국민총력 문화부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성대(城大) 교수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문화부 위원 김억(金億)

문화부 참사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삼천리사장 김동환(金東煥)

문화부 마츠다 레이코(松田黎光)

보전(普傳) 교수 유진오(俞鎭午)

영화인협회장 안전진웅(安田辰雄)<sup>1)</sup>

연극협회장 목산서구(牧山瑞求)<sup>2)</sup>

문화부 다나가 하쓰오(田中初夫)

(無順)

본사측

금본(金本)<sup>3)</sup> 상무, 백(白)<sup>4)</sup> 학예부장, 홍(洪) 기자

1) 안종화(安鍾和)의 창씨명.

2)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금본 본사 상무 : 오늘은 다른 날과 달라 일기도 매우 춥고 겹하여 일상 ㅁㅁ에 다망하심에 불구하고 총력연맹의 야나베 문화부장을 비롯하여 여러분께서 출석하시어 여기에 좌담회를 개최케 된 것은 매일신보사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하여 마치 아니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먼젓번 총력연맹에 문화부가 창설됨을 따라 야나베 선생이 문화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벌써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바 이오며 아울러 일반국민이 이 문화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바 기대는 실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조선 유일의 언론신문으로서 총력연맹의 문화부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일익을 분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책임을 더욱이 깊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 본지는 문화부와 협력 또는 신뢰하에 어떠한 방책을 세워 나아가야 좋을까 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의 뜻 깊은 ㅁㅁ을 비는 바이오니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 본사 학예부장 : 지금 본사 금본 상무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맹 문화부의 금후의 활동에 있어 본사가 의례히 그 사명의 일익을 분담하게 되는데 특히 본사 학예부로 하여금 금후 문화부 일의 시중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좌담회부터가 문화부의 시중을 하는 의미에서 개최하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선 말씀을 청하는 것은 문화부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새로 탄생된 문화부의 존재가 딱 막연해서 그 일의 한계 또는 일의 성질들이 확연치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문화부에 참가하고 있는 문화인들로 봐도 문화부의 일은 대단히 막연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선에서만 그럴 뿐이 아니라 내지의 익찬회(翼贊會)의 문화부에 대해서 일반문화인들의 비판도 그 문화의 한계가 막연하다고 하는 것인 듯합니다.

이제부터 문화부가 어떤 주안(主眼)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또는 문화부의 의의, 문화부의 사명, 이런 문화부의 전면적 활동범위와 또는 일방 점차 중대성을 더해오고 있는 이 시국에 처하여 문화부로서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게 되는지 그런 것을 일반 국민 앞에 알리는 것이 문화부의 한 급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절실히 희망하옵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하여 야나베 문화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야나베 국민총력 문화부장 : 국민총력연맹 문화부가 대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 나아가는가 이러한 것이 다소 막연하여 그것을 확연히 해달라는 것이 일반국민의 희망이라는 것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문화부라는 것에 준비든지 방침이든지 완전히 정돈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명확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양해를 비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부를 어떻게 진행시킬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금 문화부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여러 번 문화부 회의라는 회합을 열어 대체의 강목(綱目)을 심의 중입니다 하나 이 심의의 만전을 기하려면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밑에 문화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 요전번에 각 방면 문화

3) 김동진(金東進).

4) 백철(白鐵).

인을 망라하여 문화부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문화부 위원은 금후 문화부의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음악에 대한 것은 음악가, 영화에 관한 것은 영화인, 미술에 관한 것은 미술가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전문적인 방면에 맡기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회(連絡會)를 여는 등 각각 전문적 부문에 걸쳐 협의해 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68명이란 위원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움직임을 좀더 명확히 세상 사람에게 지시하기에는 좀 더 일수(日數)가 걸릴 것입니다. 다음 문화부로서 어떠한 방침으로 나아가는가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지만 총력연맹본부에서 그 실천요강을 정확히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려고 생각이올시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한 이 일을 따라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2일)

## 2

**야나베 문화부장 :** 그러면 각 방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실행하여 갈 것인가 또는 그 조직이든지 준비, 방법 이러한 것은 점차 작성키로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으로 말씀하면 자기의 일을 이 실천요강에 수행(隨行)하는 일방(一方) 일반국민을 지도, 또는 감화시키어 나아가는 중요한 임무에 계신 분이므로 영화, 연극, 미술, 소설, 시가 등 여러분이 젊어지고 계신 힘을 같은 목표 아래서 같은 기분으로서 일반국민에게 모하여 모든 힘을 써 주신다면 일억일심(一億一心) 각각 분산치 않고 이 사명을 완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부면에 계신 여러분들이 국책선(國策線)을 따라서 즉 오늘 국가가 요구하는 방면에다가 국민을 지도하여 나가는 그 방책상 만일 곤란한 점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 이 문화부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응하는 것이 문화부의 사명의 한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문화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문화부라는 것은 본래 필요치 않은 줄 압니다. 문화부가 있어서 문화인들을 지도한다든가 끌고 나간다든가 하는 문제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진하여 금일의 국책에 맞는 문화를 창조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금후의 문화부의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진하여 참가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백 본사 학예부장 :** 지금 문화부장께서 문화인 자신이 자진 봉찬에 참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문화부의 사명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뜻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하여 여기에 모이신 각계문가(各界門家)의 대표자 또는 문화부의 위원으로써 각각 자기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희망하는대로 진전시키어 갈 수 있을까 간담적(懇談的)으로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시마 선생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시마 경성제국대학 교수 :** 글썄올시다. 어떤 논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지 다소 막연합니다. 다만 문화부 일이라나 하면 문화부장의 배려 밑에 우리들은 단지 그 일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음으로 나로서는 지금 별로 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삼천리사장 :** 저는 야나베 선생께 이 기회에 일상 품었던 저의 의견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

부가 지금부터 일하려고 하는 대상인 국민 속에는 80만이나 되는 ‘내지인’<sup>5)</sup>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선에 이주하고 있는 내지인은 모두 다소 교육이 높고 관청이나 은행 등 각 직장에서 전시하의 황국신민으로서 정성을 다 하고들 있습니다마는 ‘반도인’<sup>6)</sup>의 경우로 본다면 지식계급, 즉 소학으로부터 대학까지의 학생 수를 약 150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대로 잡고 또 이래 학교를 졸업한 지식층을 약 배(倍)로 본다면 지식계급이 3백만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천만 국민은 거의 문맹계급에 속하는 형편입니다. 문화부가 금후 일해 나아갈 정책의 중점은 이 문화의 뒤떨어진 2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금년의 지원병을 본다면 금년 지원병의 총원은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 가령 한 가정에서 한 사람씩의 지원병을 냈다 치면 10만 호의 가정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병은 실로 도회지보다 거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며 따라서 그 지원병의 모친으로 보더라도 대개는 문자와 인연이 먼 자격의 소유자인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은 지원병의 연령이 거의 20세 전후인데 이들 모친이 이들을 20세 전후 내지 30세 전후에 낳았다 하면 지금 40세에서 내지 50세 전후가 될 것입니다. 현대 일한병합 이래 금년까지 하여 겨우 30년 남짓하니 이들 지원병의 어머니는 거의 문맹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적어도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지원병의 어머니가 소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정도의 지식계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됩니다. 만일 지원병의 어머니가 교양있는 부인이라면 현재 지원병 수에서 몇 배 더 되었을 것으로 상당한 비약이 있었을 줄 압니다. 물론 문화운동이 다만 지원병 양상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지원병의 어머니까지도 문화란 미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들 2천만 문맹을 타개하는 데는 전번 학생국어보급운동 같은 계몽운동도 필요한 동시에 귀와 눈과 알기 쉬운 이야기로 교화를 보급시키는 연극, 영화, 소설 등에 힘을 써서 우선 교화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나베 문화부장 : 김동환 씨의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문화부에서도 ‘농촌생활문화운동’이라 할까 이런 농촌방면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들 농촌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고 두뇌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평론이라든가 혹은 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종이연극 같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에 적합한 것을 주도록 고려이올시다. 거기에 대하여는 그러한 방면의 인사들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은 장래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이를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13일)

3

목산 연극협회장 : 저희들은 조선연극협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있는데 아직 결성된 날짜도 몇 날 안 된 관계상 얼음이라도 녹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김 삼천리사장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일을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즉 농촌위안연극을 하여서 촌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결과 교양도 되고 즐기게 하는 한편

5) 일본인.  
6) 조선인.

또 지원병을 내보내는데 각오라 할까 이런 점도 강조하고 또 국민으로써 알아야 할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식시키는 목적하에 지금 준비 중이올시다. 그리고 각 지방의 극장 또는 극장이 없는 곳은 소학교의 넓은 교실 같은 것을 빌려서 10명 내외의 단원이 지방순회를 할 계획입니다. 내지나 이태리에서는 벌써부터 실시하여 펍 효과를 내고 있는 말을 들었으며 어느 때인가 가라시마 선생한테서 들었는데 지나나 서반아에서는 전장으로 나아가는 용사들에게 이런 것을 실시하여 이것도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좌우간 대단히 의의 깊은 일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한 각본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연극협회에서 선택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지오만 문화부에서도 협력하셔서 현상모집을 한다든가 많은 원조를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까. 다나카 문화부원 :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겹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그렇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건전한 오락으로써 향토극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지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들 하고 있다는데...

목산 연극협회장 :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까마는 때를 따라 실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이나 각 부락의 지도자 격 되는 사람과 연락하여 될 수 있는대로 한번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또 하나는 연출자와 연기자의 양성이 필요치 않을까요.

목산 연극협회장 :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여도 지금의 현상으로는 연출자나 연극자가 죄다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다나카 문화부원 : 연극협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하여 특히 힘써야겠습니다그려. 다소 바쁘시겠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물론 바쁩니다. 연극에서 그런 일까지 겸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주 연출을 하여 연극자 자신이 국책에 맞도록 아주 익어져서 그 분위기에 젖도록 힘 쓰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다나카 문화부장 : 요컨대 이쪽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건설적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니면 아니 되겠지요. 곧 그 효과가 국민 속으로 깊이 침투되어 국민이 거기에 동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산 연극협회장 :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그런 효과를 낼만한 각본을 다나카 씨 말씀같은 이념 하에 선택코져 합니다.

다나카 문화부장 :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일부분이 스스로 문화 속에 잠입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백 본사 학예부장 : 무엇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소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죄다 그럴 것입니다.

(2월 14일)

데라다 문화부 참사 : 제가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좀 지금 토론하시는 것과는 틀릴지 모릅니다마는 내가 모(某) 신문 학예부의 일을 담당케 된 것은 193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 신

문은 학예면만 아니라 가정면이든지 무엇이든지 내지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아 조금치라도 조선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지로부터 오는 통신을 그대로 제목을 붙이어서 내는 것이었는데, 기 실(實) 조선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내지화(內地化)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 '로컬' 신문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국민과 친밀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팔리지도 않는 관계상 과거의 그 신문으로서의 상상치도 않는 조선부인 기자를 입사시키어, 우선 가정방문을 한다, 김치 담그는 법을 신는다, 조선의복 발르는 법도 기재한다, 이렇게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국어신문인 그 신문이 국어의 일반 보급과 병행하여 상당히 조선인 간에 퍼진 것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학예란에 있어서는 내지 문사(文士)의 집필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조선 재주(在住)의 문화인에게 원고를 청하기로 하여, 처음에는 성대(城大)의 선생, 그 다음 의전(醫傳), 법전(法傳), 고상(高商) 등의 선생들에게 보조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저의 발이 넓어짐에 따라 조선문사들에게도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지인이나 조선인이나 넓히 친밀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내선일체'의 일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나사변'이 시작된 이후 이러한 느낌을 깊이 갖게 되며, 현재 내지의 대정익찬회와 조선의 총력운동과 비하여 심모숙려(深謀熟慮)하여보면 지금부터의 진로가 예측되는 것도 같습니다.

좌우간 총력연맹에서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기 전에 술선하여 국책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례로서 우리 신문계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원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차(一次) 건설적인가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그 원고를 취급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자연 이렇게 취급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교양기관으로서 만전을 도모하여 그 담당된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매진코자 합니다.

**백 본사 학예부장 :** 지금 데라다 씨의 말씀은 신문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문화를 통하여 내선일체가 심화되는 문제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약간 화제를 돌려서 금번 문화부가 일을 해 가는데 있어 일종의 문화정책이라 할까, 하여튼 어떤 기본방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문화부가 향방(向方)하는 곳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요즘과 같이 미국같은 외국과의 시국관계가 절박한 시기에 있어 조선과 같이 비교적 영미문화를 숭배해오던 경향도 있었으니까 그 점에 대하여 그 영미문화를 비판해가는 일면이 있고, 내부로는 국민문화를 건설해가는 일면, 그런 두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하여 문화부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15일)

5

**야나베 문화부장 :** 글썄올시다. 이것은 나의 의견 같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문화가 진보한 그 과정을 보면 일본은 외래의 문화를 취급하는데 비교적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꺾뜻하면 일본인은 흥내를 잘 낸다든가, 혹은 창작력이 없다든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

---

7) 중일전쟁.

로는 문화가 진보되는 과정에 있어 최초에는 여러 가지 사물을 더러 흉내 내는 일이 있으나 그것이 축적됨과 함께 다른 훌륭한 창작적인 무엇이 나오는 수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이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우수한 사물이 있다면 또한 남의 것이라고 채용치 않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일로서 모방도 기 실(實) 저마다 못하는 것으로 비난거리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소학으로부터 대학을 마치는 동안 다만 가르침을 받고, 흉내를 내고, 그러한 후에야 겨우 자기라는 것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일 것입니다. 즉, 일본의 문화는 지금 모방시대와 창작시대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오래지않아 그 진가를 발휘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동아공영권이 성립되면 태국(泰國), 난인(蘭印)<sup>8)</sup> 등 여러 나라 문화를 이입하여 그것으로써도 확대하고 모호한 문화를 짓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외를 전도하는 외래문화에 대한 무조건 호평을 하는 심리를 고치어 일본문화의 독자적인 것을 동아공영권의 인민으로 하여금 인식케 하여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기를 절실히 요망하며 또한 그것이 금후 일본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본사 학예부장 : 유진오 씨께서도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보전 교수 : 현재 조선에는 내지의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진 인사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지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힘이 적은 것은 펍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은 내지의 학자나 사상가, 또는 일류 철학자들이 역시 외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관계로, 좀처럼 동경까지 유학을 가더라도 일본문화에 대하여 존경한다든가, 인식하는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런 관점은 멀지 않은 장래에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조선사람 가운데는 국어를 능통하는 사람들은 국어를 통하여 내지문화이나 구미 각국문화에 친하고 있으나, 국어를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것은 문인협회의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지의 우수한 작품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될 수 있는대로 내지작품과 친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그러한 번역물도 있었으며 우수한 문사에게 부탁코자 하여도, 원고료가 합당치 못한 관계상 여의치 않은 느낌이 있으니 이 점도 문인협회와 문화부가 협력하여 좀 더 왕성히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요전번 제가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작(作) 『보리와 병정』을 번역한 것을 읽었는데 여간 좋지 않더군요. 이만한 정도로 내지의 작품을 번역 해보는 것도 여간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월 17일)

## 6

백 : 마츠다 씨께서 화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츠다 문화부위원 : 별로히 이렇다 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모 모 일본에서 일찍이 지나나 조선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하여 일본적인 사상이나 풍

8) 네덜란드 령 인도네시아.

류를 가미한 고대문학도 이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백 : 가라시마 교수, 지나문학이 일본에 들어와서 어찌 소화되었는지요.

가라시마 성대 교수 : 글썄올시다. 다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문화의 특수성이랄까요. 즉, 유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알겠지요. 유교로 말씀하면 본바닥인 지나보다도 오히려 그 진가가 내지나 조선에서 발휘되었으며, 지나에서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상인데, 그 전문적부분에 대해서는 약(略)하기로 합니다. 아까 농산어촌 또는 광산방면의 문화문제에 대하여 김동환 씨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 방면에 연극영화 등으로 문화의 발전을 기(期)하려는 것은 대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식계급이올시다. 현 문화부나 문화인에 대하여 다대(多大)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식층으로써 이 지식층의 통합 여하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들 문화부 내부 사람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그런 방면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옳을까 □□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 김억 씨, 조선의 시인층에 대해서 협력 지도하실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문화부 위원 : 아까 유 교수도 번역에 대해서 말하셨지만, 참으로 이 번역이란 문화인치고는 누구나 관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번역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문화이든지 그 문화를 참으로 친하자고 하면 번역물 같은 것으로서는 그 운곽은 파악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진의, 그 독특한 미각(味覺) 등에는 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문맹인 사람에게는 '40부터 공부시작'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국어'보급에 적극 노력하여, 평이한 내용물로 된 것부터 점차 읽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내선일체'상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백 : 그런데 아까 다나가 씨로부터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저절로 문화 쪽으로 잠입하도록 힘써시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대중을 문화에 화(化)케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하는데, 이런 의미 아래서 안전 씨, 영화방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전 영협 이사장 :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화는 대부분이 내지나 외국물입니다. 조선영화도 이때까지 몇 편의 작품을 내었습니다마는, 그 □□상으로나 기술상으로나 펍 미약하고 때로는 일반국민을 지도하며 향락하려는 마음만 왕성하지 그 실체는 이와 역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민총력연맹 문화부에서 영화방면을 어떻게 지도하시려는지 야나베 선생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월 18일)

7

야나베 문화부장 : 별안간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그러. 내 의견으로는 지금 조선에는 배우는 들깨치고 일반국민을 잘 지도할만한 인재가 드문 것 같이 보고 있는데 우선 그런 방면의 인재를 양성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조선 영화가 빈약하다는 데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은 기성(既成) 영화를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까닭, 즉 조선 전체에 얼마 없는 영화극장에서 상영할 뿐으로 1만원이나 2만원의 비용이면 모르되 10만원이나 걸리는 제작물이면 재산이 안되는 관계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지나 외지에 수출시킬 작품도 못되고 결국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2로는 보기 좋게 10만원이나 20만원 자금을 내놓는 모가 드문 것이 아닐까요. 제3으로는 어쨌든 자본이 부족한 관계로 촬영기도 내지에서 쓰던 고물을 쓰니까 장면이 그리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가라시마 성대 교수 : 또 우수한 각본가 연출가, 연극자가 존재치 않는 것도 한 개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래는 그 조직도 개선되고 크게 비약할 줄 압니다.

유 보전 교수 : 요전에 <집 없는 천사>를 그 시사회에서 보았습니까마는 조선영화가 그만큼 잘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수업료>도 좋았었다는데 애석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보았습니다만 아무튼 근래에 드문 좋은 작품이라 하겠으며 조선영화기술도 여간 발달되지 않았던데요.

다나카 문화부원 : <집 없는 천사>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보았는데요. 촬영기술이든지 연출이든지 전례에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얼마 아니 있어서 내지영화의 수준을 따라 갈 것 같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빈약한 설비를 가지고 그만큼 작성하는 이면의 숨은 고심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자본이 부족하고 모든 설비가 부족하지마는 장래를 기약하고 많이 활약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조선영화에 대한 국민심리가 아닐까요. 외국영화를 보던 그들이 재래의 조선영화와 친해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아니지마는 그렇게도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보기도 전에 악평하는 그 심리를 개선하도록 노력함이 어떠할런지요. 불란서가 전쟁에 패배 당한 오늘날 여전히 우수한 영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국민심리 여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 : 문화영화는 어떻습니까.

안전 영협 이사장 : 근래 내지의 문화영화들은 물론 당국의 원조도 있었지마는 상당히 빨리 발전하여 참으로 영화사상(映畫史上) 특필(特筆)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빈약하고 따라서 촬영기로 말하더라도 망원렌즈가 하나도 없어서 내지로 차용하러 가는 상태이며 기타 불비한 점이 여간 많지 아니합니다. 따라 그 활약은 장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월 19일)

## 8

목산 연극협회장 : 그리고 영화의 매력은 상당히 큰걸요. 도회는 물론이지만 영화관이 없는 농촌에서는 '바라크'나 광장 같은 데서 영사를 하는데 아무런 영화라도 대단한 인기입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참으로 그러니만큼 좋은 영화를 많이 감상시키고 싶은 걸요.

유 보전 교수 : 그렇지요. 더욱이 영화로서 받는 영향이 심대하니까요.

목산 연극협회장 : 그러므로 제제는 될 수 있는대로 참으로 생활문화 속에서 취해 낼 필요를 더욱이 느낍니다.

가라시마 성대 교수 : 당국에서도 아마 열의를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유 보전 교수 : 그렇게 된다면 여간 좋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영화를 영사할 때 아직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걸요.

목산 연극협회장 : 그렇습니다. 도회와 같지 않아 아직도 일일이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도회와 농촌의 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시마 성대 교수 : 그 전에 모 신문에서 '뉴스' 영화를 작성하였었는데 그 효과는 매우 컸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총력연맹 속에 이동영화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이것 역시 다소 빈약한 듯 하니 이것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안전 영협 이사장 : 귀 신문사에서도 무엇인가 제작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금본 본사 상무 : 네, 있습니다. 문화영화를 두 세 개 만든 일이 있습니다.

김 삼천리사장 : 좀 화제가 바뀌지겠습니까마는 일찍이 이조시대의 곧 지금으로부터 한 1백년 전후에 전 조선에서 젊은이들을 10여만이나 동원하여 경복궁을 지을 때 제일 풍류가 많이 유행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속칭 '민요'라 하여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기타 그 지방을 따르는 예술을 굉장히 잘하게 되어 나중에는 나라에서 이들 풍류가를 뽑아서 왕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도록 힘썼는데 이에 관련하여 문화부에 한마디 청(講)할 것은 지금 부여에 신궁을 건축 중인데 음악협회, 영화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등 여섯 단체에서 그들 근로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민요'같은 것을 보여주면 어떨런지요. 또 다른 하나는 농산어촌 등에는 좀 '레벨'이 얇은 것으로 그들 농민의 지식을 깎 만한 연예를 보여주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야나베 문화부장에게서 제1선에서 서서 지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20일)

9

야나베 문화부장 : 김동환 씨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참으로의 근로봉사의 위로가 아니 됩니다. 경복궁을 신축할 때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하였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근로봉사에다가 위안연예란 아무래도 맞지 않습니다. 곧 지금 부여신궁에 대하여는 국민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 이상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것은 다소 참고하겠습니다.

유 보전 교수 : 무엇이든지 거기에 적당한 것을 하시는 게 어떠하십니까.

김 삼천리사장 : 그렇지만 그 지방 독특한 '민요'를 소개하는 것은 과히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나베 문화부장 : 소개만은 과히 의의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일반 사기를 고취시키고 또는 정신의 정화와 수양을 목표로 하는 고풍인 '민요' 같은 것은 다소 필요하지만 현재의 저급한 '민요'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얼마 전에 내지에서 아마 일본청년회관인 듯 한데 각 방면에서 그 지방 독특한 인형

을 모아서 거기다가 민요를 가입하여 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도 별로이 의의가 그렇게 크지 못한데 지금 근로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금본 본사 상무 : 그렇지요. 특히 부여신공의 근로봉사는 경건한 태도로써 봉사하는 것이니까 좀 어떠 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문연극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마는….

유 보전 교수 : 최근까지 부여에 가서 근로봉사를 하고 온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본 상무이사 : 꽤 많았습니다. 학생을 도와서 하루나 이틀씩은 근로봉사를 하고 가니까 상당한 수인 듯 합니다. 아마 수만에 달하는 모양이지요.

김 삼천리사장 : 이야기가 모모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로이동연극단이라는 것을 농산어촌에 적극적으로 보내서 지금 화제가 되어있는 '민요'를 충분히 활동시키어 '민요'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따라서 여러가지로 연구도 하면 즉 이런 것이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일조가 되리라고 믿 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저의 연극협회의 가맹단체로서 지방을 순회하던 중에 어느 곳에서 위안연주를 하는데 노래가 없어서 나중에는 애국행진곡으로 때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요컨대 근로봉사에 대한 노래 같은 것을 작사, 작곡해야 하겠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장 : 내지에 있는 대정익찬회에서는 익찬회의 인식을 깊이 하고자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춤이 좋다고 결의하고 그에 대하여 작시(作詩)를 사토 하치로(サトハチロ) 씨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춤이 나쁘다고 하여서 작시도 폐지당한 일이 있습니다.

야나베 문화부장 :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러. 그런데 국충이 문화부로서는 요컨대 금후 조선의 문화만이 아니라 동아 전토(全土)를 지도할만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건설적인 방면에 향하여 일반국민을 상대로써 건전한 오락과 고상한 생활지침이 되도록 힘쓰며 고대문화 현대문화를 막론하고 전 문화의 통합과 모모모를 목적 삼아 굳세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대한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맹층에 문화를 보급 시키려면 결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되는 것이 아니며 장차 건설될 신동아의 맹주 일본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만전책을 다하여 1보1보 침착한 태도로써 성공을 기필하기를 바랍니다. 문화 각 방면에 계신 여러분은 이 문화부를 한 개의 나무뿌리로 삼고 모모의 번무를 기하는 동시에 동체(胴體)인 우리들은 서로서로 힘있게 결합하여 뿌리에 수분을 받아 긴요한 역할을 하여 신문화를 창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백 :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하여주시어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이만 폐회 합니다.

(2월 21일)

〈출전 : 「文化翼贊의 半島體制-今後 文化部 活動을 中心하여(1~9)」(座談會), 『매일신보』, 1941년 2월 12일~21일〉

## 2. 조선연예협회

### 1) 조선연예협회(기사)

연예의 건전한 발달과 연예인의 실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그동안 청산철(靑山哲)<sup>9)</sup>, 최무성(崔茂盛) 씨 등이 본부의 알선으로 결성 준비 중에 있던 조선연예협회 결성식은 26일 오후 2시부터 부내 태평동 부민관 소강당에서 연예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동회원은 연예단 경영자, 연예단 소속원인 각본 작가, 연출가, 활동가, 연주가, 무용가, 미술가, 기타 연예단 소속원으로 연예 또는 연기자 사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직한 것으로 전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예의 통제와 지도, 연예인의 향상의 제도에 관한 시설 등을 하기로 되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청산철, 이사 미키(三木尚), 최무성, 口山口民, 상무이사 임서방, 감사 박원철, 한성준.

〈출전 : 「朝鮮演藝協會」, 『매일신보』, 1941년 1월 27일〉

### 2) 조선연예계

수년 이래 각 레코드회사의 가수를 중심으로 악극단이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그 업적이 호조됨에 따라 각 방면에서 이것을 모방한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군림하는 이러한 연예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1941년 1월 26일 총독부 경무국의 알선으로 조선연예협회를 발회해 연예인의 시국인식과 건전오락의 조성에 착수했다. 현재 동 협회 소속 단체는 총수 25개로 조선 안에 악극단 10, 창극단 3, 서커스단 10이다. 종래 예인들 사이에 소행이 바르지 못하고 사치스럽게 다액의 가불을 해 일반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자연 경영자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신용이 극히 낮고, 상 문제를 야기해왔는데, 동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이후 회원증을 교부해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더욱이 엄중한 감독 단속을 가해 온 결과 점차 개선되어 가지만 많은 소단체의 난립은 통제상 재미있지 않은 결과, 최근의 이것 등을 통합 강화해 건전오락 달성을 도모해 가고자 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동 협회에서는 이동연예봉임대를 조직해 각 광산 지대 및 오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에 보내 그 활동은 금후 보다 발전 확충될 듯하다.

〈출전 : 「朝鮮演藝界」,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2년, 599쪽〉

## 3. 조선문예회

### 1) 조선문예회 설립취의서

산업경제 방면에 있어서의 최근 조선의 약진은 근세사상에 한 에포크(기원)를 형성하여 세인에게 경

---

9) 이철(李哲)의 창씨명.

이적인 것이 되어 있거니와 신흥조선의 기백은 다시 일보 전진하여 사회 및 문화의 부면에서도 그 개발과 충족을 구하고 있다. 더욱이 표면적 사상으로부터 점차 본질적인 심부의 굴착에 그 보무를 내딛기를 촉구하여 마지않는 상황에 있다. 정조(情操)의 원천이요, 생명의 울동인 문예와 음악, 무용이 신흥조선의 사회정세에 조응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음미되고 사회교화의 유능한 부문으로 정당한 인식하에 서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기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운을 잘 파악하여 부족함을 보충하고 왜곡을 교정하며 또한 옛 전통도 돌아보면서 조선의 문화수준을 차제에 고도로 추진시키어 이전만 동포의 사회생활의 원만과 풍운(豐潤)을 기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행위인 것을 자신하고 동지와 서로 자문하여 널리 관계 방면의 지도를 받은 뒤에 물러나서는 자생개발의 도장이 되고 나가서는 규운현창(奎運顯彰)의 사림(詞林)이 되기 위하여 이에 조선문예회를 설립하노니 조선문화재 건설 필지(必至)의 이 호기회에 다소나마 기여와 공헌이 있으리라는 염원이 절절한 바이다.

문예라고 하여도 그 범위가 넓어서 하여야 할 사업이 한 없이 많고 많지만 현하 국민대중의 정조생활에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진 악무의 개량 및 그 건전한 발달을 도하는 것 같은 것은 실로 초미의 급무가 아닌가 하고 통감하는 바이다.

예로부터 예악은 사회규모의 근본적 요소이며 동양에 있어서는 정형(政刑)이상으로 쳐우되던 시대도 있었으니 고대의 사회인 양성기관이던 대학 같은 곳은 교육의 중심을 전혀 악에 두어왔었다. 문예와 악무의 인심 내부의 동등한 절실함과 기호(嗜好)의 보편함에 따라서 감화의 심각한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대의 이 제도에서 문화의식의 총명과 투철에 다시금 감복치 않을 수 없다. 세대가 내려올수록 악무는 가정 또는 사회적 존재로부터 점차 민중 생활층에 스며들어 더구나 최근에 라디오 또는 레코드에 의하여 유행력의 증대와 취미의 보편화를 수반하게 되고 그 이해 선악의 영향이 실로 중대해짐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기강규율의 범위 밖에 던져지어 독풀이 눈에 가득하게 만연하도록 방임해둔 느낌이 있는 것은 진실로 유감의 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에 피로한 민중의 위안으로 그 영혼의 창호를 두드리는 것이 광명의 덕택이 아니고 어둠의 힘이라고 하면 화해고독(禍害蠱毒)이 진실로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뒤집어서 음파는 환희를 가져오고 광영은 명랑을 펼치어, 우리들의 마음의 금선(琴線)에 고탕(鼓盪)과 분기를 부여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세도를 배양하고 나아가 문화의 수준을 양양시키는 효능이 대개 측지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원컨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연적(硯滴)의 공을 누적하여 작게는 예술 본래의 사명 달성에 의한 사회적 개화를 위하고 크게는 자손영원의 덕성 축을 위하여 서로서로 신념적 노력을 바쳐야 할 것이다.

1937년 5월 1일

조선문예회설립발기자 일동

〈출전 : 「朝鮮文藝會設立趣意書」, 『朝鮮文藝會』, 朝鮮讀書聯盟, 1937년, 2~3쪽〉

## 2) 요코야 다케오(橫矢武男), '조선문예회'에 대한 시시비비적 소감

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씨 등이 나서서 총독부의 원호 아래 지난 5월 1일 조선문예회(朝鮮文藝會)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분명 최근 반도 예원계(藝苑界)의 토픽이긴 하다. 화단 쪽에서는 이미 선전(鮮展)이 동양화와 서양화 외에 공예를 추가해서 올해까지 16회를 맞이했고, 작년의 추천제도와 함께 올해는 참여제도를 설치하는 등 종래에도 조선의 미술가들에 대한 총독부의 보호는 있었다. 하지만 유독 문예에 관한 한 총독부의 태도는 말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관심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급속히 조선문예회가 실현되면서 총독부의 관심이 문예 방면에도 미치게 되었음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고 반도의 문운(文運)을 위해 일단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꾸민 말이 아니라 필자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본고의 목적도 당연히 이처럼 꾸밈없는 감정에서 조선문예회에 대한 시시비비적(是是非非的) 감상을 서술할 생각일 뿐 다른 뜻은 없다.

약진하는 흐름을 탄 조선의 문예 방면의 진흥보급과 조사연구를 목표로 반도 민중들의 생활에 윤기와 힘을 부여하려는 취지 아래 결성된 조선문예회에 대해 총독부가 측면적 원조를 하기 위해 나선 것은 최근의 유쾌한 일이고 김대우 씨의 이해력 있는 행동에는 어쨌거나 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아무튼 총독부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는 그 면면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권위자를 포함시킬 수 있었고 명실 공히 조선문예회의 면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은 민간인들만의 운동과 비교해서 앞으로 실제 활동의 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문예회가 나아가야 할 길, 혹은 취해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여기서 잠깐 언급해둘 필요가 있겠지만, 이는 아직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해서 검토할 만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설립취의서 원안을 소개하고 조선문예회가 어떠한 이상(理想) 아래 결성되었는가를 필자가 대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경제 방면에서의 최근 조선의 약진은 근세사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epoch)을 형성하고 도리어 세인들이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신흥 조선의 기백은 한결을 더 나아가 사회 및 문화 부분에서 그 개발과 충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게다가 표면적인 사상(事象)보다 더욱 본질적인 심층부의 굴착에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희구해마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정조의 원천, 생명의 울동인 문예, 무악(舞樂)이 신흥 조선의 사회 상태에 조용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음미되어 사회교화의 유능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인식 아래 서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운을 잘 파악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왜곡된 것은 교정하고, 또는 낡은 전통도 되돌아보면서 조선의 문화 수준을 점차 고차원으로 추진시켜 이천만 동포들의 사회생활의 원만과 풍운(豐潤)을 기하는 일은 실로 중대한 행장(行藏)임을 믿는다. 동지들끼리 서로 의논하여 널리 관계 방면의 지도를 받고 뒤로 물러나서는 자성계발(自性啓發)의 도장, 앞으로 나아가서는 규운현창(奎運顯彰)의 사림(詞林)이 되기 위해 여기에 조선문예회를 설립하여 조선문화의 재건에 필지의 좋은 이 기회에 작으나마 기여·공헌의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단지 문예라고 해

도 그 범위는 넓고 해야 할 일도 무한하지만, 현재 국민 대중들의 정조 생활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무악의 개량 및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일은 실로 초미의 급선무임을 통감하고 있다. 예부터 예악은 사회규범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동양에서는 정형(政刑) 이상으로 취급한 시대도 있었고, 고대의 사회인 양성기관인 대학 같은 곳은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악(樂)에 두기도 했다. 문예, 무악이 인심 내부의 충동이 절실하고 기호(嗜好)의 보편인, 즉 감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고대의 이 제도에서의 문화의식의 총명함, 투철함에 새삼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악은 묘정(廟廷) 또는 사회적 존재에서 점차 민중의 생활층에 침윤했고, 특히 최근에는 라디오 혹은 레코드에 의해 유행하는 힘의 증대와 취미의 보편화에 따라 그 이해관계와 선악의 영향은 실로 중대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강규율의 테두리 밖에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방임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에 지친 민중들의 위안으로서 그 영혼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은혜로운 빛이 아니라 어둠의 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겠는가. 이에 반해 음파는 환희를 가져오고 광명은 명랑을 넓혀 우리 마음의 금선(琴線)에 고탕(鼓盪)과 분기를 부여하는 힘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세도(世道)를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와 이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바라건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물방울 같은 공을 조금씩 쌓으면서 작게는 예술 본래의 사명 달성에 의한 사회적 명랑화를 위해, 크게는 자손 영원의 덕성 구축을 위해 서로 함께 신념적 노력을 바치기를.

이를 통해 보면 문예와 음악을 결부시켜 보편화와 영향력이 큰 라디오나 레코드 방면도 움직여 진정한 정조 문예, 정조 음악을 반도 민중들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하니 우리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문예회의의 높으신 분들께 기대하는 점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원들의 면면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현재 회원의 명부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 (○표시는 제1부원, △표시는 제2부원)

○윤성덕(尹聖德, 이화여자전문), ○박경호(朴慶浩, 이화여자전문), ○양주동(梁柱東, 숭실전문), ○현재명(玄濟明, 연희전문), ○김영환(金泳煥, 숙명여고보), ○이종태(李鍾泰, 이왕직(李王職)), ○함화진(咸和鎭, 이왕직), ○아규일(阿奎一, 정악전습소), ○김억(金億, 경성중앙방송국), ○홍영후(洪永厚), ○최남선(崔南善)

△하부 요네사쿠(土生米作, 모토마치(元町)소학교),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제1고여), △아미야 기이치(阿宮儀一, 용산중학), △안도 요시아키(安藤芳亮, 경성여자사범), △요시자와 미노루(吉澤實, 경성사범), △사토 기요시(佐藤清, 경성제대), △미야하라 신타(宮原真太, 경성사범),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법학전문), △스즈키 미사호(鈴木美佐保, 진명여고보), △다카모토 지다카(高本千鷹, 경성여고보), △도쿠다 사토시(德田三十四, 이왕직),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총독부 도서관), △가마다 사와이치로(鎌田澤一郎, 방응모(方應謨, 조선일보), 이상협(李相協, 매일신보), 박영철(朴榮喆, 상업은행),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조선신문), 다카다 도모이치로(高田知一郎, 경성일보), 오사카 히사마쓰(保阪久松, 경성중앙방송국), 하기와라 히데오(萩山秀雄, 총독부 도서관),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경성제대)

이상의 면면들을 보면 조선문예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반도 문예계의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명부를 일별해 보면, 무려 32명의 회원들 중에 절반인 16명이 학교 선생들이었다. 무릇 문화란 그것을 천직으로 삼아 그것에 의해 생활을 꾸려가는 이른바 전문 문사가 아닌 한, 홀망(匆忙)한 와중에 생생한 현세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일이고, 조선처럼 문예작품을 그대로 생활의 양식으로 삼기 어려운 토지에서는 특히 이 학교 선생이라는 계급의 사람들이 이 길에 종사하면서 고갈되려는 문예의 싹을 황폐한 적토 속에서 보육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통계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다른 16명을 보면 회 전체의 앞으로의 활동에 편의와 발판을 제공할 터인 신문사 주뇌자(主腦者)라든가 방송국 관계자 등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이 개인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무엇보다 이 모임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관료적 취향과 교육적 취향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 교원과 관료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나쁘다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요는 진정 문예를 이해하고 몸소 문예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안심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면면들 전부가 스스로 다난한 조선 문예 진전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문예의 싹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적토에 손을 더럽히겠다는 사람들뿐일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묻고 싶은 점이자 또 말하고 싶은 제목인데, 지금은 이를 자제하기로 하고 어쨌면 조선문예회에 대한 최초의 비판이라 할 수도 있는 『경성잡필(京城雜筆)』 5월호에 수록된 「조선문예회에 대한 희망(朝鮮文藝會へ希望)」에서 글을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발언을 잠시 맡겨두는 임시 그릇으로 삼겠다. 게다가 그 논자인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군이 다행히도 조선문예회의 회원 중에서도 우선 실제 조직자로서의 존재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필자의 장황하고 쓸데없는 입이 불필요함을 통감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조선문예회의 회원이자 시인인 다나카 하쓰오 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췌해 독자들 앞에 가만히 앉아서 볼 때, 필자와 같은 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 한 조선문예회라는 존재의 일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말이 길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문예회의 일면이지 결코 그 전면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들이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전략)…… 창립 준비회에 모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순수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른바 명사들이다. 일본 내지인 측에서는 유행가를 정화하는 데 유행가를 쓸 수 있는 작가 또는 시인이라 불리는 자는 한 명도 이 모임에 초대되지 않았다. 어쨌면 초대할 만한 작가가 없다고 간주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중략)…… 이러한 모임의 성립은 문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작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높이기에는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되고, 자칫 문예의 귀족원을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일보 전진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문예의 통제에까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후략)……

〈출전 : 横矢武男, 「朝鮮文藝會に對する是々非々の小感」, 『朝鮮行政』 제1권 제7호, 帝國地方行政學會, 1937년 7월, 46~49쪽〉



## 4. 조선문인협회

### 1) 조선문인협회 금일 발기인회 개최(기사)

거보의 조선문인협회의 발기회는 예정과 같이 20일 오전10시 부내 남미창정(南米倉町)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회의실에서 이광수(李光洙) 씨 등 16명의 문인 참집리에 열렸던바 먼저 정국신사(靖國神社)어친배에 배례가 있는 후 계속하여 박영희(朴英熙) 씨 사회로 회의는 진행되어 이광수 씨의 취지설명이 있었다. 계속하여 결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취지급 회칙작성의 좌기위원 5(五) 씨의 선정이 있는 후 동 12시반 폐회하였는데 선정된 위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이광수(李光洙) ▲최재서(崔載瑞) ▲유진오(俞鎭午) ▲정인섭(鄭寅燮) ▲박영희

〈출전 : 『朝鮮文人協會 今日, 發起人會 開催』, 『東亞日報』, 1939년 10월 21일〉

### 2) 일본정신을 발양! ‘문(文)의 내선일체’를 절규, 조선문인협회 결성대회 성황(기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에 가담하여 흥아 건설에 한 개의 힘이 되고자 지난 17일 발기회를 열었고 다시 22일 회칙과 같이 강령을 결정한 조선문인협회의 결성대회는 29일 오전 10시 반 예정보다 40분 늦게 부민관 증강당에서 내빈측으로 도동(渡東) 중에 있는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 대리 야기(八木) 학무과장, 가와시마(川島)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총재대리로 정교원(鄭橋源) 참의, 도서과장 대리 이데 이사무(井手勇) 제씨를 비롯하여 백여 회원이 모여 조선문화사상에 새로운 출발의 막을 열었다. 박영희(朴英熙) 씨의 사회로 먼저 궁성요배(宮城遙拜)와 진물장병의 영령에 대한 묵도로부터 대회는 시작되어 지금의 결성식까지 밟아온 경과와 규약을 부의하여 만장일치 박수로써 이를 가결하고 김동환(金東煥) 씨로부터 성명을 발표한 다음 회장으로 이광수(李光洙) 씨를 선거하자 이씨는 단에 올라

“이번 이 협회의장 창립의 참뜻은 새로운 국민문화의 건설과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 인류는 유사 이래 국민생활을 떠나서 생활을 해 온 일이 없다. 문화도 국민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도의 문단의 새로운 건설의 길은 ‘내선일체’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 협회 창립도 아름다운 내선문화인의 서로 신애하는 정(情)으로부터 빚어낸 것이라고 하겠다.”

는 뜻의 의미 깊은 취임인사가 끝나고 다시 회장으로 부터 이 협회의 명예총재로 시오바라 학무국장을 추대하였다는 보고를 한 후 다시 내지인 측 4명, 조선인 측 6명을 지명하자 만장은 박수로서 찬의를 표한 다음 총재의 대리 야기 학무과장이 등단하여

“문학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위대한 것이다. 붓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전선에 나아가 총칼을 잡은 병사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앞으로 본 협회 회원의 활약은 신동아 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는 뜻의 간곡한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내빈의 축사에 들어가 가와시마(川島) 총재 대리인 정교원 씨의 간곡하고 뜻 깊은 축사가 끝나자 본사 최(崔)사장으로부터

“내선일체의 정신운동이 능히 각 방면으로부터 부르짖고 있는 이때 내선인으로 결성된 협회야말로 앞으로 크게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조선 문인들 가운데는 과거에 있어서 길을 그르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지만, 시국은 국가총력이 요구되고 있는 때임에 여기에 각성의 깃발을 들었다는 점은 경하하여 마지않는다. 또 조선은 병참기지라고 하지만 사상상으로도 병참기지라고 생각한다. 신동아 건설의 기초는 내선일체에 있다고 늘 말하나 그것은 너무 의미의 범위가 넓어 일반 민중에게 대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착안하여 숭고한 황국의 국체를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의 열에 넘치는 축사에 뒤이어 멀리 내지와 각 방면으로부터 들어온 축전낭독이 끝나자 김용제(金龍濟) 씨의 답사, 가라시마(辛島) 성대교수의 폐회사에 이어서 이 회장의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문장보국의 군센 약속을 하고 역사의 결성식이 막을 내리니 때는 열두 시였다.

협회 역원은 다음과 같다.

▲ 명예총재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 회장 이광수 ▲ 간사 (내지인 측) 모모세 지히로(百瀨千尋)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쓰다 가타시(津田剛) (조선인 측) 김동환 정인섭 주요한 이기영 박영희 김문집 (이상 6명)

그리고 상임간사는 추후 발표하기로 되었다.

〈출전 : 「日本精神을 發揚—“文의 內鮮一體”를 絶叫—朝鮮文人協會 結成大會 盛況」, 『매일신보』, 1939년 10월 30일〉

### 3) 조선문인협회 창립

10월 17일 이광수(李光洙) 씨 외 10여 인이 회합하여 조선문인협회발기회(朝鮮文人協會發起會)를 연 뒤 다시 22일 회칙과 강령을 결정한 동회(同會)에서는 10월 29일 오전 10시 40분 정각보다 40분 늦게 부민관(府民館) 중강당(中講堂)에서 내빈측으로 도동중(渡東中)에 있는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대리로 야기(八木) 학교과장, 가와시마(川島)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총재대리로 정교원 참의, 도서과장 대리인 이데(井手) 사무관 제씨를 비롯하여 100여 회원이 참집(參集), 조선문학사상에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다. 벽두(劈頭) 박영희(朴英熙) 씨의 사회로 먼저 궁성요배(宮城遙拜), 전몰장병(戰沒將兵)의 영령(英靈)에 대한 묵도(默禱)로부터 대회는 시작되어 오늘날의 결성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 한 뒤 규약을 부의(附議)하여 만장일치로써 가결을 하고 김동환(金東煥) 씨로부터 성명서 낭독, 이광수 씨를 회장으로 선거하자, 즉시 회장이 등단, 이 창립의 의의를 설명하고 아울러 신임인사(新任人事)를 한 뒤 다시 회장으로부터 명예총재로 시오바라 학무국장을 추대한 후 조선인측 간사로 박영희, 김문집, 김동환, 정인섭, 주요한, 이기영, 내지인측 간사로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쓰다 가타시(津田剛), 모모세 지

히로(百瀨千尋),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등 10명을 지명한 후 최린(崔麟) 씨의 축사와 각지에서 온 축전축문의 낭독이 있고 김용제(金龍濟) 씨의 답사와 가라시마 씨의 폐회사로 끝을 막았다. 그리고 성명서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성명서

이제 아제국(我帝國)은 국력을 도(賭)하여 흥아(興亞) 대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비상시에 당하여 국민된 자는 모두 화(和) 협력, 그(其)여 의(義)하여야 기재(其才)를 다하여 국책선(國策線)에 연(沿)하여서 분투노력한 것은 첩언(贅言)을 불요(不要)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문필에 관하는 자는 이런 시기에 먼저 붓에 의(義)하여 그 임(任)을 다할 것입니다. 즉 조선에 있어서 참으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동지가 합하여 여기 '조선문인협회'를 결성하고 흥아의 대업을 완성할 황국<sup>10)</sup>적 신문화 창조로 위하여 용왕매진(勇往邁進)하고자 맹서(盟誓)하는 바입니다.

###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씨명 (무순)

이광수, 정지용(鄭芝溶), 김동환, 김기림(金起林), 최재서(崔載瑞), 가라시마, 이태준(李泰俊), 백철(白鐵), 쓰다 가타시(津田剛), 임화(林和), 임학수(林學洙), 이하운(異河澗), 김상용(金尙鎔), 김억(金億), 김동인(金東仁), 김기진(金基鎭), 김문집, 박영희, 방인근(方仁根), 김소운(金素雲), 김형원(金炯元), 박태원(朴泰遠), 유진오(俞鎭午), 함대훈(咸大勳) 이극로(李克魯), 이기영, 정인섭, 김용제, 전영택(田榮澤), 조용만(趙容萬),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미치다 마사야(道田昌彌),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교섭중), 사토 기요시(佐藤清)(교섭중)

### 조선문인협회 회칙초안

제1조 대회는 조선문인협회라 칭하고 기(其) 사무소를 경성(京城)에 치(置)함.

제2조 본회는 국민정신충동원의 취지달성을 기하고 차(且) 문인상호의 친목향상을 관하므로 목적함.

제3조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贊同)하는 문인으로 조직함. 단 본회에 가입함에는 간사 일인(一人)의 추천에 의(義)하여 간사가 차(此)를 심의 결정함

제4조 본회는 본회의 취지목적을 실행키 위하여 좌의 기관을 치(置)함.

- 1) 명예총재 1명
- 2) 회장 1명
- 3) 간사 약 10명

제5조 회장은 대회에서 선거하고 간사는 회장 차(此)를 지명함.

제6조 본회회장의 임기는 2년, 간사 임기는 1년으로 함.

제7조 본회의 상임(常任)간사는 간사회에서 적의(適宜) 선출함.

제8조 본회의 경비(經費)는 회비 및 유지의 찬조금으로 차에 보충함.

10)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 하여 일본이 자기 나라를 이르던 말.

제9조 본회의 회비는 연 1환(圓)으로 함.

제10조 본회는 연 1차(신상제에 개최(神嘗祭에 開崔)) 회장 차를 소집함, 단 필요에 응하여 임시대회를 소집함을 득함.

제11조 본회는 본회의 취지급사업에 찬동후원(贊同後援)하는 자를 찬조원으로 하고 회장 차를 추거(推舉)함.

제12조 본회의 부칙 및 세칙은 필요에 응하여 간사회에서 작성할 회장의 재가(裁可)를 수(受)함.

〈출전 : 『朝鮮文人協會 創立』, 『朝光』 제5권 제12호,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년 12월 225~226쪽〉

#### 4) 이광수 등의 조선문인협회 창립에 대한 비난에 관한 건

경고특비(京高特秘) 제2805호

1939년 11월 7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귀하

##### 요지

여기에 이광수 등이 발기인이 되어 결성된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에 대해 조선인 유식자들 사이에서는 조선 통치사(史)에 있어서 일대 오점을 남긴 동우회(同友會)사건의 중심인물인 이광수가 동사건의 공판 중에 조선문인협회의 결성에 광분하는 것은 매우 근신(謹慎)치 못한 일이고, 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사상 경향에서 보건대 이번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동 협회의 조직 경과를 살펴보면 그가 동우회사건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재판관의 동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영합적 단체를 결성한 것에 다름 아님이 판명되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광수와 같은 형사피고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불만을 표명하는 자가 있다고 털어놓는 자도 있다.

경성부(京城府) 내 조선인 측 문사 이광수, 김문집(金文輯), 박영희(朴英熙) 등은 문필의 움직임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대하다. 문인이 조선인 일반 민중들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로 선도하는 일은 당면 문인들에게 부여된 중대 책임이다. 이런 때에 보호(報效)의 정성을 피력한다는 취지 아래 10월 29일 내 지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조선문인협회를 창립하는 건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한 바와 같고, 조선인 유식자들 중에서 동우회사건의 중심인물인 이광수 본인은 형사피고인으로서 공판 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온건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를 결성하기 위해 광분하는 것은 매우 근신치 못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언사를 털어놓는 자도 있다.

들은 바 그대로를 참고로 보고하는 바이다.

## 기(記)

조선 통치사에 있어서 일대 오점을 낳은 저 동우회사건의 중심인물인 이광수가 동 사건의 공판 중에 조선문인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형사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장에 취임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사상 경향에서 보건대 납득하기 어려운 동시에, 형사피고인 신분 이자 보석으로 출소 중에 비록 온건한 친목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를 결성하고 게다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매우 근신치 못한 행동이다. 그가 진정 황국신민으로서 각성했다고 한다면 작금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이런 종류의 단체를 결성해서 총독부의 고관까지 끌어들이 필요는 없다. 또 그 단체의 결성이 아주 갑작스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매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그 조직의 경위를 알게 되면서 역시나 그의 이번 행동은 형식적으로 전향을 표명하고 총후(銃後)의 국민적 활동을 위장함으로써 동 사건의 재판관의 동정을 구하려는 자기보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마침내 그는 곧장 마감을 드러내게 되었다. 즉 이광수는 동우회사건 보석 출소 후에 빈번히 문인 김문집의 방문을 받고 당초에는 발밑에도 두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문집이 이광수의 사건과 관련해서 물질적 원조를 바라고 있다는 야심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가 조선문단에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를 앞잡이로 활용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자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두 사람의 왕복은 빈번해지면서 지난 달 15일경 김문집은 이광수의 뜻을 받아 삼천리사(三千里社) 주간 김동환(金東煥)을 방문해 이번 문인협회 창립 계획을 전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하 순차적으로 각 문인들을 방문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뒤 같은 달 19일 김문집은 앞서 언급한 김동환, 인문사(人文社) 주간 최재서(崔載瑞) 등에게,

“지난번 찬성을 얻은 문인협회 조직의 건은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이 알게 되었고, 국장은 그 계획에 깊이 감동하여 내일 조선호텔에 일동을 초대한다는 뜻을 안내했으니 출석하라”

고 전하고 주요 조선인 문사 15명을 집합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동 회합은 이광수, 김문집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학무국장을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20일 이광수 이하 16명은 정신총동원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1회 발기인대회 석상에서 이광수가 발기인으로서 그 취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협회 결성 후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맹하여 동 연맹의 지시에 따라 활동할 예정이라는 뜻을 말하자 모(謀) 문사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가맹을 위해 문인을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먼저 조직을 위해 국민적 입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가맹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나아가 10월 23일 제2회 발기인대회 석상에서 규약 초안 중에서 간사를 회장 지명으로 한 것은 불가하다는 말을 한 자가 있었다. 결국 거수로 찬반을 가렸는데, 선거제 희망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광수는 크게 낭패를 보고,

“본회는 신속하게 결성해야 하고 또 회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간사를 선출하게 된다면 회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며 일단 결정된 초안을 개별적으로 애원하는 방법으로 승낙을 구하고 당시 이미 회장 취임을 시사했으며, 또 김문집은 제1회 발기인대회 이래 각 회합이 있을 때마다 개회에 앞서,

“만약 본회의 결성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파괴를 위한 야유이다”

라며 위협하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광수가 제2회 발기인대회 석상에서 김문집으로부터 회장 취임의 추대를 받고 동석자도 그의 위협적 언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찬성했다. 이광수는 내심 뜻대로 되었다며 미소를 지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사퇴하겠다고 꾸미면서 이를 승낙한다는 뜻을 전하는 형태였다. 그가 이번 문인협회를 조직하기까지의 행동은 이상과 같이 오로지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알아차린 회원들 중에는 이미 이광수와 같은 형사피고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는 데 대해 크게 불만의 심경을 털어놓고 있는 자도 있다고 한다.

〈출전 : 「李光洙等ノ朝鮮文人協會創立ニ關スル非難ニ關スル件(京高特秘 第2805號)」, 1939년 11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 (4)』〉

## 5) 문예상(文藝賞)에 문인회관, ‘문예의 밤’과 시시(時時)로 지방도 순회, 반도문인협회 사업대강(기사)

흥아 건설에 도움이 되고자 깃발을 든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의 명예총재 시오바라(鹽原)학무과장의 초대로 열린 협회결성과 □□를 겸한 사업계획협의간담회는 3일 오후 다섯 시부터 남대문 통에 있는 금천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동조선연맹으로부터는 유상(由上)전무이사 본부 사무국으로부터는 중도교회관 등이 출석하였고 협회 측으로부터는 회장 이광수 씨를 비롯하여 데라다 아키라(寺田 瑛), 가라시마 다케시(辛島 驍), 유진오(俞鎭午), 주요한(朱耀翰), 쓰다 가타시(津田剛),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씨 등의 간사 전부가 모여 시오바라 명예총재를 중심으로 금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는데

1. 문인회관을 건설할 것 : 지금 남미창정에 있는 경동조선연맹 사무국 앞뜰에 반도문예의 전당이라고 도□만한 회관을 세우기로 한다. 그런데 그 회관 안에는 사무실, □습실, 담화실, 도서실, 사교실, 오락실, 식당, 숙직실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설계를 급히 서두르게 되었다.
2. 문예상을 설정할 것 : 국문 언문을 불문하고 반도에서 발표된 평론, 소설, 시, 희곡 같은 것의 작품 속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우수한 작품 한 편 또는 수 편을 골라 본상으로서 명예스러운 시계와 부상으로 서 천 원 정도를 증정하는 등 활발한 문예활동을 촉진하기로 되었다.
3. 문예상 심사위원을 뽑아 연□□에 ‘문예상 심사위원회’를 상치할 것
4. 협회결성□로□□한 ‘문예의 밤’은 오는 21일 오후 여섯 시부터 부민관에서 열고 다시 ‘□케의 ‘마이크’를 □□하여 전선에 부르짖는다.
5. □□□□를 평양을 비롯하여 대구 합동 기타 중요도시를 시오바라총재를 진두에 세우고 순방하여 ‘문예의 밤’ 또는 ‘좌담회’를 열어 일대 국민문화운동을 일으킨다.
6. 명년을 동경에서 문예의 밤을 열고 중앙문단에 조선을 인식시킴과 함께 조선문단을 인식시키고 내지의 문단인과 밀접한 제휴를 할 것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대강을 결정하고 아홉 시 반에 일오口 산회하였다.

〈출전 : 「文藝賞에 文人會館, '文藝의 밤'과 時時로 地方도 巡廻-半島文人協會 事業大綱」,  
『매일신보』, 1939년 12월 5일〉

## 6) 조선문인협회에 보낸다 - 그 성과를 완수하라(사설)

흥아(興亞)의 대업은 착실히 그 보무를 내딛으며 조만간 중국에는 신정권이 수립되려고 한다. 그러나 사변은 이로써 곧바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단계에 서서 동아가 하나가 되어 건설 진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다.

즉 이 국가 비상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은 각자 직분에 따라 화충협력(和衷協力), 생업보국(生業報國)의 정성을 다하고, 그 능력에 따라 재능을 다해서 국책의 선에 입각해 분려노력(奮勵努力)해야 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이런 시국에 눈뜬 반도의 내지인·조선인 문인들이 께기하여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를 결성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하고, 시오바라(鹽原) 정신총동원 이사장을 명예총재로 추대해서 “흥아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황국적 신문화 창조를 위해 용왕매진(勇往邁進)”을 다짐한 것은 참으로 반도 문화사상 특필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결성되자마자 벌써 어느 정도 진용을 정비하고 장래에 나아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순조롭게 그 기획을 진행시키고, 일전에는 전선에 위문품을 보내면서 회원 자신들이 직접 쓴 위문글을 동봉함으로써 총후(銃後) 문인의 사명과 열의를 표명했는데, 아울러 문인회관의 건설, 반도문예상을 설정 등을 비롯한 기타를 심의해서 앞으로 실행할 단계에 들어서려고 한다. 그 기백이 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더욱 시국의 선에 따라 칼을 들고 싸우는 무인에 대해 펜을 들고 이끄는 문인으로서 총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사명을 강화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반도에는 약 3년 전에 조선문예회라는 것이 설치된 적이 있는데, 이는 완전히 낙하산식 관선위원들로만 구성되었고, 따라서 자연히 내부에서 발산하는 정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다운 운동, 사업다운 사업조차 하지 못하고 용두사미의 존재로 끝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정(市井)의 일반(布衣) 문인들이 자발적으로 단결 결성하여 시국하 총동원운동에 힘을 보태려는 적극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또 바로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의 제각각인 이념과 파벌을 초극해서 여기에 국책에 따른 대동단결을 실현한 이상, 한 뜻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향해 건설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함부로 눈앞에 있는 업적의 화려함에 초조해 하지 말고 더욱 회원 각자의 자성과 자계를 염려하고 반도 전 민중들을 문화적으로 지도 고양시킨다는 자부심에 살고, 이로써 비상시의 일익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상의 유식(有識)·유산(有産)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저 문인이 진정으로 유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재력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일 또한 문인협회가 지향하는 총동원운동에 공헌하는 일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출전 : 「朝鮮文人協會に寄す-その成果を全うせしめよ」(社説), 『京城日報』, 1939년 12월 6일〉

## 7) 조선문인협회, 지식인에게 호소한다(상·중·하)

### 1

성전(聖戰) 4주년을 맞이해 우리는 먼저 온몸으로 사의(謝意)를 ‘황군(皇軍)<sup>11)</sup>에 바친다. 4년에 걸친 우리 충용한 황군의 전과는 일찍이 세계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용맹한 전투기는 연일 충칭(重慶) 폭격을 감행하고 적의 요인들은 대부분 멸망했으며 잔적(殘賊)들 사이에서는 천도설(遷都說)까지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적을 소탕하는 한편, 중국대륙에서 새로운 평화와 명랑한 건설을 목표로 삼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 강국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의의 이념을 중외(中外)에 선명(宣明)하였다.

지난번 일본·만주·중국 3국의 조약을 비롯해 일본·독일·이탈리아의 조약 체결 등은 세계에 드러낸 우리 국위와 실력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 2

또한 사변 후 4년간 우리 국민생활은 매우 풍요롭고 안락했다.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는 통제 아래 생활문화는 향상하고 풍부한 물자도 국민의 체력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저 영국 등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전쟁으로 이미 식료품이 결핍되었고 시민들은 벌써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들은 한 조각의 빵을 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대용식일(代用食日)에는 남아돌 만큼의 빵과 기타 식료품이 산적해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은 국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훌륭한 일본국에 태어난 자부심과 더불어 건전한 총후(銃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고 대용품을 사용하고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 등은 사려 깊은 국민의 일상생활이지만 신동아 건설을 위해 황야에서 4년간 혈전을 계속하고 있는 황군의 노고에 비할 바가 못 된다.

### 3

또한 반도에서는 교육의 개정, 지원병제도의 실시, 창씨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이는 내선일체의 고마운 구현이다. 이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감격스런 사실과 더불어 ‘반도인’은 완전히 황국신민이 될 수 있었다. ‘반도인’은 폐하의 적자(赤子)가 됨으로써 명예로운 황군으로서 충의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반도인’은 당당한 일본인이다. 용감한 일본인, 정의에 불타는 일본인이다. 낡은 조선인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야마토다마시(大和魂)<sup>12)</sup>로 살아가는 일본인이다.

이 광고(曠古)의 황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읍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격과 감사를 그대로 우리 생

---

11) 일본군.

12) 일본혼.



활에서 표현해야 한다. 국민적 의무를 다하고 총후 국민의 열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반도는 일어섰다. 곳곳에 애국운동이 전개되고 각 개인은 신도(臣道)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빛나는 내선일체의 아름다운 이야기(佳話)도 매일 나타나고 있다.

#### 4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적성국가가 오더라도 이를 곧바로 격파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시국이 더욱 중대해질수록 국민은 결의를 새로이 하고 보다 높은 고도국방국가의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제스(蔣介石)를 지원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우리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방해하려는 적성국가의 책동이 있는 한 우리는 단호히 이를 격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성업(聖業)의 완수는 제일선에 선 황군만 짊어진 의무가 아니다. 일역의 동포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총후의 국민은 총 없는 병사이다. 옛날의 전쟁은 병사들만 싸웠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국민과 국민의 싸움이며, 단결된 국민의 힘이 강할수록 승리한다.

제일선에서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워도 국내의 국민들이 방심하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다. 즉 국내의 경제가 흔들리거나 국민의 사상이 건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질 경우에는 제일선의 병사들의 분투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총후의 국민은 제일선의 장병들과 완전히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긴장하고 분투해야 한다. 우리 생활을 최저 표준으로까지 끌어내려 검소하게 생활하며 가능한 국채를 많이 사고 저축을 실행해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열심히 직역봉공(職域奉公)에 노력하는 일 등은 모두 총후 국민의 태도인데, 시국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더욱 더 긴장하고 한층 더 분발하여 총력운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 상〉

#### 5

그러나 국가에 대한 우리의 감격은 이것으로 모두 표현했다고는 할 수 없다. 황군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황군은 신명을 모두 폐하께 바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노고도 견딜 수 있고 또 누구보다 강한 것이다. 총후의 국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편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전시 국민생활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해도 황군의 신고(辛苦)에 비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한 것이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시국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비국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국민적 열의는 충분하면서도 개인의 생활 혹은 개인의 사상에 있어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국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즉 사변 전까지 즉출한 제각각이고 제멋대로인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사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생활체제가 일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상도 일변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총력전을 위해 각 방면의 체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힘을 성업 완수를 위해 집중하고 모든 사상은 하나의 사상-일본적 사상으로 통일해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범람한 구미의 사상과 그 사색 방법은 매우 유해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유물주의가 그렇고 개인주의가 그러하며 자유주의 또한 그렇다. 이러한 사상들이 지식인들의 양식이 되고 문화의 반려가 되어 한때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사변 이후 우리는 숭고한 우리나라 국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빛나는 일본정신으로 되돌아가 일본적 사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의 눈을 치켜뜨고 논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자는 결국 불평을 늘어놓으며 구미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이며, 일본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총력전에 참가하는 국민생활에는 모든 것이 실천으로서 나타난다. 올바른 일은 실행한다. 의무와 책임은 기꺼이 완수한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훌륭하게 완수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실천이 있을 뿐이다. 이론은 무능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총력전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론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실천이 부족하다. 저축이 필요하다고 떠들어 대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한 푼의 저축이 더 실천적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다. 선을 말하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인이다. 국민의 책무를 논하는 사람보다 국민적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 더 나은 국민이다.

아침에 일어나 공성을 요배하고 정오에 묵념을 바치는 일도 실행하기 전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실천해야 비로소 그 경건함을 안다. 즉 이론으로는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없다. 거리에서 묵념을 드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실천력이 성장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때때로 지식인이 공격받는다. 그것은 이론에 밝고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민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국민적 신념이 견고해진다. 가령 묵념 같은 것도 거리에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신념이 없기 때문이다. 신념만 있다면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앞에서든 묵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생활의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신념이 없는 자는 그저 형해(形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 중〉

지금 농번기인 농촌에서는 생산확충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부인과 아이들까지 총동원해서 근로봉사에 노력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농촌 부인들은 국가를 위해 뜨거운 햇빛 아래 묵묵히 일하고 있다. 농촌 사람은 모든 것을 실천 속에서 살리고 있다. 애국운동도 모든 부문에서 도회인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회인은 거의대개 지식인이 많고 이론에 능하다고 일컬어진다. 반면에 농촌 사람은 실천이 그들의 생활이다. 현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성취하기 위한 총력전이다. 모든 힘을 합쳐 단결해야 한다. 각자가 직업은 달라도 종국의 목적은 모두 국가를 위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함이다. 국가를 위해 모든 기술을 능력을 학문을 몸을 생명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총력전이 되고 고도국방국가가 완성된다.

승고한 국가의 이념을 비판하거나 국책을 해부하려는 자는 총력전의 적이자 반역자이다. 그러므로 아이도 부인도 농부도 노동자도 관리도 상인도 학자도 문학자도 예술가도 모두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논리도 의문도 없다.

## 9

개인을 표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개인의 자유의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과거 일이다. 구체제의 주검이다. 지금 우리는 주검을 끌어안고 만족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는 전사(戰士)이다. 국가 없는 개인, 국가 없는 개인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은 실로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다. 국가가 번영해야 비로소 개인의 존재가 있고 국가가 강대해야 비로소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훌륭한 일본이라는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사상은 일본정신을 거스르는 이단임을 알아야 한다. 총력전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주의, 한 사람의 자유주의 이단자가 섞이면 그만큼 일역의 힘은 약화된다. 한 사람의 불건전한 사상, 한 사람의 회의적인 사상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억일심(一億一心), 굳게 단결하고 국가를 위해 매진하여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의 전사로서 전력을 여기에만 기울여야 한다.

## 10

성전 제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큰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앞으로 말아야 할 우리나라의 중대한 사명과 더불어 결심을 새로이 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민적 실천에 용진(勇進)해야 한다. 시국이 중대해질수록 지식인과 문예가의 임무도 중대해진다.

지식인은 민중의 지도자로서 일본정신의 철저한 보급을 도모하며 올바른 사상의 선양자로서 민중의 국가에 대한 열의를 고양시켜 국내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격멸하여 승고한 우리 국체의식을 철저히 갖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억일심, 총력전은 이제부터다.

지식인, 문필가들이여, 분기하라!

조선문인협회는 일전의 정신총동원운동의 일익으로서 탄생했는데, 이제 국민총력운동의 산하에서

문인이기 전에 먼저 진정한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살고 일체의 사상적 장벽을 배제하고 모든 실천적 신도(臣道)에 들진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작년 12월 조선의 24개 도시에서 터져 나온 신체제의 외침도 어쩔 수 없는 우리 문인들의 열의의 일단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성전 4주년을 맞이하면서 더한층 자성하고 자계하여 일반인들의 모범이 되기를 기하는 동시에, 널리 지식인 대중에게 호소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한뜻으로 국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갈 것을 중용하고 또 이를 떠맡아야 하다.

의의 있는 날, 우리는 이를 지식인들 앞에 성명한다. (끝)

〈이상 하〉

〈출전 : 朝鮮文人協會, 「知識人に懇ろ」(上)(中)(下), 『京城日報』, 1941년 7월 8~10일〉

## 8) 폭풍인기 중에 개막되는 결전문화대강연회(기사)

미영(米英)에 대한 개전(開戰)에 즉응하여 문인협회 주최와 매신(每新), 경일(京日) 양 학예부 후원으로 전 문단인이 총동원이 되어 결전문화대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보도가 있자 이것은 근래에 없는 문단의 대성사(大盛事)이니만큼 각계에 대인기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문인협회측으로는 꾸야겸행으로 준비를 착진(着進)시켜서 11일까지에는 모든 준비도 되어, 동원되는 전원은 이젠 당일의 강연 시간을 기다릴뿐인데 당일 등장 연사들의 연제들은 다음과 같다.

### 제1부

1. 시국(時局)과 문인협회(文人協會) -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2. 총후(銃後)의 아등(我等)은 무엇을 할것인가? - 방촌향도(芳村香道)
3. 전시하(戰時下)의 문인(文人)의 각오(覺悟) -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4. 영미문화(英米文化)를 격(擊)한다 - 정인섭(鄭寅燮)
5. 역사(歷史)를 가르친다 -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6. 태평양문화건설(太平洋文化建設)의 추(秋) - 김동환(金東煥)
7. 영미(英米)를 충격(衝擊) - 이석훈(李石薰)

### 제2부 시낭독(詩朗讀)

이하윤(異河潤)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 김용제(金龍濟) 최정희(崔貞熙) 노천명(盧天命)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씨 등 외 십수 명 사회-백철(白鐵)

〈출전 : 「暴風人氣중에 開幕되는 決戰文化大講演會-今日 午後 2時 於府民館(入場無料)」, 『매일신보』, 1941년 12월 13일〉

## 9) 대동아문학자회의 반도측 5명 출발일정 결정(기사)

기보한 바 일본문학보국회 주최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3일의 명치절(明治節)을 북(卜)하여 帝都<sup>13)</sup>에서 개최케 되었는데, 당초에는 동아공영권내의 각 지역을 대표한 문학자들이 남방(南方)에서도 다수 참가기로 되었던 것이 □□와 수송관계로써 이번 제1회는 남방(南方) 문학자들의 초대는 중지하고, 결국 중화민국, 만주국 대표만을 초대케 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접대역으로서 조선과 대만에서도 대표 각 5명이 초대를 받게 되어 조선측대표는 8명으로 증가설이 있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5명으로 정식 결정, 이광수(李光洙), 방촌향도(芳村香道), 유진오(俞鎭午),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씨 등 5명이 출발기로 되었는데, 출석 일정은 31일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대만 대표 등과 만나서 산□(山口)호텔에서 1박(一泊)하고, 11월 1일 '사쿠라'로 시모노세키를 출발하여 2일에 상경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출전 : 「大東亞文學者會議 半島側 5名 出發日程決定」, 『매일신보』, 1942년 10월 20일〉

## 10) 가라시마 다케시, 조선문인협회의 개조에 즈음하여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는 최근 기구를 개혁했는데, 이것이 신문지상에 전해지자 일부 문인들 사시에서 다소 동요가 일었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건대 그러한 동요는 개혁의 실정을 잘 모르고 단지 자극적인 풍문에 불안해 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9년 10월 29일로, 곧 3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협회의 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번 혁신 선언을 보더라도 결성 선언문과 함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근본방침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 기구를 약간 바꾸었지만, 이는 단지 그 결성의 본래 목적에 한층 더 정신(挺身)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고, 굳이 예를 들자면 시대의 추이에 따라 한층 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을 새로이 한, 두 번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기구 개혁에서 공표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 이후 여기에 완전 긴밀한 국내의 일치단결을 이루고, 또 그 전과가 더욱 증대하여 황위(皇威)가 대동아에 두루 미치고 있는 때에, 반도의 문화적 존재는 점차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리 반도 문인 일동은 안으로 황민단결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밖으로는 대동아 민족들을 지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광과 책임을 통감한다. 따라서 본 협회의 기구를 개혁 강화함으로써 그 임무에 부응할 것을 기한다.

13) 도쿄(東京)를 지칭.

이를 협회 결성 당시의 선언문과 함께 읽어보면 기구의 개혁이 한편으로 자각을 새로이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활동을 위해 형태를 조금 바꾼 것에 지나지 않음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바뀐 기구인데, 요점은 종래의 기획부를 폐지하고 총무부와 문학부라는 2부제로 한 것과 간사를 증원하고 상임간사의 부서를 조금 바꾼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 새로운 활동을 위한 준비이다. 여기에 새 조직을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간사장 : 방촌향도(芳村香道, 요시무라)<sup>14)</sup>

상임간사

총무부

총무 :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쓰다 가타시(津田剛)

상무 : 목양(牧洋, 마키 히로시)<sup>15)</sup>,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금촌용제(金村龍濟, 가네무라)<sup>16)</sup>

문학부

평론부회 : 동원인섭(東原寅燮)<sup>17)</sup>, 백철(白鐵), ○최재서(崔載瑞)

소설·희곡부회 : 유진오(俞鎭午), ○이무영(李無影), ○유치진(柳致眞)

시부회 :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백산청수(白山靑樹)<sup>18)</sup>,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간사 : 사토 기요시(佐藤清), 김억(金億), 이태준(李泰俊),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최정희(崔貞熙), 함대훈(咸大勳), 모운숙(毛允淑), 이현구(李軒求), 노천명(盧天命), 서야두수(徐野斗銖)<sup>19)</sup>,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 ○정인택(鄭人澤)

(○표시는 신임 간사)

간단히 해설한다면 총무부는 협회의 통제를 맡아 외부와의 절충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상무는 협회의 움직임에 추진력이 되어 각 부회와의 연락으로 매우 바빠 활동할 것이다. 문학부의 각 부회는 각각 매월 정례 상담회를 열어 각 부분의 연구를 축적하고 상임 외의 간사 임무는 종래와 다르지 않다.

한편 첫 상임간사회가 결정한 협회 당면의 실천요강은 위의 인적 배치보다 협회원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조선의 문화 향상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

### 조선문인협회 실천요강

#### 1. 문단의 '국어'화<sup>20)</sup> 촉진

14)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15)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16)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17) 정인섭(鄭寅燮)의 창씨명.

18)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19) 서두수(徐斗銖)의 창씨명.

- 1) '국어'문학상의 설정
- 2) 잡지 '국어'란의 확충
- 3) '국어' 창작의 지도
2. 문인의 일본적 단련
  - 1) 성지참배
  - 2) 봉사생활의 실천
  - 3) 일본고전연구회 개최
3. 작품의 국책협력
  - 1)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신의 작품화
  - 2) 도의조선(道義朝鮮) 확립의 의의 탐구
  - 3) 동아신질서 건설의 인식 철저
  - 4) 징병제의 취지 철저
4. 현지에 작가 동원
  - 1) 조선 내 현지 시찰
  - 2) 북·남 중국의 전쟁터 탐방
  - 3) 만주개척촌 시찰

앞으로 이 실천안은 착실히 실행될 것이다. 이를 위한 자금 준비도 끝났으니 이제는 각자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특히 '국어'문학상은 1년간 '국어' 작품을 심사해서 최고상으로서 총독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회상도 3명 정도는 뽑고 싶다. 상세한 것은 당국과 충분히 연락을 취한 뒤 추후 발표할 생각이다. 작가의 일본 내지 파견도 성지참배를 겸해서 각지에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싶고, 이 또한 상당액의 예산을 짜서 현재 관계당국과 접촉하는 중이다. 기타 항목도 이 초안대로 실행될 것이다. 이번 기구 개혁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 기구 개혁, 나아가서는 이러한 실천체제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상무 제군들의 열의에서 발단을 둔 것으로, 이 점은 구 간사가 깊이 감명을 받은 바이고, 또 그 3명에게 앞으로 절대적인 희망을 걸며 노고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끝맺고자 한다. 기구의 개혁, 자금의 충실, 사무규정의 정비, 실천요강의 발표, 이러한 것들 모두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학은 역시 개인의 것이다. 협회의 운영은 회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국가봉사의 길을 사회적으로 결부시키는 하나의 앞선일 뿐이다. 회원들 각자가 진정으로 전시하의 일본국민으로서의 깊은 자각과 신념을 갖지 않는다면 협회의 발전도 없고 문운(文運)의 융흥도 있을 수 없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국민의식의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보국의 적성(赤誠)을 피력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노력할 뿐이다. 협회원 각 개인은 앞으로 더욱 시국이 요청하는 바, 국민으로서의 문필인으로서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일억전심(一億專心), 문장보국(文章

---

20) 일본어.

報國)의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이 업(業)에 경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국가의 초비상시에 있어서 이러한 적성이 없는 자는 미련 없이 펜을 꺾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인사 관계는 이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간사 상호간, 혹은 일반 회원들과 간사 사이에 개성의 차이나 말에서 생기는 오해는 다소 불쾌한 감정을 서로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야말로 지식인이라 불리는 자는 그러한 사소한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의 성격을 도야하여 언동을 삼가고 서로 함께 깊이 제휴 협력하여 글자 그대로 총력체제를 갖추어 오로지 보국의 길에 매진해야 한다. 회원 각자 품문에 동요하지 말고 한시도 학문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기연성(自己鍊成)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반도 문화의 발흥은 기대할 만한 것이다.

문학은 개인의 것임과 동시에 또 국가의 것이기도 하다. 협회 기구의 개혁에 있어서 협회원 각위의 내면적 분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인화(人和), 협력의 미덕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출전 : 辛島驍 「朝鮮文人協會の改組に就きて」, 『國民文學』 제2권 제9호, 1942년 11월, 42~44쪽〉

## 5. 조선문인보국회

### 1) 반도문학 총력집결, 각종 단체통합, 조선문인보국회 결성식 성대(기사)

결전 하 반도문학자의 총력을 결집하여 황도세계관을 형성하고 국민총력운동의 한가닥으로서 문장보국에 매진하고자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 조선하이쿠작가협회(朝鮮俳句作家協會) 조선천류협회(朝鮮川柳協會), 국민시가연맹(國民詩歌聯盟)의 네 단체가 발전적 해소를 보는 동시에 이를 문학단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본적 세계관에 입각한 황도문학 수립을 위해 발족하게 된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의 빛나는 발회식은 17일 오후 1시 반부터 부민관 대강당에서 천여 명이 참집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발회식은 반도문학의 결전태세를 갖추는 모임답게 결전하 문필전사의 결의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문학보국에 있어서 “격멸하고야 만다”는 전투정신에 불타는 정신을 십분 나타내는 가운데 회장의 추대와 이사장 역원 등 부서의 결정이 있고 끝까지 반도문학 결전판을 유감없이 이용하였다.

이날 식은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 총력연맹선전부장 쓰다(津田剛) 씨를 좌장으로 하고 연맹문화과장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씨의 창립경과 보고가 있고 회칙 심의를 한 후 회장으로 야나베(矢鍋永三郎) 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자 야나베 씨가 등단하여

“결전하 문학에 의한 전장정신의 양양지도와 문학을 통해서 전쟁완수에 협력 촉진하여야 할 사명이 중대한 이때 회원 제군의 책임은 무겁고 큰 것이 있다. 전시하 국민들에게 전장정신을 문학을 통해서 고취시켜야 할 것이며 또 유물적이고 공리적인 것을 뿌리 채 뽑아버리는 동시에 이에 의한 국민정신의 양양에 있어 문학자들에게 기대되는 임무는 크다. 더구나 반도문단의 국어화 촉진과 문학자의 일본적 연성에 정진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문학자들은 이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 황도문학 수립에 매진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는 인사가 있고 이어서 별항과 같은 다나카(田中) 정무총감의 축사를 비롯하여 이하라(井原) 조선군 참모장, 하다(波田) 연맹사무국총장, 신문의 측으로 다카미야(高宮) 경성일보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사장으로 가라시마(辛島驍) 씨가 피선되어 이사장으로부터 이사의 지명과 밑 인사말이 있는 후에 역원 부서가 회원의 박수 속에 발표되었다. 이때 긴급동의로 선언과 황군감사결의문(皇軍感謝決議文)의 제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바로 작성위원들이 별항과 같은 선언과 감사문을 작성하였고 내빈의 축사로서 미술가협회의 축사와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 멀리 만주문예가협회(滿洲文藝家協會)에서 온 격려축전의 피에 뒤이어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사무국장으로부터 앞으로 계획할 사업을 설명하고 포부를 피력한 후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과 성수만세의 봉창으로 제1부를 끝마치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2부로 들어가서 우의단체인 조선음악협회와 조선연극문화협회에서 새로 발족하는 조선문인보국회의 전의양양을 위한 협찬출연이 있어서 음악에는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씨, 마금희(馬金喜) 여사의 독창과 계정식(桂貞植) 씨의 제금 독주, 청목흥렬(淸木興烈)<sup>21)</sup> 씨의 반주 등이 있었고 이동연극 제1대의 선서극(원작 김용제)의 공연이 있는 후 동 5시 반경 폐회하였다.

#### 선언

대동아전쟁결 결단에 있어서 바야흐로 치열한 사상문화의 전개를 보려는 금일 전조선의 문학자 일동 일신은 □하야 강고한 단결□ 일□(一□)의 미영적 공리(公利)문학을 격멸하여 조선에 세계최고의 황도문학을 정립(鼎立)하고자 싸우는 문학자로서의 굳은 결의를 표명하여서 성은(聖恩)에 □기(□寄)해 받들 것을 맹서함.

#### 황군감사결의문

우리 충용한 황군장병제사(諸士), 이제 혈전사투로써 대동아를 수립하고 미영세력을 철저히 격멸하였다. □□□ 조선문학자 일동, 문학을 가지고 미영에 전쟁을 선언하여서 제사(諸士)의 은□(恩□)에 응답할 것을 맹서하며 멀리 감사□□□를 □함

1943年 4月 17日 조선문인보국회

#### 각부 역원 선정

새로 발족한 조선문인보국회의 중요한 역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 이사장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 상무이사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사토 다케오(佐藤武雄), 유진오,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 이사 향산광랑(香山光郎)<sup>22)</sup>, 사이토 기요에(齋藤清衛), 니시무라 고히(西村公鳳), 유치진, 최재서 외 수 명 ▲ 사무국장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 총무부장 방촌향도(芳村香道)<sup>23)</sup> ▲ 출판국장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 사업부장 미치히사 료(道久良) ▲ 심사부장 백산청수(白山靑樹)<sup>24)</sup> ▲ 소설희곡부회장 유치진 ▲ 평론수필부

21) 이흥렬(李興烈)의 창씨명.

22) 이광수의 창씨명.

23) 박영희의 창씨명.

회장 최재서 ▲ 시부회장 송촌굉일(松村絃一)<sup>24)</sup> ▲ 단가(短歌)부회장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 하이쿠(俳句)부회장 야마다 혼지(山田凡二) ▲ 셴류(川柳)부회장 데라다 고류시(寺田五柳子)

그리고 이 외에 각부에는 간사장이 있다.

〈출전 : 「半島文學總力集結－各種團體統合, 朝鮮文人報國會 結成式 盛大」, 『매일신보』, 1943년 4월 18일〉

## 2) 문보(文報)의 페이지

### 발족

종래의 문학 다섯 단체를 통합해서 조선의 문학력을 총결집함으로써 문학의 전투태세를 정비하려고 하는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성부민관 대강당에서 다나가(田中) 정무총감, 이하라(井原) 조선군 참모장, 하다(波田)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의 참석 하에 2천여 명의 회원 및 방청자를 앞에 두고 화려한 발회식을 가졌다.

국민의례가 있는 뒤 쓰다(津田) 총력연맹 선전부장이 좌장이 되어 통합의 취지 및 경과에 관해 설명하고, 야나베(矢鍋) 전 문화부장이 회장에 취임하여 이사장 및 이사를 지명하고 내빈의 축사가 있었다.

다나가 정무총감은 축사에서 “종래의 문학자는 자칫 자신의 예술에 너무 철저한 나머지 때로 국가와 사회를 망각하고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현실을 배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이기적 세계관에 인심을 유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영미적 세계관의 모략의 독수(毒手)에 빠지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황국(皇國) 문학자로서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며 준열한 소견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하라 참모장은 특별히 이 기회를 빌려 전황(戰況)의 일단을 말하고 솔로몬 해전 이래 미국의 국부적 반항이 점차 본격화하자 국내에서는 벌써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전(緒戰) 이래의 전과에 점차 눌러 국민들이 긴장과 각오를 결심한 결과이며, 이를 기회로 일억 국민은 필승의 신념에 불타올라야 함을 나폴레옹 3세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강조하였다. 특히 대동아 각 지역의 자원 개발은 단지 일본이나 아시아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능히 세계 신질서를 건설한 만큼의 웅대한 구상 아래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힘 있게 천명하시고, 사상전의 분야에서의 문학자의 각오를 촉구하였다. 반도의 문학자가 오늘날만큼 엄숙한 자기 사명을 느낀 적은 없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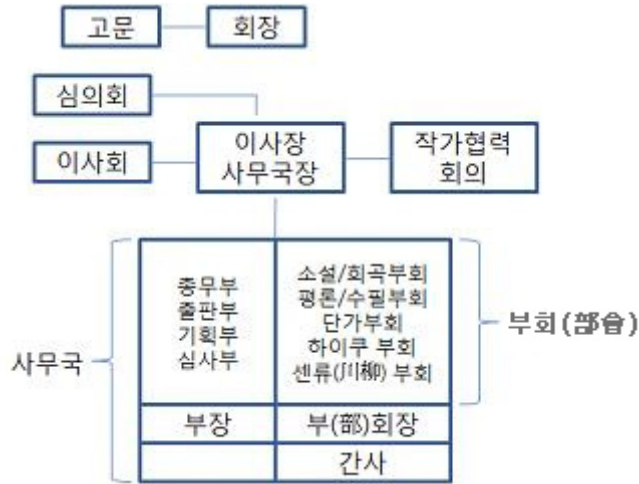
### 모임의 정신과 조직

이 모임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문학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데 있는데, 또한 규칙 제3조에는 모임의 목적을 “조선의 문학자의 총력을 대동아전쟁의 목적에 결집하고 황도세계관(皇道世界觀)을 현현하는 일본 문학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모임은 종래 제각각이었던 다섯 단체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선은 회원 개개인의 총력을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일 가라시마(辛島) 이사장이 사람들의 화합을 강하게 역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24) 김동환의 창씨명.

25) 주요한의 창씨명.

본회의 조직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원과 회원

발회식에서 야나베 회장이 발표한 임원 성명 및 부서는 다음과 같다.

#### ◇ 이사장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 ◇ 상무이사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사토 다케오(佐藤武雄), 유진오(俞鎭午),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 ◇ 이사

향산광랑(香山光郎, 가야마 미쓰로)<sup>26)</sup>, 사토 기요시(佐藤清), 사이토 기요에(齋藤清衛), 니시무라 고타(西村公鳳), 요코야마(横山巷頭子), 유치진(柳致眞), 최재서(崔載瑞), 송촌굉일(松村紘一)<sup>27)</sup>,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야마다 혼지(山田凡二), 데라다 고류시(寺田五柳子), 방촌향도(芳村香道, 요시무라 고도)<sup>28)</sup>, 기쿠치(菊池月日子), 미치히사 료(道久良), 백산청수(白山靑樹, 시로야마 세이주)<sup>29)</sup>

#### ◇ 부회

소설·희곡부 : 회장 유치진(柳致眞), 간사장 목양(牧洋)<sup>30)</sup>

평론·수필부 : 회장 최재서(崔載瑞), 간사장 평소문보(平沼文甫)<sup>31)</sup>

시부 : 회장 송촌굉일(松村紘一, 마쓰무라 고이치), 간사장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26)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27)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28)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29)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30)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31) 윤두현(尹斗憲)의 창씨명.

단가부 : 회장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간사장 스에다 아키라(末田晃)  
하이쿠(俳句)부 : 회장 야마다 혼지(山田凡二), 간사장 가도와키 하쿠후(門脇白風)  
센류(川柳)부 : 회장 데라다 고류시(寺田五柳子), 간사장 하시모토 고토야(橋本言也)

◇ 사무국

사무국장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총무부장 방촌향도(芳村香道), 출판부장 기쿠치(菊池月日子), 사업부장 미치히사 료(道久良), 심사부장 백산청수(白山靑樹)

본 회의 정회원은 “조선에 거주하고 또는 조선과 관련이 깊은 문학 활동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심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각 부회 소속의 회원들이 결정될 것이다.

첫 사업

본회는 첫 사업으로서 국민총력연맹 및 본지와 공동 주최로 육군보도반원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씨와 우에다 히로시(上田廣) 씨, 육군보도반원 이노우에 고분(井上康文) 씨를 초빙해서 「남방 중군작가 현지 보고대회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본회 결성을 기념하는 작가의 작품 전람회를 개최한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보도반원이 경성에 도착하는 4월 30일에는 본회 주최의 문인교환회(文人交歡會)를 개최하기로 했다.

〈출전 : 「文報の頁」, 『國民文學』 제3권 제5호, 1943년 5월 120~121쪽〉

### 3) 조선문인보국회 각 부회 역원 결정(기사)<sup>32)</sup>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각 부회의 부회장(部會長) 간사장(幹事長) 상담역(相談役) 평의원(評議員) 간사(幹事) 등을 결정하여 진용을 정비하였다.

소설회곡부회

부회장(部會長) 유치진(柳致眞)  
간사장(幹事長) 목양(牧洋)  
상담역(相談役) 김동인(金東仁) 안중화(安鍾和) 방인근(方仁根) 이태준(李泰俊) 이기영(李箕永) 목산서구(牧山瑞求)<sup>33)</sup>  
평의원(評議員) 채만식(蔡萬植) 김남천(金南天) 박태원(朴泰遠) 조용만(趙容萬) 임선규(林仙圭)  
간사(幹事) 이무영(李無影) 兒玉金품 정인택(鄭人澤) 山川寬 汐入雄作 정비석(鄭飛石)

32) 이 기사의 경우 일본 인명을 그대로 한자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33)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평론수필부회(評論隨筆部會)

부회장 최재서(崔載瑞)

간사장 平沼文甫

평의원 荻原淺男 田中梅吉 김기진(金基鎭) 이현구(李軒求) 이원조(李源朝) 임화(林和) 이갑섭(李甲燮)  
嶺幹一 백철(白鐵) 김오성(金午星) 안함광(安含光)

간사 홍효민(洪曉民) 前川勘夫 오정민(吳禎民)

시부회(詩部會)

부회장 松村紘

간사장 松本長夫<sup>34)</sup>

상담역 佐藤清

평의원 김억(金億) 정지용(鄭芝鎔) 田中初夫 中尾清

간사 금춘용제(金村龍濟) 김중한(金鍾漢) 則武三雄 조우식(趙宇植) 윤곤강(尹崑岡) 임학수(林學洙)

단가부회(短歌部會)

부회장 百瀬千尋

간사장 末田晃

평의원 君島夜詩 口場すゑ 寺田光春 吉城珠江 日高一雄 椎木美代子

간사 増山三亥 濱田實 今府男 下脇光夫

하이쿠회(俳句會)

부회장 山田忠次

간사장 門脇白風

상담역 石田牧羊 井澤巨明 小山一徳 五味甲男 遠入たつみ 野田神郷 山口粹悦 久米辛口 吉岡富士堂

평의원 稻森孟白羊 岩下青夢 富岡子笏 笠井 清 米原行人 津田卯更 中村白天 大塚楠畝 黒米松青子 小  
山草緑 近藤一鴻 齋藤去秋子 櫻井張鳳煥 北川佑人 四富口滿 憎尾口溜子 森實告天子 櫛田勝  
丘子 山田青史 山田佐人

간사 井上条雨窓 沼透口 水 安田翠甫山下遊子 騰野夏江 白木鯉清

센류부회(川柳部會)

부회장 寺田五柳子

간사장 橋本信也

상담역 口子省二 吉木石秀郎 高宵口灯 高岡可數

34) 杉本長夫의 오기.

평의원 長谷川滿流 向田口六 熊本勝人 口具銀維漢 小林羽城 津田間月冠 杉本宵門 河内木堂 高宮燈  
下 桑野口圓 岩尾青詩 元木亞南 井上綠竹 林 南 隅越智伽藍 田村騰波 三鴨美笑 高野白降 三  
栗谷妙法寺 島本筋斗

간사 柴田青芳 久保花門 森田茗人 夔津啓一郎 池田可宵 久留米雪城 矢谷詩口郎

〈출전 : 『朝鮮文人報國會 各部會役員決定』, 『매일신보』, 1943년 6월 17일〉

#### 4) 조선대표 6씨 결정, 대동아문학자대회에(기사)

나날이 치밀하여지는 결전단계에 대응하여 대동아 10억 민중의 대표적 문화자를 이곳에 모집하고 동아공영권 내의 각 민중의 문화협력을 감화하는 동시에 사상결전에서도 귀축미영을 철저히 격멸하는 실천방책을 협의하는 “제2회 대동아결전문학대회(第二回 大東亞決戰文學大會)”는 오는 8월 2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도쿄(東京)에서 개최기로 되었다. 이에 참석할 중국 만주국 몽강(蒙疆) 화북(華北) 등 각지 대표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에서도 총독부의 의향을 참작하여 그동안 조선문인보국회와 협의한 후 신중히 동대회에 □□할 반도대표를 전형중이던바, 정식으로 6씨(氏)를 결정하고 11일 발표하였다. 이들은 광영의 징병제와 해군특별지원병제의 실시를 맞이하여 한층 충후보국을 맹서하는 문화반도의 결의를 널리 대동아문학자대표들에게 □□을 헤치고 전달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을 통하여 대동아 각 지역 민중들과 문화의 교류(交流)를 꾀하여 빛나는 동아문화건설에 이바지할 터로써 기대되는 바 크다. 발표 대표는 다음과 같다. 쓰다 가타시(津田剛) 유진오(俞鎮午) 유치진(柳致眞) 최재서(崔載瑞) 목양(牧洋)<sup>35)</sup> 금촌용제(金村龍濟)<sup>36)</sup>

〈출전 : 『朝鮮代表 6氏 決定, 大東亞文學者大會에』, 『毎日新報』, 1943년 8월 12일〉

#### 5) 조선문인보국회 사무국, ‘문보의 페이지’ 중 8월 16일 기사

8월 16일 오후 5시부터 아서원(雅絃園)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야나베(矢鍋) 회장은 사고, 가라시마(辛島) 이사장은 병으로 결석.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유진오(俞鎮午), 사토(佐藤), 데라모토(寺本), 향산광랑(香山光郎)<sup>37)</sup>, 요코야마(橫山), 니시무라(西村), 최재서(崔載瑞), 송촌굉일(松村絃一)<sup>38)</sup>, 모모세(百瀬), 데라다(寺田五柳子), 방촌향도(芳村香道)<sup>39)</sup>, 기쿠치(菊池), 미치히사(道久), 백산청수(白山靑

35)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36)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37)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38)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39)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樹)<sup>40)</sup> 등 각 이사 출석. 데라다 사무국장이 발회 이래의 경과와 현 상황을 보고, 예산 개요, 사업계획을 설명, 지방 지부 규정은 데라다, 데라모토, 기쿠치, 요코야마, 모모세, 송촌(松村) 6명을 위원으로 올려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출석해야 할, 이사가 아닌 회원으로서 쓰다(津田), 금촌(金村, 가네무라)<sup>41)</sup> 두 사람도 특별히 참석해 장행회를 겸하기로 했다.

〈출전 : 朝鮮文人報國會 事務局, 「文報の頁」 中 '8月 16日 기사', 『國民文學』 제3권 제9호, 1943년 9월, 43쪽〉

## 6) 문학자대회 대표 귀환보고 강연회 성황(기사)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의 조선대표로 출마하였는 쓰다(津田) 씨 외 4명은 지난 8일 대표로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11일 오후 7시 반부터 부내 태평동 체신회관에서 문인보국회 회원 그 외 일반 내청자 등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표 5씨의 보고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고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 간사 데라다(寺田) 씨의 사회에 이어 쓰다 씨는 '대동아문학자대회사관'이란 연제로

각 지역의 대표가 각각의 의견을 제의하였다. 특히 조선서 최재서 씨가 '조선의 징병제 실시와 문학활동'이란 주제로 조선 문단의 전환을 말하여 큰 감명을 받고 다음 전력의 증강이 되고 경비가 적게 들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우리 대표들이 의논한 결과 일치된 의견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세계사를 전환할 계기로 대동아 10억 민중이 일치 결합하여 작품을 통하여 적 격멸에 매진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12월 8일<sup>42)</sup>을 우리는 펜을 총검으로 삼고 싸워야 할 것을 이 대회에서 통감하였다.

는 열렬한 강연이 있고, 다음 유진오 씨로부터

'관서(關西) 견학'이란 연제로 나고야를 견학하였다. 나고야의 특장은 도쿄, 오사카, 교토를 합하여 셋으로 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국에서 미쓰비시의 비행기 공장을 견학하였는데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이 공장을 눈 아래서 볼 때 한 없이 든든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오사카에 재주하는 반도인이 약 50만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가 생산전사라고 하였다. 이들이 전력증강의 한 부면을 맡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이 기쁨을 깨달았다.

다음 가네무라(金村용제) 씨로부터 '신성문학(神性文學)에와 비원(悲願)'이라는 연제로

이세(伊勢)신궁, 가시와라(檜原)<sup>43)</sup>신궁을 참배하고 일본은 실로 신국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결전문학의 이념에 대하여는 각 방면에서 말하고 있거니와, 이겨내는 문학의 다음□을 이겨낸 다음 영원히 계속될 문제를 나는 생각한다. 결국 신에 비원하는 것, 신성문학으로 이르러 비로소 대동아문학의

40)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41) 김기진(金基鎭)의 창씨명.

42)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날.

43) '가시하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임.

사명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유지진 씨로부터 ‘연극에 본 대동아의 태동’이란 연제로 대동아에 건설되려는 극문학은 10년 전 도쿄에서 일류 대극장이라고 하는 제국극장이 지금은 오בות한 소극장에 불과하는 극장으로 변해진 느낌이 있었다. 그만큼 극장건축, 특히 여러 가지 건축들 공업상황이 발달되었다. 연극의 발달은 극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극장발전에 비하여 연극발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된 과정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질적으로 뒤떨어진 연극 자체의 이유는 신극(新劇)이 자유주의에서 출발하고 사실주의이기 때문인 것이다. 즉 구미에서 계승받은 것이요, 오늘에 와서 완전히 몰락된 것이다. 이것이 뒤떨어진 이유인 것으로 믿는다. 이에 우리는 신극에 대신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비로소 대동아에 힘찬 연극이 수립될 것으로 믿는다.

다음 최재서 씨로부터 ‘대동아의 결의’란 연제로 이번 대동아 각 지역의 문학가 한자리에 모여 흥금을 털어 서로의 의견을 말한 것은 대동아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말한 것이다. 이번 싸움은 대동아의 건설전이다. 대동아 10억의 결속으로 위대한 건설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대동아의 마음과 마음, 열과 열혼이 결속되어 대동아의 의식은 굳어지고 힘찬 결의가 있을 것이다.

는 열렬한 강연으로 등 10시경 성황리에 보고강연회는 끝났다.

〈출전 : 「文學者大會代表 歸還報告講演會 盛況」, 『매일신보』, 1943년 9월 12일〉

## 7) ‘문보’ 기구개혁, 일부 역원도 개선 강화(기사)<sup>44)</sup>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19년도<sup>45)</sup> 정기총회를 지난 18일에 열고 회 조직을 개혁하고 이어서 역원 개선을 하였다. 이번 회 조직의 개혁에 의하면 고문·참여제를 폐지하고 심의원회, 평의원회, 각부 회장에 의한 이사회로서 조직하고 있다. 더구나 종래 사무국 총무부장을 폐지하고 상무이사를 두었으며 부서 중 소설회곡부회로부터 극문학부회를 독립시키었다. 이제 역원 씨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장 矢鍋永三郎 ▲심의원 阿部 정보과장, 八木 보안과장, 本多 학무과장, 長屋 군보도부장, 松本 해군무관, 津田 연맹홍보부장 ▲評議員 香山光郎 齋藤清衛 石田耕造 松村紘一 横山巖 佐藤武雄 湯淺克衛 ▲理事長 兼 事務局長 辛島驍 ▲常務理事 菊池武夫 金村八峯 ▲小説部會長 俞鎮午 幹事長 李無影 ▲劇文學部會長 柳致眞 幹事長 牧山瑞求 ▲評論隨筆部會長 金村八峯 幹事長 平沼文甫 ▲詩部會長 杉本長夫 幹事長 金村龍濟 ▲短歌部會長 百瀨千尋 幹事長 古城珠江 ▲俳句部會長 山田忠次 幹事長 文協 喜忒次 ▲川柳部會長 寺田良之助 幹事長 橋本與三郎 (하략)

〈출전 : 「文報 機構改革—一部 役員도 改選強化」, 『매일신보』, 1944년 6월 22일〉

44) 이 기사의 경우, 인명을 그대로 표기했다.

45) 소화 19년도, 즉 1944년도.



## 8) 조선문인보국회 사무국, 반도문화자 총결기대회

### 선언

대동아전쟁은 바야흐로 결전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적 미·영은 오로지 물량을 믿고 교만 치열한 반공을 계속하고 있다. 그저께는 동이 틀 무렵 불명하게도 우리 본토를 공격했다. 우리는 곧바로 이를 격쇄했다고는 하지만 비상시라는 느낌이 드디어 깊어짐을 깨닫는다. 이러한 황국의 중대 시국에 직면해 우리 반도의 문인들은 여기에 총력을 결집하여 신주(神州)<sup>46)</sup> 불발(不拔)의 신념에 따라 결전 하의 황도문학(皇道文學)을 확립하고 펜을 검으로 여기고 적의 음모를 격퇴(擊摧)하고 국민의 적개심을 고양하기 위해 여기에 굳은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황은(皇恩)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

1944년 6월 18일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

본 대회는 1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일로 계획되어 있다.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씨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방촌향도(芳村香道, 요시무라 고도)<sup>47)</sup>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송촌굉일(松村紘一, 마쓰무라 고이치)<sup>48)</sup> 금촌팔봉(金村八峰, 가네무라)<sup>49)</sup> 하시모토 고토야(橋本言也),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의 여섯 위원들은 거의 불면·불휴의 활동과 업무의 ㄱ반적 처리로 준비는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연차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본문학보국회에서 결전체제 즉응 문학자 총결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뜻을 통보해온 동시에, 조선 측 대표를 파견하라는 연락을 접하고 본 회에서는 서둘러 사토 기요시(佐藤清), 유진오(俞鎭午), 이무영(李無影) 세 명의 파견 절차를 밟는 한편, 본 회에서도 일본 내지에 호응해서 결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만주국 문예가협회의 대표를 초빙하기 위해 타진, 이어서 조선 내 각지의 회원 대표도 초대해서 각자의 발랄한 결의 촉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15일에는 만주 측에서 고정(古丁) 씨와 금촌영치(今村榮治, 이마무라 에이지)<sup>50)</sup> 씨를 파견하겠다는 답신을 접하고 본 회로서는 만주 예문(藝文)의 실정에 밝은 목양(牧洋, 마키 히로시)<sup>51)</sup> 씨를 평양에 보내 두 사람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방회원으로부터도 출결(出缺) 답신이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바쁜 업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16일 아침이다. 적기가 기타규슈(北九州)에 내습하자 전국에 공습경보가 발포되었고 이어서 이튿날 경계경보가 발포되면서 각 위원들의 피로도 더욱 배가되었지만, 멸적(滅敵)의 투혼에 불타며 준비를 강행해서 마침내 대회 당일을 맞이했다.

오후 1시 20분에 연차총회가 열렸다. 내빈으로는 아베(阿部) 정보과장, 諸留 조사관, 해군부관부 마쓰모토(松本) 대좌, 조선군 보도부 이하라(井原) 참모,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쓰다(津田) 홍보부장, 다나

46) 신국(神國)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자국을 자랑할 때 사용한다.

47)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48)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49) 김기진(金基鎭)의 창씨명.

50) 조선인이나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51)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카(田中) 문화과장, 문화단체 대표로 서도(書道)보국회 회장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씨, 만주대표 고정 씨와 이마무라 에이지의 양 씨, 일본문학보국회 대표로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씨, 지방대표로 시(詩) 부회의 사토 노부시게(佐藤信重), 청엽훈(靑葉薰)<sup>52)</sup>, 평론·수필부회의 함대훈(咸大勳), 서야두수(徐野斗銖)<sup>53)</sup>, 박승극(朴勝極), 소설부회의 이태준(李泰俊), 청목홍(靑木洪)<sup>54)</sup>, 오영진(吳泳鎭), 하이쿠(俳句) 부회의 가메야마(龜山末刀), 셴류(川柳)부회의 다무라 가쓰나미(田村勝波), 高口司口, 단가부회의 구보타 히카루(久保田光) 씨의 12명으로 참석자가 200명에 가까운 성황이었다.

야나베 회장의 인사 뒤 전 이사장 쓰다 씨의 사업보고, 신 이사장 가라시마 다케시 씨와 새 임원들의 면면이 발표되었다.

총회가 끝나고 2시부터 총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수불(修祓), 국민의례, 대조봉찬(大詔奉讚),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을 하고 본 대회 정무총감 격려사를 아베 정보과장이 대독했다.

“생각건대 오늘날과 같이 국민 활동의 일체를 전력화하고 오로지 성전 완수에 매진해야 하는 때에는 모든 문학 활동도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미·영 격렬이라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선군 보도부 이하라 참모, 해군무관부 마쓰모토 대좌, 조선연맹 사무국 차장 간규 다다오(簡牛凡夫) 씨의 축사를 쓰다 씨가 대변, 재정성문화단체 대표로 하야시 시게키 씨, 만주대표 고정 씨, 일본문학보국회 대표 유아사 가쓰에 씨의 축사가 이어졌고, 다음으로 제2부에 들어갔다. 제장(諸長)으로는 문단의 원로 향산광랑(香山光郎)<sup>55)</sup> 씨를 추대, 간단한 인사가 있었고, 아베 정보과장의 자문 「결전태세에 적응하는 문학자 총궐기의 구체적 방책에 대하여」가 제시되었고 곧바로 각 부의 회장들의 활발한 결의가 피력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부의 회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문 답신서가 아래와 같이 기초되었다.

1. 문학자 자신의 황민적(皇民的) 교양을 더욱 순화시키기 위해 수학연행(修學練行)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문학자 스스로 깊이 반성하여 행주좌와(行住坐臥)에 결전 생활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함으로써 민중의 규범이 되는 기풍을 순치할 것.

2. 국민의 사기를 고무하고 적개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 작가층으로 하여금 민중계발운동에 헌신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서 문학자는 공장, 광산, 농촌 및 전선에 파견 위문하도록 하여 현지에 취재하는 종이연극, 각본, 시가, 단문 등을 제작·제공함으로써 학교, 직장 및 애국반에서의 문학 낭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들을 조성할 것.

3. 반도 민중에 대해 대동아 성전의 목적을 현양하여 필승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대동아적 문학 교류 기회를 늘리고 특히 조선과 도쿄(東京), 신징(新京),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및 대만 각지와 인적 및 작품적 교류를 촉진할 것.

4. 징병제 구현화의 획기적 시기를 맞이한 조선의 총후에서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특히 문학자를 포

52) 이찬(李燦)의 창씨명.

53) 서두수(徐斗銖)의 창씨명.

54) 홍종우(洪鍾羽)의 창씨명.

55)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함한 일반 문화인의 순국적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내선일체의 숭고한 이상의 구체적 표현에 비약적 전진을 촉진할 것.

5. 전시하 사상전의 중대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 문학적 행동에 있어서 더욱 깊이 국가적 조장을 돕는 동시에 홍보·지도 방침의 확립 및 문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침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 문학자로 구성된 강력한 협의 체제를 정비할 것.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회장은 결전적 색조도 더욱 강해졌고, 때마침 옥외에는 천둥과 폭우가 쏟아져 대회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참가자 정원은 국민복에 권각반(卷脚絆)이나 몸빼 차림의 늠름하게 무장한 모습으로 5시간에 걸친 행사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잇따라 발언 신청은 증가되었지만, 시간 관계상 발언을 중단시키고 〈바다에 가면(海ゆかば, 우미유카바)〉 제창, 성수(聖壽)만세 제창을 하고 매우 의의 있는 본 대회는 폐회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대회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총독부 정보과의 지원에 기대는 바가 매우 크고, 육해군, 국민총력조선연맹 및 관민(官民)·관위(官位)의 후의(厚意)를 입었다. 마지막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당일에 발표된 임원 성명은 다음과 같다.

고문(顧問)과 참여(參與)를 없애고 심의회 및 평의원회를 설치해 총무부장 대신 상무이사를 두었다. 또한 소설·희곡부회는 소설부회, 극문학부회로 분립(分立)되었다.

- ◇ 회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 ◇ 심의원 아베(阿部) 정보과장, 야기(八木) 보안과장, 혼다(本多) 학무과장, 나가야(長屋) 군보도부장, 마쓰모토(松本) 해군무관, 쓰다(津田) 연맹 홍보부장
- ◇ 평의원 향산광랑(香山光郎, 가야마 미쓰로)<sup>56)</sup>, 사이토 기요에(齋藤清衛), 이시다(石田耕口), 송촌굉일(松村紘一)<sup>57)</sup>, 요코야마 이와오(横山巖), 사토 다케오(佐藤武雄),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 ◇ 상무이사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금촌팔봉(金村八峰)<sup>58)</sup>
- ◇ 소설부 회장 유진오(俞鎭午), 간사장 이무영(李無影)
- ◇ 극문학부 회장 유치진(柳致眞), 간사장 목산서구(牧山瑞求)<sup>59)</sup>
- ◇ 평론·수필부 회장 금촌팔봉(金村八峰), 간사장 평소문보(平沼文甫)<sup>60)</sup>
- ◇ 시부 회장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간사장 금촌용제(金村龍濟)<sup>61)</sup>
- ◇ 단가부 회장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간사장 후루키 다마에(古城珠江)

---

56)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57)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58) 김기진(金基鎭)의 창씨명.  
59)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60) 윤두헌(尹斗憲)의 창씨명.  
61)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 ◇ 하이쿠(俳句)부 회장 야마다 주지(山田忠次), 간사장 가도와키(門脇昌惣次)
- ◇ 셴류(川柳)부 회장 데라다 료노스케(寺田良之助), 간사장 하시모토 요사부로(橋本與三郎)

〈출전 : 朝鮮文人報國會 事務局, 「半島文學者總聯起大會」, 『國民文學』 제4권 제7호, 1944년 7월, 68~69쪽〉

## 9) 문화전선의 총공세, 17일, 적국(敵國) 항복 대강연(기사)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긴박한 전국에 대처하여 총후국민의 전의를 양양하고 적의 사상전, 모략전을 철저히 분쇄하여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고자 문화전선총공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되어, 우선 첫 행사로서 오는 8월 17일 오후 7시부터 경성 부민관 대강당에서 경성일보와 본사의 후원으로 반도문화계의 중진을 동원시켜 적국항복대강연회를 열기로 되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개회사 -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 전쟁과 문학 - 향산광랑(香山光郎)
-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 유진오(俞鎭午)
- 제 자신(自身)을 알자 - 송촌굉일(松村絃一)
- 문화인에 격(激)함 - 금촌용제(金村龍濟)
- 신문학(新文學)의 구상 - 석전경조(石田耕造)
- 애국시 낭독 - 스키모토(杉本長天)
- 동(同) - 박월탄(朴月灘)
- 동 - 고쇼(古成珠江)
- 동 - 고다마 긴고(兒王金吾)
- 폐회사 - 금촌용제(金村龍濟)

〈출전 : 「文化戰線の 總攻勢 - 十七日, 敵國降伏大講演」, 『매일신보』, 1944년 8월 13일〉

## 10) 남경에서 문학자대회, 조선대표 향산(香山), 금촌(金村) 양씨(기사)

사상과 문화 부면을 통하여 대동아의 총력을 집중하고 미영격멸의 결의를 드높일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국 남경(南京)에서 열리는데 조선에서는 가야마(香山光郎), 가네무라(金村八峰) 양 씨가 대표로 참석하기로 되었다. 두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5시 반 경성역을 통과하는 내지 측 대표 무샤코지(武者小路實篤)<sup>62)</sup> 씨 등 5인과 함께 일로 개최지로 향할 터인데 출발에 앞서서

62) 무샤노코지 사네아쓰가 정확한 이름. 일본 작가.

가야마 씨는 아래와 같이 감상을 말하였다.

“아세아에서 미영의 정치와 함께 미영의 사상으로 쫓아버리고 동아 제민족의 공통한 근본사 상인 인의(仁義)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대동아 제민족의 사명이다. 각 가족이 미영 마취에서 깨어나서 조상적 이상을 찾아낼 때 그것이 한 가지 ‘인의, 충효’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동아 12억 민족이 다만 얼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도 운명도 공통인 것을 인식하여서 가장 자연스럽게도 영구성 있는 공영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문학이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각 민족의 문학자들이 이 정신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조선 문학자들도 저마다 대동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동아 정신을 밝히는 문학의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출전 : 「南京에서 文學者大會 - 朝鮮代表 香山, 金村 兩氏」, 『매일신보』, 1944년 11월 5일〉

## 11) 성과는 실로 다대,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서 귀환한 향산(香山) 씨 담(기사)

지난 11월 12, 13 이틀 동안 남경(南京)에서 열린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조선측 대표로 참석하였던 가야마(香山光郎) 씨는 대회를 끝마친 후 천진(天津)에 들렀다가 지난 10일에 귀성하였는데, 씨는 이번 대회에 참석하였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동아문학자대회도 세 번째 개최를 하니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이번 모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차례차례로 앞을 다투어 제의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전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공영권 내 고전(古典)을 연구하여 각 민족의 공통되는 우주관(宇宙觀)과 인생관을 파악하자는 것이고, 둘째로는 ‘대동아문예원(大東亞文藝園)’을 세워 본부를 도쿄에 두고, 각 지역마다 지부를 두어 서로 약 1년 동안 자기 고장 문학자 5, 6명을 파견한 후, 상대 민족의 문학을 연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셋째로는 각 민족의 고전 전서(全書)를 편찬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으로 어느 정도의 실현을 보게 될는지 아직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중에도 각 민족이 서로 상대방의 고전을 연구하자는 것은 대회의 근본 성격으로 보아 꼭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조그만 ‘민족’이라는 돌레를 넘어서서 동양사람으로 공통되는 인생관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미영의 인생관이 오직 생존경쟁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비기어 우리 동양사람은 어느 때나 인(仁)과 의(義)를 중심으로 하여 무슨 일이든지 천의(天意)와 천명(天命)에 맞는 것으로 인생관을 삼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대동아 민족이 서로 굳게 맺어질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동시에, 이번 문학자대회는 이 한 가지 제의만으로도 성과가 자못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成果는 實로 多大 - 第3回大東亞文學者大會서 歸還한 香山氏 談」, 『매일신보』, 1944년 12월 11일〉

## 6. 조선연극문화협회

### 1) 1942년도 사업경과보고서

(조선연극문화협회 개요, 1943년 1월 10일 현재)

#### 1.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회원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수련을 기초로 하여 국민문화의 진전에 필요한 연극 및 연예의 기능을 연마하여 국민의식의 양양과 일반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본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a) 회원의 국민적 연성에 필요한 사업
- (b) 연극, 연예 및 극작(劇作)의 인쇄 향상에 필요한 사업
- (c) 연극 및 연극단체의 지도 및 통제 그리고 흥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 (d) 위의 각항 이외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3.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특별 회원(단체 대표자), 정회원(단체 소속원) 및 찬조회원으로 조직되며 임원에는 명예회장, 고문,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상임평의원, 평의원 및 간사 등 주무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를 빼고 모두 명예직으로 하여 회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직원에는 주사(현재 결원) 서기장, 서기, 사무원을 배치하여 서무 및 회계 사무의 만전을 기한다

#### 4. 본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극문화의 국민교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그것을 통해서 국가이념을 대중에게 감수(感受) 파악시켜 실천케 할 필요가 있으며, 절실한 시기인 1942년 11월 30일 시내 부민관에서 '조선연극협회'의 결성을 보게 되어 동년 12월 22일 부민관에서 담당관 임석 하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극단만을 가맹시킨 연극협회의 발족을 보게 된 바, 한 편 이것으로 인하여 악극, 곡마단 등의 지도 통제를 위하여 1941년 1월 27일에 부민관에서 별도로 '조선연예협회'의 결성을 보게 되는 때까지 이르러 이것을 시작으로 조선 내에서 연극, 연예 부문의 통일을 기하게 되어 양협회는 주무당국의 열성 넘치는 지도편달 아래 더욱더 사명 달성에 정진하여 같은 목적의 수행에 임하면서 연극, 연예 양협회가 분리 병립하기 위해 이것이 운영상, 원활 적정을 결여한 경향이 있음에 주무당국의 알선 하에 지난 1942년 7월 26일 부민관에서 양 협회는 발전적 해산을 하여 새로운 '조선극문화협회'의 창설을 보게 되어 조선에 있어서 연극 문화의 일원적 통제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서 본회의 현재 주요한 실천사항을 들어보면,

- (a) 국민총력 조선연극문화협회연맹을 결성하여 애국반 그리고 근로보국단의 결성활동
- (b) 회원의 생활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상의 시책으로서 공제회의 설치
- (c) 회원의 황민화 촉진과 국어 전해(全解) 상용의 철저

- (d) 국채의 구입과 저축의 여행(勵行)
- (e) 병기 기금 헌납과 위문품의 납부
- (f) 이동극단의 조직 운영(제1대 및 제2대)
- (g) 문화영화 '이동극단'의 제작
- (h) 극작가 및 연출가의 조성 연구부의 설치
- (i) 상연 각본의 엄선과 상연 기한 등의 여행
- (j) 가맹단체의 만주 공연의 적정 원활화
- (k) 중목조포(重目粗布)와 양침(洋針)의 배급
- (l) 연극문고의 설치 및 연극경연대회의 개최

등등에 있어서 목하 입안 계획 중의 주요한 것을 들자면,

- (a) 협회 회보 그리고 기관지의 발행
- (b) 조선연극사의 편찬
- (c) 전시하 국민문화의 진전에 필요한 각본의 모집
- (d) 불건전 회원 및 단체의 숙청과 더불어 건전화원의 조장
- (e) 연극문화전람회의 개최(올 봄)
- (f) 회원의 연성회의 개최(올 여름)
- (g) 연극문화회관(가칭)의 건립

등등이다

5. 본회의 임직원 및 가명(加名)단체의 이름, 별지와 같이 하여 1943년 1월 10일 현재 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원 29명  
 정회원 855명  
 찬조회원 10명  
 계 894명

#### 6. 현금상황에 대해서

대동아전쟁 개시 이래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여, 황군장병의 노고에 대응해서 후방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각 가맹단체(회원)들로부터 응분의 현금을 모금하여 아래와 같이 육해군에 현금을 드리고 금후에도 계속하여 국민적 지성의 발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채의 구입, 저축의 여행과 함께 현금을 모집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1941년 5월 26일 해군에 금 200엔 헌납(연극협회)  
 동년 7월 7일 해군에 금 100엔 헌납(연극협회)  
 동년 동월 동일 육군에 금 186엔 50전 헌납(연극협회)  
 동년 동월 동일 군사령부에 금 200엔 헌납(연예협회)  
 1942년 3월 9일 육군에 고사포 한 대 분에 해당하는  
 금 2,263엔 50전을 헌금 (연극협회)

1942년 5월 25일 해군에 금 2,000엔 현금(연극협회)

7. 이동극단 활동상황에 대해서

1943년 1월 10일 현재

〈제1대〉

활동개시 : 1941년 9월 2일

문화협회 결성 이전까지 공연회수 : 130개소, 156회 공연

문화협회 결성 이후 공연회수 : 80개소, 103회 공연

총동원 인원 수 : 429,786명

〈제2대〉

활동개시 : 1942년 8월 25일

공연회수 : 74개소, 82회 공연

총동원 인원 수 : 142,084명

이동극단 공연 활동 지역 : 함경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전라남북도  
별지(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국민총력조선극문화협회연맹 결성

본회 회원은 대부분 지방순연의 길에 나서는 등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개개의 애국반으로부터 시달되는 사향을 빠르게 숙지하는 것으로 황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새로운 전신하에 중요한 문제를 각 가맹단체 등 애국반에게 조선연극문화협회연맹을 결성하여 국민총력연맹으로부터의 시달 사향 등을 긴밀하고 원활하게 각 애국반원에게 주지시켜서 실행상에 있어서 그것을 새기도록 한다. 특히 매월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는 당일 재경중의 회원등을 모아서 '조서봉독식(詔書奉讀式)'을 거행하여 성전 완수를 기원함과 함께 철석 같은 의지로서 연극보국의 완벽을 기하게 되기를 자질의 연성을 닦아 나아가고 있음.

2. 공제회의 설치

회원 상호 복리증진과 친화공조를 꾀하기 위하여 주무당국의 승인을 받들어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으로 공제회를 조직하여 매월 한 사람 앞에 금 50전의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해 두고 결혼, 출산, 사망, 후생(질병), 재난이 닥쳤을 때에 소정의 급여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등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임.

3. 이동극단의 조직 운영

후방의 산업전사들에게 밤낮으로 근로에 매진하는 농산어촌 및 광산지대의 사람들에게 건전오락을 제공하여 사기의 진흥과 전력의 증강에 기여함과 함께 지방문화의 확립을 기하여 주무당국의 뜻을 받들어 본회 직영 하에 이동극단 제1대 및 제2대를 조직하여 (원래 조선연극협회 및 연예협회로부터 접수한 것을 정비 확충하여) 모든 고난과 싸워서 많은 희생을 참아내어 목적달성에 나아가고 있으며, 올해 3월 말까지의 공연 회수 415회(164회는 원래 극협 소속 때의 부분)에 이르며 총 관람객 수는 실제로 642,768인(378,630인은 원래 극협 소속 때의 부분)에 달했던 바이며 특히 제1대에 있어서는 신태양사(모



던일본사의 전신)에서 제정한 조선예술상을 지난 3월 31일에 수상하여 금후의 분발에 일단의 정채(精彩)를 가하기에 이르렀음.

#### 4. 연극경연대회 개최

대동아전쟁 완수 하에서 내선일체의 강화정진, 일본정신의 발양, 전쟁의식의 고무 등과 아울러 연극 문화의 양양을 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정보과, 국민총력조선연맹,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의 열의 넘치는 지원 아래 9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서 극단 아랑, 고협(高協), 청춘좌, 성군(星群), 현대극장 등 5개 단체를 선발하여 한 단체에 3일간 경연을 펼친 바, 영광스런 총독상(단체상)을 노리고 모든 단체가 각본, 연출, 연기, 장치 등 모든 부문에 가능한 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실로 연극보국의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의 열의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고로 그 개화는 다음과 같다

1. 관객동원 수 : 약 45,000명(초대자 포함)

2. 총수입액 : 45,459엔 20전(5개 단체)

3. 수상자

ㄱ. 단체상(총독상, 상패 및 상금 500엔) : 극단 아랑, 고협

ㄴ. 각본상(정보과장상, 상패 및 상금 500엔) : 유치진(柳致眞)

ㄷ. 연출상(상패 및 상금 200엔)

조선황도문화협회장상 : 청춘좌 나웅(羅雄)

조선연극문화협회장상 : 아랑 안영일(安英一)

ㄹ. 장치상(매일신보사장상, 상패 및 상금 200엔) : 청춘좌 원우전(元雨田)

ㅁ. 연기상(상패 및 상금 100엔)

조선군보도부장상 : 아랑 황철(黃澈)

황도문화협회장상 : 성군 서일성(徐一星)

경성일보사장상 : 고협 박학(朴學)

동 사장상 : 성군 유경애(俞敬愛)

총력연맹선전부장상 : 현대극장 김양춘(金陽春)

방송협회장상 : 청춘좌 김선초(金仙艸)

#### 5. 생조포(生粗布)와 양침의 배급

무대장치의 자재 중 가장 중요한 생조포와 양침은 전시하 각 단체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본회의 이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배급을 받아 새로운 각본에 의해서 상연되는 경우에 적정 배급을 하는 한편, 가설 막의 작성 수리에 있어서도 배급을 받아가며 점차적으로 금후 점점 더 원활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 올 것이기에 중앙공연과 같이 단기 공연의 경우에는 종이나 기타에 의해서 선처하는 것에 미술부원들에게 자재절약을 여행고구(勵行考究)시키고 있음.

#### 6. 후생고문 및 법률고문의 추대

본회원 또는 임직원이 건강을 해쳤거나 혹은 법률상에 사태를 야기한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후생고문 4명(모두가 의학박사) 법률고문(변호사) 1명을 추대하여 사태 발생 때마다 각각의 선처를 하고 있음.

#### 7. 연극문고의 설치

연극문화에 관한 지식을 보급, 고취하기 위하여 연극에 관한 도서를 구입하여 연극문고를 설치하고 일반회원 및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8. 국어전해운동

내선일체의 구현과 일본문화의 양양은 국어의 보급상용이 선결과제이며, 국어 해독자는 절대 상용하도록 하며, 미해독자에 대하여서는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단원 중 인격교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잉여 시간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을 내어 책임 교수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 입회를 하는 자는 해독 정도에 따라서 일단 시험을 한 후에 회원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급상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9. 각본의 엄선 독려

결전하에서 전시 생활의 강화 촉진과 건전한 일본적 정신을 불어넣는 각본을 선정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겨, 명년도부터 실시될 징병제도와 전력 증강을 위한 생산 확충을 취재한 것 등을 각 단체에서 절대적으로 상연하도록 중용 지시를 가하고 있음.

#### 10. 불건전 단체의 통합

같은 사명과 목적의 달성에 매진해가면서 상호 분리 대립하여 각각의 행동을 취하고 자력의 결핍, 운영 방법의 졸렬, 단원의 인적 부족 등에 의해서 단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긋남과 마찰을 일으켜서 통제상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례를 거울삼아 가맹단체 중에서 다음에 같이 통합하여 전시 하 불건전 오락의 제공에 유감이 없도록 지시를 가하고 있음.

1. 대동가극단과 선일(鮮一)창극단을 통합하여 반도창극단으로
2. 창극좌와 화랑을 통합하여 조선창극단으로
3. 한양창극단과 조선 연무대(演舞隊)를 통합하여 동일(東一)창극단으로
4. 흥아서커스와 대야(大野)서커스를 통합하여 대륙서커스단으로
5. 태전(太田)서커스와 도(都)서커스를 통합하여 아세아서커스단으로
6. 금전(金田)서커스와 평산(平山)서커스를 통합하여 대양서커스단으로
7. 서본(西本)서커스와 목촌(木村)서커스를 통합하여 동아서커스단으로

#### 11. 해외에 있어서 공연의 적정화

본회 산하의 가맹 단체에 대해서는 종래 조선 외에 진출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 본회에 아무런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궤도를 이탈하는 사태를 야기하여 조선 연극문화인의 체면을 더럽히는 물론이고 통제상에도 암영을 드리우는 것이 있었음을 거울삼아 만주, 중국 혹은 일본 등에 진출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그 상연하는 각본, 연출, 연기, 장치의 각 부문에 걸쳐서 협회에 일단 검토를 받는 것으로 하여 특히 만주 관내의 경우에는 조선군 보도부가 추천한 단체에 한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2. 회원의 호적 정비

본회 회원 양친의 부주의 등으로 호적상의 입적 수속을 밟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원중의 교부, 그 외에 업무 처리상 여러 가지 착오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서는 징병제도 실시를 눈앞에 두고 황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전 회원에게 매년 8월에 호적등본을 가져오게 하여 신원을 확인토록 하여 무적자에 대하여서는 소속단체의 대표자에게 각각의 그 나름의 정비를 가해 나아가고 있음.

## 13. 부정회원의 숙청 공작

진정으로 연극문화의 양양을 기하는 것에는 우선 이것에 헌신하는 회원 개개인의 소질의 향상, 품성의 도야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일단 입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강을 세우고, 또한 연극문화인으로서의 면목을 훼손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제명 처분, 자격 상실 처분 등으로 처리하여 청소공작을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 입회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본인을 직접 오게 하고 일단 인물 고사를 하여 건전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있음. 덧붙여서 본회 설립 당시(1942년 7월 26일)부터 금년 3월 말까지에 있어서 회원 자격 상실에 처해진 자 및 퇴회자는 다음과 같다.

- ㄱ. 제명처분에 처해진 자 1명
- ㄴ. 자격상실에 처해진 자 244명
- ㄷ. 퇴회자 95명
- 계 340명

## 14. 건전 회원의 생활 보장 조장

회원의 소속 단체의 이동은 대부분 대우상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여 대표자와 연기자 사이에 불평불만의 마음을 품고서 즐겁지 않은 사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유감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예능에 정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체명 혹은 개별적으로 이것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단체 운영자에 종용하는 한편으로 회원과 단체 운영자 사이에 계약서를 제출하게끔 하여 건전 회원의 생활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5. 병기조제 기금 헌납

용맹무쌍한 황군장병의 전과에 응답하는 한편으로 격멸의 병기조제 기금에 일보하기 위해 3월 10일의 육군기념일에 연극문화인으로서 애국 열성의 발로로서 회원 개개인의 응분의 거금으로 조선군 보도부에 일금 일천원의 헌납 수속을 하였음.

## 16. 한해(旱害) 의연금의 교부

작년 여름철에 남조선 및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북도 일대에 한해가 상당히 심하여서 재해 농가 상당 다수의 가난함에 동정을 참지 못하여서 전회원에게서 응분의 의연금을 모금하여 올해 2월 26일에 조선사회사업회에 일금 699원 50전을 교부하였음.

## 17. 그 외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하여 연극문화인으로서의 특수한 입장에 대하여 저축의 여해, 국채의 구입을 하

도록 하여 일상적 생활수준을 낮춤으로 일선 장병과 마음을 합하여서 전시 생활에 철저하도록, 지시 독려를 가하고 있음.

(조선연극문화협회 역원 명단 하략)

〈출전 : 「1942年度(自1942年7月26日ノ至1943年3月31日分) 事業經過報告書」, 1943년 1월 10일  
早稲田大學 坪内博士記念 演劇博物館 소장〉

## 7. 조선연극협회

### 1) 조선연극협회 결성기념, 연극과 신체제 특집

#### 1. 9개 극단을 망라하여 회합

연극의 건전한 발달과 연극인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문화의 새로운 건설에 공헌하자는 목적으로 경무국 통제 아래 극인의 행동과 사업을 단결하자는 조선연극협회는 1940년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부민관 중강당에서 그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본부에서 경무국장대리 야기(八木) 경무과장, 학무국장대리 계(桂) 사회교육과장을 비롯하여 전선 각지에 흩어져 순회 중에 있는 아랑(阿娘), 청춘좌(靑春座), 호화선(豪華船), 황금좌(黃金座), 연극호(演劇號), 예원좌(藝苑座), 노동좌(老童座), 조선성악연구회, 고협(高協) 등 -경무국에서 지정한 아홉 극단체 전원 300여 명을 대표하여 사극단에서 두 명 이상씩 출석하였는데 먼저 김관수(金寬洙) 씨의 개회사에 이어서 박진(朴珍) 씨가 결성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후 규약 및 기타 사항을 결의한 다음에 임원선거에 들어가 회장에 이서구(李瑞求) 씨, 상무이사에 김관수 씨, 이사에 박진, 유치진(柳致眞), 최상덕(崔象德) 3씨, 감사에 심영(沈影) 외 2씨가 추거되었고 3시가 지나 폐회하였는데, 이제부터 이 기관의 기능은 연극인의 양성지도, 연극에 관한 조사, 지방순업에 대한 지도개선, 연기인의 표창 등 -여러 방면으로 연극을 통하여 직역봉공의 실을 거두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 결성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극작가 동호인이 따로 자리를 모아 작가 15명이 '극작가협회'를 결성, 신체제에 발맞추어 연극협회와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 회장에는 이서구 씨라고 한다.

#### 2. 12월 22일경 결성식 거행

총후 대중의 제일 친한 연극을 통하여 내선일체의 큰 이상을 실현하며 따라서 총후 인식과 활동을 더욱 뚜렷이 하도록 하고자 하여 '연극의 신체제'를 제정하는 조선극단의 유지들은 오래전부터 극단의 통합조직을 계획하던 바 드디어 지난 12월 22일 조선연극협회를 결성하기로 되었다.

극단인들의 이러한 진취적인 활동에 대하여 그 사명이 문화적이며, 또한 예술 향상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연극을 통하여 총후 대중을 지도하는 큰 뜻을 총독부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하게 되어 이번에 협회를 조직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는 각도에 지부도 설치하고 시국적이며 새로운 의미의 연극운동에

횃불을 들리라는 것이다.

이번 협회가 조직되어 연극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연극의 기술적 향상과 내용 충실한 각본을 상영하여 하나의 큰 문화운동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터이므로, 이 협회 밑에 가맹할 각 극단에서는 종래와 다른 각도에서 민중에게 외치는 연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이 협회는 연극인들의 지도기관으로서도 존재가 클 것이므로 이 협회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많다고 한다.

〈출전 : 「朝鮮演劇協會結成紀念, 演劇과 新體制特輯」, 『三千里』 1941년 3월호, 160~162쪽〉

## 2) 극단 총진군의 시기, 연극보국에 매진하라, 연극협회 통첩(기사)

대(對) 미영(米英)개전의 포화를 열자 반도 문화 각 기관은 한층 더 결전체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멸사봉공 문화보국의 맹서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는데 조선연극협회에서는 9일 대 미영 개전에 관해 반도 육백여 명 연극인에 보내는 통첩공문을 발(發)하여 협회소속극단과 일반대중에게 금후 일층(一層)자숙(自肅)은 물론 관중의 지도와 사기를 도우며 아울러 자숙을 환기하였다. 여기 그 본문을 적으면

드디어 전단(戰端)은 열리었다. 어는 우리들 국민이 다같이 예기(豫期) 하였던 사실로서 이제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다.

용장무비(勇壯無比) 한 우리 육군 황군의 광군(光軍)을 잇는 승리가 있을 것을 굳게 신뢰하고 만약 여타한 고난에 조우할 지라도 이는 평소부터 아등(我等)국민(國民)이 당연히 질 충후의 책무로서 금후 더욱더욱 단결을 견고히 하여 써 태연자약(泰然自若) 대국민인 금도(襟度)를 시(示)할 때이다 인하여 자금 각 극단 및 기타회원에 있어서는 당국 또는 협회로부터의 일정한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일사불란한 태세를 견지하여 직감봉공(職城奉公)의 실(實)을 거(擧) 하기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그리고 각 극단원 일반연극인에게 발한 특별지시사항은 별항과 같다.

1. 종래 상연하야 오던 각 본 중필승태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곧 자발적 철수를 단행할 것
2. 개연 전에는 심분 내외를 기해 전원이 무대에서 애국가요의 제창을 행하여서 사기를 고무할 것
3. 회원들은 금후 더욱더욱 자중자계하야 전시하 국민으로서의 도를 그르치지 말 것
4. 각 애국□에서는 금주 금연 또는 불급불요한 물자의 구입을 금하고 □□□의 □□을 □행할 것
5. 각 극단에서는 협회와의 연락을 종래보다 더 일층 긴밀히 하고, 비상사태에 선처할 것 이상.

〈출전 : 「虜虜總進軍의 시기, 演劇報國에 邁進하라-演劇協會通牒」, 『매일신보』, 1941년 12월 11일〉

(하략)

## 8.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개황

#### 설립 경위

조선의 영화제작회사가 일본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근본이유는 요컨대 조선의 특수사정이라는데 귀결한다. 조선은 총독정치가 실시된 지 30년 남짓, 그 사이에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으나 아직도 일본과 비교하면 예술, 문화, 경제의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 틀린 것이 있으며, 민중의 일반 지식 정도도 일본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언어, 풍속, 종교 등이 다르므로써 일본영화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게 된다.

또 현재 조선인구 2천 4백만 명은 일본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대륙에 접하고 있는 조선의 위치라는 것은 동아공영권으로 보아서도 매우 중요하며, 그 문화향상의 책무를 짚어지는 영화의 사명은 더욱 중대한 것이다.

영화계의 통합문제는 관민 관계자 사이에서 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으나, 작년 봄 일본에서 영화 신체제가 확립됨과 동시에 이 문제도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즉 종래 조선내의 영화업자가 다음과 같은 10개사로써 결성되고 있었던 조선영화협회 내에서 업자의 자발적인 합동운동이 대두, 총독부 도서과 지도하에 신 회사설립이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합동문제의 대두 중에 당국인 도서과장은 후루카와(古川), 개정(簡井), 혼다(本多)의 각 과장을 거쳐서 현재의 모리 과장에 이르고 있다.

조선영화주식회사자본금 5십만 엔, 대표자 최남주(崔南周), 주요 주주, 이사 야기 호타로(八木保太郎), 이재명(李載明) 고려영화협회[유나이티 대리점 만영출장소, 삼영사(三映社) 대리점 등을 경영, 이창용(李創用) 씨 개인 경영이나 외화배급수입 등으로 상당히 번성하고 있음 조선문화영화협회[공칭자본금 십5만 엔, 대표자 쓰무라 이사무(津村勇)] 한양영화사[공칭자본금 2십만 엔, 대표자 김갑기(金甲起)] 경성영화제작소[대표자 야나무라 기치조(梁村奇智城)] 명보영화사[대표자 이병일] 경성발성영화제작소[대표자 다카시마 긴지(高島今次)] 황국영화사[대표자 후루하타(降旗耕造)] 동양토오키제작소[평양, 대표자 이창근(李昌根)] 선만기록영화제작소[16밀리, 대표자 구보 요시오(久保茂雄)]

그러나 신 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상 10개사의 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인계하기로 했다.

명칭은 조선영화주식회사 자본금은 2백만 엔으로 받기설립방법을 채택하고 받기인 40명으로 회사의 총주식수 4만주(1주50엔)를 인수하여, 대주주에는 조선 재계의 거두인 경성상공회의소 부대표 다나카 사부로(田中三郎), 조지야(丁子屋 : 현 미도파백화점) 사장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 백화점 화신사장 박홍식, 조선 자전거제회회사사장 다카이 다케오(高居武雄) 등 여러 사람을 비롯하여, 모두 내선의 유력자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주요한 주주 및 그 인수 주식은 다음과 같다.

다나카 사부로(9,050주), 김성호(金聖浩)(4,000주), 아라이 도시쓰기(新井俊次)(3,100주), 다카이 다케오(高居武雄)(3,000주), 하본준석(河本駿錫)(2,500주),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2,000주), 오타니 옹오

(大谷雲甲)(2,000주), 다카기 데이이치(高木定一)(1,900주), 주식회사 화신(1,250주), 방태영(方泰榮)(1,000주), 이호택(李楷澤)(1,000주), 구로가와(黒川宮作)(1,000주), 마쓰모토(松本高昭)(1,000주), 합자회사 삼양사(1,000주)

제작과 배급이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배급사 사장과 동일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적은 다나카 사부로 씨가 사장에 지명이 되어, 1942년 8월 14일 정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달 28일 주무관청(총독부 도서관)의 인가를 얻고, 9월 2일 조선영화령에 의한 제작업의 인가를 받은 후 9월 15일에는 제1회 불입(8십만 엔)을 마쳤다. 그리고 9월 19일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결과 이사, 감사의 선임을 하고 그날로 사장 이하 다음과 같은 임원을 결정, 그달 29일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신 회사는 무사히 성립했다.

사장 다나카 사부로, 상무이사 나카다 세이고(中田晴康), 이사 방태영, 하본준석, 박홍식,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 다카이 다케오, 다카기 데이이치, 김성호, 노자키(野崎眞三), 상임감사역 곤도 켄이치(近藤廉一), 감사역 오타니 옹요.

본사내의 조직은 금년 6월 1일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재개편이 이루어졌으나 다나카 사장 아래에 전무는 당분간 공석인 채, 오로지 나카다 상무가 일체의 지휘를 하고, 총무, 제작(촬영소), 경리, 인사의 4부제 하에 인사부에는 인사과, 총무부는 서무, 자재, 업무, 선전의 4 과 및 지점, 출장소를 통괄, 촬영소에 기획 이하 제1 제작(극영화), 제2 제작(문화영화), 제3 제작(시사영화), 진행, 기술, 미술, 연출, 촬영, 연기 등 10개 과를 두고, 경리부에 회계와 관리의 2 과를 두는 외에 상임감사역 직속의 감사부에 감사과가 있다. 또 총무, 제작, 경리의 3부의 연락기관으로 연락심의회가 설치되어 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다.

본사의 사무소는 경성부 황금정 1정목 205번지(전화 본국 6671, 8274번).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사는 영화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화제작
2. 영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투자
3. 앞의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 회사는 본점을 경성부에 둔다.

제4조 본 회사는 자본총액을 금2백만 엔으로 한다.

제5조 본 회사의 공고는 경성일보에 게재하며 이것을 이행한다.

### 제2장 주식

제6조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4만주의 주식으로 나누고 1주의 금액을 금5십엔으로 한다.

제7조 본 회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십주 권, 5십주 권 및 백주권의 3가지 종류로 한다.

제8조 주식대금 제1회의 불입은 1주당 금 2십엔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금액 및 불입기일은 이사회에서 이것을 정한다.

주식대금 불입을 연체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불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불입완료일까지 금 백엔에 대하여 하루 금 5전의 비율로 연체이자 및 연체로 말미암아 생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본 회사 소정의 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본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는 당사자 쌍방의 청구서에 연서(連署)하기로 한다.

주권의 이서(裏書)로써 주식의 양도에 따른 명의 개서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취득자에게 이것을 청구하기로 한다.

상속, 유증(遺贈), 경매, 판결, 성명 변경, 기타 양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명의 개서는 그 원인을 입증할 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것을 청구하기로 한다.

질권 설정, 이전 및 소멸 등기에 대해서는 명의 개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개서 및 질권 등록의 수수료는 주권 한 장에 대하여 금 3십전으로 한다.

제10조 주권의 심한 손상이나 분할 합병에 따라서 신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구 주권을 첨부하여 이를 본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단 주권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진정한 것임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의 상실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주권의 상실에 따라 신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자는 본 회사의 소정청구서에 제권(除權)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전조 및 본조의 규정에 의한 신 주권의 교부 수수료는 신 주권 한 장에 금 1엔으로 한다.

제12조 주주, 등록 질권자, 수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본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변경이 있을 때도 역시 같다.

본 회사는 인감의 진정이나 본인 능력 혹은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의 다음날부터 해당하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 등록을 정지한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일부터 그 총회가 종료하는 날까지 역시 같다.

전항 이외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공고상 일정기간의 명의 개서, 질권 등록 및 신탁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 주주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하며 정기총회는 해마다 2회 결산기 말일의 다음 다음



달에 열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5조 주주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본 회사의 주주여야 한다.

전항의 대리인은 본 회사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제16조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주주의 과반수로써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임원

제17조 본 회사에 이사 12명 이내, 감사 3명 이내를 둔다.

이사 및 감사는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선과 중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시 주주총회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할 때에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9조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한다.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않고 또한 현임자의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보궐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는 호선(互選)으로 사장 겸 대표이사, 전무이사 각 1명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역은 호선으로 상임감사역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앞의 2항은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21조 이사사장(대표 이사)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사장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또 의장이 된다.

이사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전무이사가, 또 전무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는 상무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순차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사장이사의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임원(이사)회는 이사회원으로써 조직하고 그 결의는 출석 이사 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3조 본 회사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상담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5장 계산

제24조 본 회사의 결산기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로 하며, 매 반기를 한 결산 기간으로 해서 기말 결산을 한다.

제25조 매 결산기간의 총 이익금 중에서 총 손실금을 공제하고 또 다시 상각금액을 재공제하고 그

잔액을 이익으로 하며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법령에 준거하여 이와 달리 처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법정적립금                      백분의 5이상
- 별도적립금                      약간
- 직원퇴직수당적립금              약간
- 임원상여금                      약간
- 주주배당금                      약간
- 후기이월금                      약간

제26조 주주배당금은 지불 개시일부터 만 3년간 지급 청구가 없을 때는 해당 주주로부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27조 주주배당금은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 질권자, 기타 수령권자에 대해서 이를 지불하기로 한다.

#### 부칙

제28조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본 회사 제1회의 결산기는 본 회사 성립일부터 194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본 회사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설립 비용은 설립 등록세 외에 금 1만 2천 엔 이내로 한다.

제31조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함)

본 정관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1942년 3월 1일 이것을 작성하여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서명 조인하였음. (이하 생략함)

#### 제작 상황

본격적인 촬영소의 건설이 계획 중이나, 현재는 광희정(光熙町) 1정목 5번지, 구 조선문화영화협회가 사용하던 가옥을 증축해서 제작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촬영설비라는 점에서는 현상, 녹음을 제외하고는 스테이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심히 불비(不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작 중인 “조선해협”은 야외촬영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젊은 모습”의 세트촬영은 일본 다이에이(大映)촬영소를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면서도 나카다 소장의 제작에 대한 힘찬 정열은 병든 몸을 채찍질하고 진두지휘를 맡으며, 또 각 제작 관계자는 일치단결하여 그를 보좌하고, 조선영화제작의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그 의욕이 넘쳐흘러 자재, 인재의 부족을 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제작은 먼저 제2과(문화영화), 제3과(시사영화-조선시보)에서 시작하고, 극영화에는 곧바로 착수하지 못했다. 제작 편수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기획에 신중을 기하고 준비 기간도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회사 설립 날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했던 것이었다. 드디어 결산 제1기에는 조선시보 3종(제1보부터 제3보까지), 위탁영화 3종(별도 기재)이 완성되었을 뿐, 다른 것은 모두 제작도중이나 또는 기획 중으로 끝났다. 1943년을 맞이하여 제작활동은 활발하게 되어, 조선시보는 제4보로부터, 문화영화도 별지와 같이 완성을 보았으며, 또 대망의 극영화도 4월 초순부터, “젊은 모습”, “조선해협”이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후자는 이미 완성, 개

봉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할 것은 “젊은 모습”이 제작의의가 매우 컸으므로 완벽을 기하는 데는 조선 측 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연출진의 배우군을 일본의 제작 3사에 지원을 기다렸으며, 3사도 흔쾌히 이를 수락하여 내선일체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영화가 그러한 대규모로 일본과 합작한 예는 앞서 “당신과 나”가 있으나, 이것과는 제작의 출발점에서 취향을 달리 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영화는 징병령 실시를 경축하는 조선의 상황을 일본에 강하게 인식해 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상영을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조선해협”은 순수하게 조선 측에서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조선 안에서만 상영되기로 되어 있다. 또 기타 신 작품도 몇 가지 기획되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시보는 매월 1회, 문화영화는 계발선전을 주로 한 것을 중심으로 조선 내에서 일어난 중요사건과 그 외를 집록(集錄)하여 발표한다. 기성작품은 다음과 같다.

제1보 : 아아! 남방의 주춧돌 합동고별식, 저축공로자표창식, 제18회 전선기마대회, 치안의 명복을 빈다, 불타는 정성. 12월 9일 개봉.

제2보 : 대동아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1억 백성의 말은 하나, 국민 개병(皆兵)에 불타는 화로. 12월 23일 개봉.

제3보 : 농촌 신년, 영국군 포로를 수용하다, 대륙의 방호는 엄격하다, 연두사(年頭辭). 1월 4일 개봉.

제4보 : 애국 백인(百人) 일수(一首), 동계 연성 빙상경기대회, 싸우는 백의천사 바다를 지키다. 2월 8일 개봉.

제5보 : 나도 당신도 결전이다, 원시림과 싸우다, 대동아건설보, 철벽의 준비 방공진. 3월8일 개봉.

제6보 : 연성연보(鍊成年譜), 교육자 간담회, 싸우는 여성, 어뢰와 포탄을 우리의 정성으로, 수송 결전진(決戰陣). 4월 15일 개봉.

제7보 : 만주황제폐하, 수풍담, 천황의 순회 수렵, 찬연한 이 위용(威容), 생산전사 영광 있으라, 조선마자령(馬藉令) 시행, 이 은총에 우리들 총력으로 보답. 5월 13일 개봉.

## 문화영화

### 〈자주작품〉

「조선에 온 포로」 : 표제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조선에 수용된 영국군 포로수용소에서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 군이 그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황은(皇恩)의 광대(宏大)함을 알다. 조선군사령부 후원 안전영(安田榮) 편집, 금정성일(金井成一), 최순흥(崔順興) 촬영의 1권. 3월 8일 개봉.

「1944년」 : 1944년부터 실시되는 조선 징병제를 보급선전하는 영화로, 군대내의 생활에서 징병검사, 입영, 징병의 감격이 그려져 있으며, 소집되는 날을 앞두고 징병 적령 소년을 위한 해설이 나와 있다. 조선군 보도부 후원 하에 일활에 있었던 모리나가(森永健次郎)의 연출, 뇌호명(瀨戶明)의 촬영, 중천영삼(中川榮三)의 음악으로 제작된 이것은 총독부가 추천하여 3월 22일부터 홍백(紅白) 양 계열에 일제히 개봉되었다. 또 5월 25일 내무성의 문화영화로 인정받았다. 3권.

「반도의 처녀들」: 여학교, 공장, 농장 등에서 발랄하게 싸우는 젊은 여성군상을 그린 음악영화. 연출 이병일(李炳逸), 촬영 김정성일, 음악 김해송(金海松). 3권. 5월 22일 백(白)계열 개봉.

「영광의 날」: 조선에도 해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감사와 환희를 그린 것으로, 해군 기념일인 5월 27일에 흥백 양 계열에서 일제히 개봉되었다. 1권.

「빛나는 승리」: 동(銅) 회수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든 영화로, 가정에서 헌납된 낫쇠가 어떻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 〈위촉작품〉

「다나카총감의 연설」: 조선총독부 정보과 위촉, 1권. 「고이소(小磯)총독 운산광산 시찰」 일본광업주식회사 위촉 2권. 「우리는 이제야 간다」는 징병제 보급선전영화로서, 12월 30일부터 일반영화관에서 상영, 또 배급사의 이동영사반에 의하여 각지에 순회 영사되었다.

#### 결산보고 [제1기 말(1942년 12월 31일) 현재]

##### ▽재산목록

자산 부문	엔
불입 미수금	1,200,000·00
배급사 출자금	50,000·00
기계 기구	206,462·30
촬영기 및 부속품	54,594·30
녹음용 기구	80,009·00
조명용 기구	4,194·00
현상용 기구	46,924·00
승용자동차	7,500·00
준기비품	111,063·05
전화 3대 기타	
시사영화	11,661·19
조선시보 제1보, 제2보, 제3보	
필름	11,521·56
네가 필름, 포지 필름, 사운드 필름	
반(半)제품	14,788·35
1944년, 반도의 처녀들, 젊은 모습, 현상용 약품, 기타	
정기예금	400,000·00
은행당좌예금	6,107·32
미수금	12,200·00

가불금	11,483·91
창립비	11,070·99
설립등록세	2,200·00
현금	646·15
합계	2,073,538·00
부채의 부	
주식대금	2,000,000·00
차입금	50,000·00
감가상각 총당금	23,538·00
합계	2,073,538·00

#### ▽손익계산서

제1기(1942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의 부(部)	엔
수입이자	296·77
응원료	510·00
잡수입	464·90
영화수주 이익	10,565·24
당기 손실금	124,333·20
합계	136,170·11
손실의 부	엔
지불이자	336·00
임원보수	3,000·00
급료 및 수당	50,498·10
여비	8,458,74
영업비	50,364·64
영선비	8,855·03
선전비	2,912·18
광고비	1,057·70
접대비	7,223·09
기계기구 수리비	2,265·44
복리후생비	199·19
창립비 및 등록세 상각비	1,000·00
합계	136,170·11

▽손익금 처분	엔
당기 총 수익금	2,836·91
당기 총 손실금	136,170·11
차감 당기 손실금	124,333·20

이것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앞의 금액을 후기 이월 손실금으로 한다.

〈출전 : 「朝鮮映畫製作株式會社 概況」, 『映畫旬報』, 1943년 7월 11일, 32~34쪽〉

## 9. 조선영화인협회

### 1) 조선영화인협회 결성기념, 영화문화와 신체제 특집

조선영화인협회 회장 안종화(安鍾和)

조선영화인협회가 결성된 것은 영화인의 친목만을 위함이 아니요 국가를 위한 집단의 조성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협회가 관민일체로 되어 국가총력운동에 한 모퉁이의 힘이 되고 혈맥(血脈)의 하나가 되자 함에 그 발족이 있었든 것이다.

분산에서 높은 기치 아래 모인 영화인들은 그 단체적인 훈련에 부족함이 많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향유 있었던 이른바 생활의 자유성이 전연 청산된 것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협회 결성의 1주년이 된 오늘에 영화인은 정신적인 통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황민화됨에 게을리 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그들을 작품상에 영화인협회 결성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경솔한 말이나마 1주년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협회의 첫 자랑이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런 모든 것이 관념적인데 그쳐서도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겨우 제 1보를 내어 디뎠을 뿐이다.

우리 협회원은 그 영화를 한편으로 총후의 민중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생활독본이 되게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대이상을 위한 성전에 있어서 무기도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지를 만드는 무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사가 됨에는 정신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육체의 단련이 있어야 하고 기술의 향상이 있어야 하고 견고한 단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금후 우리 협회가 걸어 나아갈 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협회원 전체의 협력이 없이는 안 된다. 몇 사람의 임원으로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라는 말과 그 의식을 버려야 될 것이다.

마치 화가가 화실에서 여자의 나체나 꽃을 그리는 것보다도 총후 국민생활을 위한 포스터—를 그려야 하고 음악가가 세레나데를 노래하는 것보다도 군가나 국민가요를 더 많이 노래해야만 되는 것같이 우리 영화인은 한 개인의 심경 묘사보다도 지금의 국민전체의 이념을 북돋우는 국민생활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화인협회는 영화인의 명부만이 있어야 족한 것이 아니요, 국민 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문화의 건설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붓끝으로만 말해서도 안 되고 그 행동에 있을 것이다. 실천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인 역시 체위 향상의 필요도 느끼는 바이지만 그 인격의 향상이 있어야만 되겠다. 체위 향상에는 건전한 두뇌를 갖게 하고 그 인격의 향상에는 사물의 판단이 높은 데서 시작되는 까닭이다. 이래서 조선 영화가 향상되며 영화의 내용이 건전하고 영화를 통하여 가리킴이 크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인격에는 지식이 동반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인들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보담 그 맘속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결성의 뜻에는 이것 역시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새로 아는 것은 서로 가리키고 복리를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피차에 부드러운 시선으로 대하고 서로 겸양하는 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과거 조선 영화계를 회고한데서 감히 말함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모든 문화인들의 임무가 함께 큰 것이다. 더욱이 영화인의 임무가 큰 것이다. 우리들의 임무는 한 개의 도시의 영화극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이 두메 속까지에 미쳐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명은 이 영화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하고 전 국민의 생활의 통제에 이 영화가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이 분발할 때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영화인협회의 임무가 뚜렷해진 것이니 먼저 협회는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수련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여기에 한 말씀할 것은 협회의 결성에 있어서나 오늘날의 그만한 성장이 있음도 오로지 주무관청의 끊임없는 애호와 지도가 있었던 결정(結晶)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제작자 여러분에게 드릴 여러가지 말을 줄여서—다만 반성하고 또 맹성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조선영화인협회규약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조선영화인협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경성부에 둔.

###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영화의 건전한 발달과 영화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의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로 하고 따라서 영화를 통해서 내선일체의 실질을 높이려 함.

제4조 본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업을 행함.

1. 영화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출자, 연기자, 촬영자, 기타 영화기술자의 양성 및 지도.
3. 회원의 복리 및 상호 친목에 관한 시설.
4. 기관지의 발행.

### 제3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의 3종으로 함.

1. 정회원 연출자, 연기자, 촬영자, 각본작자, 녹음, 현상, 음악, 기타 영화기술을 직업으로 하는 자.
2.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원조하는 자로서 평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찬조회원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평의회에서 추천한 자.

제6조 정회원이 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서를 가지고 입회금을 첨부하여 입회의 수속을 행할 것.

제7조 정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입하는 자로 함.

제8조 회원으로서 퇴회하려는 때는 서면으로써 본회에 제출함을 요함.

제9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이사회 의결로서 <191> 제명할 수 있음.

제10조 퇴회 및 제명에 의해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입회금, 회비, 기타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음.

### 제4장 임원

제11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둬.

1. 회장 1명
2. 이사 4명
3. 평의원 약간 명

회장 및 이사는 평의회에서 선거한 자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이에 충당함.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지명함. 평의원은 연출, 연기, 촬영 및 기타 부문에서 각 2명을 선거함.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함.

제13조 임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함. 단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 유급으로 함.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단 중임을 할 수 있음.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 제5장 회의

제17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3종으로 하고 회장을 의장으로 함. <192>

제18조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생략함)

## 제7장 기타

제29조 등록에 관한 기능증명서는 따로 설치하는 기능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발행함.

## 제1장 회원

제1조 평의원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영화의 제작에 관여하는 자로서 본회에 대해서 금 200엔 이상을 기부하는 자로 함.

## 제2장 회계

제5조 입회금 및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함.

1. 입회금 정회원 10엔
2. 회비 매월 1엔

제6조 회원으로서 결혼하거나 혹은 사망하는 때는 경조를 해서 금 10엔을 증여함.

## 제3장 표창

제7조 연출, 연기, 촬영, 기타 영화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자에게는 상금을 교부하여 이를 표창함. 전항의 표창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행함. (마침)

〈출전 : 「朝鮮映畫人協會結成記念, 映畫文化와 新體制」 특집, 『三千里』 1941년 6월호, 190~195쪽〉

## 10. 조선음악협회

### 1) 조선음악협회 회칙

제1조 본회는 조선음악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음악의 건전한 발달과 음악가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의 발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

1. 음악의 지도 및 통제
2. 음악회의 개최
3. 음악가 양성 및 지도에 관한 시설
4. 음악에 관한 조사 연구
5. 음악가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시설
6. 기관지의 발행
7. 앞의 각호 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 상 필요한 사항

제5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약간 명
3. 이사 약간 명(안에 전무이사 1명)
4. 간사 약간 명
5. 평의원 약간 명

회장은 본회를 통괄 대표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해 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사항의 심의에 참여한다.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관장 조절하고 회장 유고시는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을 추대한다.

평의원, 고문, 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 이사, 간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에 유급 직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에 방악(邦樂)부, 조선악부, 양악부, 교육음악부, 경음악부의 5부를 두고 각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위원 약간 명

전항 임원 이외 필요에 따라 부부장(副部長)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각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각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2조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지부위원 약간 명

지부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지부 위원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지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 3종류로 한다.

1. 정회원 작곡가, 연주가, 교육음악가, 음악평론가, 음악문필가와 그 외 음악의 기예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 음악에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 찬조회원 본회의 사업에 대해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16조 정회원 준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를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자는 신청서에 입회금 5원을 첨부해 입회의 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본 회원으로서 조선 외에 주소를 이전할 때 또는 제15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퇴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본회에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20조 본회의 회의는 이사회, 평의원회로 하고 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정한 임원이 대신 의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에 부의(附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승인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 중요 사항

제23조 평의원회는 회장, 이사, 간사 및 평의원으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평의원회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본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에게 있어 회의 의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회의는 정수의 과반수 출석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에 의해 그것을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의는 시의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요구해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6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본회의 사업 자금 및 경비는 입회금, 회비, 보조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하는 것도 역시 같다.  
 제29조 회장은 매년도 평의원회에서 전년도 수지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30조 본회 회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출전 : 『朝鮮音樂協會會則』, 朝鮮總督府 學務局 學務課 編纂, 『現行 朝鮮教育法規』, 朝鮮行政學會 發行, 1942년 10월 31일〉

## 2) 악단신체제운동(기사)

악단을 통하여 지역봉공을 하고자 하는 조선음악계의 신체제를 목표로 오늘 11일 아침 11시부터 충독부에서 음악계의 유지들이 모여 조선음악협회 조직의 발기인회를 열었다. 이 발기인회에 모여든 이는 계(桂) 사회교육과장, 히라마(平間) 학무국 촉탁을 비롯하여 김영환(金永煥),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이와사키(岩崎寛), 김메리, 계정식(桂貞植), 요시자와 미노루(吉澤實), 김재훈(金載勳), 다케이 요시코(竹井吉子), 이애내(李愛內), 김관(金管) 씨 외 15명이 모여 조선악단의 재출발과 조선음악계의 신체제에 관한 기탄없는 협의를 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부민관에서 조선음악협회의 성대한 발회식을 거행하고 악단의 500여 명을 총동원시키기로 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음악의 건전한 발달과 음악가의 소질 향상을 도모하며 문화 발전에 공헌할 것을 큰 이상으로 하여 작곡가, 연주가, 교육음악가, 음악평론가, 음악문필가, 기타 음악의 기예를 가진 사람은 전부 정회원으로 망라하리라 하며 협회에는 방악부, 조선악부, 양악부, 교육음악부, 경음악부를 두고 다시 지방에는 지부를 두어 조선악단을 총동원시키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음악의 지조와 통제 음악회 개최, 음악가 표창과 지도에 관한 시설, 음악에 관한 조사 연구, 기관지의 발행 등으로 총후 민중에게 명랑하고 건전한 음악예술을 정신적 양식으로 제공하리라고 한다.

〈출전 : 『樂壇新體制運動』, 『매일신보』, 1941년 1월 12일〉

## 3) 악단의 신발족(기사)

음악의 건전한 발달과 음악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신체제 문화의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그 동안 결성 준비 중에 있던 조선음악협회 결성식은 예정대로 25일 오후 3시부터 부내 태평동 부민관 홀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식장에는 시오바라(鹽原)회장 이하 관계 준비원과 회원 남녀 2백여 명 외에 내빈으로 야나베(矢鍋)총련연맹문화부장, 감자(甘蔗) 방송협회장, 와타나베(渡邊) □사과 학관장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먼저 계(桂) 전무이사의 개회사로 국가제창, 목도, 경과보고, 회칙심의 등이 있는 뒤 다음과 같은 임원 위촉이 있었다. 뒤이어 시오바라 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고 시와씨와 감자씨의 축사와 황국신민서사 제창, 「우미유카바」 조선음악협회 임원 회장 시오바라(鹽原時三郎), 고문 미즈나시(三橋孝一郎),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제창으로 식을 폐회하였는데, 식이 끝난 뒤 곧 축하 연주로 들어가 나가우타(長唄), 시음(詩吟), 오경심 양 독창 등이 있는 다음 동 4시에 폐회하였다. 동 협회는 전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에 지도와 통제는 물론 때때로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음악가의 양성과 지도에 관한 시설이며 음악에 관한 조사연구와 음악가의 친목에 관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었는데 협회 안에 방악부, 조선악부, 양악부, 교육음악부, 경음악부 등 다섯 부를 두기로 되었다. 조선음악협회 임원 회장 시오바라 고문 미즈나시, 야나베 에이자부로 (중략) 전무이사 계광순(桂光淳), 이사 히라마(平間文壽),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기라(木田口), 함화진(咸和鎭), 김관(金管), □□□, 야기 노부오(八木信雄), 창도지(倉島至), 계정식(桂貞植), 다케이 요시코(竹井吉子), 김원복(金元福) (중략) 간사 (중략) 평의원 홍난파, 김세형, 이애내, 임동혁, (하략)

(출전 : 「樂壇의 新發足」, 『매일신보』, 1941년 1월 26일)

## 11. 경성후생실내악단

### 1) 전시하 음악의 건전화, 경성후생실내악단 탄생(기사)

조선음악협회 양악부 사람들에 의해 이번 경성후생실내악단이라는 것이 창설되어 그 지역에서 전시하 국민의 사기양양에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활동 범위는 학교로 나아가 음감교육의 실시를 담당하고, 공장에 있어서는 후생음악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용사를 위문해서는 명랑 쾌적한 정조를 소생시키고 거리로 나가서는 건전음악의 보급 지도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연극방면에서 이동연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한다.

게다가 그 멤버는 무엇보다도 반도 악단에서 쟁쟁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는데, 독창에는 이인범(李仁範), 김천애(金天愛), 바이올린에는 금산생려(金山生麗), 광전철삼(廣田哲三), 동천평수(東川桴洙), 첼로에는 김태연(金泰淵), 트럼본에는 소산유성(小山有聖), 작곡·편곡에는 금성성태(金城聖泰) 씨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경성만이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순회하며 음악의 보급과 일반의 지도를 담당한다고 한다.

(출전 : 「戰時下 音樂の健全化 '京城厚生室內樂團' 生る」, 『京城日報』, 1942년 4월 8일)

## 2) 경성후생실내악단(기사)

- 반도의 중진 연주가들로 조직 결성하여 전시 하 국민예술은 □정하고 고급한 것의 회구하는 바 예술의 각 부문은 예술의 □□백성과 예능적 효과를 주로 한 대중성을 확인하여 국민적인 건전한 데로 매진하는 이 때 음악의 사명은 더욱 중대성을 띠게 되어 반도 음악연주자들은 총후의 음악을 보급하자는 뜻에서 경성후생실내악단을 조직하고 학원, 광산, 직장의 생산지역에 더구나 중앙에서 국민음악을 연주하기로 되었다. 이 연주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회구는 국가적인 □□역할의 사명을 띠고 조직되었는데, 이 악단은 관현을 주로 하는 한편 여성, 남성의 솔로로 독창과 무용도 솔로를 끼워 실내악단의 대향연을 꾸미기에 노력하기로 되어 그 특이한 조직 형식은 시국 하 국민건전 오락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연주대는 전부 9명으로 조직되었는데 단원은 모두 조선의 중진 연주가들이며 그 □□로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로서 이제 단원을 보면, 김천애(독창자), 김생려(제금), 이인범(독창자), 김태연(첼로), 광전철삼(제금), 동천평수(제금), 김성태(작곡지휘), 이유성(트럼본).

〈출전 : 「京城厚生室內樂團」, 『每日新報』, 1942년 4월 7일〉

## 12. 야담 · 만담부대

### 1) 4명이 용약출발(勇躍出發), 작일 천정부(踐政府)서 제1성, 야담만담순회부대(기사)

반도의 2천 4백만은 이제 영예의 징병제를 앞두고 모든 것에 있어 유감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의 준비를 바빠 하고 있는데 이 준비운동에 앞서 전 반도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좀 더 철저한 인식을 넣어주며 또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조선군 보도부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후원을 얻어서 야담과 만담반을 조직하여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간농촌을 두루 찾아 지방의 부로들에게 징병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며 시국인식을 시키기로 되어 야담 만담반을 순회시킨다는 것은 기묘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 20일 의정부의 첫 순회공연을 앞두고 만담반 일행 신정언, 김백소, 김봉, 이화 4씨가 이날 오후 1시 15분 밤 열차로 의정부를 향하여 순회의 길에 올랐는데 이날 밤에는 의정부에서 공연을 하고 21일 밤에는 연천서 공연을 하게 될 터이다.

〈출전 : 「四名이勇躍出發, 昨日踐政府서第一聲, 野談, 漫談巡迴部隊」, 『매일신보』, 1942년 10월 21일〉

### 2) 벽지맹산에서 성황 이룬 야담(기사)

반도인의 최고의 영예인 내명년으로 닥쳐오는 징병제의 취지를 2천 4백만에게 고루고루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군사령부와 총력연맹후원 하에 순회□□야담대 일행은 산간벽지인 맹산에

서는 총력연맹의 후원을 얻어 〇〇의 〇〇를 다한다. 지난 10월 23일 오후 7시부터 읍내 수정(水晶)공립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청중 1,300여 명의 〇〇〇에 신정언(申鼎言) 씨는 국민 최고의 영예(榮譽)(야담野談), 이화씨, 김봉(金峰)양은 충후의 남녀(만재滿才), 김백소씨는 옥일승천(旭日昇天)이라는 제(題)로 각각 〇을 토하여 청중은 박수, 갈채, 〇소로 오후 10시에 〇〇하기를 〇〇히 생각하면서 무사히 폐회하였는데 맹산지방에서 초유의 성황이었다.

〈출전 : 『僻地孟山에서 盛況이룬 野談』, 『매일신보』, 1942년 11월 4일〉

### 3) 신정언(申鼎言), 징병취지 야담만담 행각(1~4)

#### 1

1942년 8월 29일 오전 1시경 - 조선담우협회(朝鮮談友協會) 사무실에서 우리 반도문단의 야광주인 춘원 문호의 〇〇를 맞이하였다. 참으로 의외이다. 춘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얼굴에는 흥조가 넘치었다. 노염에 부대끼 표정이다. 나는 그 의외의 내방에 얼떨떨하여 잠〇간 적저(積阻)하였던 회포도 말하기 전에 그 내의(來意)만을 급히 물었다. 춘원은 매양 단아한 태도로

“급히 만날 일이 있어 방금 댁으로 찾아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길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군 보도부에서 장차 1944년도에 실시할 징병제의 취지를 널리 농산어촌에까지 보급키 위하여 이미 강연, 〇〇 등으로써 선전한 바 있지만 금번은 특히 그대의 야담으로써 그 취지를 알리고 군(君)을 소개하라는 긴탁(緊託)을 받고 온 길어요” 하였다. 과연 의외천만의 군령(軍令)이다. 그러므로 나의 두 어깨는 별안간에 큰 돌덩이로 떠눌린 듯하였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 그런 중임을 감당할 수 있나요” 하니 “천만에!” 하면서 장소는 전선(全鮮)이니 내일이라도 떠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춘원은 약간 의아스러운 기색으로 나를 보았다. 그것은 시일이 그렇게 급하고 장소가 그렇게 넓은데 능히 감당〇〇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였고 나는 시일이 그렇게 급하고 장소가 그렇게 넓은 것도 문제여니와 특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내가 구사일생의 중병을 치루고 오히려 그 여병(餘病)을 전소(全消)하지 못한 때요, 둘째는 벌써 2주일 전에 모처에 북선(北鮮) 순행을 선약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개난처(兩個難處)를 즉시로 단념하였다. 첫째, 내 건강은 생사를 그 생사의 운에 임(任)할 것. 다음 선약 문제는 선공후사의 이유로 배상의 책임을 질지라도 해약하리라 하고 군령을 봉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춘원에게 출발을 쾌락(快諾)하고 아울러 담우협회의 사정을 실고(實告)한 후 1주일간의 여유를 청하였다.

#### 2

1942년 8월 30일 오후 1시경 나는 김백소(金白笑) 군을 만나 춘원 문호 내방의 경과를 상술하고 김백소 군으로 하여금 그 경과를 정식으로 연락이사 덕산(德山)〇(홍개명(洪開明)) 군에게 전하고 연락이사가 또한 정식으로 경무당국에 보고케 할 절차를 말하였다. 그런데 김백소 군을 춘원에게 소개하고

춘원과 동반하여 군부에 이르렀다. 군부에서는 육군 중좌 포훈(浦勳), 군 촉탁 아사다(麻田正紀) 양씨가 우리 5인을 면접하였다. 포(浦) 중좌는 신장은 6척, 기백은 □□, 문자 그대로 위무당당한 풍채요, 아사다(麻田) 촉탁은 다모다재한 책사의 풍도(風度)가 보였다. 포 중좌는 우리를 부른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무풍이 떨치는 그 외모와 친절한 언사의 대상은 거리가 너무나 상격(相隔)한 느낌을 주었다. 포 중좌의 설명이 끝난 뒤 아사다 촉탁은 한 묶음의 서류를 내놓았다. 그것은 경무국, 조선연맹, 매일신보사에 연락을 취한 공문이며 또는 우리 일행이 장차 시행할 순연일정표이다. 그 일정표는 아사다 촉탁의 작성이다. 그 내용은 시일 장소는 물론, 기차 자동차의 연락이며 그 준□시간, 숙소 등까지 총망라한 일목요연한 표이다. 그 표는 내가 아사다 씨를 처음으로 보았던 첫 인상과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말한 바 선약처가 문제여서 필경 솔직히 그 사정을 포 중좌에게 보고한 즉 중좌는 서슴지 아니하는 태도로서 “선약이야 위약할 수 있소. 그렇다면 그 곳 순연 중 지금 말하는 징병령 취지를 넣어서 말하면 양편쌍전(兩便雙全) 아닐까요”라고 허락하였다. 과연 양측의 완벽한 타협이었다. 그래서 선약 순행을 마치고 10월 20일을 기하여 출발하기로 하고 군부를 물러 나왔다.

### 3

우리 일행이 장차 역방할 예정지는 경기도로는 이 제일성지(第一聲地)인 의정부를 비롯하여 연천, 개성, 파주, 포천 등 5처이다. 이것은 일정상 지리의 관계이다. 그런데 일행이 역에 이르자 군연맹 계원이 친절히 맞이하였다. 일동은 즉시 군경 양□를 방문하였다. 특히 서장의 환대는 감사하였다. 석반(夕飯)을 마친 뒤 7시 정각을 기하여 회장인 연무장에 이르렀다. 장내에는 벌써 6만여 명의 내청자(來聽者)로 □□의 기분이 떨치었다. 일동도 기립하여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였다. 이어서 군연맹 이사장(군수)이 □□하여 간곡한 어조로써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뜻과 징병제에 대한 취지로써 열중한 개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개회사를 마친 뒤에 우리 일행의 실연이 대상(臺上)에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순서는 야담, 대화만담, 만담이다. 종목은 이렇게 3종으로 분(分)하였으나 그 의의는 ‘리드’식이다. 화재(話材)를 이렇게 연속성으로 만드는 데는 미상불 고심이 있었다. 그래서 야담은 내가 맡고, 대화만담은 이화 군, 김봉 양, 양인이 맡고 만담은 김백소 군이 맡았다. 삼조(三組)의 연제(演題)가 차례로 진행될 새 장내는 박수와 폭소로서의 수라장의 광경을 연출하였다. 청중은 진실로 유쾌한 웃음과 쾌락한 손벽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징병령 취지를 중심한 시국담의 구절이 입 밖에 떨어질 때에는 그렇게 크게 웃던 입을 다물고 그렇게 몹시 치던 손벽을 거두며 지극히 정숙하고 지극히 긴장한 태도를 지었다. 그래서 폭풍이 몰린 듯하던 장내가 춘□의 물결과 같이 조용하였다.

### 4

그 정숙, 그 긴장 중에는 분명 징병령의 취지와 그 밖에 시국 정세의 □월을 잘 섭취하는 증거이었다. 우리 일행의 제일성은 이러한 박수 중에 십□□를 따라 막을 내렸다. 사회자인 이사장은 □□한 어조로써 “대효과올시다. 우선 나부터 새로이 감명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군국을 위하여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하였다. 진실로 과분한 칭찬이었다. 무릇 우리 일행이 웃음의 재료를 가지고 나선 것은